

난죽일기

이순신 저 | 이은상 역 전쟁 영웅을 넘어선 성웅(聖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임진왜란 7년의 기록. 생사를 다투던 전란 중의 진중일기로,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군사 계책, 부하들의 상벌을 비롯하여 가족의 안부, 투병 생활, 꿈자리, 애틋한 율문 등 개인적 감상까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남아 있어, 인간 이순신의 끈은 심지와 전장에서의 고뇌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난주일기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난중일기》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래피연구소 숭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 이은상 님께 감사를 전하며, 아울러 노산 선생님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삼순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②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차례

역자 해제	6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21
이순신 행적도 · 유적지 · 주요 해전지	52
일러두기	55
임진년(壬辰年)	57
계사년(癸巳年)	79
갑오년(甲午年)	121
을미년(乙未年)	180
병신년(丙申年)	224
정유년(丁酉年) I	277
정유년(丁酉年) II	318
무술년(戊戌年)	345
이순신 연표	350
인명 해설	352

역자 해제

세상에 어떤 이가 거룩하냐? 남을 위해 제 생명을 버리는 이요. 세상에 어떤 이가 위대하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적을 끼치는 이다. 우리 역사상에 가장 거룩한 이, 가장 위대한 이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충무공이라고 대답하리라.

그야말로 자기 몸을 희생하여 나라와 겨레를 죽음 속에서 건졌고, 무너지는 역사를 바로 세워 은혜를 천추에 드리운 이가 바로 그 어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대인격 완성자요, 민족으로서의 대이상 구현자다. 참 인간의 모습을 그에게서 찾을 수 있고, 최고도로 발휘된 민족의 이상을 또한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나간 어느 한때의 영웅만이 아니라, 구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더불어 같이 갈 거룩한 존재요, 또 그는 한갓 제사나 받는 우상적 위치에 계심으로써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고 실천되어야 할 지도 정신인 것이며, 또 그는 다만 한국 민족만이 받들어야 할 작은 범위의 국내적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널리 선양되어 모든 인간들의 의범(儀範)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인물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그를 예찬하는 표어를 생각한 나머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했으며, 또 ‘세세에 변쩍이는 역사의 면류관’이라 했다. 우리 민족에게 광명을 주고 생명의 힘을 준 이이기에 ‘민족의 태양’인 것이며, 또 비록 우리 역사에 어둡고 슬프고 지저분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야말로 승리와 정의로써 변쩍이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면류관’이라 한 것이다.

그는 조선 인종(仁宗) 원년(1545년) 음력 3월 8일 새벽 1시에 서울 건천동(乾川洞)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덕수(德水)이니, 지금의 경기도 풍덕(豐德)이요, 울곡(栗谷)과 같은 종문이었다. 그래서 학자로서의 울곡과 영웅으로서의 충무공을 덕수 문중의 쌍벽이라고들 일컫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만 그들 문중의 이야기일 따름이

요,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그보다 오히려 세종대왕과 충무공을 비기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의 선조 때는 유학의 가문이었고, 또 정명하고 충직함으로써 가풍의 전통을 삼는 집안이었다. 증조부 거(居)는 성종 때에 동궁(東宮)의 강관(講官)으로 있었고, 또 사헌부(司憲府)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감찰 기관인 장령(掌令)으로도 있었다. 너무도 탄핵이 엄정했으므로 ‘호랑이 장령’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이다. 조부 백록(百祿)이란 이도 중종 때의 기묘사화(己卯士禍)에 걸렸던 사람인만큼 강직했던 이요, 다만 그 때문에 아버지 정(貞)은 벼슬을 살지 않아 가난한 집안이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초계(草溪) 변씨(卞氏)요, 자(字)는 여해(汝諧)이며, 희신(義臣), 요신(堯臣) 두 형과 아우 우신(禹臣) 등 사형제 중의 셋째였다. 부인은 보성(寶城) 군수를 지낸 방진(方震)의 외동 따님이었고, 그 몸에서 회(薈), 열(莚), 면(麵) 등 세 아들과 한 딸 그리고 소실에서 훈(薰), 신(薰) 등 두 아들과 두 딸, 모두 합하여 5남 3녀의 8남매를 두었다.

어려서는 유학을 배웠으나, 자라서는 생각한 바 있어 무예를 닦아 28세에 무과에 오른 뒤로, 혹은 함경도로 나가 여진족의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혹은 전라도로 내려가 전라좌수사가 되어 닥쳐올 국난에 대비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47세 전후 7년을 통해 오직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오직 정의로써 일생을 살았으며, 전쟁에 나가서는 백전백승, 모략과 중상으로 옥에 갇혀서도 그는 원망보다는 대의에 늠름했다. 마지막 선조 31년(1598년) 음력 11월 19일 오전 6시쯤, 최후의 노량 해전(露梁海戰)에서 장렬히 전사하니 향년 53세였다.

순국 후 6년 만에 정부의 논공행상에 의하여 1등 공신으로 책정되었고, 45년 뒤 인조(仁祖) 21년(1643년)에 ‘충무(忠武)’의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그 이후 수백 년

을 통하여 공의 유적지와 전승지 바다에 사당과 비석을 세워 공을 기념하고 경모해 왔다. 특히 공의 옛집이 있었던 아산(牙山) 현충사(顯忠祠)는 이제 성역(聖域)을 다시 꾸며, 민족정신의 도장이 된 것이다.

충무공은 단순한 무장만이 아니었다. 정치가요 외교가요 도덕가요 과학자요 그 위에 시문(詩文)과 서도(書道)에까지 능한 문학가였다. 그러므로 그가 쓴 시와 문장과 전쟁 보고서로 위에 바쳤던 장계(狀啓)와, 각처에 보낸 서간 등 어느 것 한 가지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중 가장 귀중한 것은 임진란 7년 동안 전쟁 중에서 그날그날 적어 나갔던 일기이다.

공의 순국 2백 년이 지나, 정조(正祖) 때에 이르러 비로소 내각에 명령하여, 공의 시문과 저작들을 중심으로 공에 대한 행적과 역대 제왕 및 명현들의 공을 숭상 예찬한 시문과 비명을 집대성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요, 그 속에 한 부분으로 채록되어 있는 것이 《난중일기(亂中日記)》이다. 동서고금에 문인, 무사들이 써 놓은 일기가 허다하지만, 충무공의 《난중일기》야말로 가장 귀중한 문헌이 아닐 수 없다.

첫째는 수량으로 7년 동안의 일기인 것이다. 혹 본시부터 쓰지 않은 날도 있고, 또 초고를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남아 끼쳐진 것이 1천 6백 4일 동안의 일기인 것이다.

둘째는 생사를 걸고 싸우던 전쟁 중의 집필이다.

셋째는 그 내용이 공의 엄격하고 지성 어린 진중 생활과 국정에 대한 솔직한 감회의 기록이요, 전쟁 중의 비망록과 군사에 대한 비밀한 계책 등을 기록한 것이요, 가족, 친지, 부하, 장졸, 내외 요인들의 내왕에 대한 기사요, 부하들에 대한 상벌의 기록이요, 정치 군사에 관한 서신 교환 등 광범위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체 사(史)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다.

넷째는 그 문장이 범상한 문인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간결하고도 진실한 것이어서, 피눈물 났 충과 효와 신과 의의 곡진한 기사들은 감격 없이 읽을 수 없는 인간 충무공의 고백인 것이다.

다섯째는 그 글씨가 또한 어떠한 전문적인 서가일지라도 감히 따를 수 없는, 그야말로 명필, 신필에 속하는 글씨인 만큼 국보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민중이 있었다. 거기에 따라 그 일기 속에는 민중의 눈물과 아우성과 호흡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무공은 우리 민족의 구원한 이상ियो 의거요 노선인 동시에, 공의 《난중일기》는 민족의 성전(聖典)이라고도 할 만한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충무공의 유물, 유적이 조금도 상함 없이 길이 보존되어 오는 중에, 이 《난중일기》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보배로이 전해 온 것이다. 공의 친필 초고는 충남 아산 현 충사에 보관되어 왔었는데, 모두 7책 2백 5장이요, 그 밖에 장계, 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 1장이 붙어 있음을 본다.

본시 충무공 자신은 이 일기에 아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뒷날 정조 때에 《이충무공전서》(이하, 《전서》)를 편찬하면서, 편찬자가 편 의상 《난중일기》란 이름을 붙여, 《전서》 권5로부터 권8에 걸쳐서 그것을 수록한 뒤로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공의 친필 초고와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것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전서》의 편찬자가 공의 친필 초고를 가져다가 정자로 베껴 판각에 올릴 적에 주관적 의견으로 말하면 무책임하다고도 말할 수 있거니와, 남의 글을 함부로 생략해 버린 때문에 생긴 결과임은 물론이다.

그 대신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난중일기》에는 실려 있는데, 정작 공의 친필 초고는 언제 잃어버렸는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전서》에 채록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 ① 임진년(1592년) 정월 초하루부터 4월 22일까지의 부분
- ② 을미년(1595년) 1년 동안의 부분
- ③ 무술년(1598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의 일기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의 친필 초고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행히도 초고를 잃어버리고 《전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그것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 우선 여기서는 공의 친필 초고의 책 수와 장 수와 크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제와 장 수	크기	내용
1책	《임진 일기》 27매	세로 25.7cm 가로 34.5cm	임진년 5월 1일~4일, 5월 29일~6월 10일, 8월 24~28일 계사년 2월 1일~3월 22일
2책	《계사》 30매	세로 24.7cm 가로 27.5cm	계사년 5월 1일~9월 15일
3책	《일기 갑오년》 52매	세로 26.5cm 가로 29cm	갑오년 1월 1일~11월 28일
4책	《병신 일기》 41매	세로 25.5cm 가로 30cm	병신년 1월 1일~10월 11일
5책	《정유 일기》 27매	세로 25cm 가로 28cm	정유년 4월 1일~10월 8일
6책	《정유》 20매 (표지 안의 첫 장에 '丁酉'라 적었음.)	세로 23.5cm 가로 24.2cm	정유년 8월 4일~무술년 1월 4일
7책	《일기 무술》 8매	세로 23cm 가로 27cm	무술년 9월 15일~10월 7일
별책	장계 등본 별책에 붙은 1장		무술년 11월 8일~17일

그런데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제5책과 제6책은 두 책이 다 같이 정유년의 일기이므로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일기는 중복되어 있음을 본다.

거기에 대해서, 본시 충무공 자신이 왜 그렇게 다시 쓰게 되었는지 모르나, 제5책에 간지(干支)가 잘못 적혀 있는 것과, 또 내용에 있어서도 제6책의 것이 비교적 좀 더 많이 적혀 있는 것 등으로 보면, 아마 공이 간지 틀린 것을 바로잡는 김에 기억을 더듬어 가며 새로 한 번 더 적어 본 것인 듯하다. 대강 위에서 충무공의 초고본 《난중일기》에 대하여 약간의 해설을 가했거니와, 과연 공의 일기 그 자체는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나라와 정의를 위한 공의 태도가 솔직히 나타나 있음을 본다.

수군들이 본영 앞바다에 모두 모였다. 이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으며 남풍만 몹시 불었다. 진해루(鎭海樓)에 앉아서 방답 첨사, 홍양 원, 녹도 만호 등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모두 분격하며 제 한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의사(義士)들이라 할 만하다. (임진년 5월 1일)

이것이 임진란을 만나 전라도 바다로부터 경상도로 출전하게 되던 첫 무렵의 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그의 일기를 통하여 나라에 해로운 일을 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그릇됨을 무자비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암행어사가 각 고을 수령들의 악행을 덮어 주고 칭양하여 장계하였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나랏일이 이러하고야 평정될 리가 만무하다.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또 수군 일족에 대충 징발하는 일과 장정 넷 중에 둘은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일을 심히 그르다고 말했으니 암행어사 유몽인은 국가

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다만 눈앞을 꾸며 갈 것만 노력하고 남쪽 지방의 종작없는 소리만 믿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사한 말이 악목(岳穆)에 대한 진희(秦檜)와 다를 것이 없다. 나라를 위하는 아픔이 더욱 심하다.
(갑오년 2월 16일)

그래서 공은 자나 깨나 나라를 걱정하는 것뿐이었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불 밝히고 혼자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국사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밤 10시께 홍양이 내가 혼자 앉아 있는 줄을 알고 들어와 자정까지 얘기하다가 헤어졌다.
(갑오년 9월 4일)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랏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또 병드신 팔십 노친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을미년 1월 1일)

혼자 다락에 의지했다. 나라 정세가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 보니 사직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산란했다. 종일토록 누웠다 앉았다 했다. (을미년 7월 1일)

둘째는 군대의 총지휘자로서, 규율이 엄격했던 이였음을 알 수 있다.

중위장(中衛將)을 불러 내일 새벽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썼다. 이날 여

도(呂島) 수군 황옥천(黃玉千)이 집으로 도망간 것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 중에 높이 매어 달았다. (임진년 5월 3일)

이것은 임진란 처음에 공이 경상도 바다를 향해 떠나면서, 맨 처음 군율을 세웠던 첫 기록이었거니와, 그로부터 공의 일기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해롭게 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추호의 용서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모른다.

순천의 거북선 격군인 경상도 사람의 종 태수(太壽)가 도망가다가 잡혀 왔기로 처형했다. (계사년 7월 13일)

이같이 전쟁을 기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서릿발 같았다. 직접 자기 부하로도 인민에게 조그마한 피해를 끼치는 자가 있어도 공은 용서하지 않았다. 더구나 공이 감옥에서 나와 외로운 그림자를 이끌고 초라한 백의종군으로 경상도 초계(草溪)에 있는 권율(權慄) 도원수의 막하에 들어가던 그 무렵의 일이다.

비, 비. 아침에 떠나려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대로 묵었다. 종들이 고을 사람들의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기에 종을 매 때 때리고, 밥쌀을 도로 갇아 주었다. (정유년 6월 3일)

그러나 공은 결코 엄격하고 무섭기만 한, 그런 일면만을 가진 이가 아니었다. 부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즐겁게 하는 데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대로 들어가 앉아 위로하는 술잔을 네 순배 돌렸다. 몇 순배 돌아간 뒤 경상 수사가 씨름을 붙인 결과 낙안(樂安) 임계형(林季亨)이 일등이었다.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즐겁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의 수고를 풀어 주자는 생각에서였다. (병신년 5월 5일)

셋째는 언제나 농민을 위해 걱정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인을 생각하던 이였음을 알 수가 있다.

늦게 큰비가 쏟아지더니 그대로 종일 그치지 않아 개천에 물이 넘쳐 농민들을 만족하게 하니 다행, 또 다행이다. (계사년 5월 6일)

바람은 크게 부나, 비는 오지 아니했다.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염려스러웠다. (갑오년 6월 12일)

이날 밤 소나기가 흡족히 내렸으니 어찌 하늘이 백성을 살리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갑오년 6월 15일)

그리고 공이 어머니께 효도한 것이 참으로 눈물겨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날은 어머니 생신이지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게 되니 평생 유감이다. (계사년 5월 4일)

종일 노를 빨리 저어 밤 10시쯤에 어머니 앞에 이르렀다.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는데, 기운이 흐려져 아침저녁을 보전하시기 어렵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밤이 새도록 위로하여 그 마음을 풀어 드렸다. (병신년 윤8월 12일)

그와 부인에 대한 기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날 아침 탐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는 것이었으니 벌써 생사 간 결말이 났을지도 모른다.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수 있으라마는 세 아들,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꼬. 아프고 괴롭구나. (갑오년 8월 30일)

저녁때 탐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덜해지기는 하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 하니 걱정스러웠다. (갑오년 9월 2일)

넷째는 단순한 무장만이 아니라 정한이 깊은, 눈물 있는 정서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밤, 달은 낮 같고 물결은 비단결 같아 회포가 건디기 어려웠다.
(계사년 8월 17일)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고, 그대로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달 아래 함께 이야기할 때 옥저 소리가 처량했다. 오래도록 앉았다가 헤어졌다.

(갑오년 6월 11일)

이날 밤, 바람은 몹시 싸늘하고 차가운 달빛이 낮과 같아 잠을 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렸다.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밀었다. (을미년 10월 20일)

이날 저녁 달빛은 대낮 같고 바람조차 없는데 홀로 앉았으니 심회가 산란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신흥수(申弘壽)를 불러 통소를 듣다가 밤 10시쯤에 잠 들었다. (병신년 1월 13일)

다섯째는 정신이 맑고 또 지성스런 이였기 때문에 꿈을 꾸면 그 꿈이 심상치 않아 반드시 사실과 결부되는 징조였던 것을 볼 수 있거니와, 그러한 꿈 기사가 많은 가운데 특히 그의 마지막 아드님 면이 전사했을 때의 꿈 기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한다.

새벽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헛디디어 내(川) 가운데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러지지는 않았는데, 끝에 아들 면(勉)이 엮드려 나를 안는 것 같은 형상을 보고 겼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종략-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天安)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어지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겹봉을 대강 뜯고 열(僞)(둘째 아들)의 글씨를 보니 거죽에 “통곡” 두 자가 씌어 있어 면(勉)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십니까,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으면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마는,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연명이야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밤 9시께 비가 내렸다. (정유년 10월 14일)

여섯째는 이 일기를 통하여 공의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든 사실이나 전쟁에 대한 기록 등 가장 신빙성 있는 문헌적 자료가 되는 그것이다.

쇠로 만든 총통은 전쟁에 가장 긴요한 것이건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 온갖 연구를 거듭하여 조총(鳥銃)을 만들어 내었는데, 왜총보다 더 잘되어 명나라 사람들이 진중에 와서 시험으로 쏘아 보고서는 좋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미 그 묘법을 알았으니 도내(道內)에 같은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기로 순찰사, 병사에게 견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돌리도록 했다. (계사년 9월 14일)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는 임진란 7년 동안 수백 차례의 접전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경이적인 전쟁은 1597년 정유년 9월 16일의 명량 해전(鳴梁海戰)인데, 그날의 일기는 그야말로 소설 이상의 진진한 흥미 있는 기사임을 본다.

이른 아침에 특별 경찰 부대가 보고하기를, “적선이 수효를 알 수 없도록 많

이 명량(鳴梁)으로 해서 곧장 우리가 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들어온다”고 하였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1백 30여 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하는 것이라 스스로 낙심하고 모두 회피할 꾀만 내는데,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벌써 2마장 밖에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며 지자(地字), 현자(玄字) 등 각종 총통을 마구 쏘니 탄환은 폭풍우같이 쏟아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몰려갔다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얼굴빛이 질렸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치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 하고 여러 장수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에 몰려가 있는데, 배를 돌려 군령을 내리자 해도 적들이 더 대들 것이라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형편이 되었다.

호각을 불어 중군(中軍)에게 군령을 세우는 기(旗)를 세우라 하고, 또 초요기(招搖旗)를 세웠더니, 중군장(中軍將)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김응함(金應謙)의 배가 차츰 내 배 가까이 왔으며,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의 배가 그보다 먼저 왔다. 안위를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나,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니, 안위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또 김응함을 불러, “너는 중군(中軍)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원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하였다.

그래서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서 나가자 적장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2척에

지령하여 일시에 안위의 배에 개미 붙듯 하여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힘을 다해서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 창으로, 또 혹은 수마석(水磨石) 덩어리로 무수히 치고 막다가 배 위의 사람이 기진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서 빗발치듯 마구 쏘아댔다. 적선 3척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자빠졌을 때 녹도 만호 송여종(宋汝淙)과 평산포 대장 정응두(丁鷹斗)의 배가 뒤쫓아 와서 협력해 쏘아 죽여, 적은 한 놈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투항한 왜인 준사(俊沙)는 안골(安骨)에 있던 적진으로부터 항복해 온 자인데, 내 배 위에 있다가 바다에 빠져 있는 적을 굽어보더니 그림 무늬 놓은 붉은 비단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안골포 적장 마다시(馬多時)라고 말했다. 내가 무상(無上)(물 길는 군사) 김돌손(金玆孫)을 시켜 갈고리로 낚아 올린즉 준사(俊沙)가 좋아 날뛰면서 “그래, 마다시다” 하고 말하므로 곧 명령하여 토막토막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였다.

우리 배들은 적이 다시 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 들어가 지자(地字), 현자(玄字) 대포를 쏘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 적선 31척을 깨뜨리자 적선은 퇴각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싸움하던 바다에서 그대로 정박하고 싶었으나 물결도 몹시 험하고 바람도 역풍이라 형세 또한 위태롭고 외로워 당사도(唐筭島)(전남 신안군 암태면(岩泰面))로 옮겨가서 밤을 지냈다. 이번 일은 참으로 천행이었다.

위에서 대강 《난중일기》의 내용을 인용 검토해 보았거니와 이 저작은 충무공 순국 후 2백 년이 지나 정조 19년(1795년) 9월 14일에 인쇄 반포된 《이충무공전서》 속

에 수록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1백 70여 년 동안 충무공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독물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는 한편, 특히 그것의 친필 초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이 방면의 절대 한 보물이라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모른다. 고전이란 어느 민족에게서든지 그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양식이 되는 것이거니와, 특히 이 《난중일기》나 《이충무공전서》 같은 것은 오늘의 우리 민족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전보다도 가장 긴요한 서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저작은 어느 특수한 학자나 연구가나 또 어느 일부층 사회에서만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읽어서 좋고, 꼭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국민 독본으로서의 성격을 띤 점에서 다른 고전들과는 달리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저술이다.

현재 충남 아산 백암리(白岩里)에 현충사가 있고, 그 현충사를 성역으로 지정하여 민족의 정신적 도장으로서의 대규모 중건을 계획, 이제 그 사업의 완성을 보게 될과 아울러 ‘유물·유적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속에 충무공에게 관계된 여러 가지 유물과 함께 이 《난중일기》 초고도 보관되어 있다.

그 유물로서의 초고본에 대해서는 국보적 가치를 띤 것이라,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겸한 것이거니와,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그것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뜻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난중일기》는 어디까지나 널리 읽혀져야 할 글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문으로 씌어 있는 그 고전을 우리 국어로 번역 주석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노산(鷲山) 이은상(李殷相)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 머리에

가. 이순신 일대기를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치기를 수없이 하다 보니 세상에서 흔히 거론되는 선공후사, 솔선수범, 유비무환, 신상필벌, 진인사대천명, 애국, 소통, 창의, 개척 정신, 용기 등의 이순신의 각종 리더십들이 모두 다 부분적으로 타당성 있는 이순신 리더십의 필수 내용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각 내용의 리더십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현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관성을 갖고 발현되었던 것인지, 연관된 것이라면 그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이에 관해 나는 지속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의 이순신 공부는 그 의문을 풀어보고자 연마하는 과정이었고 연마의 방법은 ‘왜 선공후사 했을까? 왜 솔선수범 했을까?’라는 개개의 리더십 조목에 대한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또 그 답에 대한 원인을 찾아 끝까지 의문을 가져 보는 것이었다.

이 같은 연마의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이순신의 각종 리더십들은 그 밑바탕에 감추어진 뿌리가 있고 이들은 그 원천(源泉)에 바탕하여 사태의 종류와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발현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젠 이를 글로써 나타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짧고 좁은 안목으로 그의 리더십을 표현해 내는 데는 필경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분히 나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도 자인한다. 그래도 남 먼저 그 일대기를 수없이 읽고 그에 관한 글과 책 쓰기를 수십 년간 해 온 사람으로서 독자들과 이순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껴 그의 리더십들의 뿌리를 캐 보려는 망용을 부리고 말았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충무공 평전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었나이다》에 수록된 것으로, 이순신 아카데미와 저서를 통해 충무공의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의 동의를 얻어 수록하였음을 밝힙니다.

나.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파악함에는 다음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그 이해가 용이했다.

첫째, 영웅의 리더십은 그가 한 말, 그가 쓴 글, 그가 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확연히 드러나게 되므로, 영웅이 겪은 어렵고 중요한 고난의 시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찾고자 하는 리더십의 원천을 한결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순신의 리더십들도 그가 가장 역경 속에서 치러 기적적 승리를 일군 명량 해전을 전후해 그가 한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의 원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명량 해전 전후사만 큼은 간략히 살펴본 뒤 그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가 보겠다.

둘째, 영웅과 대비되는 특정 인사가 있다면 그를 등장시켜 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찾고자 하는 영웅의 리더십의 원천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순신의 리더십 원천 탐색도 그를 원균, 진린 등과 대비시켜 보는 방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다 사라진 원균만큼 이순신의 리더십을 드러나게 해 주는 동시대의 인물은 드물다. 그러므로 이 글의 배후에는 자연히 패장 원균이 은연 중 대비되고 있다.

다. 흔히들 이순신이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된 이유를 왜(倭) 수군에 비한 조선 수군의 우월성, 즉 물적으로 거북선, 판옥선 등 전선의 우월성과 탁월한 포격술을, 인적으로 조선 수군의 전통, 용감함과 애국심 등을 꼽는다. 또는 학익진과 같은 그의 전략전술의 탁월함을 꼽기도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전투에서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통상은 외견상 보이는 조건만으로 승리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

마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자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그리해서는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객관적 승리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패했고, 이순신이 명량 해전에서 외관상 이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던만 승리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원균은 이순신이 완벽히 준비해둔 인적·물적 전력을 인수하고서도 왜 완패했으며 이순신은 원균이 패전한 뒤 남은 찌꺼기 병력만 갖고서도 왜 완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가는 핵심적 방법이라고 본다. 이 방법으로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캐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 이순신의 내면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답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2. 명량 해전 전후사

이순신은 전라좌수사가 된 지 1년 2개월 만에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해 4차레나 경상 바다로 원정을 나가 모두 대첩을 거둔다. 이듬해는 한산도로 이진하며 삼도 수군통제사가 된다. 강화 정국을 맞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군비를 강화하며 서해로 가려는 왜군의 뱃길을 봉쇄한다.

1597년(선조 30) 2월 26일 안팎의 모함으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고 정유재란이 발발한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모함으로 투옥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왕은 기어이 그를 사형시키려고 한다. 신하들의 간청으로 사형은 면하나 통제사 직책은 사라지고 계급 없는 군인이 되어 백의종군한다. 그의 뒤를 이어 새 통제사가 된 원균은 7월 16일 칠천량 바다에서 이순신이 5~6년간 양성한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자신도 전사한다. 왕은 할 수 없이 백의종군 중에 있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한다. 부임할 곳이 적에게 이미 빼앗겨 없는

상황, 거느릴 군사도, 써야 할 병기도, 전선도, 대포도 그리고 애써 창제한 거북선마저도 모두 불타 없어진 뒤였다. 그래도 그는 거부하지 않고 재임명 교서를 묵묵히 받는다. 수백 리 길을 돌아다니면서 패잔병을 긁어 모으고 흩어진 무기를 찾아낸다. 적을 피해 도주했던 12척의 전함도 찾아낸다. 그 와중에도 피난민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라에서는 수군이 이미 무력해졌다고 판단해 그를 육군에 들어가 싸우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싸워볼 만하다는 사자후로 수군 폐지론을 잠재운다.

명량은 그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곳. 그는 이곳을 사생결단의 장소로 잡았다. 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싸워 이길 만한 장소는 그곳뿐이기도 했다. 13 대 133의 전투. 12척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통제사로 복직한 지 겨우 40일 만에 준비 없이 치러야 하는 전투. 굶어모은 패잔병과 승승장구하며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침략군과의 전투. 그리하여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전투. 겁이 나서 뒤처지는 장병들을 달래고 꾸짖어 가며 참담한 심정으로 치룬 전투. 그러나 9월 16일 전투가 끝났을 때, 조선 판옥선 13척은 모두 온전했고 적은 반 이상이 깨어지고 도주함으로써 소수 패잔병들이 다수의 승승장구하던 적에 완승을 거둔 기적의 전투였다. 이순신 스스로도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는 전투라 했고, 명나라 장수들도 이 전투의 승리는 기적이라 찬탄했다.

그런데도 왕은, 이순신 수하의 장수들은 이순신의 보고에 따라 모두 승진 포상을 하면서 정작 대장인 이순신은 포상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자신이 포상 받지 못한 데 대하여 서운하다는 말 한 마디 남기지 않는다.

결국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다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으며 왜적은 정유재란에 서도 서해를 넘볼 수 없었다.

3. 이순신의 각종 리더십과 그 원천의 탐색

이순신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말해 두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은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어낸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했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 실패에 빠질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이를 잘 극복해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순신 리더십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 안팎의 온갖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목표한 바를 이루어 성공했는지, 그 방법과 까닭을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순신의 성공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순신이 아니라도 성공한 사람은 많고,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성공법이 있을 수 있듯이 이순신에게도 그만의 성공법이 있다. 이는 이순신처럼 살았기에 성공하는 법이기도 하고, 이순신처럼 살아도 성공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은 이순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그 속에 박힌 그의 핵심적 가치들을 추출해 그 가치들이 그의 성공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회로를 관찰해 봄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찾는 공부법이야말로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탐색하는 핵심작업이다.

가. 애국심으로 충만한 삶

나라 사랑이란 국토와 국민과 사직을 사랑하여 나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에 앞세우는 마음가짐을 이름이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태어나 자라고 죽을 이 나라의 땅을 사랑했고,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동포를 사랑했다. 이 같은 국토와 국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생사 간에 일관되었다. 이 지극한 나라 사랑은 그와 국민을 소통시켜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마침내 기적적으로 구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먼저 그의 국토 사랑에 대해 보겠다.

웅천에 진을 구축한 왜적 진영 가까이 가지 말라는 명나라 도사 담종인의 패문에 대해 “거제, 웅천이 다 우리 국토인데 우리더러 왜의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나?”고 당당히 따진 것을 보거나, 한산도 곳곳에 따로 벼 500 섬을 준비해 놓고 “왕이 압록강을 넘을 형편이 되면 서해로 올라가 왕과 더불어 죽기로써 싸워 국토를 지켜야 하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군신이 서로 안고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국토 사랑을 나라 사랑의 출발점으로 보는 그의 자주적 애국심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 그는 백성을 사랑했다. 그의 글 속에는 한결같이 전란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아픔이 언급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떠도는 피난민들에게 노획한 쌀, 옷, 배를 나눠 주고 위로하며 혹은 수백 명에게 살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바쁘게 길을 가다가도 피난민 행렬을 마주치면 말에서 내려 일일이 손을 잡아주며, 지혜롭게 잘 숨어서 적에게 잡히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싸움을 할 때에 적선을 남김없이 다 파괴해 전공을 높일 수 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적들이 혹시 우리 백성들을 해칠까 봐 도망갈 배 몇 척은 남겨두었다는 얘기, 명량 해전 전에 백성들을 먼저 전장에서 피난케 한 얘기 등은 그에게 전쟁의 목적이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화다. 그의 이 같은 백성 사랑은 가족 사랑, 부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는 누구 못지않게 가족을 사랑했다. 자식들을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했으며, 의지할 곳 없는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챙겨주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를 진중에 모셔 놓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려가며 효를 다한 것은 유명한 얘기다. 나이가 부하 장졸들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다. 부산 해전 중 정운 장군을 잃고는 애통해한 데에 머물지 않고 위에 포상 장계를 올리고 사당까지 지어서 나라를 위해 죽은 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해 주었다. 전투가 끝난 뒤에는 항상 군졸들이 세운 공을 빠뜨리지 않고 위에 보고했으며, 혹 전쟁터에서 싸우다

가 다치면 극진히 치료해 주었고, 죽으면 반드시 제사를 올리고 유족들을 위로했고, 유행병으로 죽은 군졸들까지 제사와 뒷일의 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가족, 부하, 백성에 대한 그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그의 품성에 사랑으로 충만한 어진 심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이순신의 가족 사랑은 자연스럽게 부하 사랑, 백성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며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순신에게서 나온 각양의 사랑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천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의 사랑에는 하나로 순수해서 계산된 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권 사랑에 대하여 본다. 주권에 대한 사랑은 통상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는데, 이순신에게 있어 충성의 대상은 통치자인 왕이 아니라 오로지 사직 즉, 국가였다.

그의 삶은 철저히 탈정치·비정치적이었다. 참군인은 정치권을 가웃거리서는 안 된다. 군인이 정치에 눈을 뜨면 그가 맡은 국가적 책무가 개인의 정치적 욕구에 따라 왜곡되고 경시됨으로써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나라뿐이었다. 왕이나 대신들이 가진 정치권력은 안중에도 없었다. 물론 그가 바친 충성의 추상적 대상으로 왕이 자주 등장하기는 한다(무릇 남의 신하 된 자로 임금을 섬김에는 죽음이 있을 뿐 다른 길이 없다는 등). 그러나 그가 위에 바친 충성을 찬찬히 살펴보면 자기 출세를 위한 사육에서 충성심을 발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왕에게 바친 충성에는 한 점 비굴함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그가 전념한 것은 왕의 사적(私的) 일이 아니라 오직 바다를 지키는 나라의 공적(公的)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 충성의 진정한 대상은 통치자라기보다는 국가임을 간파해 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이순신은 평생을 두고 국민·국토·사직에 지고의 사랑을 바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국토와 국민과 나라를 구해 내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나. 정성 일념의 삶

이순신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불성무물(不誠無物)’이란 옛말이 있듯이 정성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 이순신에 있어서도 정성이야말로 그 성공의 요체다. 이순신의 정성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일이 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으로, 일이 끝나면 결과야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한다(유비무환)

‘성즉명(誠則明)’이란 옛말이 있듯이 정성이 지극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이순신은 지극히 정성스러웠기에 나라의 앞날에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이순신이 환란을 예측한 것만으로 구국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예측과 안목을 기초로 위기를 극복해 낼 완벽한 준비까지 마쳐야 위기를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예측만 했지 준비를 못했다면 이는 점쟁이일 뿐 정성스런 지도자가 아니다.

전쟁에서 준비란 상대방의 전력에 대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유비무환의 정신 속에는 적을 가볍게 보지 않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같이 유비무환 정신으로 무장된 그는 무슨 위기가 발생 때면 항상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데 이 말에는 적의 전력까지 미리 알고 적을 꺾 준비를 다 해 놓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는 말이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전란에 대비했다.

각종 정보를 통해 왜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고 유성룡이 보낸 《증손전수방략》도 감탄하며 연구했다. 경상도 수사나 병사들이 모두 전쟁 준비를 외면하고 안일한 세월을 보낼 때 오직 그만이 나라의 변란을 예견, 훈련하고 또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은 장수는 위기를 당하면 두려움에 빠져 도주하려고만 한다. 전쟁이 일어나자 경상좌 · 우수사, 경상좌병사 모두가 도주한다. 심지어 왕도 도주한다. 그러나 이순신은 난리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 왔기에 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백 리 경상도 바닷길로 원정을 나가 다른 장수가 버리고 간 우리 바다를 되찾는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가 되고 나서도 1년 2개월간 쉬 없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그랬기에 전쟁 발발 하루 전에 거북선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첫 옥포전뿐 아니라 다른 어떤 전투에서도 항상 용의주도하게 뱃길, 물길, 적의 주둔 상태와 전력 규모, 지형지세 등을 소상히 조사했고, 그에 따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4대 승첩이 가능했다. 울돌목을 명량 해전의 장소로 준비한 것이 명량승첩의 큰 이유가 되었으며, 7년간 전대를 풀지 않고 긴장 속에서 온갖 준비를 마쳤기에 왜 적과 싸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한 이 같은 준비들은 이순신이 평소 자기관리와 공부에 철두철미하여 향후 닥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평소 실력을 쌓아놓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평소 실력을 쌓아갔을까.

이순신은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결혼 후부터 첫 관직에 나아간 10년 동안 끊임없이 무술을 연마하고 병서를 공부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황금 같은 10년의 청장년 기간에 그는 치열한 정신수양으로 마음공부를 했고, 이를 통해 인격과 창의적 지혜를 갖추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 사생관, 국가관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순신을 본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깊은 수행을 쌓은 선비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의심 없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같이 이순신은 수양을 통해 자신을 이기는 큰 힘을 얻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기는 큰 힘을 얻었고 이 큰 힘을 얻기까지 이순신은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2) 일을 당해서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한다

다음으로 그는 일을 당해서는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오직 그 일에만 몰입했다. 이순신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최선을 다함을 뜻한다. 세상에서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최선을 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명(命)을 떼어놓고 나오는 군대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는 항상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한다. 임진년의 4차례에 걸친 전투만 보더라도 그는 왜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함대로, 그것도 수백 리 먼 뱃길로 원정 나와 대소 10여 차례의 전투를 치러야 했다. 명량 해전에서는 12척 전함과 패잔병을 모아 그 10배가 넘는 적의 정예병과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어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자면 일에 임하는 그의 정신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진년 첫 해전 출전에 앞서서는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컨대 한번 죽음으로써 기약하고 즉시 범의 소굴을 바로 두들겨...”

명량 해전에 앞서서 조선 수군 폐지론이 나올 때에는,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 하리이다”라 하였다.

명량 해전을 당해서는 다음과 같이 장수들을 독려하였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너희 여러 장수들은 오늘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한 말들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죽음으로써 전심전력 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다. 또 마지막 노랑 해전 몇 시간 전에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라며 저 유명한 최후의 선상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적의 총탄에 맞아 숨이 넘어갈 때도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고 당부한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바로 이것이다! 이순신이 만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오직 지성으로 매사에 임하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 정신자세가 오직 구국에 집중되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척이 있으면 24척으로, 12척이 남았을 땐 12척으로, 죽기로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백전백승의 기적은 이루어졌다.

3) 일이 끝나면 그뿐, 결과야 어찌되어도 과념하지 않는다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끝내면 지나간 일을 다시 되짚어 앞날의 발전에 참고로 삼을 뿐, 이미 끝나버린 일이 초래할 결과를 두고 염려하지 않는다. 이순신도 오직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매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나서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릴 뿐 일체 과념하지 않았고, 남들이 그 결과를 두고 무어라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 그대로 그는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 것이다. 첫 출전에 앞서 임금에게 보낸 글의 말미가 이러하다.

“성공과 실패, 날쌔고 둔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미리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명랑 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그는 “이는 오직 하늘이 도운 것이다”라며 결

과에 초연한 자신의 담담한 심경을 일기에 썼을 뿐 상을 내리지 않는 선조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전투에서나 적선 몇 척을 쳐부수고 잘 싸우면 조정에서 무슨 훈장이나 상을 내릴 것이며, 잘못 싸우면 무슨 벌을 줄까 하는 등의 이불리(利不利)에 관한 사전 계산을 추호도 한 바가 없다. 공과와 상벌을 미리 계산하는 마음에는 사심(私心)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오직 공심으로 최선을 다한 이상 이로운 결과가 와도 좋고 불리한 모험이 따라도 좋았다.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도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또 밝지 못한 군주를 만나 음해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백의종군인들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죽음인들 받아들이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일념(一念)으로 싸워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이순신이 만약 이러한 신념 없이 공을 탐하고 이에 연연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며, 구국의 목표 또한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최선을 다해 정성 일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과 따위에는 꾀념하지 않아도 좋은 심리적 평화와 희열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기쁨은 실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내리는 한없는 위로일 것이다. 이순신에게도 하늘은 한없는 위로를 주었다. 그랬기에 그는 주위의 평판에 흔들림이 없었고, 벼슬이 높아도 넘치는 바가 없었으며, 벼슬을 빼앗겨도 원망과 타락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구국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되 그릇된 길로는 가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방법과 수단으로써만 구국의 목표를 이루어 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부정한 방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진실을 가장해 꾸밈과 꾀수를 쓰지 않았고, 옳고 바른길이면 아

무리 힘들어도 그냥 갈 뿐 좌고우면하면서 흰 길을 가지 않았으니, 그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바른 정의의 외길 하나였다. 이순신의 성공이 이 같은 정의에 바탕했기에 그의 성공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정의의 외길을 갔다는 것은 그가 매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했지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사의 눈치를 보아 예외를 만들고,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서는 바른길로 갈 수가 없다. 그 당시로는 괴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그를 무너지지 않는 승리자이자 영원한 승자로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을 배우고 본받자는 것도 그가 걸어간 위기극복의 길이 오직 바른길이었고, 바른길을 가고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원에서 봉사직에 있을 때 직속상관인 서익의 강압적 인사 요구에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또 발포 만호 시절 직속상관인 수사가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만호영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가려 할 때에도 공물을 사사로이 처분할 수 없다며 거절한다. 또한 금오랑이 조대중의 집을 수색했을 때 압수 물품 가운데 이순신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혹시 정여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괜한 오해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금오랑이 편지를 빼내 주려 하자 이순신은 공물을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오랑의 호의를 거절한다.

이순신은 원칙주의자였고 오직 바르고 항상 정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꾸미거나 남의 눈치를 보아 가면을 쓴 일이 없었다. 체면 때문에 없는 것을 과대포장한 일도 없고, 상사나 동료·부하들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쉽게 동료와 부하들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어려운 사정도 잘 정리할 수 있었다. 또 꾸며대는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에 불리한 싸움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순신이 정의와 승리를 어떻게 연관 지어 생각했는지, 또 임진전쟁을 정의와 불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수가 국운을 걸고 전투를 치뤄 승패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정신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첫째, 삼국시대의 김유신과 같이 정의가 불의와 싸우면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우리는 왜국에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국은 자신들의 가당찮은 욕심을 채우려고 이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백성을 살해한 천인공노의 죄악을 지었으므로 사악한 쪽은 그들이며 우리는 바르다는 확신을 가졌다. 따라서 이순신 군대는 정의의 군대로서 하늘이 도와줄 것이므로 사악한 왜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념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단결을 이루어 마침내 승리한 것이니, 이순신은 정의의 길이 곧 승리의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다. 자력의 삶

이순신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주체는 자신이며, 풀 수단은 자기가 가진 정신적 자주력과 물질적 자립력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제힘으로 세상을 살아 쓰이면 죽기로서 충성을 다하고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고 살면 죽하지, 권세 있는 남에게 아침하고 의지하여 뜯은 영화를 구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설정한 목표를 이루려 했다. 자기에 부여된 책임을 제힘만으로 완수코자 하는 이 자력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주인 정신이요, 자주정신이며, 자립정신이다. 이순신의 성공이 이같이 그의 자력에 바탕했기에 그의 성공은 자기의 것이었

고 남의 것이 되지 않았다.

제힘(자력)이란 자신의 실력을 말하며 실력은 신념을 낳는다. 이순신은 허세나 타력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신념에 찬 행동을 했기에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 목적인 바를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그의 것이 되었다. 그는 결코 아첨으로 당파에 기대거나 남의 힘에 의존해 자신의 목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배경(속칭 ‘백(back)’)에 의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배경을 거부하고 살았으니 그의 자력정신은 순일하기 그지없었다.

유성룡이 어느 날 파면되어 쉬고 있던 이순신에게, 이조판서 이율곡이 한번 보라고 하니 만나 보라고 권했다. 이순신은 같은 덕수 문중이라 만나볼 수도 있지만 그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 병조판서가 이순신의 화살통을 탐내어 달라고 하자 서로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다른 병조판서는 자신의 서녀를 첩으로 주어 그를 사위로 삼으려 했으나 이 또한 거절했다. 파면에서 벗어나 복직해야 하는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스스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만 일어서려 했다.

이순신의 이 같은 주인 정신, 자주·자립정신은 젊은 시절을 지나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전라좌수사가 되어 거북선을 창제하고 전쟁 준비를 할 때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군비를 확장할 때도, 정유재란이 나고 전멸한 조선 수군을 재건할 때에도, 그는 권세 있는 자에 아첨하거나 남(조정)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제힘으로 그 힘들고 거대한 일들을 일구어낸다.

만약 이순신이 자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아첨으로 남의 힘을 이용해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풀어가려 했다면 그는 자신의 성공을 그 남에게 바쳐야 했을 것이니 그다운 값진 성공을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 기타

1) 구국제민이란 뚜렷한 목표를 세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목표를 정하여 살아간다. 각자 안목에 따라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그 관직을 목표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재벌을 목표로 살 것이다.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와 귀와 명예를 이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 놓고 살고 있다. 거기에는 원대한 인생목표도 있겠지만 내일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때그때의 작은 목표도 있을 수 있다. 하여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또 그러한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생을 더 열심히 살고, 미리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순신은 어떤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았으며, 어떤 목표를 세워 살았을까?

그는 22세에 이미 편한 문관의 길을 버리고 하층 계급구조를 가진 무관의 길로 나아갔다. 이때 그는 “내적으로 군자가 되어 인격을 갖추고, 외적으로 무관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인생 목표를 정했다.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을 때는 “왜적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남해를 지킴으로써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예측과 확신을 하였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바다를 지키는 준비에 착수했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자기의 목표를 구국제민(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에 두게 되었으니, 결국 이순신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 ‘구국’이었고, 따라서 구국은 그가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어떠한 역경을 맞이해서도 자신의 목표를 굴절시키지 않았고, 구국제민과 무관한 일에는 아예 눈을 돌려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다.

이처럼 그가 자나 깨나 구국제민 한 가지 뚜렷한 목표만을 세워 살 수 있었던 원천

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면 꿈을 갖게 된다. 그리고 꿈은 목표를 갖게 한다. 이순신의 지극한 나라 사랑은 자연스럽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목표를 갖게 했다. 그러므로 그가 구국제민의 목표를 세우게 된 원천도 결국 지극한 나라 사랑에 있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선공후사(先公後私)

그는 매사를 처리함에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했다. 공과 사가 충돌하면 공을 앞에 놓고 사를 뒤에 놓았다. 그는 공직자(公職者)였으니 그가 맡아 일심전력할 일은 오직 공무다. 그러니 공을 사 앞에 놓았다는 것은 그가 맡은 공무에 오롯한 사랑과 정성을 바쳤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일찍이 이순신을 연구한 노산 이은상 선생은 이순신을 정돈된 인격자로 평가했다. 정돈되었다는 말은 앞에 놓을 것을 앞에 놓고 뒤에 놓을 것을 뒤에 놓는다는 뜻이고,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 처리했다는 말이다. 이순신의 모든 행적을 통틀어 볼 때 공을 앞에 놓고 사를 뒤에 놓는 이 원칙에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노산 선생의 평가는 이순신의 인품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평가라 할만하다.

그는 매사 선공후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사(私)라면 놓고 공(公)의 길로만 걸단했으며, 용기 있게 행동으로써 그 공(公)의 길로 나아갔다.

한산도 시절 몸이 몹시 불편하여 앉아 있기조차 어려웠을 때 부하들이 잠시 누워 쉬기를 권하면 “적과 상대하여 승패를 가르는 것이 호홉 사이에 달렸는데 장수된 자로서(공인(公人)으로서) 죽지 않았거늘 어찌 편히 누울 수가 있을까 보냐” 하고 앉아 버티며 앓기를 18일 동안이나 한 일, 아산에 있는 부인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이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

고 군무를 벗어나지 아니한 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과 지배층이 수군을 몰살시킨 후에 뻔뻔스럽게도 재임명의 교서를 내릴 때 사적인 감정이나 분노로 이를 거절하지 않고 공심(公心)으로 담담히 받아들인 일, 절이도 전투가 끝나고 명나라 진린 도독이 우리 군사가 베어 온 적의 수급을 탐하자 이를 기꺼이 넘겨준 일, 그 진린 도독을 오직 공심으로 상대하고 뇌물의 유혹을 물리쳐 마침내 그의 충심 어린 협력을 이끌어낸 일 등, 이순신의 생애 전부를 통틀어 항상 공심(公心)이 사심(私心)의 앞자리에 있었다.

특히 원균과의 대비를 통하면 그의 선공후사의 정신은 확연히 돋보인다.

사천 해전에 임하여 이순신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적의 머리 베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적을 죽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를 보고 너희들의 공로를 적어 보고하겠다”고. 과연 이순신의 말을 믿은 조선 수군은 열심히 싸워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전투에 이긴 다음날 원균은 어제 싸운 곳을 둘러보겠다고 하여 나갔다가 죽은 왜적의 수급을 베어 와 자신의 공로로 보고했다. 이순신은 싸움에 이겨 나라를 지키는 공적(公的) 가치가 개인적 공적에 앞섰건만 원균은 나라가 이겨도 자신의 사적(私的) 공이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았으니 두 장수의 승패를 갈라놓은 요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항상 공(公)을 앞세우는 이 정신 때문에 부하들은 이순신에 무언으로 공감했고, 그 공감은 서로에게 신뢰를 만들어 격의 없는 소통을 만들어 냈으며, 거기에서 단결, 용기, 창의의 리더십이 융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성이 공직자에 적용되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해도 좋으리라.

3) 끊임없는 노력

이순신의 성공은 타고난 점에도 그 이유가 없지 않지만 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연을 바라지 않았다. 활쏘기 연습을 않아도 명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다. 간절히 원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는 문벌이나 타고난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으로써 일을 이루고자 했다. 22세부터 병학 등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과 무과낙방이란 힘든 여건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마침내 미관말직이나마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이후 15년간 중간관리자를 거치면서도 치열한 노력으로 구국의 대임을 수행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 나갔고, 그렇게 노력으로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개개의 전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필승전략을 수립하는 능력도 모두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왔다. 평소에도 병법과 지리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거의 날마다 활쏘기 연습을 해 스스로 명궁이 되었기에 그가 이끄는 군대는 강군이 될 수 있었다. 한산대첩에서 적을 유인해 학익진으로 섬멸한 것과 울돌목 지형을 이용해 10분의 1의 군사로도 능히 적을 무찌른 일, 한산도를 지키면서 서해로 나가려는 적의 목을 누르는 전략으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탁월한 전술적 능력, 한심한 명나라 수군을 다스려 우리를 도와주는 진정한 우군으로 만든 비범한 인사관리 능력 등도 모두 간절한 바람과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능력과 지혜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이 끊임없는 노력은 그의 정성스러운 성품에서 나온 한 가지임이 분명하다.

4) 창의성과 개척 정신

이순신은 항상 앞길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태생부터가 몰락한 양반 집에서 출발했으나 무인의 삶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열세를 안고 싸워야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백전백승의 길을 개척했으며, 수군이 전멸한 상황에서도 흩어진 군사와 배를 모아 적의 대선단을 격파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길이 없어 그냥 주저앉고 말 상황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창의성으로 새 길을 찾아내는 개척의 삶을 살았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최악의 조건을 최선의 조건으로 개척해 나가는 창의성과 개척 정신을 지녔기에 무사안일의 관료적 틀 속에 안주하지 않았고, 복지부동하지 않았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일찍부터 열린 사고를 했으며, 부하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가 창의성과 개척 정신을 발휘한 경우를 보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왜적은 거리가 떨어졌을 때에는 조총으로, 붙어서는 칼로 싸운다. 우리는 활을 주 무기로 쓰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총과 칼을 든 채로 접근해 오는 왜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쇠뿔을 박아 지붕을 만들고 방패막이를 둘러친 특수한 장갑선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창안해 낸 것이 바로 거북선이다. 따라서 거북선의 창제야말로 이순신이 무사안일에 안주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매사에 문제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앞날을 개척한 이순신 정신의 상징이다. 조정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결코 거북선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조정은 아무런 아이디어를 주지 않고 물자 공급도 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이순신의 창의적 정신은 여러 군데에서 돋보인다. 학익진으로 적을 포격하여 섬멸했고, 조정으로부터 군량미도, 군수품도, 군사도 지원받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서 통행첩으로 군사자금을 마련했으며, 둔전을 개발해 부족한 전력을 충당해 나간 것 등도 모두 창의적인 개척 정신의 산물이다.

이 창의성과 개척 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랑과 정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 사랑과 걱정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아놓고 해결책을 찾아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문제를 풀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정성과 사랑이 없고 아무런 걱정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창의성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순신은 지극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을 위해 늘 정성을 다해 고뇌했기에 앞서 본 각종 새로운 방안들이 융출되었던 것이다.

5)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내는 신념과 용기

이순신이 스스로 옳다고 믿고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障害)와 위협이 따랐다. 그 래도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어떠한 장애도 결국은 극복하고 말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 신념에 찬 자신을 믿었다.

죽음의 위협을 만날 때도, 또 비교도 안 될 약한 전력으로 강적과 싸울 때도, 그는 항상 이 같은 신념으로써 죽음을 초월한 용기, 주위를 빨아들이는 열정을 발휘했고, 그 열정적 용기에 감동한 조선 수군은 항상 사기가 충천했다. 이러한 용기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직 바른길, 구국제민의 길에만 모두를 걸고 정성과 사랑으로 하면 마침내는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차 있었기에 나올 수가 있었다. 이것이 용기의 원천이다.

여진족과 싸울 때에는 화살을 맞고, 사천 해전에서 탄환을 맞았지만 용기는 꺾이지 않았다. 군사가 부족하고 군수물자가 동이 나도, 전염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수많은 부하들을 잃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울돌목 해전에서 가

장 잘 나타난다.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 전투에서 우리 수군은 거의 전멸했다. 그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무서운 복원력으로 패잔병들을 굶어모으고 숨어 있던 전선을 찾아내어 적과 싸울 태세를 갖춘다. 겨우 찾은 배 12척으로는 싸움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긴 조정에서는 육지로 올라와서 싸우라고 명령했지만 그 12척만 갖고도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사자후를 토한 것은 실로 만용에 가까운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죄 없는 우리 백성과 국토를 짓밟은 왜적의 무리를 불의와 죄악의 집단으로 확신했고, 그들에겐 반드시 하늘의 응징이 뒤따라 결국 패망할 것이라고 믿었다. 왜적을 보는 이 같은 그의 눈은 한시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는 우리가 옳고 적은 그르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에 차 있었다. 그의 용기는 이러한 신념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사의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명나라 진린 도독과의 충돌에서도 그의 용기는 빛을 낸다. 명나라 군사가 우리 백성들을 약탈하자 명나라 수군을 버리고 진을 옮기겠다고 엄중 항의하여 [당시 상국(上國)의 장수에게 이같이 위협적인 항의를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마침내 명의 군졸에 대한 처벌 권한을 얻어낸 일, 뇌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린 진린이 왜적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남해로 가서 포로를 치러 하자 남해의 적이란 우리 동포이니 절대 쳐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여 막은 일, 이 때 진린이 “황제가 준 칼을 갖고 있다”고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오. 나는 한 나라의 대장이 되어 결코 적을 놓아주고 내 동포를 죽일 수는 없소” 하며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일 등은 모두 동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용기였다. 오직 동포를 살려내려는 순수한 사랑의 일념에서 나오는 용기였기에 안하무인이던 진린을 승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온갖 전투와 위기에 부닥칠 때마다 그는 잔피를 부려 이를 피해가지 않고 용기 있게 정면승부를 걸어 돌파해 나갔다.

전라좌수군을 불패의 군대로 만든 것도 이순신이 가진 신념과 용기가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부대 전체가 “사포와 함께라면 우리는 이긴다”는 전라좌수군의 필승 문화(必勝文化)를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념과 용기도 결국은 사랑과 정성에서 발원된 한 리더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 청렴

이순신은 청백리의 표본이다. 어려서부터 가난했기에 권력과 부(富)에 대한 욕망이 있었으려면 그는 천성이 깨끗하고 성격이 올곧은 데다 치열한 자기수양으로 일찌감치 인격을 정돈해 애초부터 부정부패와는 상종하지 않았다. 오직 바른길로만 살아가는 그의 품성은 재물에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청렴으로 나타난다.

충청도 해미에 복무할 당시 고향에 부모를 뵈러 가면서 타 가지고 갔던 양식이 남으면 양식 말은 이에게 돌려줬다는 유명한 얘기 외에도, 그는 평소에 “대장부 세상에 나서 쓰이면 죽을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고 말아도 또한 죽한 것이니,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뜯은 영화를 탐내는 것은 나의 부끄러워하는 바다” 하면서 말한 그대로 살았으니, 그에게 청렴은 일상생활에 녹아 있었다. 특히 그의 청렴함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원균과 대비되면서 뚜렷이 드러난다. 운주당에서 먹고 쉬고 놀면서 한양으로 뇌물을 보내려니 스스로 많은 뇌물을 끌어모아야 했던 원균과는 달리, 이순신은 군사 먹이고, 군비 확장하고, 백성구휼에 돈을 썼다. 정유년(1597) 출옥하여 백의종군 할 때 스님들이 용품을 가져오면 꼭 그 대가를 쳐서 갚아주었다고 그의 일기에 쓰여 있다. 진린 도둑이 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 안타까워했고, 스스로는 왜적이 주려는 뇌물을 호통을 쳐서 거절한 것

또한 유명한 얘기다.

이처럼 그의 청렴한 성품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을 수양을 통하여 더욱 양성했기 때문인데, 청렴했기 때문에 그의 통솔력은 더욱 빛을 발하여, 결국 그가 이끄는 부대의 사기는 전투를 치를 때마다 충천하여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7) 책임 완수

이순신은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이순신은 공인(公人)이 책임을 회피하고 은둔해 버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의 투철한 책임 정신은 <송나라 역사를 읽고>라는 그가 쓴 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강이라는 송나라 정승이 금나라와 싸우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개하여 시골로 가버리는 것을 두고 “……신하된 자로서 몸을 버려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할 때인데… 떠난다는 말을 어찌 입 밖으로 낼 수 있으랴……” 하며 질타했고, 그 스스로 죽음으로써 책임을 완수하는 일 외에 공인(公人)이 따로 갈 길이 없음을 전 생애를 통해 확연히 보여 주었다.

그의 책임 완수 정신은,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극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 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심전력하여 책임을 완수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 완수를 위해 지성을 다하는 한편 부하들의 책임 완수도 엄격히 독려했다. 만약 기일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장수가 있으면 불려서 곤장을 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감독했다. 이 같이 상하가 모두 책임을 다하는 부대라야 서릿발 같은 군기가 확립되고, 이러한 부대라야 상승(常勝), 필승(必勝)의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오직 자기가 맡은 일, 관할하는 분야에 대한 책임만을 다할 뿐 다른 사람의 일에는 까닭 없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無關事不動〕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와 통제사로서 책임만 다했을 뿐이다.

나라를 구한다고 육군의 일, 조정 대신의 일을 넘보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오직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의 완벽한 완수, 그것만으로 구국의 최종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견내량을 통한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책임, 그 책임의 완벽한 이행, 그것이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만든 원인이다. 그가 주체넘게 조정에 나아가 국방 정책을 바꾸고 왕의 소견을 움직이려 했다면 책임 완수나 구국의 영웅은커녕 전쟁 중에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 완수의 정신도 나라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합하여진 곳에서 나오는 한 가지임에 틀림없다.

8) 술선수범과 신상필벌

이순신은 위험한 전투에 임할수록 자기 몸을 아껴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이순신이 치른 전투 중 가장 힘든 전투는 12척으로 133척의 적선과 싸운 명량 해전이었다. 12척이 서로 앞서서 수백 척과 싸워야 하는데 두려움에 젖은 부하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날 때 오직 이순신의 대장선 한 척이 맨 앞에 서서 물경 한 시간을 버텨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위험한 전투일수록 항상 진두에 섰고 술선수범했다.

이순신은 전공(戰功)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린 것으로 유명하다. 전투가 끝나면 자기 공은 뒤로 놓고 그 공을 부하의 공으로 보고해 반드시 상을 받도록 했다. 그는 스스로 부하들을 칭찬하며 상을 내리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가 왕에게 보낸 장계(전투보고서)에는 부하들의 용맹스러움을 자세히 보고한다. 심지어 종들의 잘한

일까지 보고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 속에 숨어 버린다. 상을 줄 만한 곳에는 반드시 상을 줌으로써 장졸들에게 승리를 향한 강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그가 이처럼 신상필벌에 투철했기 때문에 사천전투에서 부하 장병들은 “적의 머리 개수를 베는 데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너희들의 용전 여부는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고 한 이순신의 독려를 그대로 믿고 전투에 전념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반면 부하 중에 잘못이 있거나 군율을 어기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했다. 우리는 그가 지방 수령이나 장수들에 대해서도 엄명했던 기한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곤장으로 엄히 다스렸다는 것을 그의 일기에서 자주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엄정한 신상필벌은 이순신 함대가 단결을 이루어 승리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술선수범과 신상필벌의 리더십도 위에서 살펴본 그가 나눈 사랑의 한 방편이요, 정성과 정의의 뿌리에서 발현된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4. 이순신의 리더십 원천의 정리

가. 리더십 원천인 네 가지 가치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그의 각종 리더십들과 그 원천을 종합해 그 리더십들의 원천과 체계를 정리해 보면, 앞서 본 그의 갖가지 리더십은 단순히 병렬된 채 산발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벼슬에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굴절하지 않고 일관되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시기적으로 그는 벼슬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이 리더십의 원천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이순신이 젊었을 때부터 정돈하고 확립한 것으로 짐작되는 내면적 가치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① 나라 사랑(忠)에 충만하여 살았다.
- ② 지극한 정성으로 살았다.
- ③ 오직 바른길로만 살았다.
- ④ 제힘을 바탕으로 주인 정신으로 살았다.

이 네 가지 내면적인 삶의 가치가 한결같은 목표인 구국제민에서 하나로 집중될 수 있었기에 그는 기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나. 네 가지 가치의 발휘 정도

그런데 자력으로, 정성스럽고 바르게 산 사람이 어찌 이순신뿐이었겠으며, 나라에 사랑을 바친 사람 또한 어찌 이순신뿐이었겠는가. 그러나 그 자력과 정성과 정의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나라 사랑의 정도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나라 역사에서 이순신만큼 지성스러웠고, 오직 자력과 정의의 외길로만 살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통은 적당히 정성스럽고, 적당히 남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굴절되면서 원만하게 살아가고, 또 적당히 애국하다가 자기 이해와 나라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슬그머니 피하기 좋고 편한 길로 돌아서들 가지 않는가.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적당히’가 없었다. 적당히 남에 기대고, 적당히 정성스럽고, 적당히 바르고, 적당히 애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태어난 자신의 바탕과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 그의 정성스러운 정도, 자력 자립의 정도, 바른 정도, 나라 사랑의 정도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랬기 때

문에 평생토록 자신과 어긋나는 다른 가치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고, 매사에 주인 정신으로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었으며, 오직 정의의 외길만을 가면서도 나라 사랑에는 목숨까지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 네 가지 가치의 중층구조

그러면 이 자력(自力), 정(正), 성(誠), 애(愛)의 네 가지 가치는 또 어떤 심층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공부가 부족하여 단정키는 어려우나 뱃 중에서도 그를 성공으로 이끈 일반적이고 기층적인 가치는 지극한 정성(誠)과 충만한 사랑(愛)이라고 생각한다. 정성과 사랑이야말로 만사를 이루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성공의 핵심 요소인 성과 애는 성공을 이루는 동전의 양면이요, 실과 바늘 같은 것으로, 목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힘이 나오지 않고 목표 달성에 성심이 없으면 계속해 힘을 쓸 수가 없다. 성공을 위해서는 애정과 힘이 나오지 않아서도 안 되지만 나온 애정과 힘이 바로 사라져도 안된다. 애와 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합쳐야 성공을 낳는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적 요체는 바로 이 정성과 사랑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여기에 이순신 특유의 두 가치가 중층적으로 추가되니 그것이 곧 자력(自力)과 바름(正義)이다. 이순신 성공의 특성은 제힘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써 성공하는, 그래서 그의 성공은 항상 자기의 것이 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력과 바름을 이순신의 성공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특별한 성공 요인으로 본다.

라. 네 가지 가치의 합일

이순신에게 있어 이 성(誠)·애(愛)·자력(自力)·정(正)이라는 가치는 확고부동한 절대 가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그의 치열한 수행을 통해 최고도로 발휘되면서 한 인간인 이순신의 내면에서 합일되어 구국제민이란 목표 달성에 집중되었다. 합일되고 집중되면 또 다른 상승효과를 낸다.

최고도로 발휘된 ‘성(誠), 애(愛), 그리고 자력(自力), 정(正)의 합일(合一)’, ‘그 합일을 통한 상승(上昇)’(이를 이순신의 인격이라 부를 수 있다.)이 그를 상승(常勝)의 초인으로 만든 리더십의 원천이요, 구국의 기적을 달성케 한 실체이다.

이 합일된 자력·성·정·애의 품성을 바탕으로 앞서 본 그의 각종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었고, 그 발현된 리더십으로 그는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세운 구국제민이란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백전백승의 리더십의 뿌리는 자력·성·정·애의 합일을 이룬 인격이요, 위에서 본 각종 리더십은 그 뿌리 위에 핀 꽃과 열매라 할 수 있다.

마. 네 가지 가치의 검증

이를 다시 풀어 앞서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리더십들의 원천이 과연 그러한지를 검증해 보겠다.

제힘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사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제힘으로, 나의 안위는 불구하고 오직 나라 사랑(애국심)에 열정을 다 바쳐 구국의 책임을 완수해 낼 것이다. 사랑하는 제 나라의 운명을 어찌 남의 손에만 맡길 것이며, 나라 구하는 일 외에 어디에다 한눈을 팔겠는가. 그러니 자연히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은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일을 당

해서는 오직 그 일에만 죽음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일이 끝나면 자신을 반성하는 외에 일의 결과나 남의 평판 따위에는 초연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어떤 문제라도 풀어나갈 자기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실력을 바탕으로 용기와 신념을 갖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오직 정의의 길로만 살아가려는 사람은 원칙에 따를 뿐, 편의를 좇아 예외를 인정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왜곡된 사술(邪術)이나 꼼수를 쓰지 않는다. 공직에 몸을 던진 이상 바르고 청렴하게 살아갈 따름이다.

제힘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와 지극정성이 합일된 이런 사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형편에 이르면 나라의 위기를 구해 내는 것을 최고 유일의 목표로 삼고 살 것은 자명하다. 그런 사람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천지신명을 감동시켜서 나라의 위기를 능히 예견할 수 있고, 그 위기를 구할 창의력과 지혜도 얻게 된다. 또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강한 책임감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만 부하들에게는 자상하고,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들과 하나로 소통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도 솔선수범과 엄격한 신상필벌로써 단결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 위에서 살펴본 이순신의 온갖 리더십은 그가 가장 소중히 가꾸어 닦은 성·애·자력·정의의 네 가지 가치가 합일되어 상황 따라 발현되는 일정한 체계를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순신은 관직에 나아갈 때 벌써 치열한 자기 수양으로 평생을 일관하는 네 가지 내면의 가치를 최고도로 양성하여 정돈하고 확립했는데, 그 네 가지 가치 중 일반적인 기층적인 두 가치는 사랑(愛, 忠誠)과 정성(誠)

이며 거기에 이순신 특유의 중층적인 두 가치 즉 정의와 자력이 더해졌다. 이 네 가지 가치들은 이순신이란 한 인간 속에서 양성되고 합일되어 그의 인격을 이루었고 그 인격을 뿌리로 하여 위에서 살펴본 각종 이순신의 리더십이 발현되어 아름답고 찬란한 꽃과 열매를 맺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순신 리더십은 한 마디로 인격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면 사랑의 리더십, 정성의 리더십, 정의의 리더십, 자력의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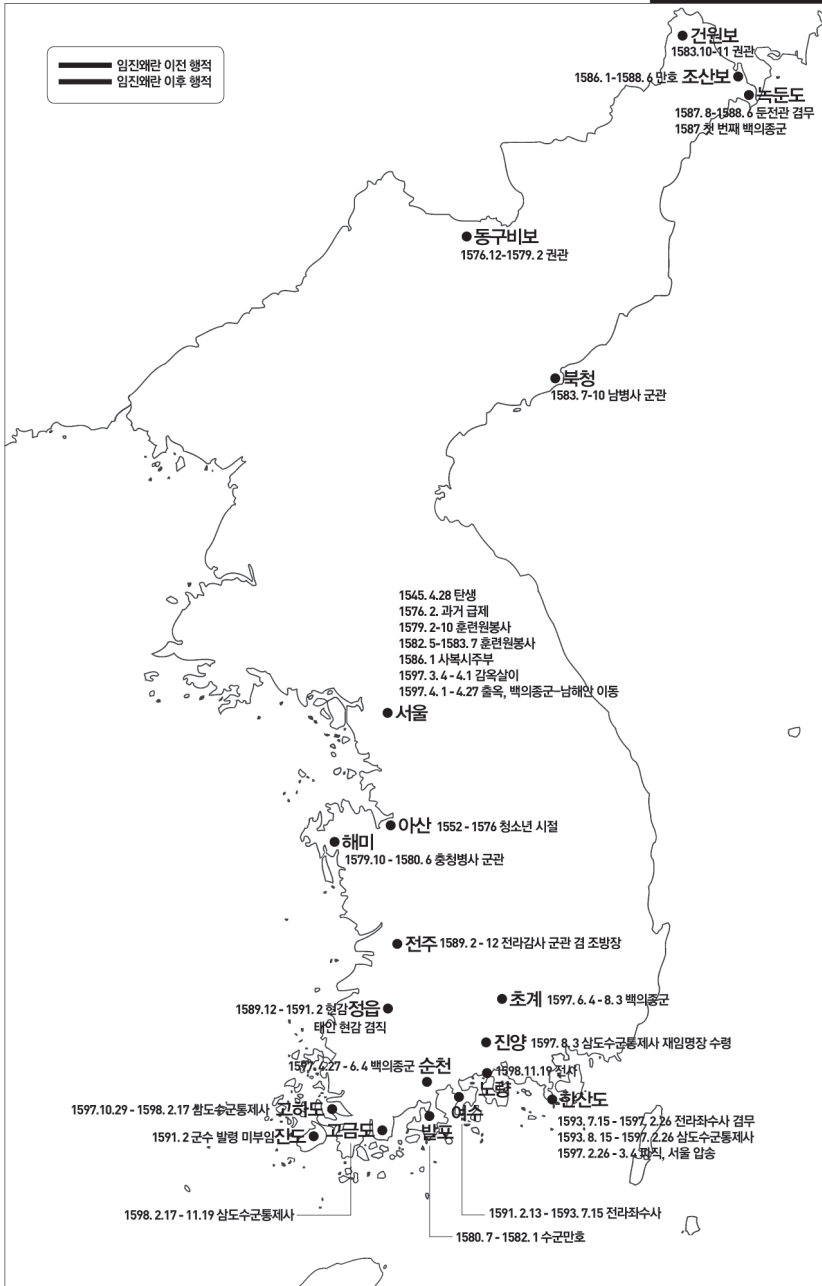
이순신의 리더십은 이같이 그의 내면적 가치, 즉 인격에 뿌리하고 있으므로 그의 리더십을 성공을 위한 기술(테크닉, 술수, 꼼수) 썸으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한 번 쓰고 나면 효용이 다하나, 인격에서 발현되는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면서도 영속적으로 발현된다. 상대방의 기술에 넘어간 사람은 이긴 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격에 넘어간 사람은 비록 졌다 해도 이긴 자를 존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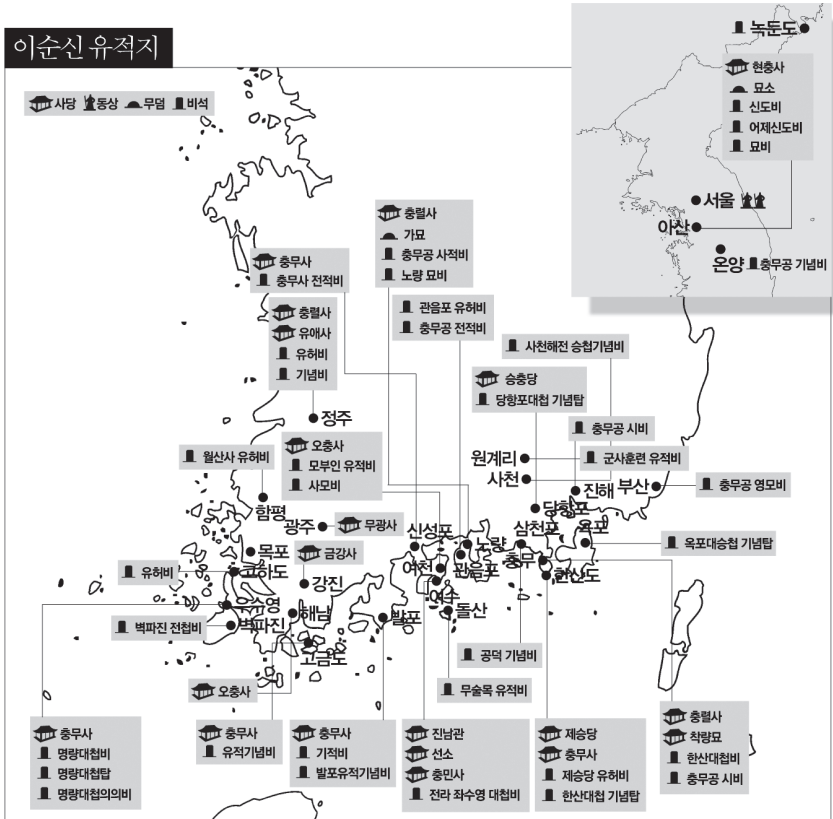
오늘날 일본에서 우리 못지않게 이순신을 존경하고 배우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를 단순히 성공한 공직자를 넘어서 정신적인 지도자, 영원한 스승으로 기꺼이 받들 수 있는 것도 그가 이같이 정돈된 인격을 이루고 그 인격에 바탕해 각종 리더십을 발현했고 구국의 목표를 구현해 낸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행적도



이순신 유적지





일러두기

- 1 이 책의 번역문은 노산 이은상 선생의 1968년 번역본을 저본으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과 명백한 오류만을 수정하고 펴냈습니다.
- 2 본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지명 해설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수정하여 표기했습니다.
- 3 본문에 있는 지도, 연표, 인물 정보 등은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에 실린 것으로, 저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과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 수록하였습니다. 《이순신, 신은...》의 수익금 전액은 사단법인 청목문화회에서 충무공 사상 선양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노산 이은상 역주해본 《난중일기》는 지식공작소에서 내려쓰기 편집으로 출판, 판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진년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 충무공 48세.

임진년 4월 13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공은 전라 좌수사가 되어 가서 1년 동안을 두고 온갖 방비에 주력하며, 전쟁 하루 전인 4월 12일에 거북선을 완성하셨으니 이 얼마나 숨 가쁜 대조나. 더욱이 옥포, 당포, 한산, 부산 해전의 대승첩이 모두 이 해에 있었다.

1월

1일(임술)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汝弼)¹과 조카 봉(奉)과 아들 회(薈)가 와서 이야 기했다. 다만 어머님을 떠나서 두 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었다. 병사(兵使)의 군관(軍官) 이경신(李敬信)이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과 또 긴 편전(片箭)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 바쳤다.

2일(계해) 맑음. 나라의 제삿날²이라 사무 보지 않았다. 김인보(金仁甫)와 함께 이야기했다.

3일(갑자) 맑음. 동헌(東軒)³에 나가 별방군(別防軍)⁴을 점고(點考)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적어 보냈다.

4일(을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5일(병인) 맑음. 그대로 뒷 동헌(後東軒)⁵에서 공무 보았다.

1 여필(汝弼) : 충무공의 아우 우신(禹臣)의 자.

2 나라의 제삿날 : 명종 인순왕후 심씨(明宗仁順王后沈氏)의 제삿날이다.

3 동헌(東軒) : 각 고을의 원이나 각 도의 병사 수사들이 사무를 보는 곳.

4 별방(別防) : 부대 편성의 한 부류로 별조방(別助防)의 약어.

5 뒷 동헌(後東軒) : 공무를 보는 동헌에 대해서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내동헌(內東軒)이라고도 한다.

6일(정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7일(무진) 아침에는 맑더니 늦게부터 종일 눈비가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牙山)으로 떠났다. 전문(箋文)⁶을 받들고 갈 남원(南原) 유생(儒生)이 들어왔다.

8일(기사) 맑음. 객사(客舍)⁷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9일(경오) 맑음. 아침을 일찍 먹은 뒤에 객사 동헌으로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 보냈다.

10일(신미) 종일 비 내림. 방답(防踏)(여수시 돌산읍)의 새 첩사⁸가 들어왔다.

11일(임신) 가랑비가 종일 왔다.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이봉수(李鳳壽)가 선생원(先生院)(여수시 율촌면 신평리) 돌 뜨는 데를 가보고 와서 보고하되, “벌써 큰 돌 열일곱 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더라”고 했다. 서문 밖 해자⁹가 네 발췌 무너졌다. 심사립(沈士立)과 이야기했다.

12일(계유) 굵은비가 개지 아니했다. 식후에 객사 동헌에 나갔다. 본영과 각 포구진무(鎭撫)들의 활쏘기 시험을 했다.

13일(갑술) 아침엔 흐렸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14일(을해)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을 쏘았다.

6 전문(箋文) : 나라에 길흉의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바치는 표문(表文)이다. 주로 사육체(四六體)의 글인데, 여기서는 새해를 하례하는 글을 말함이다.

7 객사(客舍) : 옛날 각 지방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목패(木牌)를 만들어 놓고 그 지방의 관리들이 위하던 집. 그 목패는 전패(殿牌)라고 한다.

8 방답의 새 첩사 : 장군의 이름과 음이 같은 이순신(李純信).

9 해자 : 호자(壕子)로서 우리말로 해자이다. 그러므로 한자로 해자(核字)라고도 쓴다. 성 밖에 못을 파서 방위하는 것을 말함.

15일(병자)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망궐례(望闕禮)¹⁰를 드렸다.

16일(정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각 고을 벼슬아치¹¹들과 색리(色吏)¹²들이 인사차 왔다. 방답의 병선 군관과 색리들이 병선을 수선하지 않았기로 곤장¹³을 때렸다. 우후(虞侯)¹⁴, 가수(假守)들도 역시 검칙(檢飭)하지 않기를 이렇게까지 했으니 해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제 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런 일은 돌아보지 않으니 앞날 일도 역시 짐작하겠다. 성 밑에 사는 토병(土兵) 박몽세(朴夢世)가 석수 랍시고 돌 뜨는 데로 가서 이웃집 개에게까지 폐해를 끼치기로 곤장 80대를 때렸다.

17일(무인) 맑았으나 춥기가 겨울과 같았다. 아침에 순사(巡使)와 남원 반자(南原半刺)¹⁵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시슬 박을 구멍 뚫은 돌 실어 오는 일로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는데 김효성(金孝誠)이 거느리고 갔다.

18일(기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여도(呂島)(고흥군 점안면 여호리) 천자(天字)배¹⁶가 돌아갔다. 우등 계문(優等啓聞)¹⁷과 대가 단자(代加單子)¹⁸를 순영(巡

- 10 망궐례(望闕禮) :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초하루, 보름에 대궐을 향하여 멀리 임금께 절하는 예를 이름이다.
- 11 벼슬아치 : 원문의 품관(品官)은 여러 종류의 벼슬아치들을 통틀어 이름이다.
- 12 색리(色吏) : 옛날 제도에 감영(監營) 또는 고을의 아전을 이름이다.
- 13 곤장 : 옛날 제도의 형구(刑具)의 하나인데,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군벌을 어긴 죄인의 볼기를 치는 것이다. 그 종류는 크고 작은 5가지가 있다. 중곤(重棍) 길이 5척 6촌, 넓이 5촌, 두께 8푼. 대곤(大棍) 길이 5척 6촌, 넓이 4촌 4푼, 두께 6푼. 중곤(中棍) 길이 5척 4촌, 넓이 4촌 1푼, 두께 5푼. 소곤(小棍) 길이 5척 1촌, 넓이 4촌, 두께 4푼. 치도곤(治盜棍) 길이 5척 7촌, 넓이 5촌 3푼, 두께 1촌.
- 14 우후(虞侯) : 지방 병사영(兵使營)이나 수영(水營)에서 첨사(僉使) 아래 있는 벼슬의 하나이다.
- 15 반자(半刺) : 본시 한문에서 온 문자인데, 고을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직책을 말함이다. 통판(通判)이니 장사(長史)니 하는 것들을 통틀어 이름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전이란 말과 같이 쓰였다. 두보(杜甫)의 시(詩), “諸侯非棄擲 半刺已駸駸”
- 16 천자(天字)배 : 천자의 글자 순서를 따라서 번호를 삼은 것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
- 17 우등 계문(優等啓聞) : 활 재주 시험에서 우등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고.
- 18 대가 단자(代加單子) : 대신 가자(加資) 단자. 조선의 관제(官制)는 9품에서 1품까지 있고 아래에서 위품으로 올리는 것을 가자(加資)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그 본인을 올리지 않고 그 아

營)으로 봉해 보냈다.

19일(경진)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각 군대를 점검했다.

20일(신사)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좌기(坐起)¹⁹하여 공무 보았다.

21일(임오)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감목관(監牧官)이 와서 잣았다.

22일(계미) 맑음. 아침에 광양 현감(光陽縣監)(어영담(魚泳潭))이 보러 왔다.

23일(갑신) 맑음. 둘째 형님(이요신(李堯臣))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사복시(司僕寺)²⁰에서 받아 와 기르던 말을 올려 보냈다.

24일(을유) 맑음. 만형(이희신(李羲臣))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순찰사(巡察使)의 답장을 보니, 고부(高阜) 군수 이승고(李崇古)를 유임하게 해 달라고 장계를 올린 일 때문에 편론(貶論)을 입어 사임장을 냈다고 했다.

25일(병술)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6일(정해)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흥양(興陽)〔배흥립(裴興立)〕, 순천(順天)〔권준(權俊)〕의 두 원과 활을 쏘았다.

27일(무자) 맑음. 오후에 광양 원이 왔다.

28일(기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29일(경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30일(신묘)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따뜻하기가 초여름 같았다. 동헌에서 공무

들이나 사위 등을 올리는 것을 '대신 가자'라고 한다.

19 좌기(坐起) : 어떤 관청의 우두머리들이 정규의 위의를 갖추어 공무 집행의 절차를 밟는 것.

20 사복시(司僕寺) : 임금이 타는 말을 관리하는 관청.

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월

1일(임진)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안개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는 개었다. 선창으로 나가 쓸 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때마침 망천 안에 피라미 떼가 몰려들어 왔기로 그물을 쳐 2천여 마리를 잡았다. 참으로 굉장했다. 그대로 전선 우후(虞侯)(이몽구(李夢龜))를 데리고 전선 위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봄 경치를 즐겼다.

2일(계사) 맑음. 동헌에서 공무 보았다. 쇠사슬 건너 매는 데 쓸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 왔다. 활 10순(巡)²¹을 쏘았다.

3일(갑오) 맑음.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 사실을 조사할 일로 배를 타고 나갔다. 공무를 마친 뒤 활을 쏘았다. 탐라(耽羅)(제주도(濟州道)) 사람이 아들 딸 여섯 식구를 데리고 도망해 나와서 금오도(金鰲島)(여수시 남면)에 대었다가 방답(防踏)(여수시 돌산읍) 순환선(循環船)에 잡혔다고 사환을 올려 보냈기로 문초를 받고 승평(昇平)(순천(順天))으로 보내어 가두어 두라고 공문을 써 보냈다. 이날 저녁 화대석(火臺石) 4개를 실어 올렸다.

4일(을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 북봉(北峯) 연대(烟臺)(신호대(信號臺)) 쌓는 데로 올라가 보니 축대 자리가 매우 좋아 무너질 리 만무했다. 이봉수(李鳳壽)가 부지런히 일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종일토록 구경하다가 해질 무렵에 내려 와서 해자 구덩이를 돌아보았다.

5일(병신)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마친 뒤 활 18순을 쏘았다.

6일(정유) 맑으나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순찰사 편

21 순(巡) : 활을 쏘는 데 1순이라 함은 1바퀴란 말이다. 각 사람이 화살 5대씩 쏘기를 마치면 그것을 1바퀴(1순)라 하는 것이다.

지 2장이 왔다.

7일(무술)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발포(鉢浦)(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만호(萬戶)가 부임하였다는 공문이 왔다.

8일(기해) 맑으나 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이날 거북선에 쓸 돛베 29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았다. 조이립(趙而立)과 변존서(卞存緒)가 자웅을 겨루었는데 조가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防踏)으로부터 돌아오더니, 방답 첨사가 방비에 진력하더라고 극찬하여 말했다. 동헌 뜰에 화대(火臺) 돌기둥을 세웠다.

9일(경자) 맑음. 새벽에 쇠사를 켈 긴 나무를 베어 오는 일로 이원룡(李元龍)에게 군사를 인솔시켜 두산도(斗山島)(돌산도(突山島))로 보냈다.

10일(신축) 안개비가 오면서 개었다 흐렸다 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김인문(金仁問)이 순찰사영(巡察使營)에서 돌아왔다. 순찰관의 편지를 보니 통사(通事)(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중국(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는 일이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우리가 일본과 함께 판 뜻이 있는지 의심하게 했으니 그 흉악스러운은 참으로 이를 길이 없었다. 통사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나 해괴하고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었다.

11일(임인) 맑음. 식후에 배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고했다.

12일(계묘) 맑고 바람도 잦았다. 식후에 동헌에 나가 공무 보고 해운대(海雲臺)²²로 옮겨 앉아 활을 쏘았다. 침렵치(沈獵雉)²³를 구경하는데 무척 조용했다.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이립은 시를 읊었다. 저녁에야 돌아왔다.

22 해운대(海雲臺) : 여수시 동북쪽에 쏙 내민 조그마한 반도인데, 해안 절벽에 '해운대(海雲臺)'라고 새긴 충무공의 필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던 곳이니, 여수 외항(外港)을 매축할 때에 해운대 전체를 헐어다가 축항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형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23 침렵치(沈獵雉) : 무사들의 놀이인 듯한데 미상하다.

13일(갑진) 맑음. 우수사(右水使)(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의 군관이 왔기로 살 대 큰 것, 중간 것 백 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4일(을사) 맑음. 아산(牙山)(어머님) 문안차로 나장(羅將)²⁴ 2명을 내보냈다.

15일(병오)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석수들이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너무 많이 무너졌으므로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16일(정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 6순을 쏘고 신구번(新舊番)²⁵ 군사들을 점고했다.

17일(무신) 맑음. 나라 제삿날²⁶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18일(기유) 날이 흐렸다.

19일(경술) 맑음. 순시를 떠나 백야곶(白也串)(여수시 화양면) 감목관(監牧官)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昇平)(순천) 부사(권준(權俊))가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비 온 뒤라 산꽃이 활짝 피어 좋은 경치를 형언하기 어려웠다. 저물어서야 이목구미(梨木龜尾)(여수시 화양면 이목리)로 와서 배를 탔다. 여도(呂島)(고흥군 점암면 여호리)에 이르니 영주(羸州) 원(홍양 현감 배흥립(裴興立))과 여도 권관(權管)(황옥천(黃玉千))이 나와 맞았다. 방비를 검열했다. 홍양 원은 내일 제사가 있어 먼저 갔다.

20일(신해) 맑음. 아침에 온갖 방비와 전선을 점고해 본즉,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얼마쯤 완비되어 있었다. 늦게 떠나서 영주(羸州)(고흥(高興))에 이르니 좌우의 산꽃과 들가의 봄풀이 그림 같았다. 옛날에 영주가 있다더니 역시 이 같은 경치

24 나장(羅將) : 여기서는 고을이나 병수사(兵水使) 영문에 있는 사령(使令)을 말한다.

25 신구번(新舊番) : 각지의 군대는 각 고을 사람들이 새로 번을 들러 오고, 그 대신 앞번에 들었던 사람이 나가서 일정한 기한을 두고 항상 교대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 번 들러 온 사람이 신번이요, 오래 전에 번을 본 사람이 구번이다.

26 나라 제삿날 : 세종대왕의 제삿날이다.

던가.

21일(임자) 맑음. 공무 마친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활을 쏘았다. 정 조방장(助防將)(정결(丁傑))도 와서 보았다. 황숙도(黃叔度)(능성(綾城) 현감(縣監))도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배수립(裴秀立)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 서야 파했다. 신희헌(申弘憲)을 시켜서 술을 가지고 전일 심부름하던 삼반(三班) 하인²⁷들에게 갈라 먹이도록 했다.

22일(계축) 아침에 공무를 마친 뒤 녹도(鹿島)로 갔다. 황숙도도 동행했다. 먼저 흥양 전선소(興陽戰船所)(고흥읍)에 이르러 배와 기구들을 친히 점검하고 그길로 녹도로 가서 바로 새로 쌓은 문루(門樓) 위로 올라가 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 군내에 서는 으뜸이었다. 만호(萬戶)의 애쓴 정성이 안 미친 곳이 없었다. 흥양 원과 황능성(黃綾城)과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또 겸하여 대포 쏘는 것도 보았다. 촛불을 밝힌 뒤 이숙해서 파했다.

23일(갑인) 흐림. 늦게 출발하여 발포(鉢浦)(고흥군 도화면 내발리)에 이르자 역풍이 크게 불어 배가 갈 수 없었다. 간신히 성 머리에 대었고 배에서 내려서는 말을 탔다. 비가 몹시 쏟아져 일행 상하가 모두 꽃비에 젖은 채 발포로 들어서니 해는 이미 저물었다.

24일(을묘) 가는 비가 온 산에 내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비를 맞으며 길을 떠나 마북산(馬北山)(고흥군 포두면) 밑 사량(沙梁)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노질을 재촉하여 사도(蛇渡)(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이르니 흥양 원이 벌써 와 있었다. 전선을 점고하고 나니 날이 저물므로 놀러 유숙했다.

25일(병진) 흐림. 여러 가지 전쟁 방비의 결함이 많으므로 군관과 색리(色吏)들에게 벌을 주고 침사(命使)를 잡아들이고 교수(敎授)는 내보냈다. 방비가 다섯 포구 중에서 가장 못하건만 순찰사가 표창하는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죄상을 검사하지

27 삼반(三班) 하인 : 군노(軍奴), 사령(使令), 급창(及唱) 등을 이름이다.

못하니 참으로 기가 막혀 웃을 일이다. 역풍이 크게 불어 배가 떠날 수 없으므로 놀러 유숙했다.

26일(정사)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개이도(介伊島)(추도(楸島), 즉 싸리섬)에 이르니 여도(呂島)(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배와 방답(防踏)(여수시 돌산읍) 마중배가 나와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公私禮)²⁸를 마친 뒤에 무기를 점고하였다. 긴 편전(長片箭)²⁹은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어 참으로 딱했으나 전선은 조금 완전하니 반가웠다.

27일(무오) 흐림. 아침 점고를 마친 뒤에 북봉(北峯)으로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따로 떨어져 외롭고 위태한 섬이라 사방으로 적을 받게 되었고, 성과 못 역시 지극히 엉성하여 참으로 걱정스러웠다. 침사가 애는 썼으나 미처 시설을 못했으니 어찌하랴. 느지막이 배를 타고 경도(京島)(여천군 화정면)에 이르니 여필(汝弼)과 조이립(趙而立)과 군관 우후(軍官虞侯)들이 술을 신고 마중을 나와 함께 즐기다가 해진 뒤에야 본청으로 돌아왔다.

28일(기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9일(경신)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중위장(中衛將)을 순천(順天) 원으로 갈았다 하니 한심한 일이다.

3월

1일(신유)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식후에 별방군(別防軍)과 정규병을 점고하고

28 공사례(公私禮) : 옛날 무관(武官)이 상관을 처음 보는 때는 공식적인 인사와 사적인 인사의 두 가지 절차가 있었다.

29 긴 편전(長片箭) : 긴 화살이라고 한다. 광대싸리, 대, 쇠, 새의 깃, 쇠심줄, 복숭아나무 껍질, 아교 등 일곱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무게가 1냥, 혹은 1냥 반이나 된다. 전쟁 때 쓰는 중요한 화살이다.

하번군(下番軍)을 점고하여 놓아 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2일(임술)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제삿날³⁰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승군(僧軍) 백 명이 돌을 주웠다.

3일(계해) 비. 저녁내 비가 왔다. 오늘은 명절이건만 비가 이렇게 와서 답청(踏靑)도 할 수 없었다. 조이립(趙而立) 우후(虞侯) 군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동헌에서 술을 나눴다.

4일(갑자) 맑음. 아침에 조이립을 전송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서문 밖 해자 구덩이와 성벽 더 올려 쌓는 데를 순시했다. 승군(僧軍)들 돌 줍는 것이 성실하지 못하므로 우두머리를 잡아다 매 때렸다. 아산(牙山) 문안 갔던 나장(羅將)이 들어왔다. 어머님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 또 다행이다.

5일(을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鎭撫)가 돌아왔다. 좌의정(左議政)(유성룡(柳成龍))이 편지와 《증손전수 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책을 보내왔다. 그것을 본즉, 해전과 육전, 불로 공격하는 전술 등에 관한 것을 날날이 말했는데, 참으로 만고에 특이한 저술이었다.

6일(병인) 맑음. 아침 먹은 뒤에 나가 앉아 무기를 검열해 보니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도 깨어지고 헐어서 볼썽 없이 된 것이 많았으므로 색리(色吏)와 궁장(弓匠), 감고(監考)³¹ 등을 처벌했다.

7일(정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고 활을 쏘았다.

8일(무진) 비. 종일 비가 왔다.

9일(기사) 비. 종일 비가 왔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30 나라 제삿날 : 중종 장경왕후 윤씨(中宗章敬王后尹氏)의 제삿날.

31 감고(監考) : 검사의 임무를 맡는 낮은 벼슬아치 이름.

10일(경오)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11일(신미) 맑음.

12일(임신) 맑음. 식후에 배 위로 나가서 경강선(京江船)³²을 점고했다. 배를 타고 소포(召浦)(여수시 종화동 종포)로 나가다가 때마침 동풍이 몹시 불고 또 격군(格軍)도 없어 도로 돌아와 곧장 동헌으로 와서 공무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13일(계유) 아침에는 날이 흐렸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14일(갑술) 종일 큰비가 왔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巡察使)(이광(李洸))를 만날 일로 순천(順天)으로 갔다. 비가 몹시 쏟아져 길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先生院)에 이르러 말을 버리고 해농창평(海農倉坪)(순천시 해룡면 해창리)에 이르니 길에 물이 석 자나 괴어 겨우 고을에 닿았다. 저녁에 순찰사와 만나 막혔던 정회를 이야기했다.

15일(을해) 흐린 채 가랑비가 오더니 저녁에야 개었다. 다락 위에 앉아 군관들을 시켜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16일(병자) 맑음. 순천 원이 환선정(喚仙亭)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또 겸하여 활도 쏘았다.

17일(정축) 맑음. 새벽에 순찰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을 먹인 뒤 본영으로 돌아왔다.

18일(무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19일(기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32 경강선(京江船) : 서울 한강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에 왕래하는 배들.

20일(경진) 비가 크게 쏟아졌다.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 보고 각 관방 회계를 맡겼다. 순천 관내를 수색 검토하는 일이 제 기한에 미치지 못했기로 대장(代將)과 색리와 도훈도(都訓導) 등을 추궁 논죄하였다. 사도(蛇渡)(첨사(僉使) 김완(金浣))에게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었는데 혼자서 검색했다고 하며, 또 반나절 동안에 내외나로도(內外羅老島)(고흥군 봉래면)와 대소평두(大小平斗)를 다 조사하고 그 날로 돌아왔다고 하니 너무도 엉뚱한 거짓말이다. 그 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흥양(興陽)과 사도(蛇渡)에 공문을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21일(신사)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아침 내 누워 앓다가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22일(임오) 맑음. 성 북쪽 봉우리 밑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虞侯)와 군관 열 사람을 갈라 보냈다. 식후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23일(계미)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맑았다. 식후에 동헌에서 공무 보았다. 보성(寶城)에서 보내 올 판자를 아직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색리에게 다시 공문을 띄워 독촉하고, 순천에서 사한 올려 보낸 소국진(蘇國進)에게 매 80대를 때렸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어 하는 말이, “발포 권관(鉢浦權管)은 군사 거느릴 만한 재목이 못 되기로 처치하겠다” 하였기에,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에 종사하게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24일(갑신) 나라 제삿날³³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우후가 수색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都事)의 답장을 송희립(宋希立)이 함께 가져왔는데, 순찰사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김수(金睟))의 편지에 말하되 ‘도주(島主)(대마도주(對馬島主) 종의지(宗義智))의 공문에 진작 배 1척을 내보냈는데, 만일 귀국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바람에 깨어진 것이리라’고 했더라는 것이다. 그 말이 극히 음흉했다. 동래(東萊)에서 서로 바라보이는 바다라 그럴 리가 만무한

33 나라 제삿날 : 세종 소헌왕후 심씨(世宗昭憲王后沈氏)의 제삿날이다.

데 말을 이렇게 꾸며 내니 그 감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25일(을유)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 마친 뒤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 병사(慶尙兵使)가 평산포(平山浦)[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남해(南海)로 갔다고 했다. 나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쯤이나 무너져 있었다.

26일(병술) 맑음. 우후와 송희립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27일(정해) 맑고 바람조차 없었다. 아침을 일찍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召浦)(여수시 종화동 종포)에 이르러 쇠사슬 가로 건너 매는 것을 감독하며 종일토록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하였다.

28일(무자) 맑음. 동헌에서 공무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순은 모조리 맞고 2순은 네 번 맞고 3순은 세 번 맞았다.

29일(기축) 맑음. 나라 제삿날³⁴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아산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 또 다행한 일이다.

4월

1일(경인) 흐림.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공무 본 뒤에 활 5순을 쏘았다. 별조방(別助防)을 점고하였다.

2일(신묘) 맑음. 식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차츰 더 아파 종일토록, 또 밤새도록 신음했다.

34 나라 제삿날 : 세조 정희왕후 윤씨(世祖貞熹王后尹氏)의 제삿날이다.

3일(임진) 맑음. 기운이 어지러워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4일(계사) 맑음. 아침에야 비로소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5일(갑오) 맑더니 늦게는 비가 조금 왔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6일(을미) 맑음. 진해루(鎭海樓)에 나가서 공무 본 뒤에 군관들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아우 여필(汝弼)을 전별했다.

7일(병신) 나라 제삿날³⁵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오전 10시계 비변사(備邊司)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김수(金睟))와 우병사(右兵使)의 장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8일(정유)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내는 물건을 봉했다. 늦게 여필이 떠나가고 홀로 객창 아래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었다.

9일(무술)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방응원(方應元)이 도방(到防)에 대한 공문서를 작성해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현감(光陽縣監)(어영담(魚泳潭))이 수색 검토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서 돌아갔다.

10일(기해) 맑음. 식후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11일(경자)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공무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이광(李光))의 편지와 별록(別錄)을 군관(순찰사 군관 남간(南間))이 가져왔다. 이날 비로소 돛배를 만들었다.

12일(신축)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地字), 현자(玄字)포를 쏘아 보았다. 순찰사 군관 남 공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헌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

35 나라 제삿날 : 중종 문정왕후 윤씨(中宗文定王后尹氏)의 제삿날.

을 쏘았다. 관청으로 올라가면서 노대석(路臺石)³⁶을 보았다.

13일(임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14일(계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15일(갑진) 맑음. 나라 제삿날³⁷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순찰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써서 즉시 역졸(驛卒)을 시켜 달려 보냈다. 해질 무렵, 영남 우수사(嶺南右水使)(원균(元均))의 통첩에 “왜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絶影島)에 대었다” 하였고, 이와 동시에 또 수사(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박홍(朴泓))의 공문서가 왔는데, “왜선 3백 50여 척이 벌써 부산포(釜山浦) 건너편에 와 대었다”고 하였고 즉시 장계를 띄우고 순찰사와 병사와 우수사(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사연이었다.

16일(을사) 오후 10시께 영남 우수사(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크나큰 부산진이 벌써 함락되었다”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길이 없었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삼도(三道)³⁸에도 공문을 보냈다.

17일(병오) 날이 갓고 비가 오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영남 우병사(嶺南右兵使)(김성일(金誠一))가 공문을 보냈는데,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눌러 머무르면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다. 늦게 활 5순을 쏘았다. 번을 그대로 누르는 수군과 번을 새로 드는 수군이 연달아 방비처로 왔다.

18일(정미) 아침엔 흐렸다. 이른 아침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권관(鉢浦權管)은 이미 파직되어 갔으니 가장(假將)(임시 대리)을 곧 정해 보내라” 했기로 나대용(羅大用)(충무공의 군관)을 그날로 정해 보냈다. 오후

36 노대석(路臺石) : 관청이나 사가나 대문 앞에 놓는 큰 돌로서 말을 타고 내릴 때 쓰는 것.

37 나라 제삿날 : 성종 공혜왕후 한씨(成宗恭惠王后韓氏)의 제삿날이다.

38 삼도(三道) : 전라도의 순찰사, 병사, 우수사 등을 합해서 이르는 것.

2시계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東萊)도 함락되었고 양산(梁山)(조영규(趙英珪)), 울산(蔚山)(이언함(李彦謙))의 두 원도 조방장(助防將)으로서 입성했다가 모두 패했다”고 하였다. 통분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병사(兵使)(경상 좌병사 이각(李珪))와 수사(水使)(경상 수사) 등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뒤흘까지 이르렀다가 그만 즉시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더 원통했다. 저녁에 순천(順天) 군사 거느린 병방(兵房)³⁹이 석보창(石堡倉)(여수시 봉계동 석창)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으므로 잡아다 가뒀다.

19일(무신) 맑음. 품방(品防)에 해자 파고 쇠사슬 구멍 뚫는 일로 아침에 군관을 정해 보내고, 나도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직접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上隔臺)를 순시했다. 이날 분부군(奔赴軍)(임대하러 온 군사) 7백 명이 역사에 점고를 맞았다.

20일(기유) 맑음. 동현에 나가 공무 보았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에 “거센 적들이 몰아치므로 그 앞을 당적해 낼 도리가 없고 승리한 기세를 타고 마구 치달리는 품이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온 것 같다” 하면서 내게 전선을 정비해 가지고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21일(경술) 맑음. 성두군(城頭軍) 늘어세울 일로 과녁 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 부사(順天府使)(권준(權俊))가 달려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22일(신해) 새벽에 탐망도 하고 부정 사실도 조사할 일로 군관들을 내어보냈다. 배응록(裴應祿)은 절갑도(折甲島)(고흥군 금산면 거금도)로 가고 송일성(宋日成)은 금오도(金鰲島)(여수시 남면)로 갔다. 그리고 이정복(李景福), 송한련(宋漢連), 김인문(金仁文) 등은 두산도(斗山島)(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적대목(敵臺木) 실어 내리는 일로 각각 군인 50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남은 군인들은 품방에 역사시켰다.

39 병방(兵房) : 각 지방에서 군사 관계의 사무를 맡은 아전.

[23일부터 30일까지는 빠져 있음]

5월

1일(경오) 수군들이 본영 앞바다에 모두 모였다. 이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으며 남풍만 몹시 불었다. 진해루(鎭海樓)에 앉아서 방답 첨사(이순신(李純信)), 홍양원(배흥립(裴興立)), 녹도 만호(정운(鄭運)) 등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모두 분격하며 제 한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의사(義士)들이라 할 만하다.

2일(신미) 맑음. 삼도 순변사(三道巡邊使)(이일(李鎰))와 우수사(원균(元均))의 공문이 왔다. 송한련(宋漢連)(공의 군관)이 남해로부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南海) 원(倅)⁴⁰[기효근(奇孝謹)]과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김승룡(金勝龍))와 상주포(尙州浦), 곡포(曲浦), 평산포 만호(平山浦萬戶)(김축(金軸)) 등이 왜적의 소문을 듣고는 벌써 도망해 버렸고 무기 등 온갖 물자도 죄다 훔쳐 버려 남은 것이 없더라”고 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오정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약속하니 모두 즐거이 나갈 뜻을 품는데, 낙안(樂安)(군수 신호(申浩))는 회피하려는 뜻을 가진 듯한 것이 탄식스러웠다. 그러나 군법이 있는데 설사 물러나 피하려 한들 될 일인가. 저녁에 방답의 첩입선(疊入船)⁴¹ 3척이 앞바다에 닿았다. 비변사(備邊司)의 명령이 내려왔다. 창평 현령(昌平縣令)이 부임하였다는 공식 서한을 바쳤다. 이날 밤 군호(軍號)는 용호(龍虎)라 하고 복명은 산수(山水)라 했다.

3일(임신) 가랑비가 아침내 왔다. 새벽에 경상 우수사의 답장이 왔다. 오후에 광양(光陽)(어영담(魚泳潭))과 홍양(興陽)을 불러다가 함께 이야기하는 중 모두 분한 마음을 나타냈다. 본도 우사(이억기(李億祺))가 수군을 끌고 와서 함께 약속했다. 방답의 판옥선(板屋船)이 첩입군(疊入軍)을 신고 오는 것을 보고 우수사(원균(元均))가 온다고 좋아하였으나 군관을 보내어 알아보니 방답 배였다. 크게 실망했다. 조

40 원(倅) :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

41 첩입선(疊入船) : 첩입 지역에 왕래하거나 그 지역과의 연락을 담당한 배.

금 뒤에 녹도 만호가 보자고 하기에 불러들였다. 그의 말이,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왜적은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통분한 마음 이길 길 없거니와 만약 기회를 늦추다가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곧 중위장(中衛將)(이순신(李純信))을 불러 내일 새벽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썼다. 이날 여도(呂島)와 수군 황옥천(黃玉千)⁴²이 집으로 도망간 것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어 달았다.

4일(계유) 맑음. 동이 트자 출발하여 바로 미조항(彌助項)(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약속했다. 우척후(右斥候)(김인영(金仁英)), 우부장(右部將)(김득광(金得光)), 중부장(中部將)(어영담(魚泳潭)), 후부장(後部將)(정운(鄭運)) 등은 오른쪽으로부터 개이도(介伊島)에 들어가 수토(搜討)하게 하고 다른 대장선들은 평산포(平山浦), 곡포(曲浦), 상주포(尙州浦)를 지나서 미조항에 대기로 했다.

[5일부터 28일까지는 빠져 있음]

29일(무술) 맑음. 우수사(右水使)(전라 우수사 이익기)가 오지 않으므로 혼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떠나 곧장 노량(露梁)(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이르러, 미리 만날 약속한 곳에서 경상 우수사와 만났다. 왜적이 있는 곳을 물으니 적은 지금 사천 선창(泗川船倉)(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바로 거기 가 보니 왜인들은 벌써 상륙해서 산 위에 진을 치고 배는 그 산 밑에 벌여 놓았는데 항전하는 태세가 아주 튼튼했다. 나는 모든 장수들을 독전하며, 일제히 달려들어 화살을 빗발치듯 퍼붓고 각종 총통(銃筒)을 바람 우레같이 쏘아 보내니 적들은 두려워 물러나는데, 화살에 맞은 자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고 왜적의 머리도 많이 베었다. 군관 나대용(羅大用)이 탄환에 맞았으며 나도 왼편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으로 뚫고 나갔으나 중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활군과 격군 중 탄환 맞은 사람이 또한 많았다. 적선 13척을 불태우고 물러 나왔다.

42 황옥천(黃玉千) : 임진 2월 19일 기사 참조. 여도 권관이었다.

6월

1일(기해) 맑음.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뒷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2일(경자) 맑음. 아침에 떠나 바로 당포(唐浦)(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앞 선창에 이르니 적선 20여 척이 벌여 정박했으므로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중의 큰 배 1척은 크기가 우리나라 판옥선만 한데 배 위에는 누각을 꾸며서 높이가 두 길이나 뒹직했다. 그 누각 위에는 왜장이 우뚝 앉아서 끄떡도 아니했다. 편전(片箭)과 크고 작은 승자 총통(大中勝字銃筒)을 비 퍼붓듯 마구 쏘아 왜장이 화살에 맞아 떨어지자 모든 왜적이 한꺼번에 놀라 흩어졌다. 우리 편이 여러 장병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쏘아대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했다. 조금 뒤에 큰 왜선 20여 척이 부산으로부터 바다에 깔려 들어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는 도망쳐서 개도(介島)(통영시 산양읍, 추도(楸島))로 물러갔다.

3일(신축) 맑음. 아침에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개도를 협공하니 벌써 달아나 버리고 사방 아무 데도 남은 놈이 없었다. 고성 등지로도 가 보고 싶었으나 우리 군대의 형세가 약하기 때문에 울분을 참고 머물러 밤을 지냈다.

4일(임인) 맑음. 우수사(이억기)가 오기만 고대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정오에 우수사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돛을 달고 나타났다. 진중 장병들이 기뻐 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착포량(鑿浦梁)(통영시 당동)에서 잤다.

5일(계묘) 아침에 떠나서 고성 당항포(唐項浦)(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이르니 왜의 큰 배 1척이 크기는 판옥선만 한데, 배 위에는 누각이 우뚝하고 명색 적장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간 배가 12척이요, 작은 배가 20척이었는데 한꺼번에 무찔러 깨뜨리면서 비 오듯 화살을 쏘아붙이니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왜장 머리는 7개를 베었고 남은 놈들은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지만

그 수효는 얼마 되지 아니했다. 우리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6일(갑진) 맑음. 전선의 동정을 살피며 거기서 그대로 잤다.

7일(을사) 맑음. 아침에 떠나 영등(永登)(거제시 장목면 구수리) 앞바다에 이르러 적선이 울포(栗浦)(장목면 대금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伏兵船)을 시켜 가 보게 했더니, 적선 5척이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먼저 알고 남쪽 한바다로 달아났다. 우리 여러 배들이 일제히 뒤를 쫓아 사도 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이 한 척을 온통 잡고 우후(虞侯)(이몽구)도 1척을 온통 잡았으며, 녹도 만호 정운(鄭運)도 1척을 온통 잡았다. 그리고 왜적의 머리는 합하여 모두 36개였다.

8일(병오)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일을 의논하면서 바다에서 잤다.

9일(정미) 맑음. 바로 천성(天城), 가덕(加德)(부산 강서구 가덕도 성북동)에 이르니 적이 1척도 없었다. 두 번 세 번 수색해 보고 나서 길을 돌이켜 당포로 와 밤을 지내고 새벽도 채 아니 되어서 출발, 미조항 앞바다로 왔다. 우수사와 함께 잠시 이야기했다.

10일(무신) 맑음.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빠져 있음]

8월

24일 맑음. 객사 동헌에서 정 영공(丁令公)⁴³(정결(丁傑))과 아침밥을 같이 먹고 곧 침벽정(浸碧亭)으로 옮겼다. 우수사(이억기)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 조방(丁助防)도 함께했다. 오후 4시에 출발, 노질을 재촉하여 노량(露梁) 뒷바다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다시 자정에 달빛을 타고 행선하여 사천 모사랑포(泗川毛思郎浦)(사천시 용현면 주문리)에 이르니 날은 벌써 샅지만 새벽안개가 사방에 끼어서 지척

43 영공(令公) : 조선 시대에 당상(堂上)의 벼슬을 한 사람에게 쓰는 존칭.

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25일 맑음. 오전 8시쯤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三千浦)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평산포 만호(平山浦萬戶)가 공장(空狀)⁴⁴을 바쳤다. 거의 당포(唐浦)(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이르러 경상 우수사(원균)와 배를 매고 서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후 4시께 당포에 도착하여 거기서 잤다. 밤이 이슬해서 비가 잠시 내렸다.

26일 맑음. 견내량(見乃梁)(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순천(順天)(부사 권준(權俊))도 왔다. 저녁에 배를 옮겨 각호사(角呼寺)(거제(巨濟)) 앞바다에 이르러 잤다.

27일 맑음. 영남 우수사(원균)와 함께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내도(漆乃島)(칠천도(漆川島))에 이르자 웅천(熊川) 현감 이종인(李宗仁)이 와서 이야기했다. 들으니 왜의 머리 35개를 베었다고 했다. 저물녘에 제포·서원포(濟浦西院浦)(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원포동)를 건너니 밤이 벌써 10시쯤인데 서풍이 차게 불어 나그네 마음이 산란했으며 이날 밤에는 꿈자리도 어지러웠다.

28일 맑음. 새벽녘에 앉아 꿈을 생각하여 보니, 처음에는 나쁜 것 같았으나 도리어 좋은 것이었다. 가덕(加德)으로 갔다.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빠져 있음]

44 공장(空狀) : 수령(守令)이나 참방(察訪)이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에게 공식으로 만날 때에 내는 직명을 적은 편지.

계사년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 충무공 49세.

계사년 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으나 명나라 제독 이여송은 몸을 빼어 돌아갔다. 그러나 나라만을 걱정하던 공은 7월에 진을 한산도로 옮기고 외로이 바다의 성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공에게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라는 새 직함을 맡기니 이해 8월의 일이었다.

[1월 1일부터 그믐까지는 빠져 있음]

2월

1일(병술) 종일 비가 왔다. 발포(鉢浦)(만호(萬戶) 황정록(黃廷祿)), 여도(呂島)(권관 김인영(金仁英)), 순천(順天)(부사 권준)이 모여들었다. 발포 진무(鎭撫) 최이(崔巳)가 두 번이나 군법을 범했으므로 처형했다.

2일(정해) 늦게 갠. 녹도(鹿島) 가장(假將), 사도(蛇渡)(침사 김완(金浣)), 흥양(興陽)(현감 배홍립) 등의 배가 들어왔으며, 낙안(樂安)(군수 신호(申浩))도 왔다.

3일(무자) 맑음. 여러 장수들이 거의 모였으나, 보성(군수 김득광)이 아직 안 왔다. 동쪽 상방(上房)에 나가 앉아 순천, 낙안, 광양[어영담] 등과 한참 동안 의논하였다. 이날, 경상도에서 옮겨 온 공문에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김호걸(金浩乞)과 나장(羅將) 김수남(金水男) 등 명부에 올린 수군 80여 명이 도망갔다고 하며, 또 뇌물을 많이 받고 잡아 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군관 이봉수(李鳳壽)와 정사립(鄭思立) 등을 비밀히 보내어 70여 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 주고, 김호걸과 김수남 등은 그날로 처형했다. 오후 8시쯤부터 비바람이 크게 불어쳐 배들을 겨우 구호했다.

4일(기축) 늦게 갠. 성 동쪽이 9발쯤이나 무너졌다. 객사 동헌에 나가 공무 봤다. 오후 6시께에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바람조차

몹시 사나워 배를 겨우 구호했다.

5일(경인) 경칩이라 독제(蠶祭)를 지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느지막이 비로소 잤다. 아침 식후에 가운데 대청으로 나가 공무 봤다. 보성 군수(김득광)가 밤을 도와 육지로 해서 달려 왔으므로, 뜰아래 붙잡아다 놓고 기일 어긴 죄를 문초하였더니, 순찰사와 도사(都事) 등이 명나라 군사를 접대할 사무를 맡아 강진, 해남 등지의 고을로 왔었기 때문이라고 공술하였다. 이 역시 공무라 그 대장(代將)과 도훈도(都訓導) 및 담당 아전들을 대신 처벌하였다. 이날 저녁 서울서 온 벗 이언형(李彦亨)을 송별하기 위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6일(신묘) 아침엔 흐리더니 늦게 개었다. 동트기 전에 첫 나발을 불고, 날이 밝을 무렵에 둘째, 셋째 나발을 불고 나서 배를 풀고 돛을 달았으나, 정오에는 역풍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양지리]에 닿아 거기서 잤다.

7일(임진) 맑음. 새벽에 떠나 곧장 견내량(見乃梁)(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이르니, 우수사(경상 우수사) 원 평중(平仲)(원균의 자(字))이 벌써 먼저 와 있기에 함께 이야기하였다. 기숙흙(奇叔欽)이 와서 봤다. 이영남(李英男)과 이여념(李汝恬)도 왔다.

8일(계사) 맑음. 아침에 영남 우수사(원균)가 내 배로 와서, 전라 우수사(이억기)의 기약 늦어진 잘못을 몹시 말하며, 지금 곧 먼저 떠나겠노라고 하였다. 내가 애써 말려 기다리게 하고 오늘 해 안으로는 당도할 것이라고 언약하였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나부끼면서 들어오므로 온 진중이 바라보고 기뻐 날뛰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나, 맞아들이고 본즉, 거느리고 온 것이 40척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쯤에 출발하여 초저녁에 온천도(溫川島)(칠천도(七川島))에 이르렀다.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1 독제(蠶祭) : 옛날 제도에 독(蠶)은 군중에서 대장 앞에 세우는 기(旗)인데, 큰 삼지창에 붉은 삭모(槩毛)를 많이 달았다. 독제는 그 기에 지내는 제사다.

9일(갑오) 첫 나발을 불고 둘째 나발을 불고 나서 다시 천기를 본즉, 비가 내릴 것 같아 떠날 것을 그만두었다. 종일토록 큰비가 오므로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10일(을미) 아침엔 흐렸으나 늦게 맑아졌다. 오전 6시쯤에 배를 띄워 바로 웅천(熊川)과 옹포(熊浦)(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이르니 적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띄어내 보았으나, 진작부터 우리 수군을 겁내는 터라 나올 듯이 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어서, 끝내 잡아 무찌르지 못하니 통분 또 통분하다. 오후 10시쯤에 도로 영등포 뒤 소진포(蘇秦浦)(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이르러 배를 매고 밤을 지냈다.

11일(병신) 흐림. 아침에 순천 탐후선(探候船)²이 돌아가는 편에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군사를 쉬게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12일(정유) 아침엔 흐리고 늦게 맑아졌다. 삼도 군사가 일제히 새벽에 떠나 바로 웅천과 옹포에 도착해 보니 적도들이 어제와 같이 나왔다 물러갔다 하며 아무리 띄어 보아도 끝내 한바다로 나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뒤쫓았으나 두 번 다 섬멸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통분하다. 이날 저녁에 도사(都事)가 우후(虞侯)에게 통지를 보냈다.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사용 물품을 배정한 것이라고 한다. 초저녁에 칠천도(漆川島)(七川島)에 이르자 비가 크게 쏟아지기 시작해서 밤새 그치지 아니하였다.

13일(무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오후 8시쯤에야 그쳤다. 토벌에 대한 의논으로 순천, 광양, 방답(防踏) 등을 불러다 이야기하였다. 정담수(鄭聃壽)(어란포 만호)가 보러 왔었다. 활과 화살 만드는 직공 대방(大邦), 옥지(玉只) 등이 돌아갔다.

14일(기해) 맑음. 증조부의 제삿날이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후선이 왔다. 아침 식후에 3도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 수사(원균)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전라

2 탐후선(探候船) : 그 지방에서 출전한 부대와와의 연락을 위해서 왕래하는 배.

좌우도 여러 장수들만 모여서 약속했는데, 다만 우후가 술주정으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 기막힌 꼴을 어찌 다 말하랴. 어란포(남해) 만호 정담수와 남도포(南挑浦) 만호 강응표(姜應彪)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큰 적을 무찌르는 일로 약속하는 마당에서 이렇게까지 술들을 함부로 마시니 그들의 사람됨에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가덕(加德) 첨사 전응린(田應麟)이 보러 왔었다.

15일(경자) 아침에는 맑더니 저녁에는 비가 왔다.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도 조용하므로 소포(과녁)를 걸고 활을 쏘다. 순천(부사 권준)과 광양(현감 어영담)과 사량(蛇梁) 만호 이여념(李汝恬), 소비포(所非浦) 권관 이영남(李英男), 영등포 만호 우치적(禹致績) 등이 왔다. 이날 순찰사(이광)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영(巡營), 영리(營吏)³의 고목(告目)⁴에는 “2월 1일 명나라 군대가 서울을 회복하고 왜적은 모두 섬멸되었다”고 하였다. 저녁에 원평중(원균)이 보러 왔었다.

16일(신축) 날은 맑은데 늦은 아침부터 큰 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영의정(정철(鄭澈))이 사신으로 북경에 간다고 하였다. 노비 단자⁵를 정원명(鄭元明)에게로 부치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신 가는 일행에게 전하라고 일러 보냈다. 오후에 우수사가 보러 와서 밥을 함께 먹고 갔다. 순천, 방답이 보러 왔었다. 밤 10시에 신환(慎環)과 김대복(金大福)이 임금에 내린 글 2통과 부찰사(副察使)⁶의 공문을 가져와 전했다. 그래서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松都)(개성(開城))를 치고 이달 6일에 반드시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락시키리라”는 소식을 들었다.

17일(임인)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었다. 이영남(李英男), 허정은(許廷闇), 정담수(鄭聃壽), 강응표(姜應彪) 등이 보러 왔었다. 오후에

3 영리(營吏) : 순영(巡營) 또는 병영 등에서 일하는 아전.

4 고목(告目) : 미천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5 노비 단자 : 지방 관리들이 사신의 노비로 올려 보내는 물품들의 명세서.

6 부찰사(副察使) : 부제찰사(副體察使)의 준말. 도제찰사보다 1급 낮은 벼슬로 도제찰사나 마찬가지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임시 파견된 고관.

우수사(이억기)를 찾아 보고, 또 새로 진도 군수로 온 성언길(成彦吉)을 봤다. 그리고 우수사와 함께 영남 수사(원균)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재촉하여 진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선전 표신(標信)⁷을 만나 배로 맞아들여 위의 분부를 받들어 본즉, “급히 적들이 돌아갈 길목으로 나가서 물길을 끊고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즉시로, 발자왈다는 단자를 써 주니 밤은 벌써 새벽 2시쯤이나 되었다.

18일(계묘) 맑음.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웅천(熊川)에 이르니 적세는 여전했다. 사도(蛇渡) 침사(김완(金浣))로 북병장(伏兵將)을 임명하여 여도(呂島) 만호, 녹도(鹿島) 가장(假將), 좌우별도장(左右別都長), 좌우 돌격장, 광양 2호선, 홍양 대장(代將), 방담 2호선 등을 거느리고 송도(松島)(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북병하게 하고, 모든 배들을 시켜서 띄어내게 하니 적선 10여 척이 뒤를 따라 나왔다. 경상도 북병선 5척이 날째게 먼저 나가 쫓을 적에 다른 북병선이 뛰어들어 가 둘러싸고 수없이 쏘아대니, 왜적의 죽은 것이 그 수효를 알 수 없고, 목을 벤 것이 1급이라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서 끝내 쫓아 나오지 못하였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원포(院浦)(창원시 진해구 원포동)로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어두운 틈을 타서 영등포 뒷바다로 돌아왔다. 사화랑(沙火郎)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19일(갑진) 맑음. 서풍이 크게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어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였다. 남해 원에게 붓과 먹을 보냈더니 그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고여우(高汝友)와 이효가(李孝可)가 보러 왔었다. 그대로 사화랑에 진을 치고 있었다.

20일(을사) 맑음. 새벽에 배를 띄우자 동풍이 약간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바람이 크게 불어 배들이 서로 맞부딪쳐 깨어지게 되었는데 거의 제어할 길조차 없었다. 곧 호령하여 호각을 불고, 초요기(招搖旗)⁸를 세워 전쟁을 중지시켜서 여러 배들이 다행히도 크게 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홍양의 1척,

7 표신(標信) : 옛날 제도에 급한 사변을 전할 때에 가지고 가는 표.

8 초요기(招搖旗) : 군기의 한가지. 대장이 장수들을 부르고 지휘하고 호령하는 기.

방답의 1척, 순천의 1척, 본영의 1척이 서로 들이받아 깨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진포(蘇秦浦)(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돌아와 물을 길고 밤을 지냈다. 이날, 사슴 떼가 동서로 달아났는데, 순천(부사 권준)이 1마리를 잡아 보내왔다.

21일(병오)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이영남(소비포), 이여념이 보러 왔었다. 우수사 원영공(元令公)과 순천, 광양(사량) 등도 보러 왔었다. 저녁에 비가 오더니 한밤중에야 그쳤다.

22일(정미) 새벽에 구름이 끼더니 동풍이 크게 불었다. 그러나 적을 치는 일이 급하므로 출발하여 사화랑(沙火郎)에 이르러 바람 멎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조금 자는 듯하므로 다시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두 승장(僧將)(삼혜(三惠)와 의능(義能))과 성의병(成義兵)(성응지(成應祉))을 제포(濟浦)로 보내어 곧 상륙할 것처럼 하고 우도(右道) 여러 장수의 배 중에서 변변하지 못한 것을 골라 동쪽으로 보내어 역시 상륙할 것처럼 꾸미게 했더니, 왜적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었다. 이때를 틈타서 전선을 합하여 바로 찌르니 적들은 세력이 나뉘고 약해져서 거의 섬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발포(鉢浦) 2호선과 가리포(加里浦) 2호선이 명령도 안했는데, 제멋대로 돌입하였다가 그만 얇은 곳에 걸려서 적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된 것은 통분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얼마 뒤에 진도 지휘선이 또 적에게 포위되어 하마터면 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후가 바로 들어가 구원해 냈다. 경상도의 좌위장(左衛將)과 우부장(右部將)은 보고도 못 본 체하며 끝내 돌아서서 구원해 내지 않았으니, 그 패심함은 말할 수 없다. 참으로 통분 또 통분했다. 이 때문에 경상도 수사에게 질책도 하였거니와 한심한 일이었다. 오늘의 통분한 것을 무슨 말로 다하랴. 모두 경상도 수사(원균) 때문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蘇秦浦)로 돌아와 잤다. 아산에서 뇌(蕾)와 분(芬)⁹의 편지가 웅천 진중으로 왔다. 어머님의 편지도 왔다.

23일(무신)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우수사가 보러 왔었고, 식후에 원수사(元水使)가 왔고, 순천, 광양, 가덕, 방답 등도 왔고, 이른 아침에는 소비포(所

9 뇌(蕾)와 분(芬) : 이순신의 맏형 이희신(李義臣)의 맏아들과 셋째아들.

非浦), 영등(永登), 와량(臥梁) 등이 보러 왔는데, 원 수사의 음험하고 흉악한 품은 이를 길이 없었다. 최천보(崔天寶)가 양화(楊花)(영등포구 양화동)로부터 내려와서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또 조도 어사(調度御史)¹⁰의 편지와 서류를 전하고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24일(기유) 맑음. 새벽에 아산과 온양에 보낼 편지와 집에 보낼 편지를 써 보냈다. 아침에 배를 띄워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자 비가 몹시 퍼부어 바로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돌려 칠천량(漆川梁)(거제시 하청면)으로 돌아왔다. 비가 그치매 우수사 이 영공(李令公)(이억기(李億祺)), 순천, 가리포, 진도(성언길(成彦吉))과 더불어 뱃놀이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초저녁에 배 만드는 기구를 들여보내는 일로 패자(牌字)¹¹와 홍양에 갈 공문들을 써 보냈다. 양미 90되로 자염(雌驛)(말갈기)을 바꾸어 보냈다.

25일(경술) 맑음. 풍세가 불순하므로 그대로 칠천량(漆川梁)에서 머물렀다.

26일(신해) 큰 바람이 불었다. 종일 머물러 있었다.

27일(임자) 맑으나 바람이 켜다. 우수사 이 영공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28일(계축) 맑고 바람도 없었다. 새벽에 떠나 가덕(加德)에 이르니, 웅천의 적은 오그라져서 나와 항전할 생각도 못 내는 것이었다. 우리 배가 바로 김해강(金海江)[서낙동강(西洛東江)] 아래쪽 독사리목(禿沙伊項,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으로 향하였는데 우부장이 번고를 알리므로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급히 가서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 경상 수사(원균)의 군관과 가덕 첨사의 사후선(司候船) 등 아울러 2척이 섬에서 들락날락하면서 태도조차 수상하므로 묶어서 원 수사에게 보냈더니 수사가 크게 성을 내는 것은 그 본의가 군관을 보내 고기 잡는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 오자는 데에 있었던 때문이었다. 초저녁에 아들 염(莚)이 왔다. 사화랑(沙火郎)에

10 조도 어사(調度御史) :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11 패자(牌字) : 조선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문서.

서 왔다.

29일(갑인) 흐림. 바람이 염려스러워서 배를 칠천량으로 옮겼다. 우수사 이 영공[이억기]이 보러 왔었다. 순천, 광양 등도 왔다. 영남 수사(원균)도 보러 왔다.

30일(을묘) 종일 비. 뜰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3월

1일(병진) 잠깐 맑더니 저녁에 비가 왔다. 방답 첨사(이순신(李純信))가 왔다. 순천(부사 권준)은 병으로 오지 못하였다.

2일(정사) 종일 비가 왔다. 뜰 밑에 앉았노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올라 회포가 어지러워서 이응화(李應華)를 불러다가 한참 이야기하고, 따라서 순천 배로 보내서 원의 병세를 알아보게 했다. 이영남과 이여념이 왔다. 그들에게서 원 영공(원균)의 옳지 못한 일¹²들을 들으니 깊이 탄식할 일이다. 이영남이 왜놈의 작은 칼을 놓고 갔다. 이영남에게 들은즉 강진 사람들이 살아 왔는데 고성으로 붙들려 가서 문초를 받고 왔다고 한다.

3일(무오) 아침에 비가 왔다. 오늘은 답청절(踏靑節)¹³인데 흉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으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으며 그나마 명나라 군사들이 서울로 들어온 여부조차 듣지 못하니 민망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종일 비가 내렸다.

4일(기미) 비로소 비가 개었다. 우수사 이 영공[이억기]이 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원 영공(원균)도 왔다. 순천의 병이 대단하다고 한다. 들으니 명나라 장수 이여

12 옳지 못한 일 : 경상 우수사 원균이 공을 탐내어 무고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다가 왜적의 머리라고 보고한 것이다. 지난 달 28일에 그의 군관들이 섬을 들락날락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영남의 이야기에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은 원균의 부하에게 붙들려 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다.

13 답청절(踏靑節) : 봄날 푸른 풀을 밟는다는 데서 생긴 풍속인데, 원래 중국에서는 정월 8일 또는 2월 등으로 정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나 뒤에는 3월 3일로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3월 3일을 답청일로 하였다.

송(李如松)은 함경도로 들어간 적이 설한령(雪寒嶺)을 넘어섰단 말을 듣고 개성까지 이르렀다가 도로 평안도로 돌아갔다고 한다. 통분하고 민망함을 이길 길 없었다.

5일(경진) 맑으나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순천(부사 권준)이 병으로 돌아간다기에 아침에 친히 전송했다. 탐후선이 왔다. 내일로 적을 치자고 약속했다.

6일(신유) 맑음. 새벽에 떠나서 웅천에 이르니 육지로 도망쳐 산허리에 진을 쳤으므로 관군들이 탄환과 편전(片箭)을 비 퍼붓듯 쏘아 대니 죽는 자가 무척 많았으며 사로잡혀 갔던 사천(泗川) 여인 한 사람을 뺏어 왔다. 칠천량(漆川梁)에서 잤다.

7일(임술)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이야기하였다. 초저녁에 출발하여 걸망포(巨乙望浦)(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이르니 이미 날이 섰다.

8일(계해) 맑음. 한산도(閑山島)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나니 광양, 낙안(樂安), 방담(防踏) 등이 왔다. 방담(첨사 이순신(李純信)과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은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지고 오고, 우수사(이억기)도 왔다. 어란(於蘭)(만호 정담수)도 쇠고기(桃林)¹⁴로 만든 음식 두어 가지를 보내왔다. 저녁엔 비, 비.

9일(갑자) 굵은비가 종일 내렸다. 원식(元植)이 보러 왔다가 갔다.

10일(을축) 맑음. 아침 후에 배를 띄워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양지리)으로 갔다. 낙안(樂安) 사람이 행재소(行在所)(의주)로부터 와서 전하는 말이 “명나라 군사들이 진작 개성까지 왔는데 연일 비가 와서 길이 질어 행군하기 어려우므로 날이 개기를 기다려 서울로 들어가기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첨사 이홍명(李弘明)이 보러 왔었다.

14 쇠고기(桃林) : 중국 고대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도림(桃林)(도원(桃原))이라고도 하는 지금의 하남성 영보현(靈寶縣)에 소를 놓아 버린 일이 있었던 바, 그 때문에 일종의 속담 문자로 소나 쇠고기를 도림(桃林)이라고 쓰게 된 것이다.

11일(병인) 맑음. 아침 후 원 수사와 이 수사가 함께 와서 술 마시며 이야기하였다. 원 수사는 몹시 취하여 동헌으로 돌아갔다. 본영 탐후선이 왔다. 돼지 세 마리를 잡아 왔다.

12일(정묘) 맑음. 아침에 각 고을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본영 병방(兵房) 이응춘(李應春)도 공문을 정리해 가지고 갔다. 염(莧)과 나대용(羅大用), 덕민(德敏), 김인문(金仁問)도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후에 우수사(이억기)의 사처 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밤이 이슬해서 비가 내렸다.

13일(무진) 비가 몹시 오다가 늦은 아침에야 개었다. 이 영공과 첨사 이홍명(李弘明)이 바둑을 두었다.

14일(기사) 맑음. 여러 배들을 출동시켜서 배 만들 재목을 실어왔다.

15일(경오) 맑음. 우수사가 이곳에 왔다.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觀德亭)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66분(分)이었다. 그래서 우수사가 떡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저물어서 비가 크게 쏟아지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퍼부었다.

16일(신미) 늦게 갠.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30여 분이었다. 원 영공도 왔다가 매우 취해 가지고 돌아갔다. 낙안이 아침에 왔기에 고부(古阜)로 가는 편지를 주어 보냈다.

17일(임신) 맑음.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었다. 우수사와 활을 쏘았다. 그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우스운 일이다. 신경황(申景潢)이 와서 임금의 분부를 가져온 선전관(宣傳官)(채진(蔡津), 안세걸(安世傑))이 본영에 왔다고 하였다. 그는 곧 돌아갔다.

18일(계유) 맑음. 모진 바람이 종일토록 불어 사람이 마음대로 나고 들지 못하였다. 소비포(所非浦)(이영남(李英男))와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우수사와 장기를 두어 이겼다. 남해(南海)(기효근(奇孝謹))도 왔다. 저녁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왔다. 밤중에 비가 내렸다.

19일(갑술) 비, 비.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20일(을해) 맑음.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오후에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21일(병자) 맑음.

22일(정축) 맑음.

[23일부터 4월 그믐까지 빠져 있음]

5월

1일(갑인) 맑음.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2일(을묘) 맑음. 선전관 이춘영(李春榮)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물 길을 끊고 막고 도망가는 적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군수 김득광(金得光)), 발포(만호 황정록(黃廷祿))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다른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물렸기 때문에 모이지 아니하였다.

3일(병진) 맑음. 우수사[이억기]가 수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많이 뒤떨어져서 유감이다. 선전관 이춘영은 돌아가고 이순일(李純一)(선전관)이 또 왔다.

4일(정사) 맑음. 이날은 어머니님 생신이건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게 되니 평생 유감이다. 우수사와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鎭海樓)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도 모여서 약속했다.

5일(무오) 맑음. 선전관 이순일이 경상도에서 돌아왔기에 아침밥을 대접하였다. 명나라로부터 내게 은청금자광록대부(銀淸金紫光祿大夫)¹⁵의 작품(爵品)을 주었다

15 은청금자광록대부(銀淸金紫光祿大夫) : 중국의 작품인데, 사실은 은청(銀淸)과 금자(金紫)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것을 혼동해서 적었다.

고 하는데 아마 잘못 들은 소문일 것이다. 느지막이 우수사, 순천, 광양, 낙안과 함께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으며 군관들을 시켜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6일(기미) 맑음. 아침에 신정(愼定)과 조카 봉(蕃)이 해포(蟹浦)(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서 왔다. 늦게 큰비가 쏟아지더니 그대로 종일 그치지 않아 개천에 물이 넘쳐 농민들을 만족하게 하니 다행 또 다행이다. 저녁 내내 친척 신 씨와 이야기하였다.

7일(경신)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루(鎭海樓)에 올라앉아서 공무를 처결할 후 배에 올라 떠나려는데 발포의 도망갔던 수군을 잡아내어 처형을 시키고 순천의 이방(吏房)도 입대에 관한 사무를 태만히 한 죄로 처형하려 하다가 그대로 두었다. 미조항(彌助項)(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이르자 동풍이 크게 불고 파도가 산더미 같아 간신히 배를 대고 갔다.

8일(신유)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였다. 새벽에 떠나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양지리) 바다에 이르니 만호(이여념(李如恬))가 나오기에 우수사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昌信島)(남해군 창선면 창선도)에 있다 하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당포(唐浦)(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이르니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와서 수사(원균)의 잘못이 많다고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9일(임술) 흐림. 아침에 떠나 걸망포(巨乙望浦,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이르니 풍세(風勢)가 불순하였다. 우수사와 가리포(첨사 구사직(具思稷))와 함께 앉아 군사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저녁엔 원 수사가 배 2척을 거느리고 왔다.

10일(계해)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견내량(見乃梁)(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이르러 홍양(고흥) 군사를 점검하고 기약한 날짜를 어긴 여러 장수들을 처벌하였다. 우수사와 가리포가 와서 모여 앉아 이야기하였다. 조금 있자니 선전관 고세충(高世忠)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대개 부산으로 나가 돌

아가는 적들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부찰사(副察使)의 군관 민종의(閔宗義)가 석류를 가지고 찾아 왔다. 저녁에 경상도 우후(虞侯) 이의득(李義得)과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밤늦게 흠여졌다. 봉사(奉事) 윤제현(尹齊賢)이 본영에 이르렀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본영에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곧 답장을 보냈다.

11일(갑자) 맑음. 선전관(高世勳)이 돌아갔다. 늦게 우수사의 진중으로 갔더니 이홍명(李弘明)과 가리포 첨사도 와 있었다. 바둑을 두기도 했다. 뒤이어 순천이 오고 광양이 오고 가리포가 술과 고기를 내었다. 얼마 지나서 영등포(거제시 장목면 구영리)로 적을 탐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되 가덕(加德) 바깥 바다에 적선이 무려 2백 여 척이나 머무르고 드나들며 웅천(熊川)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하였다. 선전관이 돌아갈 때 임금의 분부를 집행하는 데에 관해서 도원수(都元帥), 체찰사(體察使)에게 보내는 3건(件)의 공문을 한 서류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함께 떠나보냈다. 이날 남해(南海)도 보러 왔었다.

12일(을축) 맑음.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그편에 순찰사의 공문과 송 시랑(宋侍郎)¹⁶의 통첩을 가지고 왔다. 사복시(司僕寺)의 말 5필을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올려 보내라는 지시도 왔으므로 병방(兵房) 진무(鎭撫)를 띄워 보냈다. 늦게 영남(원균)이 왔다. 선전관 성문개(成文漑)가 보러 와서 피란 중에 계신 임금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통곡 또 통곡할 일이다. 새로 만든 쇠총을 비변사(備邊司)에 보내는 동시에 흑각궁(黑角弓)¹⁷, 후시(候矢)를 주어 보내니 성(成) 씨라는 사람은 이일(李鎰)(순변사(巡邊使))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저녁때 이영남(李英男), 윤동구(尹東耆)가 보러 왔었다. 고성 현령(固城縣令) 조응도(趙凝道)도 보러 왔었다. 이날 새벽에 좌우도 체탐인(體探人)을 영등(永登) 등지로 보냈다.

16 송 시랑(宋侍郎) : 명나라로부터 조선에 파견된 시랑(侍郎) 송응창(宋應昌).

17 흑각궁(黑角弓) : 검은 각궁이다. 각궁은 후궁(候弓)이라고도 하고 장궁(長弓)이라고도 하는데, 전쟁 때나 사냥할 때에도 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각궁이 유명했으며 쓰는 이의 힘에 따라 강한 것, 연한 것이 있는데 강궁(強弓), 실중력(實中力), 중력(中力), 연상(軟上), 연하(軟下) 등 종별이 있다.

13일(병인) 맑음. 조그마한 산등 위에 소포(幬)¹⁸를 치고 순천, 광양, 방답, 사도, 우후 그리고 발포 등 여러 장수들과 편 갈라 활을 쏘아 승부를 다투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밤에 들으니 경상도 우수사에게 선전관 도연량(都彦良)이 와 있다고 했다. 이날 밤 달빛은 배 위에 가득 차고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온갖 근심은 가슴을 치밀어 자려야 잠이 오지 않다가 닭이 울어서야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14일(정묘) 맑음. 선전관 박진종(朴振宗)이 왔다. 또한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예운(禮胤)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같이 왔는데 그들에게서 피란 중인 임금의 사정과 명나라 장수들의 하는 것을 들으니 참 통탄스러웠다. 나는 우수사(이억기)의 배에 옮겨 타고 선전관과 이야기하며 술을 두어 순배 나누자, 경상도 수사 원 평중(平仲)(원균)이 와서 술주정을 부리므로 온 배 안 장병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고약스러움은 정말로 말할 길이 없었다. 영산령(寧山令)이 취해 넘어져 정신을 못 차리니 우습다. 이날 밤, 두 선전관이 돌아갔다.

15일(무진) 맑음. 아침에 낙안 군수(신호(申浩))가 보러 왔었다. 조금 지나서 윤동구(尹東騫)가 그의 대장(원균)의 장계 초본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고약스러움은 말할 길이 없었다. 순천, 광양이 보러 왔었다. 늦은 아침에 조카 해(菱)와 아들 울(蔚)이 윤 봉사(奉事) 제현(齊賢)과 함께 왔다. 점심나절 과녁을 걸어 놓은 곳으로 가서 순천, 광양, 사도, 방답 등이 승부를 서로 겨루는데 나도 한몫 들어 쏘았다. 저녁에 배에 돌아와 윤 봉사와 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16일(기사) 맑음. 아침에 적량(赤梁)(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만호 고여우(高汝友), 감목관(監牧官) 이효가(李孝可), 이응화(李應華), 강응표(姜應彪) 등이 보러 왔었다. 각 고을 공문과 소장에 대한 처절을 하여 주었다. 조카 해(菱)와 아들 회(薈)가

18 소포(幬) : 우리말로 소포다. 소포는 본시 배로 과녁을 만든 것인데 ‘후(幬)’로도 통한다. 중국 고대에는 활 잘 쏘는 것으로서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잘 맞는 자는 작위를 봉하였다. 제후(諸侯)란 문자도 그 때문에 생겼다고 전한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이 글자의 뜻을 ‘술’이라 했는데, 술은 우리나라 옛말임을 알겠고, 술포(-布)가 소포로 된 것이다.

돌아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베개를 베고 누워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수가 중도에서 늦추며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탄 껍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많은 중에 일일이 이와 같아 더욱 더 한심스러워 눈물을 지었다. 점심때 윤 봉사에게서 관동(館洞)(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아주머니가 양주(楊州) 천천(泉川)(양주군 회천면)으로 피란 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올음이 터져 나옴을 참지 못하였다. 어찌 세상일이 이렇게도 차가운고. 장사는 누가 말아 치렀는지? 대진(大進)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니 더욱더 쓰린 일이다.

17일(경오) 맑음. 새벽에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와 이응화(李應華)가 보러 왔었다. 변존서(卞存緒)는 병으로 인해서 돌아갔다. 경상도 수사가 군관을 시켜 진양(晉陽)(진주)의 긴급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 제독(李提督)(이여송(李如松))은 지금 충주(忠州)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을 치고 있으니 통분 또 통분하다.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어 마음이 산란하였다. 고성(固城) 원이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추로(秋露)¹⁹와 쇠고기 음식한 꼬치와 꿀통을 보냈는데 복(服)(상복)을 만난 중이라 반기가 미안했다. 정으로 보낸 것이라 돌려보낼 수도 없으므로 군관들에게 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18일(신미) 맑음. 이른 아침에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백원(溫白元)²⁰ 4알을 먹었다. 아침 후에 우수사와 가리포(加里浦)가 보러 왔었다. 이윽고 설사를 하고 나니 조금 편안해진 듯하다. 종 목년(木年)이 해포(蟹浦)(아산시 인주면 해암리)로부터 온 편에 어머니가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며 미역 5동을 집에 보냈다. 전주 부윤(권율(權慄))이 공문을 보냈는데 순찰사의 직임까지 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은 찍히지 않았으니 까닭을 모르겠다. 방답 침사가 왔었다. 대금산(大金山)과 영등(永登) 등지의 탐방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왜적들이 나

19 추로(秋露) : 추로수(秋露木)라고도 한다. 약술의 한가지.

20 온백원(溫白元) :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 가장 잘 듣는 약인데, 충무공은 언제나 위장이 좋지 못하여 이 약을 복용하였던 것이다.

타나기는 하나 그리 대단한 흥모는 없다”고 한다. 새로 협선(挾船) 2척을 만드는데
못이 없다고 하였다.

19일(임신) 맑음. 아침밥을 윤 봉사와 함께 먹는데 여러 장수들이 몹시 권하고 몸
은 불편해도 억지로 고기를 먹게 되니 더욱 비감하다. 순찰사 공문에 명나라 장수
유 원외(劉員外)(유황상(劉黃裳))의 통첩에 의하여 명나라 군대가 부산 바다 어귀
를 벌써 끊어 막았다 한다. 공문 받은 확인서를 쓰고 또 공문에 관한 보고도 써서
보성 사람을 시켜서 보냈다. 순천이 쇠고기 등 일곱 가지 먹을 것을 보내왔다. 방
답과 이홍명(李弘明)이 보러 왔었다. 기숙흙(奇叔欵)도 보러 왔었다. 영등(永登)의
정찰 부대가 와서 다른 변고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20일(계유) 맑음. 새벽에 대금산(大金山) 정찰 부대의 보고도 영등(永登)과 마찬가지로
지었다. 순천이 다녀갔다. 소비포(所非浦) 권관이 다녀갔다. 오후에 정찰 부대가
와서 아뢰기를 “왜선은 형적도 없다”고 하기에 본영 군관에게 왜적의 물건을 실어
오는 데에 관한 편지를 써서 홍양 사람을 주어 보냈다.

21일(갑술) 새벽에 출발하여 거제(巨濟)의 유자도(柚子島)(거제시 신협읍 교도(橋
島)와 죽도(竹島))가 있는 한바다에 이르니 대금산 정찰 부대가 와서 적의 출입이
여전하다고 한다. 저녁에 우수사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이홍명이 다녀갔
다. 오후 2시쯤부터 비가 내려 농작물이 조금 소생하게 되었다. 이영남(李英男)이
다녀갔다. 원 수사가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큰 부대를 소동시켰다. 진중에서
도 이렇게 속이니 그 음흉하고 고약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밤에 바람이 미친
듯 불고도 또 비가 내렸다. 새벽녘에 이르러 거제 선창에 배를 대니 곧 22일이다.

22일(을해) 비, 비. 사람들이 바라던 참에 아주 흡족하였다. 늦은 아침에 나대용(羅
大用)이 본영에서 돌아왔는데 송 시랑(宋侍郎)(송응창(宋應昌))의 통첩과 그의 파
견원, 본도 도사(都事),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선전관 한 사람 등이 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송 시랑의 파견원이 전선(戰船)에 대한 것을 알아보러 오는 것이라고

하므로 곧 우후(虞侯)를 정하여 영접하도록 내보냈다. 오후에 칠천량(漆川梁)으로 옮겨 왔다. 접대할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나대용을 보냈다. 저녁에 방답이 와서 명나라 관리들 접대할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경상 우수사의 군관 김준계(金遵繼)가 와서 자기 장수의 의사를 전하고 갔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홍양 군관 이호(李琥)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3일(병자) 새벽에는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더니 늦게는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우수사가 오고 이흥명도 왔다. 경상 우병사(右兵使)(선거이(宣居怡))의 군관이 와서 적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갔다. 본도 병사의 편지와 서류가 왔는데 창원(昌原)의 적을 토벌하려고 하나 적의 형세가 사나워서 경솔히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저녁때 아들 회(薺)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이리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어두워진 후에 경상도 수사가 와서 명나라 관원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24일(정축) 비가 오다 말다 하였다. 아침에 진을 거제(巨濟) 앞 칠천량(漆川梁)(거제시 하청면) 바다 어귀로 옮겼다. 나대용이 명나라 관원을 사량(蛇梁)(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뒷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과 통역 표현(表憲)과 선전관 목광흠(睦光欽)이 같이 온다”고 하였다. 오후 2시쯤에 명나라 관원 양보(楊甫)가 진문에 당도하므로 우별도장(右別都將) 이설(李潑)을 시켜 나가 맞이하여 배에까지 인도해 오니 무척 기뻐하는 모양이었다. 내 배로 오르도록 청하여 군이 사양하며 앉지 않고 선 채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우리 수군이 장하다고 무척 칭찬하는 것이었다. 예물 단자를 준즉 처음에는 군이 사양하는 듯하다가 결국 받고는 무척 기뻐하며 두 번 세 번 감사하는 것이었다. 밤에 아들 회가 본영으로 돌아갔다.

25일(무인) 맑음. 명나라 관원과 선전관들은 어제 취한 술이 쉽게 깨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다시 통역관 표현(表憲)을 청하여 명나라 장수가 무어라고 하던가를 물으니, 명나라 장수의 말은 무어라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왜적을 쫓아 보내려고

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역관의 말로는 송 시랑(宋侍郎)이 수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야불수(夜不收)²¹ 양보(楊甫)를 보낸 것인데 수군이 이렇게도 장하니 기쁘게 비할 데 없다고 하였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본영으로 돌아갔는데 체자(帖字)²²로 준 것도 있다. 오정 때 거제 앞 유자도(柚子島) 바다 어귀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한참 동안 군사 일을 의논하였다. 광양이 오고 최천보(崔天寶), 이홍명(李弘明)이 와서 바둑을 두었다. 저녁때에 조봉(趙鵬)이 보러 와서 이야기하다 갔다. 초저녁에 영남에서 오는 명나라 사람 두 명과 우감사(右監司) 영리(營吏) 한 명과 접반사(接伴使) 군관 한 명이 진문(陣門)에 이르렀으나 밤이 깊어 들이지 아니하였다.

26일(기묘) 비, 비. 아침에 명나라 사람들을 만나 보니 그는 절강(浙江)의 포수(砲手) 왕경득(王敬得)인데, 글자는 조금 알고 있으나 한참 동안이나 서로 이야기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여 답답하였다. 순천이 노루 고기를 차려 내놓았는데 광양이 오고 우수사 영공(令公)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냈다. 가리포(加里浦)는 청했으나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으며 밤새도록 계속 내렸다. 밤 10시쯤부터 바람이 크게 불어 배들이 가만있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우수사 배와 맞부딪치는 것을 겨우 구해 났더니 또 발포(鉢浦)[만호 황정록(黃廷祿)]가 탄 배와 마주쳐서 부서질 뻔하다가 겨우 면하고 송한련(宋漢連)[공의 군관]이 탄 협선(挾船)은 발포 배와 부딪쳐 많이 상했다고 한다. 늦은 아침에 경상도 우수사가 보러 왔다 갔다. 순변사(巡邊使) 이빈(李濱)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나친 말이 많이 씌었으니 우습다.

27일(경진) 풍우에 부딪기 때문에 진을 유자도(柚子島)로 옮겼다. 협선(挾船) 3척이 간 곳 없더니 늦게야 들어왔다. 순천과 광양이 와서 노루 고기를 차렸다. 경상도 병사(兵使)(우병사 최경회(崔慶會))의 답장이 왔는데 그로 보아 원 수사는 송 경략(宋經略)(송응창(宋應昌))이 보낸 화전(火箭)을 혼자서 쓰려고 꾀하고 있는 꼴이

21 야불수(夜不收) : 중국의 속어이니 군중의 탐정을 이른다.

22 체자(帖字) : 증명서 또는 어떠한 약속을 확인하는 문서.

다. 우습다. 전라도 병사(선거이(宣居怡))의 편지도 왔는데 창원(昌原)의 적들을 오늘 토벌하러 가다가 비가 아직 개지 않아 나가 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28일(신사) 비. 종일 비가 내렸다. 순천과 이홍명(李弘明)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광양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독운(督運)²³ 임발영(任發英)은 위에서도 아주 옳지 않게 여기어 조사 처벌하라는 분부가 있고, 또 수군의 일족(一族) 징발에 대한 일에도 그전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다. 비변사(備邊司)의 공문이 왔는데 광양 현감은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이었다. 관보를 가지고 왔기에 들여다 본즉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용호장(龍虎將)²⁴ 성응지(成應祉)에게 배를 바꾸어 탈 수 있게 하기 위한 명령서를 써 주어 본영으로 보냈다.

29일(임오) 비, 비. 방답(防踏) 첨사와 영등(永登) 만호 우치적(禹致績)이 보러 왔다. 접반사(接伴使)(김수(金睟)), 도원수(都元帥)(김명원(金命元)), 순변(巡邊)(이빈(李濱)), 순찰사(巡察使)(권울(權慄)), 병사(兵使)(선거이(宣居怡)), 방어사(防禦使)(이복남(李福男)) 등에게 공문을 보냈다. 오후 8시쯤에 변유헌(卞有憲)과 이수(李銖) 등이 보러 왔다.

30일(계미) 종일 비. 오후 4시쯤에 잠깐 개는 듯하더니 도로 비가 왔다. 아침나절 윤 봉사(尹奉事), 변유헌(卞有憲)에게 적에 관한 일을 물었다. 이홍명(李弘明)이 보러 왔었다. 원 수사가 송 경략(經略)이 보낸 화전(火箭)을 혼자서 쓰려고 꾀하던 중 병사의 공문에 따라서 나눠 보내라고 하니까 공문도 내려고 하지 않고 무리한 말만 자꾸 지껄이더라고 하니 우습다. 명나라 고관이 보낸 불로 적을 치는 무기인 화전(火箭) 1천 5백 30개를 나눠 보내지 않고 독차지해서 쓰려고 하고 있다니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녁때 조봉(趙鵬)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남해(南海) 기효근(奇孝謹)의 배가 내 배 곁에 대었는데 그 배 속에 어린 색시를 싣고서는 남이 알까 봐 두려워한다. 가소롭다. 이같이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도 예쁜 색시

23 독운(督運) : 독운어사(督運御使)의 준말. 사람이나 물자를 징발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원.

24 용호장(龍虎將) : 의병장인 성응지(成應祉)에게 준 특수 칭호다.

를 태우고 놀기까지 하니 그 마음썸썸이야말로 이를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대장이 라는 원 수사부터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윤 봉사는 일이 있어서 본영으로 돌아 갔다. 군량미(軍糧米) 14섬을 실어 왔다.

6월

1일(갑신) 아침에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다. 어머니 편지를 보니 평안하시다 한다. 다행 또 다행이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 봉(奉)의 편지도 한꺼번에 왔는데 명나라 관원 양보(楊甫)가 왜물(倭物)을 보고 아주 좋아하면서 말안장 하나를 가지고 가더라고 한다. 순천과 광양이 보러 왔었다. 탐후선이 왜물을 가져왔다. 충청 수사 정 영공(丁令公)(걸(傑))이 오고 나대용(羅大用), 김인문(金仁問), 방응원(方應元) 및 조카 봉도 왔다. 그편에 어머니가 안녕하시단 기별을 들었다. 다행 또 다행이다. 충청 수사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저녁밥까지 대접했다. 황정옥(黃廷玉)과 이영(李瑛)이 강가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더라고 하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 날은 맑았다.

2일(을유) 맑음. 아침에 본영의 공문을 처결하여 보냈다. 온양(溫陽)의 강용수(姜龍壽)가 진중에 이르러 명함을 들여보내고는 먼저 경상도 본영으로 갔다. 판옥선(板屋船)과 군관 송두남(宋斗男), 이정조(李景祚), 정사립(鄭思立)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아침 후에 순찰사 군관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적의 정세를 물어 가지고 가려는데 우수사와 상의해서 대답해 보냈다. 강용수가 또 왔기에 양식 5말을 주어 보냈다. 원견(元堧)이 함께 왔더라고 한다. 정 영공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가리포(加里浦)의 구 우경(具虞卿)(구사직(具思稷))도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송아지를 잡아서 나눠 먹었다.

3일(병술) 새벽에 맑더니 늦게는 큰비가 왔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리기 위하여 판 배로 옮겨 뒀다. 막 활을 쏘려는데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 배에 비가 새지 않는 곳이 없어 마른 데를 골라 앉을 수가 없으므로 한심스러웠다. 평산포(平山浦)

만호[김축(金軸)], 소비포(所非浦) 권관(이영남(李英男)), 방답(防踏) 첨사(이순신(李純信))가 함께 보러 왔었다. 저물녘에 순찰사(巡察使)(권율(權慄)), 순변사(巡邊使)(이빈(李濱)), 병사(兵使)(선거이(宣居怡)), 방어사(防禦使)(이복남(李福男)) 등의 답장이 왔는데 딱한 사정이 많았다. 각도의 군사가 많아야 5천 명이 넘지 못하고 또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간다고 했다. 적도들이 발악이 날로 더해 가는데 일은 모두 이렇게 되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밤이 들기 전에 지휘선으로 돌아와서 침방으로 들어갔다. 비가 밤새도록 왔다.

4일(정해) 비, 비. 온종일 밤새도록 비가 왔다. 식전에 순천(부사 권준(權俊))이 왔다. 식후에는 충청 수사 정 영공(令公)(정결(丁傑))과 이홍명(李弘明)과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이 와서 종일토록 군사 일을 이야기하였다.

5일(무자) 비, 비. 종일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어려웠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해 진 뒤에 돌아갔다. 저물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풍세가 몹시 사나워서 배들을 겨우 구해 냈다. 이홍명이 왔다가 저녁 밥을 먹고 돌아갔다. 경상도 수사(원균)가 웅천(熊川)의 적이 감동포(甘同浦)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서 들어가 치자고 공문을 보냈다 하니 그 흥계가 우습다.

6일(기축) 개었다 비오다 하였다. 순천이 보러 왔었다. 보성(군수 김득광(金得光))이 교체되어 가고 그 자리에 김의검(金義儉)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이홍명도 오고 방답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본영 탐후인(探候人)이 왔는데 어머님이 안녕하시다고 했다. 또 흥양(興陽)서 오는 말이 낙안(樂安)에 와서 죽었다 하니 참 가없다.

7일(경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순천과 광양이 오고 우수사와 충청 수사도 오고 이홍명도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하였다. 본도 우수사의 우후(虞侯)(이정충(李廷忠))가 저녁에 보러 와서 서울 안 소식을 낱낱이 전하였다. 가증하고 한탄스럽게 짝이 없었다.

8일(신묘) 잠깐 맑더니 바람이 순하지 못하였다. 경상도 수사의 우후(虞侯)(이의득(李義得))가 군관을 시켜 생전복(生全鰓)을 선사하였기에 구슬 30개를 대신 보내 주었다. 나대용(羅大用)(공의 군관)이 병으로 본영에 돌아갔다. 병선(兵船) 진무(鎭無) 유충서(柳忠愬)도 병으로 사임하고 육지로 올라갔다. 광양이 오고 소비포도 왔다. 광양이 쇠고기를 내와서 함께 먹었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각 고을 담당 아전 11명을 처벌했다. 옥과(玉果) 향소(鄕所)에서 지난해부터 수군을 압령해 보내는 사무를 성실히 보지 않아서 도피자의 수가 거의 백여 명인데 그나마 매양 거짓말로 꾸며대 왔기 때문에 이날 목을 베어서 일반에게 보였다. 모진 바람은 그치지 않고 마음속도 산란하였다.

9일(임진) 맑음. 지루하던 비가 처음으로 개니 온 군중 장병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순천과 광양이 와서 개고기를 바쳤다. 심기가 불편하여 종일 배 속에 누워 있었다. 서류를 접수한 데 대한 접반관(接伴官)의 확인서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제독(提督)(이여송(李如松))이 도로 충주(忠州)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본군의 병(義兵) 성응지(成應祉)가 돌아올 때 본영의 군량미 50섬을 실어 왔다.

10일(계사)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가리포(加里浦)(구사직(具思稷))가 와서 군사에 대한 계책을 자세히 논의했다. 순천도 왔다. 샛자리 20냥을 쥘다. 저녁에 영등포〔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정찰 부대가 와서 보고하되 웅천의 적선 4척이 저희 본토로 돌아갔고 또 김해 바다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부산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새벽 2시쯤에 원 수사(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내일 새벽에 나가 적을 치자”는 것이었다. 그의 시기와 흥모는 형언할 길이 없다. 이날 밤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네 고을 군량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1일(갑오)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아침에 왜적 토벌한 공문을 만들어서 영남 수사(원균)에게 보냈더니 술이 취하여 정신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회답하지 않았다. 낮 12시쯤에 충청 수사(정경(丁傑))의 배로 갔으나 충청 수사는 내 배에 와서 앉아 있었기로 잠깐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그길로 우수사와 배로 간직 가리포(加里浦),

진도(珍島)(김만수(金萬壽)), 해남(海南)(위대기(魏大器)) 등이 우수사와 함께 술자리를 차려 놓고 앉아 있다가 나도 두어 잔 마시고 돌아왔다. 탐후인(探候人)이 와서 고목(告目)을 마치고 갔다.

12일(을미) 비가 오다 말다 했다. 아침에 흰 머리카락 여남은 오라기를 뽑았다. 흰 머리카락인들 무엇이 어떠라마는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었다.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랑(蛇梁)(이여념(李汝恬))이 다녀갔다. 밤 10시쯤 변존서(卞存緒)와 김양간(金良幹)이 들어왔다. 행궁(行宮)²⁵의 기별을 들은즉, 동궁(東宮)(광해군)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니 걱정스럽게 짝이 없다. 유 정승(유성룡(柳成龍))의 편지와 윤 지사(윤우신(尹又新))의 편지가 왔다. 종 갓동과 철매(哲每) 등이 병으로 죽었다니 참 가엾다. 해당(海棠)이란 중도 왔다. 밤에 원 수사의 군관이 와서 명나라 군인 5명이 들어왔다고 전하고 갔다.

13일(병신) 맑음. 늦게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쳤다. 명나라 사람 왕경(王敬)과 이요(李堯)가 와서 우리 수군의 형세가 얼마만한가를 보고 갔다. 그들에게서 이 제독(이여송)이 진격 토벌하지 않아 명나라 조정에서 문책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조 융희 이야기하는 중에 감개되는 점이 많았다. 저녁에 진을 거제도 세포(細浦)(거제시 사등면 성포리)로 옮기고 거기서 머물렀다.

14일(정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 후에 낙안(樂安)(신호(申浩))이 보러 왔었다. 순천, 광양도 왔었다. 광양이 노루 고기를 차려 내왔다. 전운사(轉運使) 박충간(朴忠侃)의 공문과 편지가 왔다. 경상 좌수사의 공문과 동도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크게 치더니 얼마 뒤에 그쳤다.

15일(무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우수사(이억기), 충청 수사(정걸), 순천(권준), 낙안(신호), 방답(이순신(李純信)) 등을 청해다가 함께 햇과일을 먹고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 헤어졌다.

25 행궁(行宮) : 서울 있는 궁전 이외의 지방에 있는 궁전. 여기서는 전주에 머무르고 있는 광해군의 숙소를 가리킴.

16일(기해) 잠깐 비가 왔다. 늦게 낙안(樂安) 원을 통하여 진해(鎭海)의 고목(告目)을 얻어 본즉, 함안(咸安)에 있는 각도 대장들은 왜놈들이 황산동(黃山洞)(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나가 진을 쳤다고 소문을 듣고 모두 물러나 진양(진주시)과 의령을 지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순천, 광양, 낙안 등이 왔다. 초저녁에 정찰군이 와서 아뢰되 “김해, 부산에 있던 적선 무려 5백여 척이 안골포(安骨浦)(창원시 진해구 웅동동), 웅포(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제포(薺浦) 등지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적도들이 합세하여 다른 지경을 침범할 계획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우수사(이억기)와 정 수사(정걸)에게 공문을 보냈다. 밤 10시 쯤에 대금산(大金山)(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정찰군이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 송희립(宋希立)을 경상 우수사(원균)에게로 보내어 의논한즉, 내일 새벽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피란 참 측량할 길이 없었다.

17일(경자) 혹은 비가 오다 혹은 개다 하였다. 이른 아침에 원 수사, 우수사(이억기)와 정 수사(정걸) 등이 와서 의논했는데 함안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가 지킨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었다. 식후에 이경수(李景受) 영공(이억기)의 배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조봉(趙鵬)이 창원(昌原)에서 와서 적의 형세가 아주 대단하더라고 전했다.

18일(신축) 혹 비도 오고, 혹 개기도 하였다. 아침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닷새 만에야 들어왔으니 아주 옳지 않은 일이라 곤장을 때려 보냈다. 오후에 경상 우수사(원균)의 배에 가서 같이 앉아서 군사 일을 의논하였다. 연거푸 한 잔, 한 잔 마신 것이 몹시 취해서 돌아왔다. 부안(扶安), 용인(龍仁)이 와서 그 모친이 갇혔다가 놓여 나왔다고 말했다.

19일(임인) 혹 비도 오고, 개기도 하였다. 바람조차 세계 불며 그치지 않으므로 진을 오양역(烏楊驛)(거제시 사등면 오양리) 앞으로 옮겼으나 바람에 배를 안정시킬 수 없어서 다시 고성 역포(固城亦浦)(통영시 용남면)로 옮겼다. 봉(奉)과 변유헌(卞有憲) 두 조카를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알고 오게 하였다. 왜물(倭

物), 명나라 장수가 선사한 물건 및 기름 등속을 본영으로 실어 보냈다. 각 도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20일(계묘) 흐리고 바람조차 세게 불었다. 조상의 제삿날이 되어서 종일 혼자 앉았다. 저녁때 방답, 순천, 광양이 보러 왔었다. 조봉이 그 조카 응도(應道)와 함께 보러 왔었다. 이날 배 만들 재목을 운반해 오고 그대로 역포(赤浦)에서 왔다. 밤에는 바람도 잤다.

21일(갑진) 맑음. 새벽에 진을 한산도(閑山島)의 망하응포(望何應浦)(통영시 한산면 하포리)로 옮겼다. 점심때 원연(元堧)(원균의 동생)이 왔었다. 우수사를 청해서 함께 앉아 술을 몇 잔 마시고 헤어졌다. 아침에 아들 회(薈)가 들어왔다. 그래서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이니 다행이다.

22일(을사) 맑음. 처음으로 전선(戰船)을 만들기 위하여 자귀질을 시작했다. 목수 2백 14명이 일을 하였다. 본영에서 72명, 방답에서 35명, 사도에서 25명, 녹도에서 15명, 발포에서 12명, 여도에서 15명, 순천에서 10명, 낙안에서 5명, 홍양과 보성에서 각 10명이었다. 방답에서 처음에는 15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담당한 군관과 아전을 처벌하였는데 그 정상이 아주 간교하였다. 지휘선의 제2호선 급수군 손결(孫乞)을 본영으로 돌려보냈던 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다가 잡혔다기에 붙잡아 오라고 하였더니 이미 버젓이 들어와 인사를 하는 것이므로 제 마음대로 드나든 죄를 다스리고, 그와 함께 우후(虞候)의 군관 유경남(柳景男)도 처벌하였다. 오후에 가리포(加里浦)가 왔다. 적량(赤梁)의 고여우(高汝友)와 이효가(李孝可)도 왔다. 저녁때 소비포 이영남이 다녀갔다. 초저녁에 영등(永登) 정찰 부대가 와서 보고하되 “별다른 일은 없고 다만 적선 2척이 온천(溫川)(칠천도)으로 들어가기에 순탐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23일(병오) 맑음. 이른 아침에 목수를 점호하였는데, 1명도 결근이 없었다. 새 배에 쓸 밑판을 다 만들었다.

24일(정미) 식후부터 큰 바람이 불어치더니 저녁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저녁에 영등(永登) 정찰 부대가 와서 아뢰되, “적선 5백여 척이 23일 밤중에 소진포(蘇秦浦)(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로 합하여 들어갔는데 그 선봉은 칠천량(漆川梁)에 이르렀다”고 했다. 밤에 대금산(大金山) 정찰 부대가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5일(무신) 큰비가 종일 왔다. 아침 후에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적을 토벌할 것을 의논하는 참에 가리포도 오고 경상도 우수사도 와서 의논했다. 들으니 진주(晋州)가 포위당했는데 아무도 감히 진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연일 비가 내려 적들이 물에 막혀 해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호남을 돕는 것이다. 다행이다. 낙안(樂安)의 군량 1백 30섬 9말을 나누어 주었다. 또 순천의 군량 9백 섬을 받아서 쥘 것이라고 한다.

26일(기유) 큰비가 굉장히 퍼부으며 남풍조차 크게 불었다. 아침나절에 북병선(伏兵船)이 변고를 아뢰되 “적의 중간 배와 작은 배 각 1척이 오양역(烏楊驛)(거제시 사등면 오양리) 앞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호각을 불어 닦을 들게 하고 모두 적도(赤島)(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화도(花島))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순천의 군량 1백 50섬 9말을 받아들여 의능(宜能)의 배에 실었다. 저녁때 김봉만(金鵬萬)이 진주로부터 적의 형세를 정탐하고 와서 아뢰되 “무수한 적의 무리들이 진주 동문 밖에 합쳤는데, 연일 큰비가 와서 물에 막혔으니 독기를 내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큰물이 적진을 휩쓸려고 하니 적이 밖으로 구원병과 양식을 댈 길이 없는 만큼 만일 큰 부대가 협력해서 친다면 대번에 섬멸할 수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양식이 끊어졌으니 우리 군사는 편안히 앉아서 고달픈 적을 맞게 되는 것으로 그 형세가 백전백승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거니 수로(水路)의 적이 비록 5, 6백 척을 합해 오더라도 우리 군사를 당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27일(경술) 비가 개다 오다 하였다. 오정에 적선 2척이 견내량(見乃梁)(거제시 사

등면 덕호리)에 나타났다고 하므로 전군을 거느리고 나가 보니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불을도(弗乙島)(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방화도(放火島)) 앞바다에 진을 쳤다. 아침에 순천, 광양을 불러다가 군사 문제를 토의하였다. 충청 수사가 그 군관을 시켜 홍양 군량이 떨어졌으니 3섬만 꾸어 달라고 하기에 꾸어 주었다.

28일(신해)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어제 저녁에 강진의 정찰선이 적과 싸운다는 말을 듣고 전군이 출발하여 견내량(見乃梁)에 이르니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을 보고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다. 바람과 조수가 모두 역세라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대로 머물러 밤을 지내고 새벽 2시쯤에야 불을도(弗乙島)에 도착하였다. 이날은 명종(明宗)의 제삿날이다. 종 봉손(奉孫)과 애수(愛守)가 들어와 고향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다행 또 다행이다. 원 수사(원균)와 우수사(이억기)가 함께 와서 군사 일을 의논하였다.

29일(임자) 맑음. 서풍이 잠깐 일어나더니 청명하게 개었다. 순천, 광양이 보러 왔다. 어란(於蘭) 만호(정남수)와 소비포(이영남) 등도 왔다. 종 봉손 등이 아산(牙山)으로 가는데 홍(洪), 이(李) 두 선비와 윤선각(尹先覺)(윤명문(尹明聞))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진주가 함락되었다. 황명보(黃明甫), 최경회(崔慶會), 서예원(徐禮元), 김천일(金千鎰), 이종인(李宗仁), 김준민(金俊民)이 전사하였다고 한다.

7월

1일(계축) 맑음. 인종(仁宗)의 제삿날이다. 밤 기온이 몹시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배 뒀 밑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일어난다. 선전관(유형(柳珩))이 왔다고 하더니 초저녁에 임금의 분부²⁶를 가지고 왔다.

2일(갑인) 맑음. 날이 저물어 우수사가 내 배로 와서 함께 선전관을 대접하였다. 점심 후에 헤어져 돌아갔다. 저물녘에 김득룡(金得龍)(공의 부하)이 와서 진주가

26 임금의 분부 : 이때 가지고 내려온 유서(諭書)는 “부총(副總)의 지휘를 받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위태하다고 전하였다. 놀라서 비통함을 이길 길 없다. 그러나 그럴 리가 만무하다. 응당 미친 사람이 헛소리를 전한 것이리라. 초저녁에 원연(元堧)과 원식(元植)이 와서 여러 가지로 군중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는데 우스웠다.

3일(을묘) 맑음. 적선 두어 척이 견내량(見乃梁)을 넘어오고 한편으로는 육지로도 나오니 통분하다.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가 뒤를 쫓자 그만 도망쳐 버렸다. 도로 물러 와서 잤다.

4일(병진) 맑음. 흉악한 적 수만여 명이 죽 벌여 서서 기세를 올리니 통분하다. 저녁때 걸망포(乞望浦)(통영시 용남면 화삼리)로 진을 물리고 잤다.

5일(정사) 맑음. 새벽에 정찰 부대가 와서 아뢰되, “적선 10여 척이 견내량(見乃梁)으로 들어온다”고 하기에 여러 배들이 한꺼번에 출발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선들은 허둥지둥 달아나 버리고 거제 땅 적도(赤島)에는 말만 있고 사람이 없으므로 싣고 왔다. 저녁에 변존서(卞存緒)가 본영으로 떠났다. 또 광양으로부터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왔다. 두치(豆恥)의 복병한 곳에서 성응지(成應祉)와 이승서(李承緒)가 보낸 보고다. 저녁에 걸망포(乞望浦)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6일(무오) 맑음. 아침에 방답(이순신(李純信))이 보러 왔었다. 소비포(이영남)도 왔었다. 한산도에서 새로 만든 배를 끌어 올 일로 중위장(中衛將)이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끌어왔다. 공방(工房) 곽언수(郭彦受)가 행재소(行在所)²⁷로부터 들어왔는데 도승지(都承旨) 심희수(沈喜壽)와 윤자신(尹自新)(지사(知事))과 좌의정(左議政) 윤두수(尹斗壽)에게서 답장이 있고, 윤기현(尹耆獻)도 안부를 보냈다. 아울러 기별(奇別)²⁸도 왔다. 보니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다. 흥양(興陽)이 군량을 실어 왔다.

27 행재소(行在所) : 피란 중의 임시 조정.

28 기별(奇別) :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신문의 시초가 된 것이다.

7일(기미) 맑음. 순천, 가리포, 광양 등이 와서 군사 일을 의논했다. 가볍고 날랜 배 15척을 뽑아 견내량(見乃梁)으로 가서 탐색해 보기로 하여 위장(衛將)이 거느리고 가 보았으나 적의 형적은 없더라고 한다. 사로잡혀 갔던 거제(巨濟)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적의 하던 짓을 자세히 물었더니, “흉악한 적들이 우리 수군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려 하더라” 하며 또 말이 “진주가 함락되었으니 전라도까지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우수사가 내 배로 왔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8일(경신) 맑음. 남해(南海)로 왕래하는 조봉(趙鵬)에게서 적이 광양을 친다는 말에 광양 사람들이 벌써 관청과 창고를 불 질렀다는 말을 들으니 해괴함을 이길 길이 없다. 순천(권준)과 광양(어영담)을 곧 보내려다가 굴러 온 소문을 믿을 수 없으므로 중지하고 사도(蛇渡) 군관 김봉만(金鵬萬)을 내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

9일(신유) 맑음. 남해가 또 와서 광양, 순천이 벌써 결판났다고 전하므로 광양(어영담), 순천(권준), 송희립(宋希立), 김득룡(金得龍), 정사립(鄭思立) 등을 내보냈고 이설(李潑)은 어제 먼저 보냈다. 이 소식이야말로 뻗속들이 저려서 말을 못하였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와 함께 일을 의논하였다. 이날 밤 바다에 달은 밝고 티끌 하나 일지 않아 물과 하늘이 한 빛인 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3경 말에 본영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와서 적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왜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란민들이 왜적처럼 차리고 광양으로 들어가 여염집을 분탕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우선 다행한 생각을 이길 길이 없다. 진주 소문도 역시 빈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주 일은 그럴 리가 만무하다. 닭이 벌써 울었다.

10일(임술) 맑음. 김봉만(金鵬萬)이 두치(豆恥)(광양시 다압면 섬진리)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광양의 일은 사실이나 다만 왜적 백여 명이 도탄(陶灘)으로부터 건너와 광양을 치고 들어왔으나 놈들의 한 짓을 보면 충도 한 방 놓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적이면 어찌 충도 한 방 안 놓을 리가 있을 것이라. 경상 우수사와 본

도 우수사가 왔다. 원연(元堧)도 왔다. 저녁에 오수(吳水)가 거제(巨濟) 가참도(加參島)(거제시 사등면 가조도(加助島))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적선은 안팎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하고 또 말하되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자들의 말이, 무수한 적들이 창원으로 가더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초저녁에 진을 한산도 끝 세포(細浦)로 옮겼다.

11일(계해) 맑음. 아침에 이상록(李祥祿)이 명령 어긴 여러 장수들에게 전령할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아뢰되 “적선 10척이 견내량(見乃梁)에서 내려온다”고 하므로 댕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5, 6척이 벌써 진 앞에 이르기로 그대로 추격하였더니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오후 4시쯤에 결망포(乞望浦)로 돌아와 먹을 물을 길어 왔다. 사도(蛇渡) 침사(金浣)가 와서 하는 말이 두치(豆恥) 나루의 적은 헛소문이요, 광양 사람들이 왜복을 가장해 입고 저희끼리 장난한 것이다”고 한다. 순천과 낙안은 아주 벌써 결판났다고 한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어두워 오수성(吳壽城)이 광양으로부터 와서 아뢰되, “광양의 사변은 모두 진주에서 피란 온 사람들과 그 고을 사람들이 그런 흉계를 낸 것이었다. 고을 곳간은 쓸쓸하고 마을은 텅 비어 종일 돌아다녀야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순천이 가장 심하고 낙안이 그 다음쯤 된다”고 하였다. 달 아래 우수사의 배를 찾아갔더니 원 수사와 직장(直長) 원연(元堧)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군사 일을 의논하다가 헤어졌다.

12일(갑자) 맑음. 식전에 울(蔚)과 송두남(宋斗男)과 오수성이 돌아갔다. 늦게 가리포(구사직)와 낙안(신호)을 청해다가 일을 의논하고 함께 점심 먹고 돌아갔다. 가리포의 군량 진무(鎭撫)가 와서 전하되 “사량(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앞바다에 와서 자는데 왜적이 우리 옷을 갈아입고 우리나라 작은 배를 타고 돌입하여 충을 놓으며 노략질해 가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곧 가볍고 날랜 배 3척씩을 정해서 합하여 9척을 보내어 잡아 오도록 명령하는 한편 또 각각 3척씩을 정하여 착량(鑿梁)[통영시 당동]으로 보내어 요새를 방어하고 오라 했다. 고목(告目)이 왔다. 또다시 광양 일은 헛소문이라 하였다.

13일(을축) 맑음. 늦게 본영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다. 광양 두치(豆恥) 등지에는 적의 꼬락서니를 볼 수 없다고 한다. 홍양 현감(배홍립)이 들어왔다. 우수사도 왔다. 순천의 거북선 격군인 경상도 사람의 종 태수(太壽)가 도망가다가 잡혀 왔기로 처형했다. 가리포가 보러 왔었다. 늦게 홍양 원이 와서 두치(豆恥)의 거짓 소문과 장흥 부사 유희선(柳希先)의 겁내던 일들을 전했다. 또 말하기를 “자기 고을 산성(山城)(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창고의 곡식을 빠짐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또 행주성(幸州城)(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의 대첩(大捷)을 전했다. 초저녁에 우수사 영공(令公)이 청하기에 그의 배로 가 본즉 가리포 영공이 몇 가지의 먹음직한 것을 차려 놓았다. 날이 거의 샅녁에 헤어졌다.

14일(병인) 맑더니 늦게 조금 비가 왔다. 한산도 두을포(豆乙浦)(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의항)로 진을 옮겼다. 비는 먼지를 적실 정도였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 신음하였다. 순천(권준)이 들어와서 장흥 부사가 본부(本府)의 일을 망령되게 퍼뜨린 것은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함께 점심을 먹고 그대로 머물렀다.

15일(정묘) 맑음. 늦게 사량(蛇梁)의 수토선(搜討船), 여도(呂島)의 김인영(金仁英)과 순천(順天) 지휘선을 타고 다니는 김대복(金大福)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들어오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다. 홀로 배 뒀 밑에 앉았노라니 마음이 몹시 산란하다. 달빛은 뱃전에 비치고 정신도 맑아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닭이 울었다.

16일(무진) 아침에 맑다가 늦게 흐리더니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17일(기사) 비, 비. 몸이 대단히 불편했다. 광양[어영담]이 왔다.

18일(경오)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鄭思立) 등이 돌아왔다. 우수사[이억기]가 보러 왔었다. 신경황(申景潢)이 두치(豆恥)로부터 와서 적의 헛소문임을 전했다.

19일(신미) 맑음. 이경복이 병사에게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떠났다. 순천(권준)과 이영남(李英男)이 와서 전하기를 전주, 하동, 사천 등지의 적들이 벌써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저녁에 광양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수들의 명부를 보내왔기에 보니 비참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었다.

20일(임신) 맑음. 탐후선(探候船)이 본영으로부터 들어왔다. 병사의 편지와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는데 그 통첩의 내용이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려 도망해 돌아갔다고 했다. 거짓말임을 형언할 길이 없다. 상국(上國) 사람이 이러하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라. 통탄할 일이다. 충청 수사와 순천, 방답(이순신(李純信)), 광양(어영담), 발포(황정록), 남해(기효근)가 보러 왔었다. 이해(李菱)와 윤소인(尹素仁)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21일(계유) 맑음. 경상 우수사(원균)와 정 수사(정걸(丁傑))가 한꺼번에 와서 적을 토벌할 일을 의논하는데 원 수사의 하는 말은 극히 흥측하고 말할 수 없는 흥계다. 이러하고서도 일을 같이 한다면 뒷걱정이 없을까? 그 아우 연(璉)이 뒤미처 와서 군량을 얻어 가지고 갔다. 홍양도 왔다가 어두울 녀에 돌아갔다. 초저녁에 오수(吳水)들이 거제(巨濟)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영등포의 적선이 아직도 머물러 있어 제 맘대로 횡행한다”고 하였다.

22일(갑술) 맑음. 오수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온 사람을 실어 오기 위해서 나갔다. 울(蔚)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안녕하시고 염(蔭)²⁹의 병도 차도가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23일(을해) 맑음. 울이 돌아갔다. 정 수사를 청해다가 점심을 함께 먹었다.

24일(병자) 맑음. 순천, 광양, 홍양이 왔다. 저녁에 방답과 이응화(李應華)가 보러 왔었다. 초저녁에 오수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이 물러가기는 갔으나 장문포(長門浦)(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적들은 여전하다”고 하였다. 아들 울이 본영에 닿았

29 염(蔭) : 충무공의 막내아들로, 나중에 이름을 먼(緡)으로 고침.

다고 한다.

25일(정축) 맑음.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조봉(趙鵬)도 와서 체찰사(體察使)의 공문이 경상 수사(원균)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더라고 한다.

26일(무인) 맑음. 순천, 광양, 방답이 왔다. 우수사(이억기)도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가리포도 같이 왔다.

27일(기묘) 맑음. 우수사 우후(虞候)(이정충)가 본영으로부터 와서 우도(右道)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았다. 체찰사에게 가는 편지 공문을 썼다. 경상도 우수영의 영리(營吏)가 체찰사에게 갈 서류 초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였다.

28일(경진) 맑음. 아침에 체찰사에게 가는 편지를 썼다. 경상 우수사(원균)와 충청 수사(정걸)와 본도 우수사(이억기)가 함께 와서 약속하였다. 원 수사의 음흉하고 간흉한 것은 형편이 없다. 정여흥(鄭汝興)이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체찰사(體察使)에게로 갔다. 순천, 광양이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갔다. 사도(蛇渡) 첨사(김완)가 북병했을 때 잡은 보자기³⁰ 10명이 왜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꼼꼼하다 하므로 자세히 추궁했더니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데 경상 수사가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족장(足掌)(발바닥)을 10여 대씩 때리고 놓아 주었다.

29일(신사) 맑음. 새벽꿈에 아들을 얻었다. 포로가 되었던 사나이를 얻을 징조였다. 순천, 광양, 사도, 홍양, 방답 등을 불러와서 이야기하였다. 홍양은 학질을 앓아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하였다. 방답은 북병할 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후인(探候人)이 왔는데 염(莚)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저녁에 보성(김득광), 소비포(이영남), 낙안(신호)이 들어왔다.

30 보자기 : 포작(鮑作). 원문의 '작(作)'은 '보자기'의 이두 표기로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이른다.

8월

1일(임오) 맑음. 새벽꿈에 커다란 대궐에 이르렀는데 마치 서울인 것 같고 기이한 일이 많았다. 영의정이 와서 인사를 하기에 나도 답례를 하였다. 임금의 피란 가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뿌려가며 탄식할 적에 형세는 벌써 중식되었다고 말하였다. 서로 일을 의논할 즈음, 좌우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켰다. 아침에 우후(虞候)(이몽구(李夢龜))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2일(계미)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음이 답답하여 닳을 감아 올리고 포구로 나가니 정 수사(정(傑))가 따라 나오고 순천, 광양이 보러 왔다. 소비포(이영남)도 왔다. 저녁에 진 쳤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홍명(李弘明)이 와서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어두울 녘에 우수사(이억기)가 내 배로 와서 하는 말이 “방답(이순신(李純信))이 근친하러 가겠다고 간절히 청하나 여러 장수들을 잠시도 내보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며 또 원 수사가 허망한 말을 하며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 모두 망령된 짓이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염(蔭)의 병도 어떤지 모르고 적도 얼른 소탕되지 않고 몸도 괴로워 아침나절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는데 염이 아픈 데가 꺾어서 침으로 찔더니 악즙이 흘러나왔는데 며칠만 늦었더라면 구할 길이 없었더라고 한다.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은 조금 생기가 있다 하니 다행한 심정을 어찌 다 말하랴. 의사 정종지(鄭宗之)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3일(갑신) 맑음. 이경복(李景福), 양응원(梁應元)과 영리(營吏) 강기경(姜起敬) 등이 들어왔다. 염의 종기를 침으로 찔던 일을 전하는데 새삼스레 놀랐다. 며칠만 더 늦었다면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4일(을유) 맑음. 순천, 광양이 다녀갔다. 저녁때 도원수 군관 이완(李緩)이 삼도(三道)의 적세를 보고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담당 군관과 아전을 잡으러 진으로 왔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5일(병술) 조봉(趙鵬), 이홍명(李弘明), 우수사 영공과 우후들이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소비포(이영남)도 밤에 돌아갔다. 이완이 술에 취해서 내 방에서 머물렀다. 쇠고기를 얻어서 각 배에 나누어 보냈다. 아산(牙山)에서 이예(李禮)가 밤에 왔다.

6일(정해) 맑음. 아침에 이완이 송한련(宋漢連), 여여충(呂汝忠)과 함께 도원수에 게로 갔다. 식후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 이응화(李應華) 등이 보러 왔었다. 저녁에 원 수사가 오고 이경수(李景受)³¹ 영공(令公)(이억기), 정 수사도 와서 일을 의논하는 동안 원 수사의 언론은 걸핏하면 모순이 생긴다. 어처구니없다. 저물녘에 비가 잠깐 시작하다가 이내 그쳤다.

7일(무자) 아침엔 맑더니 저물어선 비가 왔다. 농사에 흡족하겠다. 가리포 첨사(구사직)가 오고 소비포와 이효가(李孝可)도 보러 왔었다. 당포(唐浦) 만호(하종해(河宗海))가 작은 배 찾아갈 일로 왔기에 주어 보내라고 사량(蛇梁)에게 지시하였다. 가리포 영공은 점심을 나와 함께 먹고 갔다. 저녁에 경상 수사(원균)의 군관 박치공(朴致公)이 와서 적선이 물러갔다고 전하나 원 수사와 그 군관은 본시 헛소리를 잘하니 믿을 수가 없다.

8일(기축) 맑음. 식후에 순천, 광양, 방답, 흥양 등을 불러들여 복병에 관한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충청 수사(정결)의 전선 두 척이 들어왔으나 한 척은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김덕인(金德仁)은 그 도의 군관으로서 왔다. 본도(전라도) 순찰사 진중에 있는 군인 두 명이 공문을 가지고 적세를 알려왔다. 우수사가 유포(幽浦)로 가서 경상 수사와 만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9일(경인) 맑음. 아침에 아들 회(薈)가 들어와서 어머니님 안녕하시다 하고 또 염의 병도 차차 나아가는 것을 알았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 배에 갔더니 충청 영공도 왔다. 경상 수사는 복병을 일제히 내보내서 복병시키

31 경수(景受) : 우수사 이억기의 자(字)다.

기로 약속해 놓고 슬며시 혼자 먼저 보냈다고 한다. 해괴한 일이다.

10일(신묘) 맑음. 아침에 방답 탐후선이 들어왔다. 임금의 본부를 전하는 편지와 비변사(備邊使)의 공문과 감사(監司)의 공문이 한꺼번에 왔다. 해남(위대기(魏大器))이 이 첨사(이순신(李純信))와 함께 오고 순천, 광양도 왔다. 우수사가 청하기로 그 배로 가니 해남이 술상을 차렸으나 몸이 불편하여 간신히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다.

11일(임진) 늦게 소나기가 크게 쏟아지며 바람도 몹시 불더니 오후에는 비가 그쳤으나 바람은 멎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토록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여도(呂島) 만호(김인영(金仁英))에게 격군을 수색해 오기 위하여 사흘 한하고 갔다 오라고 지시하였다.

12일(계사)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 드러누웠다가 허약한 몸에 땀이 무시로 나서 옷이 흠뻑 젖기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앉았다. 늦게 순천과 우수사와 이 첨사(이순신(李純信))가 와서 종일 장기를 두었다. 가리포도 왔다. 본영의 탐후선이 들어와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한다.

13일(갑오) 본영에서 온 공문에 결재해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홀로 배 뜰 아래 앉았노라니 회포가 천만 갈래다. 이경복(李景福)을 장계 가지고 가라고 내보냈다. 경(庚)의 어미의 노자는 체자(帖字)로 보내 주었다. 송두남(宋斗男)이 군량미 3백 섬과 콩 3백 섬을 실어 왔다.

14일(을미) 맑음. 방답이 명절 제사 음식들³²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충청 수사, 순천(권준) 등이 와서 함께 먹었다.

15일(병신) 맑음. 이날은 추석이다. 우수사(이억기), 순천(권준), 광양(어영담), 낙안(신호), 방답(이순신), 사도(김완), 홍양(배홍립), 녹도, 이응화, 이홍명, 좌우 도

32 명절 제사 음식들 : 원문의 '산물(酸物)'은 '준물(醃物)'을 잘못 적은 것임.

영공(都令公) 등이 모두 모여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회(薈)가 본영으로 갔다.

16일(정유) 맑음. 광양이 명절 음식들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충청 수사, 순천, 가리포(구사직), 이응화 등이 함께 왔다. 아침에 들으니 제만춘(諸萬春)이 일본에서 어제 왔다고 한다.

17일(무술) 맑음.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리기 위하여 좌별도선(左別都船)에 옮겨 탔다. 늦게 우수사의 배로 가니 충청 수사도 왔다. 제만춘(諸萬春)을 불러다가 문초해 보니 분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다. 종일 의논하고 헤어졌다. 밤 되기 전에 지휘선으로 옮겨 탔다. 이날 밤, 달은 낮 같고 물결은 비단결 같아 회포가 건디기 어려웠다. 새로 만든 배를 진수(進水)했다.

18일(기해) 맑음. 우수사, 정 수사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순천, 광양도 보러 왔었다. 조봉(趙鵬)이 와서 “박치공(朴致公)(원균의 군관)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19일(경자) 맑음. 아침 후에 원 수사에게 가서 내 배로 옮겨 타자고 청하였다. 우수사와 정 수사도 왔다. 원연(元堧)도 같이 이야기하였다. 말 가운데 원 수사의 음흉하고 고약한 일이 많으니 그 허무맹랑한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원씨 형제가 옮겨 간 후에 천천히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와 우수사, 정 수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20일(신축) 아침 후, 순천, 광양, 홍양이 오고 이응화도 왔다. 송희립(宋希立)(공의 군관)이 순찰사에게 문안 겸 제만춘을 문초한 공문을 가지고 갔다. 돌산도(突山島) 근처에 이사해 와서 사는 자들도 작당하여 남의 재물을 약탈한 자들을 좌우 양편으로 패를 갈라 잡아 오라고 방답과 사도를 내보냈다. 저녁에 적량(赤梁) 만호 고여우(高汝友)가 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21일(임인) 맑음.

22일(계묘) 맑음.

23일(갑진) 맑음. 윤간(尹侃)과 조차 이뇌(李薈)와 해(薙)가 와서 어머니님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울(蔚)이 학질을 앓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24일(을사) 맑음. 해(薙)가 돌아갔다.

25일(병오) 맑음. 꿈에 적의 형적이 있으므로 새벽에 각도 대장에게 알려져 바깥 바다에 나가 진 치게 하였다가 날이 저물어 한산도 안쪽 바다(통영시 한산면)로 돌아 들어왔다.

26일(정미)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원 수사가 왔다. 얼마 뒤에 우수사, 정 수사가 함께 모였다. 순천, 광양, 가리포는 곧 돌아갔다. 홍양(배홍립)이 와서 명절 제사 음식을 대접하는데 원 수사가 술을 마시겠다고 하므로 약간 주었더니 잔뜩 취해서 흥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다. 해괴하다. 낙안(樂安)(신호)에게서 일본의 수길(秀吉)이 명나라 황제에게 상서한 초본과 명나라 사람이 그 고을에 와서 기록한 것을 보내왔는데 보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27일(무신) 맑음.

28일(기유) 맑음. 원 수사가 와서 음흉하고 간혹(奸譎)한 말을 많이 하였다. 심히 해괴하다.

29일(경술) 맑음. 아우 여필(汝弼)과 아들 울(蔚)과 변존서(卞存緒)가 한꺼번에 왔다.

30일(신해) 맑음. 원 수사가 또 와서 영등(永登)(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으로 가자고 독촉한다. 참으로 음흉하다. 그가 거느린 25척의 배는 모두 내보내고 다만 7, 8 척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 그 마음 쓰고 행사함이 모두 이따위다.

9월

1일(임자) 맑음. 원 수사가 왔다. 공문을 만들어 도원수와 순변사에게 보냈다. 아우 여필(汝弼), 변존서(卞存緒), 조카 뇌(蕾) 등이 돌아갔다. 우수사, 정 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2일(계축) 맑음. 장계의 초안을 써서 내려 주었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과 이 여념(李汝恬) 등이 보러 왔었다. 어두워 이영남(李英男)이 와서 선 병사(선거이)가 곤양(昆陽)에 와서 공로를 세웠다 하고 또 남해(기효근)가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서 불공한다는 죄목으로 책망을 들었다고 한다. 참 우스운 일이다. 효근(孝謹)의 형편없는 짓은 이미 알던 바다.

3일(갑인) 아침에 조카 봉(奉)이 들어와서 어머니님 평안하시다는 소식도 듣고 본 영의 사정도 들었다. 장계(狀啓)를 올리려고 초안을 만들었다. 순찰사(이정암(李廷瓘))의 공문이 왔는데, 군사 일족들에 대하여 일절 징발하지 말라고 하였다. 새로 도입하여 사정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다.

4일(을묘) 맑음. 폐단 되는 것을 진술하는 장계와 총통 올려 보내는 것과 제만춘 공초 받은 사연을 올려 보내는 것 등 세 가지를 봉해 올리는데, 이경복(李景福)이 가져갔다. 유 정승(유성룡)과 참판 윤자신(尹自新), 지사 윤우신(尹又新), 도승지 심희수(沈喜壽), 지사(이일(李鎰)), 안습지(安習之), 윤기현(尹耆獻)에게 편지를 쓰고, 또 전복을 정표로 보냈다. 조카 봉과 윤간(尹侃)이 돌아갔다.

5일(병진) 맑음. 식후에 정 수사의 배 옆에다가 배를 대고 종일 그와 함께 이야기 하였다. 광양, 홍양, 우후(이몽구(李夢龜))가 보러 왔다 돌아갔다.

6일(정사) 맑음. 새벽에 배 만들 재목 운반해 올 일로 여러 배를 내보냈다. 식후에 우수사 배로 가서 종일토록 이야기하였다. 거기서 원 수사의 음흉한 일들을 듣고 또 정담수(鄭鼎壽)가 근거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꼴을 들으니 우스웠다. 바둑 두고 돌아왔다. 파선된 배의 재목을 여러 배가 끌어 왔다.

7일(무오) 맑음. 아침에 재목을 받아들었다. 방답이 보러 왔다. 순찰사(巡察使)(이정암(李廷菴))에게 폐단을 진술하는 공문과 또 군대 편성 개정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종일토록 홀로 앉았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했다. 저녁때 탐후선을 고대했건만 들어오지 않았다. 해진 뒤 가슴속이 답답해서 창문을 닫지 않고 잤더니 외풍에 축상되어 머리가 몹시 아프니 염려스럽다.

8일(기미) 맑으나 바람이 요란하였다. 새벽에 송희립(宋希立) 등을 당포(唐浦) 산으로 내보내어 사슴을 잡아오게 하였다.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함께 왔다.

9일(경신) 맑음. 식후에 산마루에 올라가 모여서 활 3순을 쏘다. 우수사, 정 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였는데 광양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저녁나절 비가 왔다.

10일(신유) 맑음. 공문을 탐후선(探候船)편에 적어 보냈다. 날이 늦게 우수사 배에 이르러 방답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체찰사의 비밀 공문이 들어왔다. 보성(김득광)이 왔다가 돌아갔다.

11일(임술) 맑음. 정 수사가 술을 차려 가지고 왔다. 우수사도 오고 낙안, 방답도 와서 함께 마셨다. 홍양 원(배흥립)은 말미를 받고 돌아갔다. 서몽남(徐夢男)에게도 말미를 주어 함께 나가게 했다.

12일(계해) 맑음. 식후에 소비포(이영남)와 유충신(柳忠信), 김 만호(김인영(金仁英)) 등을 불러서 술을 먹었다. 발포 만호(황정록)가 돌아왔다.

13일(갑자) 맑음. 새벽에 종 한경(漢京), 돌쇠(夏世), 해돌(年石)과 자모종(自慕終)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金伊), 해돌, 돌쇠 등은 돌아가고 양정언(梁廷彦)도 함께 돌아갔다. 그러나 저녁 후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니 어떻게들 갔는지 모르겠다.

14일(을축) 종일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홀로 뜰 아래 앉았으니 생각이 천만 갈래였다. 순천이 돌아왔다. 쇠로 만든 총통은 전쟁에 가장 긴요한 것이건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 온갖 연구를 거듭하여 조총(鳥銃)을 만들어 내었는데, 왜총보다 더 잘되어 명나라 사람들이 진중에 와서 시험으로 쏘아 보고서는 좋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미 그 묘법을 알았으니 도내(道內)에 같은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기로 순찰사, 병사에게 견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돌리도록 했다.

15일(병인) 맑음.

[이후 9월 16일부터 12월 그믐까지 빠져 있음]

갑오년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 충무공 50세.

명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화를 주장하며 싸움을 피하려고만 했다. 그래서 갑오년 3월에 명나라 지휘관은 공(公)에게 싸움을 중지하고 돌아가라는 패문까지 보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항의하던 공의 가슴은 울분으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1월

1일(경진)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하게 되니 이는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늦게 군사 훈련차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는 그치지 아니했다. 신 사과(愼司果)¹에게 문안하였다.

2일(신사) 비는 그쳤으나 그대로 흐렸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신 사과를 청하여 함께 이야기했는데 첨지(僉知) 배경남(裴慶男)도 왔었다.

3일(임오)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문을 적어 보냈다. 날이 저물어 관아로 돌아와서 여러 조카들과 이야기했다.

4일(계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문을 적어 보냈다. 저녁에 신 사과, 배 첨지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남홍점(南鴻漸)이 영(營)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5일(갑신) 비, 비. 신 사과가 와서 이야기했다.

6일(을유) 비. 동헌에 나가 남평(南平)(나주시 남평읍)의 도병방(都兵房)을 처형했다. 저녁 내내 서류를 처결했다.

1 신 사과(愼司果) : 신(愼)은 성이요, 사과(司果)는 벼슬인데, 오위(五衛)의 정6품의 군직.

7일(병술) 비. 동헌에 앉아 공문을 적어 보냈다. 저녁에 남의길(南宜吉)이 들어와서 마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8일(정해) 맑음. 동헌 방에 앉아 배 침지, 남의길과 종일 이야기했다. 늦게 공무를 보았으며 남원(南原)의 도병방(都兵房)을 사형했다.

9일(무자) 맑음. 아침에 남의길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10일(기축) 맑음. 아침에 남의길을 맞이하여 이야기하다가 피란하던 때 고생하던 일들을 갖추 갖추 말함에 개탄함을 이기지 못했다.

11일(경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머님을 뵈옵기 위해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음내(古音川)에 대었다. 남의길, 윤사행(尹士行), 조카 분(芬)과 함께 갔었다. 어머님께 가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지 않으셨다. 웅성대는 바람에 놀라 깨셨는데 기운이 아주 가물가물해 앞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하니 다만 애달픈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데에 착오는 없으셨다. 적을 토벌할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이날 밤 손수약(孫守約)의 아내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12일(신묘)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 번 세 번 타이르시며 조금도 이별하는 것으로 탄식하지는 아니하였다. 선창에 돌아와서는 몸이 불편한 것 같아 바로 뒷방으로 들어갔다.

13일(임진)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자리에 누워 땀을 내었다. 종 팽수(彭壽)와 평세(平世)가 보러 왔었다.

14일(계사) 흐리면서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조카 뇌(蕾)의 편지를 보니 설날 아산(牙山)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무려 2백여 명이나 산을 둘러싸고 음식을 달라고 덤뻬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느직이 동헌에 나가 장

게 올릴 것을 봉함하고 또 의능(宜能)²을 면천(免賤)시켜 준다는 공문을 봉해 올렸다.

15일(갑오) 맑음. 이른 아침에 남의길 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있다가 동헌으로 나갔다. 남의길은 영광(靈光)으로 가고자 했다. 종 진(辰)을 찾는데 대해 서류를 만들었다. 동궁(광해군(光海君))의 분부를 전달하는 서한이 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라는 것이었다.

16일(을미) 맑음. 아침에 남의길을 청해다가 작별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도 많이 취해서 늦게야 동헌에 나갔다. 황득중(黃得中)이 암행어사로 흥양(興陽)에 들어왔으며 집문서가 그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다. 어두울 녀에 방답(이순신(李純信))과 배 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17일(병진) 새벽에 눈이 오고 늦게나 비가 왔다. 이른 아침 배에 올라 여필(아우) 및 여러 조카와 아들들과 작별하고 다만 분(芬)(조카), 울(蔚)(둘째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날 장계를 띄워 보냈다. 오후 4시께 와두(瓦頭)(남해군 고현면 언머리)에 이르니 역풍에다 썰물 때여서 운행할 수 없어 닻을 내리고 조금 쉬었다. 오후 6시께 다시 닻을 걷어 노량에 이르렀다. 여도 만호(呂島萬戶)(김인영(金仁英)), 순천(順天)(권준(權俊)), 이함(李臧) 및 우후(이몽구(李夢龜)) 등도 와서 함께 잤다.

18일(정유) 맑음. 새벽에 출발할 때는 역풍이 크게 일더니 창신도(昌信島)(남해군 창선면 창선도)에 이르니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돛을 달고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양지리)에 이르니 도로 역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만호(사랑 만호(蛇梁萬戶) 이여념(李汝恬)와 수사(원균)의 군관 전윤(田允)이 보러 왔다. 전에 말하기를 수군을 거창(居昌)으로 불들어 왔다고 하며 원수(元帥)가 방해하려 한다고 했다. 가소롭다. 예로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이니 무엇을 한탄하

2 의능(宜能) : 《전서》에는 ‘義能(의능)’이라고도 나오는데, 흥양 의승장(興陽義僧長)이다. 여기서의 공문은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승장 의능의 천한 신분을 면해 준다는 공문을 체찰사(體察使)(윤두수(尹斗壽)) 공문 모양으로 만들어 보낸 것에 대해 그것이 위조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랴. 놀러 묵었다.

19일(무술) 흐리다가 늦게 맑아졌다.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해가 진 뒤에 더 거세어졌다. 아침에 떠나 당포(唐浦)(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바깥 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따라 반(半) 돛을 달고 순식간에 어느덧 한산도에 이르렀다. 사정(射亭)에 올라 앉아 여러 장수들과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원(元) 수사도 왔다. 소비포(이영남(李英男))에서 영남 여러 배의 사부(射夫)와 격군(格軍)들이 거의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말은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원 수사가 공연수(孔連水)와 이극함(李克咸)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다 관계하였다고 한다.

20일(기해)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살을 에듯 추워 여러 배에 옷 없는 사람들이 목을 움츠리고 추워 떠는 소리는 차마 듣기 어려웠다. 낙안(樂安)(신호(申浩))과 우수사 우후(右水使虞候)(이정충(李廷忠))가 보러 왔다. 늦게 소비포, 웅천(熊川)(이운룡(李雲龍)), 진해(鎭海) 원(정항(鄭沆)) 등도 왔다. 진해는 명령을 거부하고 진작 오지 않아 죄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만나 보지 않았다. 바람은 다소 자는 듯했으나 순천이 들어올 것이 염려되었다. 군량도 도착되지 않아 이 역시 답답했다.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差使員)³으로 녹도 만호(鹿島萬戶)(송여종(宋汝宗))를 정해 보냈다.

21일(경자) 맑음. 아침에 본영 격군 7백 42명에게 술을 먹였다. 광양이 들어왔다. 저녁에 녹도 만호가 와서 보고하는데 병들어 죽은 시체 2백 14명을 거두어 묻었다고 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돌아온 2명이 원 수사의 진영으로부터 와서 여러 가지로 적의 정세를 이야기하였으나 믿을 수가 없었다.

22일(신축) 맑음.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었다. 사정(射亭)에 올라 앉아 진해(정항(鄭沆))를 시켜 교서(敎書)에 숙배례(肅拜禮)를 행하게 하고 종일 활을 쏘았다. 녹도가 병으로 죽은 시체 2백 17명을 거두어 묻었다고 했다.

3 차사원(差使員) : 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사람.

23일(임인) 맑음. 낙안(樂安)⁴이 하직을 고하고 나갔다. 흥양(興陽)의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최천보(崔天寶), 유황(柳滉), 유충신(柳忠信), 정량(丁良) 등이 들어왔다. 늦게 순천(권준(權俊))도 들어왔다.

24일(계묘)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산역(山役) 일로 목수 41명을 송덕일(宋德日)이 거느리고 갔다. 영남 원 수사가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좌도(경상 좌도)에 있는 왜적 3백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평의지(平義智)(대마도주 종의지(對馬島主宗義智))가 지금 웅천(熊川)에 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유황을 불러다가 암행어사가 붙잡아 간 사건에 대해서 물은즉, 문서들이 제멋대로 꾸며졌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또 격군에 대한 일을 들으니 아전들의 잔악한 짓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군령을 내려 소모군(召募軍) 1백 44명을 붙잡아 오라고 하고 또 현감(홍양)을 독촉하여 군령을 보내도록 했다.

25일(갑진) 흐리다가 늦게 맑았다. 송두남(宋斗男), 이상록(李尙祿) 등이 새로 만든 배를 돌려올 일로 사부(射夫)·격군(格軍) 1백 32명을 거느리고 갔다. 아침에 우수사 우후(이정충)가 와서 아침을 함께 먹고 늦게는 활을 쏘았다. 우수사 우후와 여도(김인영)가 활쏘기를 겨루었는데 여도가 7분을 이겼다. 나는 10순을 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20순을 쏘았다. 저녁때 중 허산(許山)이 술병을 훔쳐 내다가 붙잡혔기에 곤장을 때렸다.

26일(을사) 맑음. 아침에 사정으로 올라가 활을 쏘았다. 순천(권준)이 기일을 어겼기로 벌을 주고 눌러 앉아 공무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오후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진주(晋州) 여자 1명, 고성(固城) 여자 1명, 서울 사람 2명을 데려왔는데 서울 사람은 정창연(鄭昌衍)과 김명원(金命元)의 종이라고 한다. 또 왜놈 하나가 스스로 와서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보고받았다.

27일(병오) 맑음. 새벽에 배 만들 목재를 끌어 오기 위해서 우후(이몽구)가 나갔다.

4 《전서》에는 “樂安吉阜出去”로 되어 있는데, 초고본에는 “樂安吉歸出去”이다.

새벽에 변유현(卞有憲)과 이경복(李景福)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아침에 충청 수사(忠淸水使)(구사직(具思稷))의 회답 편지가 오고, 어머니의 편지와 여필(汝弼)의 편지도 왔는데 어머님께서 안녕하시다고 했다. 다행이다. 다만 동문 밖 해운대(海雲臺)(여수시 동북쪽) 옆에 햇불 강도⁵가 나타나고 미평(未坪)(여수시 미평동)에도 역시 햇불 강도들이 들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늦게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김승룡(金勝龍))와 순천이 함께 왔다. 아침에 소지(所志)와 그 밖의 공무를 처결하고 스스로 항복해 온 왜놈을 신문해서 공술 받았다. 원 수사의 군관 양밀(梁密)이 제주 판관(濟州判官)의 편지와 말안장, 해산물, 굴, 유자 따위를 보냈기로 곧 어머님께 보내드렸다. 저녁에 녹도(鹿島) 북명한 곳에 왜적 5명이 횡행하여 총질을 해서 한 놈을 쏘아 목을 베고 남은 놈들은 화살을 맞고 도망갔다. 저물녘에 소비포(이영남)가 왔다. 우후의 배가 재목을 싣고 왔다.

28일(정미) 맑음. 아침에 우후가 보러 왔다. 종사관에게 공문을 써서 강진 영리(康津營吏)에게 주어 보냈다. 늦게 원식(元植)이 서울 올라간다고 왔기에 술을 대접하여 보냈다.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가 보고하기를, 유 제독(劉提督)(유정(劉綎))이 군사를 돌려 이달 25, 26일께는 올라간다고 하며 또 위무사(慰撫使)⁶ 홍문 교리(弘文校理) 권(權)⁷이 도내를 순시한 뒤에 수군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 화적 이산겸(李山謙) 등을 잡아 가두고 아산(牙山), 온양(溫陽) 등 고을에서 횡행하는 화적떼 90여 명을 잡아 죽였다고 하며 또 호익장(虎翼將)⁸이 근일 중 들어오리라고 했다. 저물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부슬부슬 내렸다. 전선(戰船)을 만들이 시작했다.

29일(무신) 비, 비. 종일토록 내리고 밤새도록 내렸다. 새벽에 여러 배들이 무사하다고 보고받았다. 몸이 불편하여 저녁내 누워 신음하는데 큰 바람, 센 파도로 배가

5 햇불 강도 : 원문에 있는 ‘明火賊’은 햇불을 들고 강도질을 하는 것을 이름.

6 위무사(慰撫使) : 각 부대의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

7 권(權) : 이름이 빠졌는데 이는 권협(權俠)을 이름이다.

8 호익장(虎翼將) : 익호장으로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金德齡).

안정하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산란하였다. 미조항 첨사(김승룡)가 배를 꾸밀 일로 돌아갔다.

30일(기유) 흐리고 큰 바람이 불더니 늦게는 개고 바람도 조금 잤다. 순천과 우수사 우후와 강진(康津)(유해(柳灌))이 왔다. 미조항 첨사가 돌아간다고 인사하러 왔기에 평산포에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군인 3명을 그편에 팔려 보냈다. 나는 몸이 편치 않아 종일 땀이 흘렀다. 군관과 여러 장수들은 활을 쏘았다.

2월

1일(경술) 맑음. 늦게 사정(射亭)에 올라가 공무 보았다. 청주(淸州) 사는 겸사복(兼司僕) 이상(李祥)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왔는데, “경상 감사 한효순(韓孝純)이 장계하되 좌도에 있는 왜적들이 합하여 거제(巨濟)로 들어가니 장차 전라도 지경을 침범할 것이라, 그대는 삼도(三道) 수군을 합하여 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오후에 우수사 우후를 불러 활을 쏘았다. 초저녁에 사도 첨사(김완)가 전선 8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이경복(李景福), 노윤발(盧潤發), 윤백년(尹百年) 등이 도망가는 군인을 싣고 육지로 들어가는 배 8척을 붙잡아 왔다. 저녁때 가는 비가 내리더니 얼마 안 되어 그쳤다.

2일(신해) 맑음. 아침에 도망가는 군인들을 실어 내던 사람들의 죄를 다스렸다. 사도 첨사가 와서 전하기를 낙안(新安)이 파면되었다고 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갔다. 동궁에게 올린 장달(狀達)의 회답이 내려왔다. 각 관포(官浦)의 서류들을 처결하여 보냈다. 활 10순을 쏘았다. 바람 형세⁹가 조용하지 않았다. 사도 첨사(김완)를 기한에 대지 못한 죄로 처벌하였다.

3일(임자) 맑음.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눈 하나가 먼 말(馬)을 보았다. 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식후에 사정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 광풍이 크게 일었다. 우조방장(右助防將)(어영담)이 왔는데 그에게서 역적들의 소식을 듣고 걱정되며 통분함

9 《전서》에는 원문이 ‘風亂不濫’으로 나와 있으나 초고본에는 ‘風形不穩’으로 되어 있다.

을 이기지 못했다. 우우후(右虞候)가 부물(負物)을 여러 장수에게 보내왔다. 원식(元植)과 원전(元璵)이 와서 상경한다고 했다. 원식은 남해(南海)에게 쇠붙이를 바치고 면천 공문(免賤公文) 한 장을 받아 가지고 갔다. 날이 저물어 막으로 내려왔다.

4일(계축) 맑으나 바람이 세었다. 조식 후에 순천(권준)과 우조방장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다. 늦게 본영의 전선과 거북선이 들어왔다. 조카 봉(奉)과 이설(李潑), 이언량(李彦良), 이상록(李尙祿) 등이 강돌천(姜玆千)을 거느리고 왔다. 동궁(東宮)의 명령이 왔고 정찬성(정탁(鄭琢))의 편지도 가져왔다. 각 관포의 서류를 체결해 보냈다. 순천에서 와 보고하기를, 무군사(撫軍司)¹⁰의 공문에 의거한 순찰사(이정암)의 공문에는 “진중에서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한 것이 아주 옳지 않으니까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조카 봉이 오는 편에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5일(갑인) 맑음. 새벽꿈에 좋은 말을 타고 바위가 첩첩한 큰 산마루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동서에 뻗어 있고, 또 산마루 위 평평한 곳이 있어 거기다 자리를 잡으려다 깨었는데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우스운 꿈이었다. 아침에 군기시(軍器寺)에서 받아 온 흑각궁(黑觸弓) 1백 장을 낱날이 헤아려 수결했고 화피(樺皮)(벗나무 껍질) 89장도 역시 계산하여 수결했다. 발포 만호(황정록(黃廷祿)와 우수사 우후가 보러 왔기에 식사를 함께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순창(淳昌), 광주(光州)의 색리(色吏)들을 치죄했다.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여도(김인영) 등과 활을 쏘았다. 원수(元帥)(권율)의 회답이 왔는데 심 유격(沈遊擊)¹¹이 벌써 화친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간사한 꾀와 교묘한 계책을 헤아릴 길이 없는 자들이라 전에도 놈들의 꾀에 빠졌고, 또 이렇게 빠져들어 가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저녁 때 날씨가 찌는 것 같아 마치 초여름이나 된 듯하였다. 밤이 되면서 비가 시작하였

10 무군사(撫軍司) : 1593년(선조 26년) 윤11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세자의 행영(行營).

11 심 유격(沈遊擊) :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행하던 명나라의 심유경(沈惟敬).

다.

6일(을묘) 비, 비. 오후에 개었다. 순천과 조방장과 웅천(이운룡(李雲龍)), 사도(김완)가 보러 왔다. 어두워서 홍양(배홍립)과 김방제(金邦濟)가 유자 30개를 가져왔는데 생생한 것이 마치 새로 딴 것 같았다.

7일(병진)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우조방이 보러 와서 지휘선에 속한 배를 타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어머님과 홍군우(洪君遇), 이숙도(李叔道), 강인중(姜仁仲) 등에게 문안 편지를 써서 조카 분(芬)이 가는 편에 부쳤다. 봉과 분은 나갔는데 봉은 나주로 가고 분은 온양으로 갔다.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하였다. 각 배의 소지 2백여 장을 처결하여 돌려주었다. 고성 현령(固城縣令)(조응도(趙凝道))의 보고에 적선 50여 척이 춘원포(春院浦)(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왔다고 했다. 삼천포 권관과 가배량(加背梁) 권관 제만춘(諸萬春)이 와서 서울 소식을 전하였다. 이경복(李景福)을 입대 도피하는 격군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내보냈다. 이날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격군들을 각 배에 옮겨 태웠다. 방답 첨사에게 도피자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였다. 낙안 군수의 편지가 왔는데 새 군수 김준계(金遵繼)가 내려왔다고 하므로 그에게도 도피자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보성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소비포(이영남)가 보러 왔다.

8일(정사) 맑으나 동풍이 크게 불고 날씨가 몹시 찌다. 봉과 분이 배로 떠난 것을 생각하여 밤새도록 잠이 편하지 못했다. 아침에 순천이 와서 말하기를 고성(固城) 소소포(召所浦)(고성군 마암면 두호리)에 적선 50여 척이 드나든다고 하여 즉시 제만춘을 불러 지형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서류를 처결하여 보냈다. 경상 우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 상관 방지기의 면천(免賤)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다. 진주(晋州)에 피란해 있는 전 좌랑(前左郎) 이유함(李惟誠)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때 돌아갔다. 바다 위에 달이 밝아 잠이 오지 아니했다. 순천과 우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 10시계야 헤어졌다. 변존서(卞存緒)가 당포에 가서 꿩 7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왔다.

9일(무오) 맑음. 새벽에 우후가 배 두세 척을 거느리고 소비포 뒤쪽으로 띠포를 베러 갔다. 고성(固城)이 왔는데 돼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당항포에 적선 드나드는 것을 묻고 또 민생들이 주려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활 10여 순을 쏘았다. 이유함(李惟誠)이 와서 작별을 고하므로 그 자(字)을 물으니 여실(汝實)이라 했다. 순천과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 여도, 녹도(송여종(宋汝宗)), 강진(유해(柳淮)), 사천(泗川)(기직남(寄直男)), 하동(河東)(성천유(成天裕)), 보성(김득광), 소비포(이영남) 등이 왔다. 저물녘에 들어왔다. 무군사(撫軍事)의 공문을 가져왔는데, 시위(侍衛)할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장창(長槍) 수십 자루를 만들어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날 동궁이 문책한 데 대해서 답을 보냈다.

10일(기미) 이슬비와 큰 바람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 조방장과 순천이 와서 저녁내 이야기하며 왜적 토벌할 일을 의논했다.

11일(경신) 맑음. 아침에 미조항 침사(김승룡(金勝龍))가 보러 왔기에 술 3잔을 권해 보냈다. 종사관(從事官) 공문 3건을 처결하여 보냈다. 식후, 사정에 올라간즉 경상 수사(원균)가 보러 왔다. 술이 여남은 잔 들어가자 미친 말이 많으니 우스운 일이었다. 우조방장도 역시 와서 함께 취했다. 저물어서 활 3순을 쏘았다.

12일(신유) 맑음. 이른 아침 본영의 탐선(探船)이 들어오는 편에 조카 분의 편지가 왔는데 선전관(宣傳官) 송경령(宋慶苓)이 수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기별하였다. 오전 10시께 적도(赤島)(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화도(花島))로 진을 옮겼고 오후 2시께 선전관이 도착하였다. 유서(諭書) 2통과 밀지(密旨) 1통을 합하여 3통인데 1통에는 명나라 군사 10만 명과 은 3백냥이 나온다는 것이요, 1통은 홍적들의 뜻이 호남으로 가는 데 있으니 힘을 다하여 파수 보며 형세 보아 무찌르라는 것이요, 그 속에 있는 밀지(密旨)에는 해가 지나도록 해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근로하는 것을 내가 향시 잊지 못하니 공로 있는 장사들로 아직껏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을 적어 올리라는 것 등이었다. 서울 안의 여러 가지 소문도 듣고 역적 일도 들었

다. 영의정(유성룡(柳成龍))의 편지도 가져왔다. 위에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일을 들으니 그 강개(慷慨)하고 그리움이 끝이 없었다.

13일(임술)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영의정에게 회답 편지를 쓰고 식후에는 선전관(송경령)과 다시 이야기하고 서로 작별한 뒤에 종일토록 배에 있었다. 오후 4시께 소비포 사랑(이여념), 영등포 만호(우치적(禹致績))가 왔다. 오후 6시께 출발하여 한산도로 돌아오는 때에 경상 군관 제(諸)¹²가 삼봉(三峯)(고성군 삼산면 삼봉리)으로부터 와서 말하되, “적선 8척이 춘원포(春元浦)(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들어와 대었으나 들이칠 만하다” 했다. 그래서 곧 나대용(羅大用)을 원 수사에게 보내 상의케 하면서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는 것은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직은 가만있다가 적선이 더 많이 나오는 때를 타서 무찌르자고 말을 전하였다. 미조항, 순천, 조방장이 왔다가 밤늦게 돌아갔다. 박영남(朴永男)과 송덕일(宋德驥)도 돌아갔다.

14일(계해) 맑고 따뜻하고 바람조차 부드러웠다. 경상도 남해, 하동, 사천, 고성 등지에는 송희립, 변존서, 유황(柳滉), 노윤발 등을, 우도에는 변유헌(卞有憲), 나대용 등을 점고하러 내보냈다. 저물녘에 방답 첨사와 배 첨지가 왔다. 본영 군량 20섬을 실어 왔다. 정종(鄭宗), 배춘복(裵春福)도 왔다. 장언춘(張彦春)의 면천(免賤)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홍양이 들어왔다.

15일(갑자) 맑음. 새벽에 거북선 2척과 보성 배 1척을 멍에 쓸 재목 치는 곳으로 보내어 초저녁에 실어 왔다. 식후에 사정에 올라가 좌조방장이 늦게 온 죄를 신문했다. 홍양 배를 검열한즉, 허술한 일이 많았다. 순천 우조방장과 우수사 우후, 발포 만호(황정록(黃廷祿)), 여도 만호, 강진 현감(유해) 등이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날이 저물어 순찰사(이정암)가 공문을 보냈는데, 조도 어사(調度御使) 박홍로(朴弘老)가 순천, 광양, 두치(豆峙)(광양시 다압면 섬진리) 등지에 북병 파수하는 일로 장계하였던 바 수군과 수령(守命)을 함께 이동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대답이

12 제(諸) : 이름이 빠졌는데, 제홍록(諸弘祿)을 이름.

내려왔다는 내용이었다.

16일(을축) 맑음. 아침에 홍양과 순천이 왔다. 홍양이 암행어사의 비밀 장계 초안을 얻어 가지고 와서 보이는 바 임실(이몽상(李夢祥)), 무장(이충길(李忠吉)), 영암(김성헌(金聲憲)), 낙안(신호(申浩))은 파면하고 순천은 탐관오리로 논란하고 담양(이경로(李景老)), 진원(珍原)(조공근(趙公瑾)), 나주(이용순(李用淳)), 창평(백유항(白惟恒)) 수령들은 악행을 덮어 주고 칭양하여 장계하였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나라일이 이러하고야 평정될 리가 만무하다. 우리러 탄식할 뿐이다. 또 수군 일족에 대충 징발하는 일과 장정 넷 중에 둘은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일을 심히 그르다고 말했으니 암행어사 유몽인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다만 눈앞을 꾸며 갈 것만 노력하고 남쪽 지방의 종작없는 소리만 믿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사한 말이 악목(岳穆)¹³에 대한 진회(秦檜)와 다를 것이 없다. 나라를 위하는 아픔이 더욱 심하다. 늦게 사정에 올라 순천, 홍양,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 발포, 여도, 녹도, 강진, 광양 등과 더불어 활 12순을 쏘았다. 순천 감목관(監牧官)이 진중에 왔다가 돌아갔다. 우수사가 당포(唐浦)에 도착했다고 한다.

17일(병인) 맑음. 따뜻하기가 여름 같았다. 아침나절, 지휘선을 연기에 그을리기 위해 활터 정자 위로 올라가 거기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오전 10시께 우수사가 들어왔다. 행수(行首) 군관 정홍수(鄭弘壽)와 도훈도(都訓導)는 군령으로 곤장 90대를 때렸다. 이홍명(李弘明)과 임희진(任希璉)의 손자가 왔다. 대(竹)로써 총통(銃筒)을 만들어 왔기에 시험해 놓아 본즉, 소리가 나는 듯하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우스웠다. 우수사가 들어왔는데 거느리고 온 전선이 다만 20척이니 한심스러웠다. 순천과 우조방장이 와서 활 5순을 쏘았다.

18일(정묘) 맑음. 아침에 배 침지가 왔고 가리포(加理浦) 이응표(李應彪)가 왔다. 식후 사정에 올라가 해남 현감(海南顯監) 위대기(魏大器)를 전령 거역한 죄로 다스

13 악목(岳穆)과 진회(秦檜) : 다 함께 중국 송조(宋朝) 때 사람인데, 진회는 적국에 항복하기를 주장한 자로서 충의(忠義)의 명장 악목을 죽였다.

렸다. 우도 여러 장수들이 와서 현신한 뒤에 활 두어 손을 쏘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왔다. 때마침 원 수사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밤들면서 부슬비가 내려 줄곧 계속하였다.

19일(무진) 종일 부슬비가 내리고 일기가 찌는 듯했다. 사정에 올라 한참 혼자 있노라니 우조방장(어영담)과 순천이 오고 이홍명(李弘明)도 왔다. 조금 뒤에 손충갑(孫忠甲)이 왔다고 하기에 불러들여 왜적 토벌하던 일을 물어보고 강개함을 이기지 못했다.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물녘에 숙소로 내려갔다. 변존서(卞存緒)가 본영으로 갔다.

20일(기사) 실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오전 10시께 해가 번쩍 들었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아니했다. 우조방장과 배 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울(蔚)이 우수사 영공의 배로 가더니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21일(경오) 맑고도 따듯했다. 몸이 불편해서 종일 신음하였다. 순천과 우조방장 어영공(어영담)이 와서 견내량(見乃梁) 복병한 곳을 가서 살펴보았다고 했다. 청주 의병장 이(李)¹⁴가 순변사(巡邊使)에게서 와서 육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우영공은 청주 영공의 □□¹⁵이다. 해가 저물어 돌아갔다. 오후 6시께 벽방(碧方)(통영시 광도면 벽방산) 망보는 장수(제한국(諸漢國))가 와서 고하되, 구화역(仇化驛)[구허역(丘墟驛),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앞바다에 왜선 8척이 와 머물러 있다고 하므로 배를 풀어 삼도에 진격 명령을 내리고 제홍록(諸弘祿)(원균의 군관)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

22일(신미) 날이 거의 쌀 때쯤 해서 제홍록이 와 보고하되, 왜선 10척은 구화역에 도착하고 6척은 춘원포(春院浦)에 왔다고 하며 날이 벌써 새어서 미처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다시 정찰하라고 명령하여 보냈다.

14 이(李) : 이름이 빠졌으나 이봉(李逢)을 이름이다.

15 초고본 원문에 ‘夫’ 자만 있으니 이는 매부인지 고모부인지 불분명하다.

[23일부터 27일까지 빠져 있음]

28일(정축) 맑음. 아침에 사정에 올라 종사관(정경달(丁景達))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장흥 부사(長興府使)(황세득(黃世得))가 들어왔다. 우수사를 처벌하였다.

29일(무인) 맑음. 종사관과 아침을 함께하고 또 작별 술을 마시며 종일 이야기하였다. 장흥도 함께했다. 벽방 망보는 장수 제한국의 보고에 왜선 16척이 소소포(召所浦)(고성군 마암면 두호리)로 들어왔다고 하므로 각도에 전령하여 알리도록 했다.

3월

1일(기묘) 맑음. 망궐례(望闕禮)를 드리고 사정에 올라가 금모포(黔毛浦)(부안군 보안면) 만호(萬戶)를 매 때리고 도훈도(都訓導)를 처형했다. 종사관(정경달)이 돌아갔다. 어두울 녀에 막 배를 띄우려고 할 즈음, 제한국(벽방 망장(碧方望將))이 달려와 보고하되 왜선이 이미 모두 도망가고 없다고 고하므로 중지하였다. 초저녁에 장흥(長興) 2호선에서 불이 나서 모두 타 버렸다.

2일(경진) 맑음. 아침에 방답, 순천, 우조방장이 왔다. 늦게 사정에 올라 좌우 조방장, 순천, 방답과 더불어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장흥이 와서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강진(康津) 장작 쌓아 놓은 곳에 불이 나서 다 타 버렸다.

3일(신사) 맑음. 아침에 전문(箋文)을 올려 보내고 그대로 사정에 앉아 있었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¹⁶이 와서 말하되, 수군을 많이 잡아 오지 못했다고 수사(원균)에게서 매를 맞고 또 발바닥까지 치려고 하더라니 참으로 놀랄 일이었다. 늦게 순천, 우조방장, 좌조방장, 방답, 가리포, 좌우수사 우후 등과 활을 쏘았다. 오후 6시께 벽방 망장(제한국)이 보고하되, 왜선 6척이 오리량(五里梁)(창원시 구산동)과 당항포(唐項浦)(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근처에 정박해 있다 하므로 즉시 배들을 집합하라 전령하여 큰 부대는 흉도(胸島)(거제시 사등면 오랑리 고개도) 앞바다에 진

16 원문에는 이의신(李義臣)이나, 이의득(李義得)의 잘못임.

을 치게 하고 정예선 30척은 우조방장 어영담이 거느리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초저녁에 배를 띄워 지도(紙島)(통영시 용남면)에 이르러 밤을 지나고 새벽 2시께 출발했다.

4일(임오) 맑음. 밤 2시께 배를 띄워 진해(鎭海)(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앞바다에 이르러 왜선 6척을 뒤쫓아 잡아 불태워 없애고 저도(諸島)(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돌섬)에서 2척을 불태워 버렸다. 소소강(召所江)(고성군 마암면 두호리)에 14척이 들어왔다 하므로 조방장과 원 수사와 함께 나가 토벌하도록 전령하고 고성 땅 아자음포(阿自音浦)(고성군 동해면)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5일(계미) 맑음. 새벽에 겸사복(兼司僕)(윤봉(尹鵬))을 당항포로 보내어 적선을 깨트렸는지를 탐문하였더니 우조방장 어영담이 보고하되, 적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엄을 겁내어 밤을 타서 도망했으므로 빈 배 17척을 남김없이 불태워 버렸다 하며 경상 수사(원균)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우수사(이억기)가 보러 왔을 때 비가 크게 퍼붓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 바로 자기 배로 돌아갔다. 이날 아침 순변사에게서도 토벌을 독려하는 공문이 왔다. 우조방장, 순천, 방담, 배 첨사(배경남(裨慶男)) 등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원 수사가 배에 이르자 여러 장수들은 각각 돌아갔다. 이날 저녁 광양의 새 배가 들어왔다.

6일(갑신) 맑음. 새벽에 탐방군이 본즉 적선 40여 척이 청슬(靑膝)(거제시 사등면 지석리)로 건너오더라는 것이었다. 당항포의 왜선 21척은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는 긴급 보고가 왔다. 늦게 거제(巨濟)로 향했다. 역풍으로 간신히 흉도(胸島)에 이르자 남해 현감(기효근)이 보낸 급보에 “명나라 군사 두 사람과 왜놈 여덟이 패문(牌文)을 가지고 들어왔기에 그 패문과 명나라 병정을 올려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받아 펴 보니 명나라 도사부(都司府) 담종인(譚宗仁)의 적을 치지 말라는 패문¹⁷⁾이었다. 나는 몸이 몹시 괴로워 앓고 늙기조차 불편했다. 저녁에 우수사와 함

17 적을 치지 말라는 패문 : 명나라 도사부 담종인의 <금토판문(禁討牌文)>은 그가 웅천(熊川)에 와서 왜적과 강화를 의논하고, 충무공에게 패문을 보내어 왜적을 치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께 명나라 병정을 면접했다.

7일(을유)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꿈적거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랫사람더러 패문에 대한 회답을 만들라 하였더니 글 꼴(貌體)이 아니었다. 원 수사가 손의갑(孫義甲)을 시켜 만들게 했건마는 그것 역시 마음에 맞지 아니했다. 내가 병중에 억지로 일어나 앉아 글을 짓고 정사립(鄭思立)(공의 군관)을 시켜 써 보내게 했다. 오후 2시께 출발하여 밤 10시께 한산 진중에 이르렀다.

8일(병술) 맑음. 병세는 별로 가감(加減)이 없었다. 기운이 더욱 축나서 종일 고통스러웠다.

9일(정해) 맑음. 기운이 조금 나은 듯하므로 따뜻한 방으로 옮겨 누웠다. 다른 증세는 없었다.

10일(무자) 맑음. 병세가 차츰 덜해지건만 열기가 치받쳐 그저 찬 것만 마시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저녁때 비가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1일(기축) 종일 큰비가 내리다가 어두울 녘에 개기 시작했다. 병세가 훨씬 덜해졌다. 열도 또한 내렸다. 다행 또 다행한 일이다.

12일(경인) 맑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영의정(유성룡)에게 편지를 쓰고 장계도 정서(正書)¹⁸하여 바쳤다.

13일(신묘) 맑음. 아침에 장계를 봉해 올렸다. 병은 차츰 낫는 것 같으나 기력은 몹시 고달팠다. 아들 회(薈)와 송두남(宋斗男)을 내보냈다. 오후에 원 수사가 와서 자기의 잘못된 일을 고백하므로 장계를 도로 가져다가 원사진(元士震)과 이응원(李應元) 등이 가왜(假倭)¹⁹를 목 잘라 바친 일을 고쳐 보냈다.

18 정서(正書) : 초안을 놓고 정식으로 베껴 쓰는 일.

19 가왜(假倭) :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인처럼 차린 자, 또는 왜인 노릇을 하는 자.

14일(임진) 비, 비. 병은 나은 듯했으나 머리는 무겁고 불쾌했다. 저녁때 광양(光陽) 원(송전(宋荃)과 강진(康津) 원(유해(柳誨)), 배 침사가 함께 갔다. 들으니 충청 수사(구사직(具思稷))가 이미 신장(薪場)(순천 앞바다)에 왔다고 했다. 종일 몸이 괴로웠다.

15일(계사) 비는 그쳤으나 바람이 크게 일었다. 미조항 침사가 돌아갔다. 종일 신음했다.

16일(갑오) 맑음. 몸이 몹시 불편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충청 수사가 전선 9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17일(을미) 맑음. 몸이 회복되지 아니했다. 변유헌(卞有憲)이 본영으로 돌아가고 순천(권준) 역시 돌아가고 해남(海南)(위대기(魏大器))이 새 현감과 교대하는 일로 나갔다. 황득중(黃得中) 등은 복병에 관한 일로 거제도로 들어갔다. 탐선(探船)이 들어왔다.

18일(병신) 맑음. 몸이 몹시 불편했다. 남해의 기효근(奇孝謹), 소비포(이영남), 적량(赤梁)(고여우(高汝友)), 보성(김득광)이 보러 왔다. 기(奇)는 파종 일 때문에 고을로 돌아갔다. 보성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낙안(樂安)의 유위장(留衛將)과 향소(鄕所)²⁰ 등을 잡아다 가두었다.

19일(정유) 맑음. 몸이 불편했다. 종일 신음했다.

20일(무술) 맑음. 몸이 불편했다.

21일(기해) 맑음. 몸이 불편했다. 녹명관(錄名官)²¹은 여도 만호(呂島萬戶)(김인영), 남도 만호(南桃萬戶)(강응표), 소비포 권관(所非浦權管)으로 정하였다.

20 향소(鄕所) : 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유향소(留鄕所).

21 녹명관(錄名官) : 과거를 시행할 때 과거 보러 오는 사람의 명단 및 그 밖의 사무를 맡은 사람.

22일(경자) 맑음. 몸이 조금 나은 것 같았다. 원수(元帥)의 공문이 돌아왔는데 담지휘(譚指輝)(담종인(譚宗仁))의 자문(咨文)과 왜장의 서계(書契)를 조 파총(曹把摠)이 가지고 갔다고 했다.

23일(신축) 맑음. 몸이 여전히 불편했다. 방답(이순신), 홍양(배홍립), 조방장(어영담)이 보러 왔다. 견내량이 미역 53동(미역 1동은 10가닥)을 따 가지고 왔다. 발포(황정록)도 역시 보러 왔었다.

24일(임인) 맑음. 몸은 조금 나은 듯했다. 미역 60동을 따 왔다. 정사립(鄭思立)(공의 군관)이 왜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왔다.

25일(계묘) 맑음. 홍양과 보성이 나갔다. 사로잡혀 갔던 아이²²로 왜의 진중에서 명나라 장수(담종인)의 패문(牌文)을 가지고 왔던 자를 홍양으로 보냈다. 늦게 사정으로 올라갔으나 몸이 편치 않아 일찍이 숙소로 내려왔다. 저녁에 여필(汝弼)과 회(薺)가 변존서(卞存緒), 신경황(申景潢)과 함께 왔다. 어머니의 안부를 자세히 들었다. 다만 선산이 모두 산불에 연소되었으나 아무도 끄지를 못했다 하니 지극히 애통한 일이었다.

26일(갑진) 맑은데 따뜻하기가 여름날 같았다. 조방장과 방답이 보러 왔다. 발포(鉢浦)는 휴가를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 늦게 마량 첨사(馬梁僉使)(강응호(姜應虎)), 사랑 만호(이여념(李汝喆)), 사도 첨사(蛇渡僉使)(김완(金浣)), 소비포(所非浦)가 함께 보러 왔다.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와 영등 만호(永登萬戶)(우치적(禹致績))도 왔다가 창신도(昌信島)(창선도(昌善島))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27일(을사)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는데 몸이 좀 나은 것 같았다. 저녁 8시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때 조가 봉(葦)이 몸이 편찮다고 했다.

22 사로잡혀 갔던 아이 : 상주(尙州) 사람 사삿집 중 희순(希順)을 말한 것이다.

28일(병오) 비. 종일 비가 왔다. 조카 봉의 병세가 매우 중하니 민망하다.

29일(정미) 맑음.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했다. 웅천(熊川)(이운룡(李雲龍)), 하동(河東)(성천유(成天裕)), 소비포 등이 보러 왔고 장흥, 방답도 보러 왔다. 저녁때 여필과 봉이 함께 돌아갔는데 봉이 몹시 아파서 돌아간 것이다. 온 밤을 걱정 또 걱정으로 지새웠다. 어두울 녀에 방충서(方忠恕)와 조서방(趙西方)의 사위 김함(金咸)이 왔다.

30일(무신) 맑음. 식후 사정에 올라가 충청도 군관과 도훈도(都訓導) 및 낙안(樂安)의 유위장(留衛將)과 도병장 등을 처벌하였다. 늦게 삼가(三嘉) 원 고상안(高尚顔)이 보러 왔다.

4월

1일(기유) 맑음. 일식(日蝕)이 있을 것인데 일어나지 아니했다. 장흥, 진도(김만수(金萬壽)), 녹도(송여종(宋汝宗))가 여제(厲祭)²³를 지내기 위해 돌아갈 것을 고했다.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2일(경술)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사정에 올라 삼가 현감(三嘉縣監)(고상안(高尚顔)) 및 충청 수사(구사직(具思稷))와 종일토록 이야기했다. 조카 해(薹)가 들어왔다.

3일(신해) 맑음. 이날 여제를 지냈다. 삼도(三道) 군사들에게 술 1천 80동이를 먹였다. 우수사(이억기), 충청 수사가 함께 앉아 먹였다. 저물녘에야 내려왔다.

4일(임자) 흐리다가 어두울 녀에는 비까지 내렸다. 원수(元帥)의 군관 송홍득(宋弘得)과 변홍달(卞弘達)이 새로 급제한 홍패(紅牌)²⁴를 가지고 왔다.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박진(朴晉))의 군관이며 공주(公州) 박창령(朴昌齡)의 아들인 의영(義英)

23 여제(厲祭) : 나라에 역질이 돌 때에 여귀에게 지내던 제사. 봄철에는 청명예, 가을철에는 7월 보름예, 겨울철에는 10월 초하루에 지냈다.

24 홍패(紅牌) : 문과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

이 와서 그 장수의 안부를 전하였다. 식후에 삼가 현감이 왔다. 늦게 사정에 올라갔다. 장흥(長興)이 술을 가지고 와서 종일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5일(계축) 흐림. 새벽에 최천보(崔天寶)가 세상을 떠났다.

6일(갑인) 맑음. 별시(別試) 보는 과거장을 개설했다. 시관(試官)은 나와 우수사(이억기)와 충청 수사(구사직)요, 참시관(參試官)은 장흥, 고성, 삼가, 웅천으로 시험 보는 것을 감독했다.

7일(을묘) 맑음. 일찍 모여 시험을 실시했다.

8일(병진) 맑음. 몸이 불편한 채 시험장으로 올라갔다.

9일(정사) 맑음. 시험을 마치고 방을 내어 붙였다. 비가 쏟아졌다. 어 조방장(魚助防將)(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애통함을 어찌 다 말하랴.

10일(무오) 흐림. 순무어사(巡撫御使)²⁵가 집에 온다고 통지가 왔다.

11일(기미) 맑음. 순무어사가 들어온다 하므로 마중 배를 내보냈다.

12일(경신) 맑음. 순무어사 서성(徐省)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했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원균), 충청 수사도 함께 와서 술을 세 순배 들자, 원 수사가 짐짓 취한 채 광증을 부리며 함부로 무리한 말을 뇌까리니 순무도 괴이함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짓이 극히 흉악하였다. 삼가(三嘉)가 돌아갔다.

13일(신유) 맑음. 순무가 전쟁 연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므로 죽도(竹島)(통영시 한산면 상죽도) 바다 가운데로 나가 연습해 보였다. 선전관(宣傳官) 원사표(元士彪)와 금오랑(金吾郎)²⁶ 김제남(金悌男)이 충청 수사를 잡아갈 일로 왔다.

25 순무어사(巡撫御使) :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변란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두루 돌아다니며 사건을 진정하던 특사. 이때의 순무어사는 서성(徐省).

26 금오랑(金吾郎) : 조선 시대에, 의금부(義禁府)에 속한 도사(都事)를 이르는 말.

14일(임술) 맑음. 아침에 김제남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늦게 순무의 배로 가서 군사 기밀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의논했다. 얼마 뒤에 우수사가 왔다. 이정충(李廷忠)도 불려오고 순천, 방답, 사도도 모두 왔다. 몹시 취해서 고별하고 내 배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충청 수사의 배로 가서 작별 술을 마셨다.

15일(계해) 맑음. 금오랑과 아침을 함께했다. 늦게 충청 수사가 선전관,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왔다. 구우경(具虞卿)²⁷과 작별했다. 저물녘에 이정사(李景思)가 그의 형 헌(憲)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16일(갑자)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사정에 올라가 밀려 있던 공무를 처결해 보냈다. 경상 수사(원균)의 군관 고경운(高景雲)과 도훈도(都訓導) 및 사변에 대비하는 책임을 지는 아전을 잡아 와서 지휘에 응하지 않고 적의 번고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매를 때렸다. 저녁때 송두남(宋斗男)이 서울로부터 내려왔다. 장계에 따라 날날이 하교한 대로 시행했다.

17일(을축) 맑음. 늦게 사정에 올라가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거제 현령(巨濟縣令)(안위(安衛))의 보고에 왜선 백여 척이 저의 본토로부터 처음 나와서 절영도(折影島)(부산시 영도구, 절영도(絶影島))로 향해 간다는 것이었다. 저물녘에는 사로잡혀 갔던 거제 사람들 남녀 16명이 도망해 돌아왔다.

18일(병인) 맑음. 새벽에 도망해 돌아온 사람들에게 왜적의 정형을 자세히 물으니 평의지(平義智)(종의지(宗義智),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웅천(熊川) 땅 입암(笠岩)(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있고 평행장(平行長)(소서행장(小西行長), 고니시 유키나가)는 옹포(熊浦)에 있다고 했다. 충청도 새 수사(이순신(李純信))와 순천과 우수사 우후(이정충)가 오고 늦게 거제 현령(안위)이 왔다. 저녁때 비가 시작해서 밤새도록 내렸다.

19일(정묘) 비, 비. 첨지(僉知) 김경로가 원수부(元帥府)로부터 와서 적을 치는 데

27 구우경(具虞卿) : 금부에 잡혀 가게 되는 충청 수사 구사직(具思稷)으로 우경(虞卿)은 그의 자(字)다.

서로 책임해야 할 일로 의논하고 그대로 한 배에서 잤다.

20일(무진) 종일 가는 비가 걷히지 않았다. 우수사 및 충청 수사 장흥, 마량(馬梁) [강응호(姜應虎)]이 와서 바둑도 두고 군사 의논도 했다.

21일(기사) 비가 오다 개다 했다. 홀로 배 뜰집 아래 앉아 있었다. 저녁내 아무도 오지 아니했다. 방답이 충청 수사의 중기(重記)²⁸를 수정할 일로 돌아갈 것을 고해 왔다. 저녁에 김성숙(金惺叔)과 곤양(昆陽) 이광악(李光岳)이 보러 왔다. 저물녘에 홍양(배홍립)이 들어왔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안녕하시다 했다. 다행하고 다행한 일이다.

22일(경오) 맑음. 바람이 시원하기가 가을 날씨 같았다. 김 첨지(김경로(金敬老))가 돌아갔다. 장계와 조총(鳥銃)을 올려 보내고 또 동궁께 긴 창을 봉해 올렸다. 장흥이 오고 저녁에는 홍양도 왔다.

23일(신미) 맑음. 아침에 순천(권준)과 홍양이 왔다. 늦게 곤양(이광악)이 술을 가져왔으며 장흥(황세득)이 오고 임치(臨淄)(홍견(洪堅))도 함께 왔다. 곤양이 몹시 취해서 미친 소리를 떠들어 댔다. 우스웠다. 나도 잠깐 취했었다.

24일(임신) 맑음. 아침에 서울로 편지를 썼다. 늦게 영암 군수(박홍장(朴弘章))와 마량 첨사(馬梁僉使) [강응호(姜應虎)]가 보러 왔다. 순천이 돌아갔다. 여러 가지 장계를 올려 보냈다. 경상 우수사에게 순찰사 종사관이 들어왔다고 했다.

25일(계유) 맑음. 새벽부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고통스러웠다. 아침에 보성이 보러 왔다. 밤새도록 앓았다.

26일(갑술) 맑음. 병세가 극히 중해져서 거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곤양이 돌아갔다.

28 중기(重記) : 옛날 제도에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해 주는 문부를 이름.

27일(을해) 맑음. 아픈 것이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았다. 숙소로 갔다.

28일(병자) 맑음. 병세가 아주 좋아졌다. 경상 수사(원균)와 좌랑(佐郎) 이유함(李惟誠)이 보러 왔다. 울(蔚)이 들어왔다.

29일(정축) 맑음. 기운이 유쾌한 것 같았다. 이날 우도(右道)에서 삼도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

5월

1일(무인)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사정방에 올라가니 날씨가 아주 맑고 시원했다. 종일 땀이 퍼붓듯이 흘렸으나 기운은 상쾌해진 것 같았다. 아침에 아들 면(勉)과 집안 계집종 4명, 관비(官婢) 4명이 병간호를 위하여 들어왔는데 덕(德)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내일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2일(기묘) 맑음. 새벽에 회(薺)가 계집종들과 함께 어머니 생신 상 차려 올릴 일로 돌아갔다. 우수사와 홍양(배홍립), 사도(김완), 소근 첨사(所斤僉使)(박윤(朴潤))가 보러 왔다. 기운도 점점 회복되었다.

3일(경진) 맑음. 아침에 홍양이 휴가를 고하고 돌아갔다. 늦게 발포(황정록(黃廷祿))가 보러 오고 장흥도 왔다. 군량을 계비(計備)했다. 공명고신(空名告身)²⁹ 3백여 장 및 유서(諭書) 2장이 내려왔다.

4일(신사) 흐리고 미친바람, 큰비가 종일 쉬지 않고 밖에는 더욱 심악스러웠다. 경상 우수사 군관이 와서 고하되 왜적 3명이 중배(中船)를 타고 추도(楸島)(통영시 산양면 추도리)에 온 것을 만나 잡아 놓았다고 하므로 신문한 뒤에 압송해 올 일로 일러 보냈다. 저녁에 공대원(孔大元)에게 물으니, “왜들이 바람을 따라 배를 띄워

29 공명고신(空名告身) :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 국가의 재정이 궁핍할 때 국고(國庫)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중앙의 관원이 이것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 명목상의 관직을 주었다.

저희 본토로 향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 배를 부리지 못하고 표류해서 이 섬에 댈 것이라 하더라”고 하나 간사한 놈들의 말이라 믿을 수가 없었다. 이설(李潑)과 이상록(李尙祿)이 돌아갔다. 본영 탐선이 들어왔다.

5일(임오) 비바람이 크게 불어쳤다. 지붕이 세 겹이나 겹혀 조각조각 날아가고 삼대 같은 빗발에 몸을 가리지 못했다. 어이없었다. 사도(蛇渡)가 와서 문안하고 갔다. 큰 비바람은 오후 2시쯤에 조금 그쳤다. 발포(鉢浦)가 떡을 만들어 보내왔다. 탐선이 들어와 어머님께서 평안하심을 알게 되었다. 다행한 일이다.

6일(계미) 흐리다가 늦게 개었다. 사도, 보성, 낙안, 여도, 소근(所斤) 등이 보러 왔다. 오후에 원 수사가 사로잡은 왜인 3명을 거느리고 왔기에 문초를 받아 본즉, 이랬다저랬다 만 번이나 속이므로 원 수사를 시켜 목을 베고 보고하게 했다. 우수사(이억기)도 왔다. 술 세 순배를 마시다가 상을 물리고 돌아 들어갔다.

7일(갑신) 맑음. 기운이 편안한 것 같았다. 침 16군데를 맞았다.

8일(을유) 맑음. 원수(권율)의 군관 변응각(邊應穀)이 원수의 공문과 장계 초본과 임금의 유서(諭書)를 가지고 왔는데, “수군을 거제(巨濟)로 진격시켜 적으로 하여금 무서워 도망가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상 우수사와 전라 우수사를 불러 의논하고 방략을 정했다. 충청 수사(이순신(李純信))가 들어왔다. 밤에 큰비가 왔다.

9일(병술) 비, 비. 종일 빈 정자에 홀로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회포가 산란했다. 무슨 말로 형언하랴. 가슴이 막막하기 취한 듯, 꿈속인 듯, 명청이가 된 것도 같고 미친 것 같기도 했다.

10일(정해) 비, 비.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많은 배들이 온 바다에 깔려 있었다. 적이 비록 쳐들어온다 해도 섬멸할 만했다. 늦게 우수사 우후(이정충)와 충청 수사(이순신)가 와서 장기를 겨루었다. 원수 군관 변응각도 함께 점

심을 먹었다. 저물녘에 보성 군수(김득광)가 왔다. 비는 종일 그치지 않았다. 아들 회(薈)가 바다로 나간 것이 걱정스러웠다. 소비포(所非浦)가 약을 보내왔다.

11일(무자) 비, 비. 저녁때까지 내렸다. 3월부터 밀린 공문서를 낱날이 치결했다. 저녁때 낙안(김준계(金遵繼))이 와서 이야기했다. 큰비가 퍼붓듯이 밤낮을 그치지 않았다.

12일(기축) 큰비가 종일 오다가 저녁에야 조금 그쳤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13일(경인) 맑음. 이날 금모포(黔毛浦) 만호의 보고에 “경상 우수사에 소속된 보자기(鮑作)들이 격군을 신고 도망가다가 현지에서 붙들어 오려는데 원 수사가 크게 성내어 도리어 사복들을 결박하였다” 하므로 노운발(盧潤發)(관군)을 보내어 풀어 주게 했다. 밤 10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4일(신묘) 비, 비. 종일 비가 내렸다. 충청 수사, 낙안, 임치(홍견(洪堅)), 목포(木浦)(전희광(田希光)) 등이 보러 왔다. 영리(營吏)를 시켜 종정도(從政圖)³⁰를 그렸다.

15일(임진) 비. 종일 비가 왔다. 아전을 시켜 종정도를 그렸다.

16일(계사) 흐리고 가는 비가 오더니 저녁에 큰비가 시작하여 밤새도록 내려, 집이 새어 마른 데가 없었다. 여러 배 사람들 거처가 괴로울 것이 무척 염려스러웠다. 곤양(昆陽)(이광악(李光岳))이 편지를 보내고 또 겸하여 유정(惟政)³¹이 적진 중으로 왕래하며 문답한 초기(草記)를 보내어 와서 그것을 보았는데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었다.

30 종정도(從政圖) : 승경도(陞卿圖)라고도 한다. 넓은 종이에 옛 벼슬의 이름을 품계(品階)와 종별(種別)에 따라 써 놓고 알을 굴려서 나온 낱수에 따라 벼슬이 오르고 내림을 겨루는 놀이.

31 유정(惟政) : 사명대사(四溟大師). 조선 중기의 승려(1544~1610). 유정은 법명(法名)이다. 승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승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우고, 1604년에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전란 때 잡혀간 3천여 명의 포로를 구해서 돌아왔다.

17일(갑오) 비가 퍼붓듯이 오고 바다 위에는 안개가 덮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채 저녁에도 그치지 아니했다.

18일(을미) 비가 종일 내렸다. 미조항 침사(김승룡(金勝龍))가 보러 왔다. 저녁에는 상주포 권관(尙州浦權管)이 보러 왔다. 저녁에 보성이 돌아갔다.

19일(병신) 맑음. 장맛비가 잠시 그치니 마음도 상쾌했다. 회(薈), 면(麵)과 계집종들을 보낼 때 바람이 순탄하지 않았다. 이날 송희립(宋希立)이 회(薈)와 함께 착량(鑿梁)[통영시 당동]에 가서 노루 사냥을 할 즈음 비바람 치고 안개가 자욱했다. 오후 8시께 돌아왔는데 날씨는 아직 활짝 개지 않았다.

20일(정유) 비는 왔으나 큰 바람은 조금 그쳤다. 웅천 현감과 소비포가 보러 왔다. 온 종일 홀로 앉았으니 갖가지 생각이 가슴을 치밀었다. 호남 방백(方伯)들이 나라를 저버리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웠다.

21일(무술) 비, 비. 웅천과 소비포가 와서 종정도(從政圖)로 놀았다. 거제 장문포(長門浦)(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서 적에게 사로잡혔던 변사안(卞師顔)이 도망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적의 형세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큰 바람이 밤낮을 통해 불었다.

22일(기해) 비가 오고 큰 바람도 불었다. 오는 29일이 빙모의 제삿날이라 아들 회와 면을 보내고 계집종들도 내보냈다. 순찰사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순변사에게도 편지를 써 보냈다. 황득중(黃得中), 박주하(朴柱河), 오수(吳水) 등을 격군 수색해 오는 일로 내보냈다.

23일(경자) 비. 웅천과 소비포가 왔다. 늦게 해남(海南) 원(위대기(魏大器))이 와서 술안주를 바치므로 충청 수사를 청해 와서 밤 10시쯤 헤어졌다.

24일(신축) 잠깐 맑더니 저녁에는 비가 왔다. 웅천과 소비포가 와서 종정도로 놀았다. 해남도 왔다. 오후에는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구사

직(具思稷)에 대한 장계를 가져갔던 진무(鎭撫)가 들어왔다. 조카 해(莛)가 들어왔다.

25일(임인) 비, 비.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소비포도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비가 조금도 그치지 않으니 싸움하는 군사들이 오죽이나 답답하라. 조카 해가 돌아갔다.

26일(계묘) 비가 오다 개다 했다. 거처하는 마루 서쪽 벽이 무너져, 바라지³²를 고쳐서 바람이 불어드니 시원한 게 아주 좋았다. 과녁판을 정자 앞으로 옮겨 놓았다. 이날 이인원(李仁元)과 토병 23명을 본영으로 보내어 보리를 거둬들이도록 하라고 일러 보냈다.

27일(갑진) 개었다 비오다 했다. 사도, 충청 수사, 발포, 녹도와 활을 쏘았다. 이날 소비포가 아파 누웠다고 했다.

28일(을사) 잠깐 개었다. 사도(김완)와 여도(김인영)가 와서 활을 쏘겠다고 하므로 우수사와 충청 수사를 청하여 함께 쏘게 하고 술 취하여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광양 4호선의 부정 사실을 조사했다.

29일(병오) 아침에 비가 오다가 저녁에는 개었다. 빙모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저녁에 진도(김만수(金萬壽))가 돌아갔다. 웅천 및 거제(안위), 적량(赤梁) [고여우(高汝友)] 등이 보러 왔다 돌아갔다. 어두울 녀에 정사립(공의 군관)이 고하되, “남해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순천 격군을 싣고 나간다” 하므로 잡아다 가두었다.

30일(정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적들과 도망가자고 편 광양 1호선 군사, 경상 보자기 3명을 처벌하였다. 경상 우후가 보러 왔으며 충청 수사도 왔다.

32 바라지 : 원문의 ‘破羅之’는 ‘바라지’의 이두 표기로서, 누각 따위의 벽 위쪽에 바라보기 좋게 꿰은 작은 창을 말한다.

6월

1일(무신) 맑음. 아침에 배 첨사(배경남(裴慶男))와 함께 밥을 먹었다.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늦게 활을 쏘았다.

2일(기유) 맑음. 아침에 배 첨사와 함께 밥을 먹었다. 충청 수사도 왔다. 늦게 우수사(이억기) 집에 갔더니 강진(유해(柳壑))이 술을 바쳤다. 활 두어 순을 쏘는데 원 수사도 왔다. 나는 몸이 불편하여 일찍 돌아와 누워서 충청 수사와 배문길(裴門吉) [배경남]이 장기 내기하는 것을 구경했다.

3일(경술) 아침에 맑더니 오후에 소낙비가 몹시 퍼부어 종일 밤까지 그치지 않고 바닷물조차 흐려지니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 충청 수사(이순신(李純信))와 배 첨사가 와서 바둑을 두었다.

4일(신해) 맑음. 충청 수사, 미조항 첨사 및 웅천(이운룡)이 보러 왔기에 종정도로 놀게 했다. 저녁에 겸사복(兼司僕)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수군 여러 장수들 및 경주(慶州)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 하니 앞으로는 그런 습관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었다. 통탄스럽기 그지없었다. 이것은 원균이 취해서 망발을 부린 것 때문이었다.

5일(임자) 맑음.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사도, 여도, 녹도(송여종(宋汝宗))가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밤 10시께 급창(及唱)³³, 금산(金山)과 그 처자 3명이 아울러 유행병으로 죽었다. 3년이나 눈앞에 두고 미덥게 부리던 자라 하룻저녁에 죽어간 것이 참혹하구나. 무발을 갈았다. 송희립(宋希立)이 낙안, 홍양, 보성으로 군량 독촉할 일 때문에 나갔다.

6일(계축) 맑음. 충청 수사, 여도 만호와 더불어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 우수사 우후(이의득)가 보러 왔다. 소나기가 왔다.

33 급창(及唱) : 원문에 ‘及昌’으로 나오는데, 우리 속어 ‘급창이’의 이두 표기이다. 조선 시대에, 군아에 속하여 원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내종을 말한다.

7일(갑인) 맑음. 충청 수사와 배 첨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남해 군관과 색리(色吏)들의 죄를 다스렸다. 송덕일(宋德驥)이 돌아와서 유서(諭書)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날 무씨 2되 5홉을 심었다.

8일(을묘) 맑으나 찌는 것 같이 더웠다. 우수사 우후(이정충)가 왔다. 충청 수사와 더불어 활 20순을 쏘았다. 저녁에 종 한경(漢京)이 들어왔다.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니 다행한 일이다. 미조항 첨사(김승룡)가 돌아갔다. 회령포 만호(會寧浦萬戶) [민정봉(閔廷鵬)]가 진에 이르렀다. 군사에 대한 공로를 따라 상과 벼슬을 내려 주는 관교(官敎)³⁴도 왔다.

9일(병진) 맑음. 충청 수사, 우수사 우후가 와서 활을 쏘고 우수사도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밤늦게 해(海)의 젓대 소리를 듣고 영수(永壽)의 거문고를 들으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10일(정사) 맑으나 더위가 찌는 듯했다. 활 5순을 쏘았다.

11일(무오) 맑으나 무덥기가 쇠라도 녹일 것 같았다. 아침에 울(蔚)이 본영으로 갔다. 작별하는 정회를 이길 길이 없었다. 홀로 빈 마루에 앉았노라니 마음을 건잡을 수 없었다. 늦게 바람이 사나워지며 걱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고 그대로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달 아래 함께 이야기할 때 옥저(玉笛) 소리가 처량했다. 오래도록 앉았다가 헤어졌다.

12일(기미) 바람은 크게 부나, 비는 오지 아니했다.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염려스러웠다. 이날 어두울 무렵에 본영 격군 7명이 도망쳤다.

13일(경신) 풍세(風勢)는 아주 사납고 더위는 찌는 듯했다.

14일(신유) 더위와 가뭄이 아주 심하여 섬이 찌는 듯했다. 농사를 위해 아주 걱정되는 일이었다. 충청 영공(이순신(李純信)) 및 사도, 여도, 녹도와 더불어 활 20순

34 관교(官敎) : 교지(敎旨)와 같은 말이다. 옛날 제도에 4품 이상의 벼슬을 내려 주는 사령장을 말한다.

을 연습하였는데, 충청이 아주 잘 맞혔다. 이날 경상 수백(원균)이 활 잘 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수사(이억기) 처소에 왔다가 크게 지고 돌아갔다.

15일(임술) 맑더니 오후에 비가 뿌렸다. 신경황(申景潢)이 들어오는 편에 영의정(유성룡)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라를 근심하는 이로 이보다 더할 분이 없을 것이다. 지사(知事) 윤우신(尹又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이니 슬픈 회포를 참을 길이 없었다. 순천, 보성이 보고하되, “명나라 총병관(總兵官) 장홍유(張鴻儒)가 호선(號船)을 타고 백여 명을 거느리고서 바닷길을 거쳐 벌써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에 이르렀다”고 했다. 날짜로 따지자면 오늘내일 중에 도착될 것이지만 격풍으로 배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한 것이 다행이다. 이날 밤 소나기가 흠족히 내렸으니 어찌 하늘이 백성을 살리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아들의 편지가 왔는데 잘 돌아갔다고 했다. 또 아내의 편지에는 아들 면(勉)이 더위를 먹어 앓는다고 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다.

16일(계해)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저녁에 개었다. 충청 수사와 활을 쏘았다.

17일(갑자) 맑음. 늦게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선 평안하시나 면은 아주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다.

18일(을축) 맑음. 아침에 원수(元帥)의 군관 조추년(趙秋年)이 전령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인즉, 원수(元帥)가 두치(豆峙)(광양시 다압면 섬진리)에 이르러 광양 원(송전(宋詮))이 수군을 옮겨다 복병을 정할 적에 사정(私情)을 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군관을 보내어 까닭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원수가 그 서처남(庶妻男) 조대항(曹大恒)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사정을 쓰는 것이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날 경상 우수사가 청하는 것을 가지 않았다.

19일(병인) 맑음. 원수 군관과 배응록(裵應祿)이 원수에게로 돌아갔다. 변존서(卞存緒), 윤사공(尹思恭), 하천수(河千壽) 등이 들어왔다.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가

그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곧 그의 사처로 돌아갔다.

20일(정묘) 맑음. 충청 수사가 보러 와서 활을 쏘았다. 박치공(朴致恭)이 와서 서울 간다고 말하였다. 마량 첨사(馬梁僉使)(강응호(姜應虎))도 왔다. 저녁에 본포(本浦)(곧 영등포)에 물러가 있었던 영등 만호(永登萬戶)(조계종(趙繼宗))의 죄를 다스렸다. 탐선 이인원(李仁元)이 들어왔다.

21일(무진) 맑음.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마량 첨사가 보러 왔다. 명나라 장수가 물길을 거쳐 벌써 벽파정에 이르렀다는 것은 잘못 전한 것이라 한다.

22일(기사) 맑음. 조모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이날 복터위가 전날보다 한 결 더하여 섬이 찢는 것 같아 사람이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웠고, 저녁에 몸이 불편해서 두 끼나 밥을 먹지 아니했다. 오후 8시께 소나기가 내렸다.

23일(경오) 맑음. 늦게 소나기가 흠씬 쏟아졌다. 순천, 충청 수사, 우수사 우후, 가리포 첨사(이응표(李應彪)) 등이 보러 왔다. 우후(이몽구(李夢龜))가 군량 독촉하는 일로 견내량(見乃梁)에 나갔다가 왜놈을 사로잡아 왔으므로 왜적의 현상을 심문하고 또 무엇을 잘하는가 물었더니, 염초(焰硝) 굽는 것과 총 놓는 것을 잘 한다고 했다.

24일(신미) 맑음. 순천과 충청 수사가 왔다. 활 20순을 쏘았다.

25일(임신) 맑음.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이여념(李汝恬)도 와서 쏘았다. 종사관(從事官)(정경달(丁景達))의 배행(陪行) 아전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도어사(調度御使)의 말이 지극히 놀라웠다. 부채를 봉해 올렸다.

26일(계유) 맑음. 충청 수사, 순천, 사도, 여도, 고성(固城)(조응도(趙凝道)) 등이 활을 쏘았다. 일찍이 김양간(金良幹)을 시켜 단오(端午) 진상물을 올려 보냈다. 마량과 영등이 왔다가 이내 돌아갔다.

27일(갑술) 맑음. 활 15순을 쏘았다.

28일(을해) 맑으나 더위는 찌는 것 같았다. 나라 제삿날³⁵이라 종일 홀로 앉아 있었다. 진무성(陳武晟)이 벽방(碧方) 망보는 곳의 부정 사실을 조사하고 와서 적선이 없더라고 보고했다.

29일(병자) 맑음. 순천이 술과 음식을 가져왔다.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윤동구(尹東喬)의 아버지가 보러 왔다. 울(蔚)이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다고 했다.

7월

1일(정축) 맑음. 배응록이 원수(元帥)에게서 왔는데, 원수가 자신이 말한 것을 নিু우쳐서 보내더라는 것이었다. 가소롭다. 이날 인묘(仁廟) 국기일³⁶이라 종일 홀로 앉아 있었다. 저녁에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2일(무인) 맑음. 늦더위가 찌는 듯했다. 이날 순천 도청(都廳)³⁷과 색리(色吏), 광양 색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좌도 사부(射夫)들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하여 적의 장물을 나누어 주었다. 늦게 순천, 충청 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배 침지가 말미를 받아 가지고 갔다. 노운발(盧潤發)에게 홍양 군관 이심(李深) 및 병선색(兵船色)³⁸, 괭군색(括軍色)³⁹ 등을 붙잡아 오도록 군령을 주어 내보냈다.

3일(기묘) 맑음. 충청 수사와 순천이 활을 쏘았다. 웅천 현감 이운룡(李雲龍)이 말미를 고하고 미조항(彌助項)으로 갔다. 음란한 계집을 처벌하였다. 각 배에서 여러 번 양식을 도둑질해 간 자를 처형하였다. 저녁에 새로 지은 다락을 나가 보았다.

35 나라 제삿날 : 명종(明宗)의 제삿날.

36 인묘(仁廟) 국기일 : 인종(仁宗)의 제삿날.

37 도청(都廳) : 한 고을에서 원을 도와 사무를 총괄하는 아전.

38 병선색(兵船色) : 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색리(色吏).

39 괭군색(括軍色) : 군사를 수색해 내고 또 군대를 보충하는 따위 사무를 담당한 색리.

4일(경진) 맑음. 아침에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고 나중에 마량 첨사(馬梁僉使)(강응호(姜應虎)), 소비포 권관(所非浦權管)(이영남(李英男))이 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왜적 5명과 도망한 군사 1명을 아울러 처형하라 명했다.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옥과(玉果)에서 원호 사업을 맡아 한 조응복(曹應福)에게 참봉(參奉) 직첩을 주어 보냈다.

5일(신사) 맑음. 새벽에 탐선이 들어와 어머니의 평안하심을 살펴 들으니 다행 또 다행한 일이다. 심약(審藥)⁴⁰이 내려왔는데 심히 용렬하니 한심스럽다.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함께 왔다. 여도(김인영(金仁英))가 술을 가져왔으므로 함께 마시고 활 10순을 쏘았다. 많이 취해서 수루(戍樓)에 올랐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6일(임오) 종일 굵은비가 내렸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 보지 아니했다. 최귀석(崔貴石)이 도둑떼 3명을 잡아 왔기에 다시 박춘양(朴春陽) 등을 보내어 원 귀가 떨어지 나간 그 괴수마저 붙잡아 왔다. 아침에 정원명(鄭元溟) 등을 격군(格軍) 정비하지 못한 일로 가두었다. 저녁에 보성(寶城)이 들어온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 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10시께 삼대 같은 소나기가 퍼부어 새지 않는 곳이 없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노라니 온갖 걱정이 치밀어 왔다.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왔다.

7일(계미) 저녁에 비가 뿌렸다. 충청 수사는 그 어머니 병이 중해 오지 못했다. 우수사, 순천, 사도, 가리포, 발포, 녹도 등이 함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거느리고 올 일로 곤양(昆陽)으로 나갔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고성(固城) 보인(保人)을 신문하였다. 보성이 왔다.

8일(갑신)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고, 종일 큰 바람만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아 여러 장수들을 만나 보지 아니했다. 각 관포(官浦)의 공문을 처결하여 보냈다. 오후에 충청 수사한테 가 보았다. 저녁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고성 사람을 직접

40 심약(審藥) : 옛날 제도에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도로 파견하는 종9품 벼슬인데,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다. 심약은 신경황(申景潢)이었다.

신문하였다. 광양의 송전(宋詮)이 그의 장수인 병사(兵使)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낙안(樂安)과 충청 우후가 온다고 했다.

9일(을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가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였다. 늦게 순천, 낙안, 보성의 군관과 색리들이 격군에 대해 등한히 하고, 또 기일 어긴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加里浦)(이응표(李應彪)), 임치(臨淄)(홍견(洪堅)), 소근포(所斤浦)(박윤(朴潤)), 마량 첨사(馬梁僉使)(강응호(姜應虎)) 및 고성(固城)(조응도(趙凝道))이 왔다. 낙안 군량 벼 2백 섬을 받아들였다.

10일(병술) 아침엔 맑았으나 저녁에 조금 비가 내렸다. 아침에 낙안의 견양 벼(樣租) 짚은 것과 광양 벼 백 섬을 되었다. 신흥현(申弘憲)이 들어왔다. 늦게 송전(宋詮)이 군관과 더불어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들으니 면(莧)의 병세가 다시 더쳤고 토혈하는 증세까지 있다 하므로 울(蔚)과 심약(審藥) 신경환, 정사립(鄭思立), 배응록(裵應祿) 등을 함께 내보내었다.

11일(정해) 굿은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면서 종일 그치지 아니했다. 울(蔚)이 가는데 곤란할 것이 걱정되었고 면(莧)의 병이 어떠한가도 궁금했다. 장계를 친히 기초(起草)했다. 경상 순무(巡撫)(서성(徐滄))의 공문이 왔는데, 원 수사가 불평을 많이 말하였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군관들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봉학(奉鶴)도 함께 쏘았다. 윤언침(尹彦枕)이 접고를 받기 위해 왔기에 점심을 먹여 보냈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크게 치면서 밤새 계속되었다.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12일(무자) 맑음. 아침에 소근포(所斤浦) 첨사가 보러 와서 화살 54개를 만들어 바쳤다. 서류를 처결하여 돌려주었다. 충청 수사, 순천, 사도, 발포, 충청 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선이 들어와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는 것을 살폈으나 면의 병세는 여전히 중하다는 것이다. 애타는 마음이건만 어찌하랴. 유 정승(柳政丞)(유성룡)이 죽었다는 부고가 순변사(巡邊使)에게 왔다고 하나 이는 필시 질투하는 자들이 말을 만들어 하는 것이었다. 통분함을 참지 못하겠다. 이날 밤 심사가

심란해서 홀로 마루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을 스스로 견잡을 수 없었다. 걱정이 쌓여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만일 유 정승이 어찌 되었다면 나랏일을 어찌할 것이라. 어찌할 것이라.

13일(기축) 비, 비. 홀로 앉아 면의 병세가 어떤가를 생각하고 글자를 짚어 점을 쳐 보니, “군왕을 만나 보는 것 같다(如見君王)”는 괘가 나왔다. 아주 좋았다. 다시 짚으니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如夜得燈)”는 괘가 나왔으니 두 괘가 다 좋은 것이었다. 조금 마음이 놓였다. 또 유 정승의 점을 친즉,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다(如海得船)”는 괘가 나왔고, 다시 치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如疑得善)”는 괘가 나왔다. 아주 좋다. 저녁내 비가 오는데 홀로 앉아 정회를 이길 길이 없다. 늦게 송진(宋詮)이 돌아가는데 소금 1섬을 주어 보냈다. 오후에 마량 첨사와 순천이 보러 왔다가 어두워서야 돌아갔다. 비가 올지 갇지를 점쳐 보니, “뱀이 독을 뱉는 것과 같다(如蛇吐毒)”는 괘를 얻었다. 장차 큰비가 내리겠으니 농사를 위해 걱정 또 걱정스럽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오후 8시께 발포의 탐선이 편지를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14일(경인) 비, 비. 어제 저녁부터 빗발이 삼대 같았다. 집이 새어 마른 데가 없어 간신히 밤을 지냈다. 점괘 얻은 그대로이니 그 참 절묘하구나. 충청 수사와 순천을 청해다가 장기를 두게 하면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러나 근심이 속해 있으니 어찌 조금인들 편할 것이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수루(戍樓)로 나가 몇 바퀴 돌다가 내려왔다. 밤 12시께 또 비가 내렸다.

15일(신묘) 비, 비. 늦게 개었다. 아침에 조카 해(菱)와 종 경(京)이 왔다. 면(麵)의 병이 나아간다는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조카 분(芬)의 편지로 해서 다시 아산(牙山) 고향 선산이 무사하고 가묘(家廟)도 별일 없고 어머니도 평안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 또 다행한 일이었다. 이흥종(李興宗)이 환상(還上)⁴¹

41 환상(還上) : 환자(還子), 환곡(還穀)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때문에 매를 맞다가 숨졌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그 삼촌⁴²이 처음 듣고서 비통해 한 나머지 그 어머니도 듣고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다는 것이었다. 활 10순을 쏘고 수루(戍樓)로 올라 거닐고 있을 때 박주사리(朴注沙里)가 급히 와서 이르기를, 명나라 장수가 이미 본영 앞에 이르렀는데, 곧 이곳으로 온다 하므로 즉시 삼도(三道)에 전령하여 진을 죽도(竹島)(통영시 한산면 상죽도)로 옮기게 하고 거기서 밤을 지냈다.

16일(임진) 흐리고 바람이 시원하더니 늦은 아침 녘에 큰비가 내려 종일 퍼붓는 것 같이 쏟아졌다. 원 수사, 충청 수사, 우수사가 모두 보러 왔다. 소비포가 쇠다리 등속을 보내왔다. 명나라 장수는 삼천진(三千鎭)(사천시, 옛 삼천포시)에 와서 유숙한다는 것이었다. 여도(呂島)가 먼저 왔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갔다.

17일(계사) 맑음. 새벽에 포구로 나가 진을 쳤다. 오전 10시께 명나라 장수 파총(把總) 장홍유(張鴻儒)가 병호선(兵號船) 5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와서 바로 영문에 이르러서는 육지에 내려 함께 이야기하자고 청했다. 나는 여러 장수와 함께 먼저 사정에 올라가서 올라오기를 청했더니 파총이 배에서 내려 곧 왔다. 함께 앉아 먼저 만 리 바닷길에 어렵게도 여기까지 온 것을 이룰 길 없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니, “작년 7월 절강(浙江)에서 배를 타고 요동(遼東)에 이르렀더니 요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항로 중에 돌섬과 암초들이 많고 또 장차 화친이 될 것이니 갈 것이 없다 하며 굳이 말리므로 그대로 요동에 머무르면서 시랑(侍郎) 손광(孫鑛)과 총병(總兵), 양문(楊文) 등에게 보고하고, 금년 3월 초승에 다시 출발하여 왔으니 무슨 수고가 있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차를 들라 하고 다시 술잔을 권하며 강개한 정회를 바꾸었다. 그리고 또 적의 정세를 이야기하느라고 밤이 깊은 줄을 몰랐다.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18일(갑오) 맑음. 수루 위로 나가자고 청하여 점심 후 나가 앉아 술을 두세 순배 돌렸다. 아마 명년 봄에는 배를 거느리고 바로 제주도로 갈 터인데, 우리 수군과 합

42 이홍종의 삼촌은 곧 충청 수사 이순신(李純信).

세하여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자고 성의 있게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헤어졌다.

19일(을미) 맑음. 아침에 명나라 장수에게 환영례를 표시하는 단자(單子)를 드리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여 주는 물건이 극히 풍성하다고 했다. 충청 수사도 역시 드렸다. 늦게 우수사가 예물을 주는데 나와 같았다. 점심 후 원 수사 혼자서 술 한 잔을 대접하는데, 상은 그득하건만 하나도 집어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우스웠다. 자(字)와 별호를 몰으니 써 주는데, 자는 중문(仲文)이요, 호는 수천(秀川)이라고 써 보였다. 촛불을 켜 놓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비가 올 기미이기에 배로 내려갔다.

20일(병신) 맑음. 아침에 통역관이 와서 전하되, 명나라 장수(장홍유를 이름)가 남원(南原) 유 총병(劉總兵)(유정(劉挺))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고 싶다 하므로 나는 명나라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전하기를, “처음에 파총이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미 유 총병에게 전해졌는데, 이제 중지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남의 말들이 있을 터이니 가서 보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파총이 듣고 “과연 그렇다. 말을 타고 혼자 가서 서로 만나 본 뒤에 바로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다”고 말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파총이 내 배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별하는 술잔을 권했다. 7잔을 먹은 뒤에 뱃줄을 풀고 함께 포구 밖으로 나가 두 번 세 번 애달픈 뜻으로 송별하였다. 그대로 경수(景受)(이억기)와 충청, 순천, 발포, 사도와 함께 사인암(舍人巖)으로 올라가 종일 취하여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21일(정유) 맑음. 아침에 명장(明將)과 문답한 것을 서류로 꾸며 원수(元帥)에게 보고했다. 늦게 마량, 소근포 침사(박윤(朴潤))가 보러 왔다. 발포가 복병하러 나가는 일을 고하고 갔다. 저녁에 수루에 올랐는데 순천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오후에 홍양 군량선이 들어왔는데, 색리와 선주(船主)에게 족장(足掌)을 호되게 때렸다. 늦게 소비포(所非浦)(이영남(李英男))가 보러 와서 말하기를, 기한에 대지 못하였다고 해서 원 수사에게 곤장 30대를 맞았다고 한다. 몹시 해괴한 일이다. 우수사가 군량 20섬을 꾸어 갔다.

22일(무술) 맑음. 아침에 장계의 초고를 수정했다. 임치(臨淄)(홍견(洪堅)) 및 목포(木浦)(전희광(田希光))가 보러 왔다. 늦게는 사량(蛇梁)(이여념(李汝恬)), 영등(永登)(조계종(趙繼宗))이 보러 왔다. 오후에 충청 수사(이순신(李純信)), 순천(권준(權俊)),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 이영남과 함께 활을 쏘았다. 해질 녘에 수루에 올랐다가 밤이 되어서 돌아왔다.

23일(기해) 맑음. 충청 수사가 우수사, 가리포(加理浦)(이응표(李應彪))와 보러 와서 활을 쏘았다. 조가 해(薙)와 종 봉(葦)이 돌아갔다. 목년(木年)이 들어왔다.

24일(경자) 맑음. 여러 가지 장계를 친히 봉했다. 영의정(유성룡), 심 병판(沈兵判)(충겸(忠謙)), 윤 판서(근수(根壽))께 편지를 썼다. 저녁에 활 7순을 쏘았다.

25일(신축) 맑음. 아침에 하천수(河千守)에게 장계를 들려 떠나보냈다. 조식 후 충청 수사, 순천 등과 더불어 우수사에게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크게 취해 돌아와서 밤새 토했다.

26일(임인) 맑음. 아침에 각 관포(官浦)의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식사 후에 수루 위에 옮겨 앉았는데, 순천과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늦게 녹도 만호(송여종(宋汝棕))가 도망간 군사 8명을 잡아 와서 그중 괴수 3명은 처형하고 나머지는 곤장을 때렸다. 저녁에 탐선이 들어와 아들들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고, 면(麵)의 병세는 나아 간다는데 허씨댁(許室)⁴³의 병세가 점점 중하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유홍(俞弘)과 윤근수(尹根壽)가 세상을 떠나고 윤돈(尹墩)이 종사관(從事官)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신천기(申天機)가 들어오고 저물녘에는 신제운(申霽雲)이 와서 보았다. 노운발(盧潤發)이 홍양의 색리와 감관(監官)을 붙잡아 가지고 들어왔다.

27일(계묘)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머리를 풀고 크게 울었다.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한다. 이날 충청 수사, 순천과 더불어 수루에 올라 활을 쏘

43 허씨댁(許室) : 누이나 딸 가운데서 허씨(許氏) 집안으로 출가한 사람을 부르는 말.

았다. 충청 수사가 과하주(過夏酒)⁴⁴를 가져왔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조금 마셨는데 별로 낫지 않았다.

28일(갑진) 맑음. 홍양 색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계운(申霽雲)이 주부(主簿)의 직첩(職牒)을 받아 가지고 갔다. 늦게 수루에 올라가 벽 바르는 것을 감독했다. 의능(義能)이 그 일을 맡아 했다. 저물어서 방으로 돌아왔다.

29일(을사) 종일 부슬비가 내리고 바람기는 없었다. 순천과 충청 수사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는데, 몸이 아주 편치 않았다. 낙안도 함께 왔었다. 이날 신음으로 밤을 새었다.

8월

1일(병오) 비, 비.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아 수루 방에 앉아 있다가 곧 마루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낙안(김준계(金遵繼))이 강집(姜輯)을 데리고 군량 독촉하는 일로 군율을 받들어 공초하고 내어보냈다. 비는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다.

2일(정미)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1일 한밤중에 꿈을 꾸니 부안(扶安) 사람⁴⁵이 아들을 낳았다. 달수로 따져 낳을 달이 아니었으므로 꿈이지만 내쫓아 버렸다.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다. 늦게 수루 위에 옮겨 앉아 충청 수사, 순천(권준(權俊)) 및 마량(강응호(姜應虎))과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 빚은 술 몇 잔을 마셨다. 종일 비가 내렸다. 송희립(宋希立)이 와서 고하기를, 홍양 훈도(興陽訓導)도 작은 배를 타고 도망했다는 것이었다.

3일(무신)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충청 수사, 순천과 활 서너 순을 쏘았다. 수루 방을 도배했다.

44 과하주(過夏酒) : 여름을 지내도 시어지지 않는 약주.

45 부안(扶安) 사람 : 공의 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안 사람이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4일(기유) 아침나절에 비가 뿌리다가 저녁나절엔 개었다. 충청 수사 및 순천, 발포 등이 와서 활을 쏘았다. 수루 방의 도배를 마쳤다. 경상 수사의 군관과 색리(色吏)들이 명나라 장수(장홍유(張鴻儒))를 접대할 적에 여인들에게 떡과 음식물들을 이고 오게 한 죄를 다스렸다. 화살 만드는 사람인 박옥(朴玉)이 와서 대(竹)를 가져갔다. 이종호(李宗浩)가 안수지(安守智) 등을 잡아오기 위해 홍양으로 떠났다.

5일(경술) 아침에는 흐렸다. 식사 후 충청 수사, 순천과 함께 활을 쏘았다. 오후에 경상 수사에게로 간즉, 우수사가 먼저 와 있었다.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이날 웅천(이운룡(李雲龍)), 소비포(이영남(李英男)), 영등포(조계중(趙繼宗))와 윤동구(尹東耆) 등이 모두 선봉장으로서 여기 왔다.

6일(신해) 아침엔 맑더니 저물녘에 비가 왔다.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장흥(황세득(黃世得))이 들어오고 보성이 나갔다.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고 면(勉) 역시 차츰 차도가 있다 한다. 고성(조응도(趙凝道)) 및 사도(蛇渡)(김완(金浣)), 적도(赤島)(고여우(高汝友))가 왔다가 갔다. 이날 밤 수루 방에서 잤다.

7일(임자) 비, 비. 종일 내렸다.

8일(계축) 비, 비. 종일 내렸다. 정 조방장(丁助防將)(정응운(丁鷹運))이 들어왔다.

9일(갑인) 비, 비. 우수사 및 정 조방장, 충청 수사, 순천, 사도와 함께 이야기했다.

10일(을묘) 비, 비. 종일 내렸다. 충청 수사 및 순천이 와서 이야기했다. 이날 장계(狀啓)의 초고를 수정했다.

11일(병진) 종일 큰비가 내렸다. 이날 밤 모진 바람이 불고 큰비가 내렸다. 지붕이 세 겹이나 벗겨져 삼대갈이 비가 섰다. 새벽까지 앉아서 밝혔다. 양편 창문은 모두 바람에 찢겨 없어졌다.

12일(정사)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늦게 충청 수사 및 순천과 함께 활을 쏘았다. 소비포, 웅천도 와서 쏘았다. 아침에 원수(元帥)의 군관이 전령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군사 약속을 직접 만나서 의논하자 하므로 오는 17일에 사천(泗川)으로 나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13일(무오) 맑음. 아침에 심준이 돌아갔으며 노운발(盧潤發)도 돌아갔다. 오전 10시께 배로 내려가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견내량(見乃梁)으로 갔다. 따로 날쌔 장수를 선정하여 춘원(春原)(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예포) 등지로 보내어 적을 기다려 무찌르게 했다. 놀러 잤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 없어 잔잔한데 해(海)를 시켜 첫대를 불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두었다.

14일(기미)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아침에 사도 및 소비포, 웅천 등이 보고하되, “왜선 1척이 춘원(春原)에 대어 있기로 갑자기 엄습했더니 왜놈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고 우리나라 남녘 15명과 적선만을 빼앗아 왔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께 진으로 돌아왔다.

15일(경신) 맑음. 식후에 출발하여 원 수사와 함께 월명포(月明浦)(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 이르러 잤다.

16일(신유) 맑음. 새벽에 출발, 소비포에 이르러 배를 정박하고 아침을 먹은 뒤 돛을 달고 사천 선창(泗川船倉)(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이르니 기직남(寄直男)이 곤양(昆陽)(이광악(李光岳))과 함께 와 있었다. 그대로 유숙했다.

17일(임술)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원수(권율(權慄))가 오정에 사천으로 와서 군관을 보내어 이야기하자고 하므로 곤양(昆陽) 말을 빌려 타고 원수가 머무르고 있는 사천 원의 사처로 갔다.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한 뒤에 공사간의 인사를 마치고 그대로 이야기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빛이었다. 원 수사를 몹시 책망하니 원 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우스웠다. 가져간 술을 내놓고 마시기를 청하여 8순을 돌렸다. 원수가 잔뜩 취해 상을 물리고 나도 숙소로 돌아왔다. 박종남

(朴宗男), 윤담(尹潭)이 보러 왔다.

18일(계해)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을 먹은 뒤 원수가 청하므로 나아가 이야기하고 또 간단한 술상을 차렸다가 잔뜩 취해서 하직을 고했다. 원 수사는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곤양, 소비포, 거제 [안위(安衛)]와 더불어 배를 돌이켜 삼천포 앞에 이르러 잤다.

19일(갑자) 맑음.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새벽에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양지리) 뒤쪽에 이르렀는데, 원 수사는 아직 오지 아니했다. 첩 60동을 캐고 나니 그제야 원 수사가 왔다. 늦게 출발하여 당포(唐浦)(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이르러 잤다.

20일(을축)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진에 이르렀다. 우수사와 정 조방장이 보러 왔다. 정은 곧 돌아가고 우수사 및 장흥, 사도, 가리포, 충청 우후(원유남(元裕南))와 활을 쏘았다. 저녁에 젖대 불고 노래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미안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충청 수사는 어머니 병환이 위중해서 홍양으로 떠나갔다.

21일(병인) 맑음. 외가(外家)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곤양, 사도, 마량, 남도(南桃)[강응표(姜應彪)], 영등, 회령(會寧), 소비포 등이 왔다. 양정언(梁廷彦)이 보러 왔다.

22일(정묘) 맑음. 나라 제삿날⁴⁶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경상 우우후(慶尙右虞候) [이의득(李義得)]가 보러 왔다. 낙안, 사도도 왔다가 갔다. 저녁에 곤양, 거제, 소비포, 영등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 돌아갔다.

23일(무진) 맑음. 아침에 서류 초안을 작성하고 식후에 사정에 옮겨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내고서 활을 쏘았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장흥, 녹도가 함께 왔다. 저물녘에는 곤양, 웅천, 영등, 거제 및 소비포 등이 왔다. 오후 8시께 헤어져 돌아갔

46 나라 제삿날 : 성종(成宗) 정현왕후 윤씨(貞顯王后尹氏)의 제삿날.

다.

24일(기사) 맑음. 각 고을 수군 징발할 일로 박언춘(朴彦春) 및 김윤(金倫), 신경황(申景潢)을 내보냈다. 정 조방장이 돌아갔다. 늦게 소비포가 보러 왔다.

25일(경오) 맑음. 아침에 곤양과 소비포를 불러 조반을 함께했다. 사도(蛇渡)가 휴가를 얻어 돌아가기에, 9월 초일에는 돌아오라고 일러 보냈다. 현덕린(玄德隣)이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신천기(申天紀)도 곡식 바칠 일로 해서 돌아갔다. 늦게 홍양(洪興立)이 돌아왔다. 사정으로 내려가 활 6순을 쏘았다. 정원명(鄭元明)이 들어왔다고 한다.

26일(신미) 맑음. 아침에 각 관포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홍양 보자기 막동(莫同)이란 자가 장흥(長興) 군사 30명을 그의 배에 싣고 도망간 죄로 사형에 처하여 효시(梟示)했다. 늦게 사정에 가서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도 와서 함께 쏘았다.

27일(임신) 맑음. 우수사가 가리포, 장흥, 임치, 우후(이몽구(李夢龜)) 및 충청 우후와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홍양이 술을 내놓았다. 아침에 울(蔚)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중하다 해서 회(薈)를 내어보냈다.

28일(계유) 밤 2시께부터 부슬비와 큰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아침 6시께 개었으나 바람만은 종일 크게 불어 밤새 그치지 아니했다. 회가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몰라 심히 염려스러웠다. 진도(珍島) 원(김만수(金萬壽))이 보러 왔었다. 원수(元帥)의 장계로 해서 문책하는 글이 내려왔는데, 거의 장계의 오해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29일(갑술)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마랑 첨사와 소비포가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늦게 사정에 옮겨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도양(道陽)의 머슴꾼 박돌이(朴荈伊)의 죄를 다스렸으며, 도둑 3명 중 장손(張孫)은 곤장 백 대를 때리

고 얼굴에 ‘盜(도)’ 자를 먹물 들였다. 해남 현감(海南縣監)(현집(玄楫))⁴⁷이 들어왔다. 의병장 성응지(成應祉)가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슬프다.

30날(을해) 맑고 바람도 없었다. 아침에 해남 원 현집이 보러 오고 늦게 우수사 및 장흥이 보러 왔다. 허정은(許廷闇)도 왔다. 이날 아침 탐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는 것이었으니 벌써 생사 간 결말이 났을지도 모른다.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수 있으라마는 세 아들,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꼬, 아프고 괴롭구나. 김양간(金良幹)이 서울로부터 영의정(유성룡)의 편지와 심충겸(沈忠謙)(병조판서)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분개한 뜻이 많이 적혀 있었다. 원 수사의 일은 참으로 해괴하다. 날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했더니 이는 천고에 탄식할 일이다. 곤양(昆陽)이 병으로 돌아갔는데, 보지 못하고 보내서 더욱 유감스러웠다. 밤이 들면서 심사가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9월

1일(병자) 맑음. 앉았다 누웠다 잠을 못 이루고 촛불을 전채 뒤척이며 지새었다. 이른 아침 세수하고 고요히 앉아 아내의 병세에 대해 점을 쳤더니, “중이 환속(還俗)하는 것 같다(如僧還俗)”는 괘를 얻고 다시 쳤더니, “의심이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如疑得喜)”는 괘를 얻었다. 아주 좋다. 또 병세가 나아질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쳐 보니, “귀양 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 같다(如謫見親)”는 괘였다. 이 역시 오늘 중에 좋은 소식을 받을 징조였다. 순무사 서성(徐省)의 서류와 장계가 들어왔다.

2일(정축) 맑음. 아침에 웅천(이운룡(李雲龍)), 소비포 권관(이영남(李英男))이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늦게 낙안(김준계(金遵繼))이 보러 왔다. 저녁때 탐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덜해지기는 하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 하니 걱정스러웠다.

3일(무인) 비가 조금 왔다. 새벽에 밀지(密旨)가 들어왔는데, “수륙(水陸) 여러 장

47 《전서》에는 ‘南海縣監(남해현감)’으로 나와 있다.

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 했지만, 3년 동안 해상(海上)에 있어 그럴 리가 만무하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맹세하고 죽음으로써 원수 갚을 뜻으로 날을 보내지만 험고한 곳에 웅거하여 소굴 속에 들어있는 적이라 경솔히 나가 칠 수는 없는 일이요, 또 더구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백 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知彼知己 百戰不殆)” 하지 않았는가.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불 밝히고 혼자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국사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밤 10시께 홍양이 내가 혼자 앉아 있는 줄을 알고 들어와 자정까지 얘기하다가 헤어졌다.

4일(기묘) 맑음. 아침에 홍양이 보러 왔다. 소비포도 왔다. 늦게 원 수사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해서 사정에 나가 앉았다. 활을 쏘아 원 수사가 9분을 지고 술이 취하여 갔다. 첫대를 볼도록 하고 밤이 깊어 헤어졌다. 또 미안한 일이 있었다. 우스웠다. 여도(呂島)가 들어왔다.

5일(경진) 맑음. 닭이 운 뒤 머리가 가려워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시켜 긁게 했다. 바람이 고르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충청 수사가 들어왔다.

6일(신사) 맑고 바람도 잔잔했다. 아침에 충청 수사 및 우후(원유남), 마량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늦게 사정에 옮겨 앉아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종 효대(孝代)와 개남(介南)이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즐겁고 다행함을 어디에 비기랴. 들으니 방필순(方必淳)이 세상을 떠나 익순(益淳)이 그 가족을 끌고 우리 집으로 왔다고 한다. 우습다. 밤 10시께 복춘(福春)이 왔다. 저물 무렵에 들이니 김경로(金敬老)가 우도(右道)에 왔다고 한다.

7일(임오) 맑음. 아침에 순천 부사(권준(權俊))의 편지가 왔는데 순찰사(홍세공(洪世恭))가 10일쯤 본부(本府)(순천)에 도착하고, 좌의정(윤두수(尹斗壽))도 도착한다고 했다. 심히 불행한 일이다. 순천이 진중에 있을 때 거제로 사냥을 보냈던 바, 그들이 남김없이 사로잡혔다는데 그것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주 해괴해서 편

지에 그것을 지적하여 보냈다.

8일(계미) 맑음. 장흥(황세득(黃世得))으로 헌관(獻官)⁴⁸을 삼고 홍양으로 전사(典祀)⁴⁹를 삼아 9일 득제(蠶祭)를 지내기 위해 입재(入齋)시켰다. 김 첨지(金僉知)(김경로(金敬老))가 왔다.

9일(갑신) 맑았는데 저물녘에 잠시 비가 오다가 그쳤다. 여러 장수가 활을 쏘았다. 삼도(三道)가 모였는데 원 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다. 김 첨지도 함께 활을 쏘다가 돌아가 경상도 부대로 가서 잤다.

10일(을유) 맑고 바람도 조용했다. 사도가 사회(射會)를 열었는데 우수사도 모였다. 김경숙(金敬叔)이 창신(昌信)으로 돌아갔다.

11일(병술) 맑음. 일찍 수루에 나가 남평(南平) 색리와 순천 격군으로 3번이나 군량 흠쳐 낸 자를 처형했다. 각 관포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늦게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소비포는 원 수사가 모함하려고 하는 까닭에 달밤을 타 본포로 돌아갔다.

12일(정해) 일찍이 김암(金岩)이 방에 왔다. 정 조방장(정응운(丁鷹運))의 종이 돌아가는 길에 답서를 보냈다. 늦게 우수사, 충청 수사가 오고 장흥이 술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다가 크게 취해 헤어졌다.

13일(무자) 맑고 따사로웠다. 어제 취한 것이 아직 안 깨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충청 우후가 보러 왔다. 또 조도 어사(調度御史) 윤경립(尹敬立)의 장계 초안 2통을 본즉, 하나는 진도 군속 파면을 청한 것이요, 하나는 수군과 육군을 서로 바꾸어 징발하지 말 것과 각 고을 수령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지 말 것을 말한 것인데, 그 의견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하천수(河千壽)가 장계 회답과 홍패(紅牌) 97장을 가지고 왔다. 영의정 편지도 가지고 왔다.

48 헌관(獻官) :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드리는 사람.

49 전사(典祀) : 제사 제반의 일을 책임진 사람.

14일(기축) 맑음. 홍양이 술을 바쳤다. 우수사(이억기), 충청 수사(이순신(李純信))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방답 첨사(防踏僉使)가 공사례(公私禮)를 행했다.

15일(경인) 맑음. 일찍이 충청 수사 및 여러 장수와 함께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우수사는 미리 약속을 하고도 칭병(稱病)을 하니 가탄스럽다.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홍패(紅牌)⁵⁰를 나누어 주었다. 남원(南原) 도병방(都兵房)과 향소(鄕所)들을 붙잡아 가두었다.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가 본도(本道)로 나갔다. 종 경(京)이 들어왔다.

16일(신묘) 맑음. 충청 수사 및 순천과 이야기하였다. 이날 밤 꿈에 아들을 낳았는데, 경(庚)의 모(母)가 아들 낳을 징조였다.

17일(임진) 맑고 따뜻했다. 충청 수사, 순천, 사도(김완(金浣))가 와서 활을 쏘았다. 우후 이몽구(李夢龜)가 둔전(屯田) 추수할 일로 나갔다. 효대(孝代) 등도 나갔다.

18일(계사) 맑고 지나치게 따뜻했다. 충청 수사 및 홍양 원(배흥립(裴興立))과 종일 활을 쏘다가 헤어졌다. 어두워져 비가 뿌리기 시작하여 밤새 계속되었다. 이수원(李壽元) 및 담화(曇花)가 들어오고 복춘(福春)도 들어왔다. 이날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9일(갑오) 종일 비가 내렸다. 홍양, 순천이 와서 이야기했다. 해남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홍양, 순천은 밤이 깊어 돌아갔다.

20일(을미) 새벽에 바람은 그치지 않으나 비는 잠깐 들었다. 홀로 앉아 간밤 꿈을 생각해 보니 바닷속에 있는 외로운 섬이 달려가다가 내 눈앞에 와서 주춤 서는데, 그 소리가 우레 같아 사방에서는 모두 놀라 달아나고 나만 혼자 서서 끝내 그것을 구경했다. 참 장쾌했다. 이것은 왜놈이 화친을 애걸하고 스스로 멸망할 징조다. 또 내가 준마(駿馬)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임금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

50 홍패(紅牌) :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 붉은색 종이에 성적, 등급, 성명을 먹으로 적었다.

갈 징조다. 충청 수사와 홍양이 왔다. 거제(안위(安衛))로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갔다. 체찰사(體察使)의 공문에 수군에게 군량을 들여 계속해서 대라고 하였다. 잡아 거두었던 친족과 이웃은 다 내놓았다고 했다.

21일(병신) 맑음. 아침에 사정에 나가 앉아 서류를 처결하고 늦게 활을 쏘았다. 장흥(황세득), 순천, 충청 수사와 종일 이야기하였다. 저물어서 여러 장수가 뛰어넘기를 하고 또 군사들로 하여금 씨름을 겨루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두었다.

22일(정유) 아침에 사정에 앉았으니 우수사 및 장흥이 왔다.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도 와서 명령을 듣고 물러갔다. 원수(元帥)의 밀서가 왔는데, 27일에는 꼭 군사를 출동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23일(무술) 맑으나 바람이 사나웠다. 일찍이 사정에 나가 공문을 처결하였다. 원수사가 와서 군사 기밀을 의논하고 갔다. 낙안 군사, 본영 군사 51명, 방답 수군 45명을 점고하였다. 고성 인민들이 등장(等狀)하였다. 진주(晉州) 강운(姜雲)의 죄를 다스렸다. 보성(寶城)에서 데려온 소관(召官) 황천석(黃千錫)은 보다 엄히 신문하였다. 광주(光州)에 가두어 둔 창평현(昌平縣) 색리 김의동(金義同)은 사형에 처하라는 군령을 내려 내보냈다. 저녁에 충청 수사 및 마량 첨사(강응호(姜應虎))가 보러 왔다가 밤이 깊어 돌아갔다. 오후 8시께 복춘(福春)이 와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다가 닭이 운 뒤에야 돌아갔다.

24일(기해) 맑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나절 대청(大廳)에 앉아 공무 보고 아침을 충청 수사와 함께 먹었다. 이날 호의(號衣)⁵¹를 나누니 좌도는 누른 옷 9벌, 우도는 붉은 옷 10벌, 경상도는 검은 옷 4벌이었다.

51 호의(號衣) : 우리 속어로 더그레라고 한다. 옛날 제도에, 각 영문의 군사와 마상재군(馬上才軍) 또는 사간원(司諫院)의 길도(喝道), 의금부(義禁府)의 나장(羅將)들이 입는 세 자락 난 옷옷이다. 군사들과 마상재군의 것은 소매가 없고 앞도와 나장의 것은 짧은 소매가 있다. 군사들은 전, 후, 좌, 우, 중, 5방 위를 따라 푸른 빛, 붉은 빛, 흰 빛, 검은 빛으로 각각 그 빛깔을 달리한다. 그리고 마상재군과 같고, 나장의 것은 길이가 짧으나 군사들의 것은 조금 길다.

25일(경자) 맑음. 바람도 조금 잦다. 김 첨지(김경로(金敬老))가 군사 70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저녁때 박 첨지(박종남(朴宗南))도 6백 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조봉(趙鵬)도 왔다. 함께 자며 밤에 이야기했다.

26일(신축) 맑음. 새벽에 곽재우(郭再祐), 김덕령(金德齡) 등이 견내량(見乃梁)(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이르렀으므로 박춘양(朴春陽)을 보내어 건너 온 까닭을 물었더니 수군과 합세할 일로 원수가 전령하였다는 것이었다.

27일(임인) 아침에 맑고 저물녘엔 잠깐 비가 내렸다. 늦은 아침에 배를 띄워 포구로 나가자 여러 배들도 일제히 출발하여 적도(赤島)(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화도(花島)) 앞바다에 대었다. 곽 첨지(곽재우), 김충용(金忠勇)(김덕령), 한 별장(韓別將)(한명련(韓明璉)), 주몽룡(朱夢龍) 등이 모두 와서 약속한 뒤에 각각 원하는 곳으로 갈라 보냈다. 저녁에 선 병사(宣兵使)(선거이(宣居怡))가 배에 이르렀으므로 본영(전라 좌수영) 배를 타게 하였다. 저물녘에 체찰사(體察使)의 군관 이천문(李天文), 임득의(林得義), 이홍사(李弘嗣), 이충길(李忠吉), 강중룡(姜仲龍), 최여해(崔汝諧), 한덕비(韓德備), 이안겸(李安謙), 박진남(朴振男) 등이 왔다. 밤에 잠시 비가 내렸다.

28일(계묘) 흐림. 새벽에 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적을 칠 일로 길흉을 점쳐 보았다. 첫 점은 “활이 살은 얻은 것과 같다(如弓得箭)”는 것이었고, 다시 치니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如山不動)”는 것이었다.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흉도(胸島) 안바다에 진을 치고서 잤다.

29일(갑진) 맑음. 배를 띄워 장문포(長門浦)(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앞바다로 돌입하니 적의 무리는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나오지 아니했다. 누각을 높이 짓고 양쪽 봉우리에는 벽루(壁壘)를 쌓고 있으면서 도무지 나와서 항전하려 들지 아니했다. 선봉 적선 2척을 무찔렀더니 그만 물으로 올라 도망쳤다. 빈 배만 불태워 깨뜨리고 칠천량(漆川梁)에서 밤을 지냈다.

10월

1일(을사) 새벽에 떠나 장문포(長門浦)에 이르니 경상 우수사(원균), 전라 우수사(이억기)가 장문포 앞바다에 머무르고 있었다. 나는 충청 수사(이순신(李純信)) 및 선봉 여러 장수와 함께 바로 영등포(永登浦)(거제시 장목면 구영리)로 들어갔는데, 홍적들은 바닷가에 배를 대어 놓고 한 놈도 나와서 항전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서 도로 장문포 앞바다에 이르러 사도(蛇渡) 2호선이 물에 배를 매려 할 즈음, 적의 작은 배가 곧장 들어와 불을 던졌다. 비록 불은 일어나지 않고 꺼졌지만은 분통하기 그지없다. 우수사 군관 및 경상 수사 군관은 그 실수한 것을 잠깐 꾸짖고 사도 군관은 그 죄를 중하게 다스렸다. 밤 10시께 도로 칠천량(漆川梁)(거제시 하청면)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2일(병오) 맑음. 다만 선봉선 30척을 시켜 장문포로 가서 적의 형세를 살펴보고 오게 했다.

3일(정미) 맑음. 친히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일찍 장문포로 가서 종일 싸우려 했으나 적도들은 두려워하며 나와서 대항하지 아니했다. 날이 저물어 칠천량으로 되돌아와 밤을 지냈다.

4일(무신) 맑음. 광재우(郭再祐), 김덕령(金德齡) 등과 함께 약속한 뒤 군사 수백 명을 뽑아 육지로 내려,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선봉은 먼저 장문포로 보내어 들락날락하면서 싸움을 걸게 했다. 늦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나가 수륙(水陸)이 서로 호응하니 적도들은 갈팡질팡하며 기세를 잃고 동서로 분주한데, 육군은 왜적 한 놈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도로 배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어 칠천량으로 돌아와 진을 쳤다. 선전관(宣傳官) 이계명(李繼命)이 표신(標信)과 선유 교서(宣諭敎書)와 임금이 내려 주는 잘(초피(貂皮))⁵²을 가지고 왔다.

5일(기유)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 장계 초안을 적었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52 잘(초피(貂皮)) : 검은담비의 털가죽이다. 초피(貂皮) 중의 상품(上品)이다.

6일(경술) 맑음. 일찍 선봉을 시켜 장문포 적의 소굴로 보냈더니 왜인들이 패문(牌文)을 써서 땅에 꽃았는데, 이 글은 “일본이 대명(大明)으로 더불어 화친을 의논하는 터이라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왜놈 1명이 칠천(漆川) 산기슭으로 와서 투항하고자 하므로 곤양(昆陽) 군수가 불러서 배에 싣고 물어보니 그것은 영등포 왜적이었다. 흉도(胸島)로 진을 옮겼다.

7일(신해) 맑고 따뜻했다. 선 병사(宣兵使), 곽재우, 김덕령 등이 나갔다. 그대로 머무른 채 떠나지 않았다. 띠(茅) 1백 83동을 베었다.

8일(임자) 맑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출발하여 장문포 적굴에 이르렀건만 여전히 나오지 아니했다. 군사의 위엄만 보인 뒤 다시 흉도에 이르렀다. 배를 저어 한산도(閑山島)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자정계였다. 흉도에서 띠 2백 60동을 베었다.

9일(계축) 맑음. 아침에 정자에 이르니 첨지 김경로(金敬老), 첨지 박종남(朴宗男), 조방장 김응함(金應諫), 조방장 한명련(韓明璉), 진주 목사(晉州牧使) 배설(裴榑), 김해 부사(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 등이 모두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과 박은 종일 활을 쏘았다. 박자운(朴子胤)(박종남의 자)은 마루방에서 복춘(福春)과 함께 자고 김성숙(金惺叔)(김경로의 자)은 배로 내려가 잤다. 남해 원, 진주, 김해, 하동, 사천, 고성(高城)이 하직을 고했다.

10일(갑인) 맑음. 아침에 장계 초안을 꺼내어 수정했다. 박자운과 곤양은 그대로 머물러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양, 장흥, 보성은 돌아갔다. 이날 밤 두 가지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 울(蔚)과 존서(存緒), 유헌(有憲) 및 정립(廷立)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11일(을묘) 맑음. 아침에 몸이 편치 않았다. 아침에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공문을 처결하고 일찍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12일(병진) 맑음. 아침에 장계 초안을 수정하였다. 늦게 우수사 및 충청 수사가 왔

다. 경상 원 수사가 적 토벌한 일을 제가 직접 장계를 내고자 하므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비변사(備邊司)의 공문에 의하여 원수(元帥)가 쥐 가죽으로 만든 남바위(耳掩)⁵³를 좌도에 15벌, 우도에 10벌, 경상도에 10벌, 충청도에 5벌을 보내왔다.

13일(정사) 맑음. 아침에 아전을 불러 장계 초안을 꾸몄다. 늦게 충청 수사를 내보냈다. 본도 우수사(이억기)가 충청 수사를 보러 와서 나를 보지 않고 돌아갔다. 술이 몹시 취한 때문이었다. 종사관(從事官)(정경달(丁景達))이 이미 사천(泗川)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천 1호선을 내보냈다.

14일(무오) 맑음. 새벽꿈에 왜적들이 항복을 빌면서 육혈총통(六穴銃筒) 5자루를 바치고, 또 환도(環刀)도 바쳤다. 말을 전하고 가는 사람의 이름이 김서신(金書信)이라고 하는데, 왜놈들의 항복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깨었다.

15일(기미) 맑음. 박춘양(朴春陽)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16일(경신) 맑음. 순무사(巡撫使) 서성(徐澄)이 날이 저물어서야 와서 우수사, 원수사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 헤어졌다.

17일(신유) 맑음. 아침에 어사(서성)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식후에 오겠다고 했다. 늦게 우수사가 오고 어사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원 수사의 속이고 무고(誣告)하는 짓을 많이 말했다. 참으로 해괴하다. 나중에 원(元)도 왔다. 그 흥패(興悻)한 꼴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아침에 종사관이 들어왔다.

18일(임술) 맑음. 아침에 큰 바람이 불다가 저녁때 그쳤다. 어사한테 가니 이미 원수사에게 갔다고 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다. 조금 있다가 술이 나왔다.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 종사관(從事官)이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는 예를 드린 뒤 상면했다.

53 남바위(耳掩) : 옛날 제도에 관복(官服)을 입을 적에 사모 밑에 쓰는 털가죽으로 만든 방한구(防寒具)를 이름이다. 조바위는 여자가 쓰는 것이니, '조(조)'는 '女'의 옛 음임을 알 수 있다.

19일(계해)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대청에 나가 앉았다가 늦게 수루(戍樓) 방으로 돌아왔다. 어사가 우수사한테 가서 종일 술 마시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침에 종사관과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종 억지(億只) 등을 독촉해 불러왔다. 박언춘(朴彦春)도 왔다.

20일(갑자) 아침에 흐렸다. 늦게 순무 어사(서성)가 나갔다. 작별 후 대청에 올라오니 우수사가 와서 돌아간다고 했다. 서류 작성 때문에 나가는 것이리라.

21일(을축) 맑으나 조금 흐리기도 했다. 종사관이 나가고 우후(虞候)도 나갔으며 발포도 나갔다. 늦게 항복한 왜적 3명이 원 수사한테서 왔기에 문초를 받았다. 영등 만호(조계종(趙繼宗))가 왔다가 밤이 깊어 돌아갔다. 그에게 작은 아이가 있다 해서 데려올 것을 일러 보냈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22일(병인) 흐림. 의능(義能)과 이적(李迪)이 나갔다. 오후 8시께 영등이 그 아이를 데려 와서 심부름 시키기 위해 머물러 두었다.

23일(정묘) 맑음. 그 아이가 앓는다고 한다. 종 억지(億只) 및 애환(愛還), 정말동(丁耑同) 등의 죄를 다스렸다. 저녁에 그 아이를 본디 있던 곳으로 보냈다.

24일(무진) 맑음. 우우후(右虞候)(이정충(李廷忠))를 불러 활을 쏘았다. 금갑도 만호(金甲島萬戶)(이정표(李廷彪))도 왔다.

25일(기사) 맑으나 서풍이 크게 불다가 밤에 그쳤다. 몸이 편찮아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남도(南桃)(강응표(姜應彪)), 거제가 오고 영등이 와서 한동안 이야기하였다. 전 낙안 군수인 침지 신호(申浩)가 왔는데, 체찰사(體察使)(윤두수(尹斗壽))의 공문과 목화(木花)와 병거지(毛笠), 정목(正木) 1동 등을 가져왔다. 함께 의논하다가 밤들어 물러갔다. 순천 권준(權俊)이 잡혀갈 적에도 보러 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26일(경오) 맑음. 병부⁵⁴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신 첨지에게 들으니 김상용(金尙容)이 이랑(吏郎)이 되어 상경(上京)할 때, 남원 부내(府內)에 들어가자면서 체찰사를 보지 않고 갔다 한다. 세상 일이 이러하니 참으로 해괴하다. 또 체찰사가 밤에 순변사(巡邊使)(이일(李鎰)) 방에 갔다가 밤이 깊어서 그 숙소로 돌아온다고 한다. 체모(體貌)가 이럴 수 있는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중 한경(漢京)이 본영으로 갔다. 오후 6시께 비가 시작하여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했다.

27일(신미) 아침에는 비가 오다가 늦게 개었다.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성윤문(成允文))가 와서 교서(敎書)에 숙배례(肅拜禮)를 행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갔다.

28일(임신) 맑음. 대청에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금갑도(金甲島)와 이진(梨津) 등이 보러 왔다. 식후 우우후, 경상 우후(이의남(李義男))가 와서 목화를 받아 가지고 갔다. 저물어 침방(寢房)에 들어갔다.

29일(계유) 맑음. 서풍이 출기가 살을 에는 것 같았다.

30일(갑술) 맑음. 수색하고 토벌하러 들여보내고 싶으나 경상도 전선(戰船)이 없어 모여 오기를 기다렸다. 자정에 아들 회(薈)가 들어왔다.

11월

1일(을해)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몸이 편찮아 종일 나가지 아니했다.

2일(병자) 맑음. 좌도에서는 사도(蛇渡)(김완(金浣))를, 우도에서는 우우후 이정충(李廷忠)을, 경상도에서는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성윤문(成允文)을 장수로 선정하여 수색 토벌차로 들여보냈다.

3일(정축) 맑음. 아침에 김천석(金天碩)이 비변사(備邊司)의 공문을 가지고 항복한

54 병부 : 전 보성 군수 방진(方震).

왜인 야여문(也汝文)(彌石衛門) 등 3명을 데리고 집에 왔다. 수색 토벌 나갔다 온 것은 밤 10시계였다.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왔다.

4일(무인) 맑음. 대청에 나가 항복한 왜인들의 사정을 물었다. 전문(箋文) 가져갈 유생(儒生)이 들어왔다.

5일(기묘) 흐리고 이슬비가 내렸다. 송한련(宋漢連)이 대구 10마리를 잡아왔다. 순변사(이일)가 그 군관을 시켜 항복한 왜인 13명을 압송했다. 밤새도록 큰비가 왔다.

6일(경진) 흐리되 따뜻하기가 봄날 같았다.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오고 이정충(李廷忠)도 왔다. 신 첨지(신호(申浩))와 함께 이야기했다. 송희립(宋希立)이 사냥하러 갔다.

7일(신사) 늦게 개었다. 아침에 대청에 나가 항복한 왜인 17명을 남해(南海)로 보냈다. 늦게 금갑도 만호(金甲島萬戶)(이정표(李廷彪)), 사도 첨사(김완(金浣)), 여도 만호(김인영(金仁永)), 영등 만호가 모두 왔다. 이날 낮에 신 첨지(신호(申浩))가 원수(元帥)에게서 돌아와 보고하되 원수가 수로에 머무른다 하더라는 것이다.

8일(임오) 새벽에 잠깐 비가 뿌리더니 늦게 날이 개었다. 배 만들 목재를 운반하여 왔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영의정(유성룡)은 모양을 이상하게 차리고, 나는 관을 벗은 채 함께 민종각(閔宗慤)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깨었다. 이 무슨 징조인지 알 수가 없다.

9일(계미) 맑으나 바람은 고르지 아니했다.

10일(갑진) 맑음. 아침에 이희남(李禧男)이 들어왔다. 조카 뇌(藹)도 영중(營中)에 왔다고 한다.

11일(을묘) 동지(冬至)다. 새벽에 망꺠레를 드린 뒤 군인들에게 죽을 먹였다. 우우

후 및 정담수(鄭聃壽)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12일(병술)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가 순천 색리(色吏) 정승서(鄭承緒)와 남원(南原)에서 폐해를 끼친 역자(驛子)를 다스렸다. 첨지 신호(申浩)에게 작별 술을 대접했다. 또 견내량(見乃梁)에서 방어선을 넘어서 고기 잡은 사람 24명을 잡아다 곤장을 때렸다.

13일(정해) 맑음. 바람이 차차 자니 날씨도 따뜻했다. 신 침지와 아들 회(薺)가 이희남, 김숙현(金叔賢)과 함께 본영으로 갔다. 종 한경(漢京)은 은진(恩津) 김정휘(金廷輝) 집에 다녀오도록 일렀다. 장계도 떠나보냈다. 원 수사가 방어사 군관(防禦使軍官)을 시켜 항복한 왜인 14명을 영솔해 보냈다. 저녁때 윤연(尹連)이 그 누이 편지를 가져왔는데 망언(妄言)이 많았다. 우스웠다. 버리고자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에 까닭이 있다. 세 아이가 마침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까닭이다. 15일은 아버님 제삿날이라 오늘부터 공무 보지 아니했다. 밤에 달빛이 대낮 같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4일(무자) 맑음. 아침에 우병사(右兵使)(김응서(金應瑞))가 항복한 왜인 7명을 그 군관을 시켜 영솔해 왔으므로 곧 남해현으로 넘겼다. 이함(李瑊)이 남해로부터 왔다.

15일(기축) 맑음. 따뜻하기 봄날과 같았다. 음양(陰陽)은 질서를 잃은 모양이니 그야말로 재변이다. 아버님 제삿날이어서 공무 보지 아니하고 홀로 방 안에 앉았으니 슬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라. 저물어 탐선이 들어왔는데, 순천 교생(校生)이 교서(敎書)의 등본을 가져왔다. 또 아들 올(蔚) 등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 변함없이 평안하시다는 것이다. 다행, 또 다행한 일이다. 상주(尙州) 사촌 누이와 아들 윤엽(尹曄)이 본영에 이르러 제 어미의 편지와 제 편지를 보냈는데,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영의정(유성룡)의 편지도 왔다.

16일(경인) 맑으나 바람기가 조금 차가웠다. 식후 대청에 나가 앉으니 우우후, 여

도, 회령포(會寧浦)(민정봉(閔廷鵬)), 사도, 녹도, 금갑도, 영등포, 전 어란 만호(全於蘭萬戶) 정담수(鄭聃壽) 등이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늦게는 날씨가 도로 따뜻해졌다.

17일(신묘) 맑고 따뜻했다. 서리가 눈같이 쌓였으니 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늦게 산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종일 불었다. 오후 10시쯤 되었을까 해서 뇌(雷)와 울(蔚)이 들어왔다. 자정쯤 해서 광풍(狂風)이 몹시 불었다.

18일(임진) 맑은데 큰 바람이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했다.

20일(갑오) 맑음. 아침에 바람도 잦다. 대청에 나가 얼마 있자니 원 수사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늦게 큰 바람이 일어 밤새 불었다.

21일(을미) 맑음. 아침에 바람도 좀 잔잔해졌다. 조카 뇌(雷)가 나갔으며 이설(李潑)은 포폄(褒貶)하는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종 금선(金善), 우년(禹年), 이향(離鄉), 수석(水石), 행보(行寶) 등도 나갔다. 김교성(金敎誠), 신경황(申景潢)이 나갔고 남도포(南桃浦)(강응표(姜應彪)), 녹도(송여종(宋汝宗))가 나갔다.

22일(병신) 맑음. 아침에 회령포가 나갔다. 날씨가 아주 따뜻했다. 우우후(이정충(李廷忠)) 및 정담수(鄭聃壽)가 보러 왔다. 활 5, 6순을 쏘았다. 왜인의 옷감으로 무명 10필을 가져갔다.

23일(정유) 맑고 따뜻했다. 홍양 군량과 순천 군량을 받아들였다. 저녁때 이경복(李景福)이 소실을 데리고 들어왔다. 들으니 순변사(巡邊使)들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24일(무술) 맑으며 따뜻하기 봄날 같았다. 대청에 나가 서류를 처절해 보냈다.

25일(기해) 흐림. 새벽꿈에 이일(李鎰)(순변사)과 만나 내가 많은 말을 하며 “이같이 국가가 위태하게 된 날을 당하여 몸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서도 나라의 은혜를

값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배짱 좋게 음란한 계집을 끼고서 관사에는 들어오지 않고 성 바깥 여염집에 있으면서 남의 비웃음을 받으니 그래 어떠하며, 또 수군 각 고을과 포구에 배정된 병기를 육군에 독촉하기에 바쁘니 이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냐” 하니 순변사가 말이 막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다.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니 그것은 꿈이었다. 식후 대청에 나가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조금 있자니 우우후, 금감도 만호(이정표(李廷彪))가 와서 젓대를 들다가 저물어 돌아갔다. 홍양의 총통 만드는 색리들이 와서 밝히고 돌아갔다.

26일(경자) 소한(小寒)인데 맑고 따뜻했다. 방에 들어앉아 공무 보지 아니했다. 이날 메주 10섬을 쭈었다.

27일(신축) 맑음. 식후 대청에 나가 앉아 좌우도(左右道)로 갈라 보내 둔 항복한 왜인들을 모조리 모아 오게 하여 총 놓는 연습을 시켰다. 우우후, 사도, 여도, 거제 [안위(安衛)]가 모두 보러 왔다.

28일(임인) 맑음.

[11월 29일부터 12월 그믐날까지 빠져 있음]

을미년

을미년(乙未年)

1595년, 선조 28년, 충무공 51세.

휴전상태에 들어갔으나 충무공에게는 잠시도 휴전이 없었다. 한산도는 언제나 바쁘고 붐비었다. 소금 굽고, 고기 잡고, 농사짓고, 군복 만들고, 배 만들고, 칼 만들고, 활 만들고……. 어느 날도 쉬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라 근심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1월

1일(갑술) 맑음.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랏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또 병드신 팔십 노친을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엔 여러 장수들과 색군(色軍)들이 와서 해가 바뀐 인사를 하였다. 원전(元璵), 윤언심(尹彦誡), 고경운(高景雲) 등이 와서 보았다. 모든 색군들에게 술을 먹였다.

2일(을해) 맑음. 나라의 제삿날¹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장계를 수정했다.

3일(병자)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가 각 고을의 공문을 적어 보냈다.

4일(정축) 맑음. 우우후(右虞候)(이정충(李廷忠)), 거제(巨濟)(안위(安衛)), 금갑도(金甲島)(이정호(李廷虎)), 소비포(所非浦)(이영남(李英男)), 여도(呂島)(김인영(金仁英)) 등이 와서 봤다.

5일(무인) 맑음. 공문을 적어 보냈다. 봉(奉)과 울(蔚)이 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니 다행이었다. 밤이 새도록 온갖 회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6일(기묘) 맑음. 어응린(魚應麟)과 고성 현감(固城縣監)(조응도(趙凝道))이 왔다.

7일(경진) 맑음. 흥양(興陽)(배흥립(裵興立))과 방언순(方彦淳)과 함께 이야기했다. 남해(南海)의 항복한 왜인 아여문(也汝文) 등이 와서 인사를 드렸다.

1 나라의 제삿날 : 명종 인순왕후의 제삿날.

8일(신사)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광양(光陽)[송전(宋詮)]의 공례를 받은 뒤에 전령(傳令)의 기한을 넘긴 죄로 매를 때렸다.

9일(임오) 식사 후 야여문 등을 남해로 돌려보냈다.

10일(계미) 순천 부사(順天府使) 박진(朴晉)이 교서에 숙배례(肅拜禮)를 행했다. 경상 수사(慶尙水使) 원균(元均)이 선창에 왔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이야기했다. 순천(順天) 우우후(右虞候), 흥양(興陽), 광양(光陽), 웅천(熊川)[이운룡(李雲龍)], 고성(固城), 거제(巨濟) 등도 왔다가 돌아갔다.

11일(갑신) 우박이 왔고 동풍이 불었다. 식후에 순천, 흥양, 고성, 웅천, 영등포(永登浦)(조계종(趙繼宗))가 와서 이야기했다. 고성은 새로 만드는 배를 감독할 일로 돌아간다고 했다.

12일(을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각 고을의 공문서를 적어 보냈다. 저녁에 순천이 돌아갔다. 영남 우후(嶺南虞候)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봤다.

13일(병술) 아침엔 맑았고, 저녁엔 비가 왔다. 박치공(朴致恭)이 왔다.

14일(정해) 맑음. 동풍이 크게 불었다. 몸이 불편하여 누워서 신음했다. 영등, 사천(泗川)[기직남(奇直男)], 여도가 와서 봤다.

15일(무자) 맑음. 우우후 이정충을 불렀더니 정충이 실족하여 물에 빠져 한참이나 헤엄치는 것을 간신히 건져 내었다 하므로 불러서 위로했다.

16일(기축) 맑음.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17일(경인) 맑음. 바람도 없이 따뜻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우후와 소비포와 거제와 미조항(彌助項)[성윤문(成允文)]이 같이 와서 활을 쏘고 헤어졌다.

18일(신묘) 흐림. 공문을 적어 보냈다. 늦게 활 10순을 쏘고 헤어졌다.

19일(임진) 맑음.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옥구(沃溝) 피란민 이원진(李元軫)이 왔다. 장흥(長興)(황세득(黃世得)), 낙안(김준계(金遵繼)), 발포(鉢浦)(황정록(黃廷祿))가 들어왔다. 기한 늦은 죄로 처벌했다. 조금 있다가 여도 전선에 불이 나서 광양, 순천, 녹도(鹿島) 전선 4척이 연소됐다. 통탄함을 이길 수 없었다.

20일(계사) 맑음. 아침에 여필(汝弼)(아우)과 해(薺)(조카)와 이응복(李應福)이 나갔다. 울과 분(芬)(조카)은 들어왔다. 어머니님이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21일(갑오) 종일 실비가 내렸다. 이경명(李景明)과 장기를 두었다. 장흥이 와서 봤다. 그에게서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처사가 극히 형언할 수 없고 나를 해치려고 몹시 애를 쓴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우스웠다.

22일(을미) 날이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원수(元帥)의 군관(軍官) 이태수(李台壽)가 전령을 가지고 와서 여러 장수들이 오고 아니 온 것을 알고 간다고 했다. 늦게 다락 위로 나가서 불을 낸 여러 배의 장수와 색리(色吏)들을 처벌했다. 초저녁에 금갑도 만호가 있는 집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23일(병신) 큰 바람이 종일 불었다. 장흥 부사와 우후와 홍양이 같이 와서 이야기하다 저물어서 돌아갔다.

24일(정유) 맑음. 큰 바람이 불었다. 이원진(李元軫)을 전별했다.

25일(무술) 맑음. 장흥과 홍양과 우후, 영등, 거제 등이 와서 봤다.

26일(기해)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탐선(探船)이 들어와서 홍양을 잡아갈 나장(羅將)이 들어온다고 했다. 이희(李禧)도 왔다.

27일(경자) 맑음. 출기가 한겨울 같았다. 대청에 나가 영암(靈岩), 강진(康津) 등의 공식 인사를 받았다.

28일(신축) 맑음. 큰 바람이 불었고 또 추웠다. 황승헌(黃承憲)이 들어왔다.

29일(임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30일(계묘) 맑음. 동풍이 크게 불었다. 보성(寶城)(안흥국(安興國))이 들어왔다.

2월

1일(갑진) 맑았으나 바람이 불었다. 일찍 대청에 나가 보성의 기한 늦은 죄를 다스리고, 도망하던 왜놈 2명을 처형했다. 금부(禁府) 나장이 와서 홍양을 잡아갈 일을 전했다.

2일(을사)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홍양을 잡아갔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일(병오)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홍양 배에 불을 던졌다는 신덕수(申德壽)를 신문했으나 실증을 얻지 못하여 가뒀다.

4일(정미) 맑음. 몸이 불편했다. 장흥과 우우후가 왔다. 원수부(元帥府)의 회답 공문과 종사관(從事官)의 답장도 왔다. 봉과 회가 오종수(吳從壽)와 함께 들어왔다.

5일(무신) 맑음. 충청 수사(忠淸水使)(이순신(李純信))가 왔다. 천성 만호(天城萬戶) 윤홍년(尹弘年)이 교서에 숙배했다.

6일(기유)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장흥, 우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7일(경술) 맑음. 보성(寶城)(안흥국(安弘國))이 술을 가져와 바쳤다. 종일 이야기했다.

8일(신해) 흐림.

9일(임자) 비.

10일(계축) 비가 뿌렸다. 바람도 크게 불었다. 황숙도(黃叔度)와 종일 이야기했다.

11일(갑인) 비. 늦게 잠깐 개었다. 황숙도와 분과 허주(許宙)와 변존서(卞存緒)가 돌아갔다. 종일 공무를 보았다. 저물녘에 임금의 분부가 들어왔는데, 둔전(屯田)을 검칙(檢飭)하라는 것이었다.

12일(을묘) 맑음. 바람도 일지 아니했다. 윤엽(尹曄)이 들어왔다. 늦게 활을 10여순 쏘았다. 장흥과 우우후도 와서 쏘았다.

13일(병진)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도양(道陽) 둔전서 조세 3백 석을 실어 와서 각 포구에 나누어 주었다. 우수사(右水使)(이억기(李億祺))와 진도(박인룡(朴仁龍)), 무안, 함평(咸平)(조발(趙撥)), 남도포(南桃浦)(강응표(姜應彪)), 마량(馬梁)(강응호(姜應虎)), 회령포(會寧)(민정봉(閔廷鵬)) 등이 왔다.

14일(정사) 맑고 따뜻했다. 식후에 진도(박인룡)와 무안, 함평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방비처에 들이는 수군을 징발해 보내지 아니한 것과 전선을 만들어 오지 않은 일로 처벌했다. 영암 원(박홍장(朴弘章))도 처벌했다. 봉, 해, 분과 방응원(方應元)이 모두 나갔다.

15일(무오) 맑고 따뜻했다. 새벽에 대궐을 바라보며 하례를 드렸다. 우수사(이억기), 가리포(이응표), 진도도 와서 참례했다.

16일(기미) 맑음. 대청에 나갔더니 함평 원 조발이 논박을 당하고 돌아가므로 술을 먹여 보냈다. 신 조방장(申助防將) 호(浩)가 진에 와서 교서에 숙배하고 그대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 정박했다가 밤 10시에 행선하여 춘원도(春院島)(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대니 날이 밝아 오는데 경상도 수군들은 도착하지 아니했다.

17일(경신) 맑음. 아침에 군사들의 밥을 재촉해 먹여 거느리고 바로 우수영 앞바다에 이르니 성 안에 있던 왜놈 7명이 우리 배를 보고 도망치므로 배를 돌려 나왔다.

장흥과 신 조방장을 불러 종일 계책을 의논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저물녘에 임영(林榮)과 정 조방장(丁助防將) 응운(鷹運)이 들어왔다.

18일(신유) 맑음. 탐선이 들어왔다.

19일(임술) 맑음.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 무안, 평산포(平山浦)(김축(金軸)), 회령포(민정봉)와 허정언(許廷闇)도 왔다. 송한련(宋漢連)(공의 군관)이 와서 말하되,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고 했다.

20일(계해) 맑음. 우수사, 장흥, 신 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원균의 고약한 짓을 많이 전했다. 참 놀랄 일이었다.

21일(갑자) 조금 비가 오다가 늦게는 맑아졌다. 보성, 웅천, 우우후, 소비포, 강진(康津)(이극신(李克新)), 평산 등이 와서 봤다.

22일(을축) 맑음. 대청에 나가 장계를 봉했다. 늦게 우후와 낙안(樂安)과 녹도(鹿島)(송여중(宋汝宗))를 불러 떡을 대접했다.

23일(병인) 맑음. 신 조방장과 장흥이 와서 이야기했다.

24일(정묘) 흐림. 번개와 우뢰가 치면서도 비는 오지 아니했다. 몸이 불편했다. 원전(元璣)이 돌아갔다.

25일(무진) 흐리고 바람조차 불순했다. 회와 울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머니님이 평안하시다는 말을 들었다. 장계를 가지고 갔던 이전(李堉)이 들어왔다. 조보(朝報)²와 영의정(유성룡)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6일(기사) 흐림. 아침에 서장(書狀)과 장계, 모두 16통을 봉해서 정여흥(鄭汝興)에게 부쳤다.

2 조보(朝報)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27일(경오) 한식(寒食). 맑음. 원균이 포구에 있는 배 수사(裴水使) 설(楸)과 교대하려고 여기 이르렀기로 교서에 숙배하게 하였더니 불평하는 기색이 많으므로 두 번째 번 타일러 억지로 행하게 하였다 하니 너무도 무식한 것이 우스웠다.

28일(신미) 맑음. 대청에 나가 장흥과 우우후와 이야기했다. 광양, 목포도 왔다.

29일(임신) 맑음. 고여우(高汝友)가 창신도(昌信島)로 나갔다. 배 수사가 와서 둔전 만들 일을 의논했다. 신 조방장도 왔다. 저녁에 옥포 만호 방승경(方承慶)과 다경포 만호(多慶浦萬戶) 이충성(李忠誠) 등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30일(계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3월

1일(갑술) 맑음. 삼도의 과동(過冬)한 군사들을 모아 위에서 하사하시는 무명배를 나누어 주었다. 정 조방장(정응운)이 들어왔다.

2일(을해) 흐림.

3일(병자) 맑음.

4일(정축) 맑음. 박 조방장(朴助防將) 종남(宗男)이 들어왔다.

5일(무인)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노대해(盧大海)가 왔다.

6일(기묘) 맑음.

7일(경진) 맑음. 박 조방장(박종남), 신 조방장(호(浩)), 우후(이몽구(李夢龜))와 진도(박인룡)가 와서 보았다.

8일(신사) 맑음. 식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배설)와 두 조방장과 우후, 가리포, 낙안, 보성, 광양, 녹도 등이 모두 와서 이야기했다.

9일(임오) 맑음. 늦게 대청으로 나갔다. 방답(防踏) 새 첨사 장린(張麟), 옥포 새 만호 이담(李曇)이 공적, 사적 인사를 행했다. 진주(晋州)의 이곤변(李坤忭)이 보고갔다.

10일(계미) 흐리고 실비가 왔다. 박 조방장(박종남)과 이야기했다. 보성 군수 안흥국이 돌아갔다.

11일(갑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사도(司禦)³ 주부(主簿) 조형도(趙亨道)가 와서 좌도(左道)의 적세와 항복한 왜인들의 보고를 말하는데, “수길(秀吉)이 출병한 지 3년이나 지나도 끝내 효과가 없으므로 군사를 더 내어 바다를 건너 와서 부산에다 진영을 만들려고 하는데, 3월 11일에 바다를 건너오기로 벌써 정해 있다”고 했다.

12일(을유) 흐림. 박 조방장과 우후가 장기를 두었다.

13일(병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박자유(朴子胤)(박종남), 영공(令公)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조형도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14일(정해)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바람은 그쳤다. 남해(奇孝謹)가 집에 왔다.

15일(무자) 비가 잠깐 그쳤다. 바람도 잦다. 식후에 조형도가 돌아갔다. 늦게 활을 쏘았다.

16일(기축) 비. 사도 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이 들어왔다. 그래서 전 충청 수사 이입부(李立夫)(이순신(李純信))가 군량 2백여 석을 조도어사(調度御使) 강첨(姜簽)에게 포착되어 그 때문에 잡혀서 심문당한다고 했다. 또 충청 새 수사 이계훈(李繼勛)이 배에서 불을 내었다 하니 놀라운 일이었다. 권 동지(權同知) 준(俊)이

3 사도(司禦) : 사도시(司禦寺)를 말함이다. 옛날 제도에 대궐 안의 쌀, 간장 따위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이다. 태조 원년으로부터 고종 19년까지 있었다.

본영에 왔다고 했다.

17일(경인) 비가 걷히는 듯했다. 면(麵)과 허주와 박인영 등이 돌아갔다. 이날 군량을 계산하여 딱지를 붙였다.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가 보고하되, “수사 이제혼이 불을 내고 물에 빠져 죽었으며, 군관과 격군(格軍) 모두 백 40여 명이 불에 타 죽었다”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었다. 늦게 우수사(이억기)가 보고하되, “견내량(見乃梁) 복병한 곳에서 온 항복한 왜인 심안은기(沈安隱己)를 문초한즉, 그자는 본시 영등에 있던 왜인인데, 그 장수 심안둔(沈安頓)(도진의홍(島津義弘))이 그 아들(충항(忠恒))을 대신 두고 근일에 돌아갈 것이라 한다”고 했다.

18일(신묘) 맑음. 권언경(權彦卿)과 여필, 조카 봉, 수원(壽元) 등이 왔다. 그래서 어머니의 평안하심을 들으니 만 번 다행이었다.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19일(임진) 맑음. 권언경 영공과 함께 활을 쏘았다.

20일(계사)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식후에 우수사에게로 가다가 길에서 배 수사(배설)를 만나 배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다. 밀포(密浦) 둔전 만든 곳을 살펴 볼 일로 간다고 했다. 그길로 우수사에게로 가서 몹시 취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21일(갑오) 맑음. 늦게 여필, 조카 봉, 수원 등이 돌아갔다. 나주반자(羅州半刺)(원종익(元宗義))와 우후(이몽구)가 와서 보았다. 오정에 박 조방장(박종남)에게로 가서 바둑을 두었다.

22일(을미) 동풍이 크게 불었다. 날씨는 일찍 흐리고 늦게 개었다. 세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우수사도 여기 와서 같이 쏘고 날이 저물어서 파하고 돌아갔다.

23일(병신)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세 조방장과 우후와 함께 도보로 앞산 봉우리 위에 올라가 보니 3면으로 바라보는 앞이 막히지 않고 길은 북쪽으로 뚫려 있다. 소포⁴(幬) 세울 자리를 닦고 거기에 앉아 종일토록 즐기며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렸

4 소포(小布) : 국궁에서 쓰는 가장 작은 무명 과녁.

다.

24일(정유) 흐렸으나 바람은 없었다. 공문을 적어 보았다. 늦게 세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25일(무술) 종일 비가 내렸다. 권 동지(권준)와 우후와 남도포(강응표)와 나주 반자가 와서 보았다. 영광(정연(丁淵))이 또 왔다. 권 동지와 장기를 두었는데 권이 이겼다. 저녁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달 기울 무렵에 열이 조금 내렸고 땀이 흐르지 아니했다.

26일(기해) 맑음. 영광이 나갔다. 늦게 신, 박 두 조방장과 우후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저녁에 배 수사, 이운룡, 안위가 와서 새 감사 맞이할 일을 고하고 사량(蛇梁)(통영시 사량면 양지리)으로 갔다. 밤 10시에 동쪽이 어둡다가 밝으니 무슨 상서로움인지 모르겠다.

27일(경자) 맑음. 식후에 우수사가 와서 종일 활을 쏘았다. 어두워 박 조방장에게로 가서 발포(鉢浦), 사도(蛇渡), 녹도를 불러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탐선이 들어왔다. 표마(表馬)와 종 금이(金伊) 등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말했다.

28일(신축) 맑음. 활 10여 순을 쏘았다. 늦게 사도 첨사(김완(金浣))가 와서 아뢰되, “각 포구의 병부(兵符)를 순찰사 공문에 의거하여 바로 각 포구에 나누어 주었다” 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29일(임인) 맑음. 식후에 두 조방장과 이운룡, 조계종과 함께 활 23순을 쏘았다. 배 수사가 순찰사에게로부터 오고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성윤문(成允文))도 진에 왔다.

4월

1일(계묘)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남원 유생 김굉(金軀)이 수군에 관한

일로써 진중에 왔다고 하므로 같이 이야기했다.

2일(갑진) 맑음. 종일 공무를 보았다.

3일(을사) 맑음. 세 조방장은 우수사 진으로 가고 나는 사도(김완)와 함께 활을 쏘았다.

4일(병오) 맑음. 아침에 경상 수사(배설)가 활쏘기를 청하므로 권, 박 두 조방장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수사에게 갔더니 전라 수사(이억기)가 벌써 먼저 와 있었다. 같이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5일(정미) 맑음. 선전관 이찬(李燦)이 비밀 유서(諭書)를 가지고 진에 왔다.

6일(무신) 종일 실비가 내렸다. 권 동지와 함께 이야기했다.

7일(기유) 맑음. 저물녘에 바다로 내려가 어두워서 견내량에 이르렀다. 선전관(이찬)이 돌아갔다.

8일(경술) 맑음. 동풍이 몹시 불었다. 들으니 왜적이 밤중에 도망갔다고 하므로 들어가 치지 아니했다. 늦게 침도(楸島)에 이르러 우수사와 배 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도 모두 와서 참여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9일(신해) 맑음. 박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10일(임자) 맑음. 구화역(仇化驛)(구허역(丘墟驛)) 역졸이 와서 아뢰되 적선 3척이 또 역 앞(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왔다”고 하므로 삼도 중위장(中衛將)들에게 각각 배 5척씩을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달려가 형세를 보아 무찌르게 했다.

11일(계축) 맑음. 우수사가 와서 보았다. 그래서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정여홍이 들어왔다. 또 변존서의 편지를 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줄을 알았다. 기쁘다.

12일(갑인) 맑음. 장계 회답 18통과 영의정(유성룡), 우의정(정탁(鄭琢))의 편지와 자임(子任)(이축(李軸)) 영공의 답장이 왔다. 군량을 독촉할 일로 아병(牙兵) 양응원(梁應元)은 순천·광양으로, 배승련(裴承鍊)은 광주·나주로, 송의연(宋義連)은 홍양·보성으로, 김충의(金忠義)는 구례·곡성으로 정해 보냈다. 삼도 중위장 성윤문, 김완, 이응표가 견내량으로부터 돌아와 적이 물러갔다고 했다. 배 수사는 밀포(密浦)로 나갔다.

13일(을묘) 갓은비가 왔다. 세 조방장이 같이 왔다. 장계와 편지 4통을 봉하여 거제 군관에게 붙여 올려 보냈다. 저녁에 고성 현감 조응도가 와서 왜적의 일을 말하고 또 “거제의 적들이 웅천에 청병하여 야간 습격을 하려고 한다” 하니 믿을 말은 못되나 그럴 염려가 없지도 않았다.

14일(병진) 잠깐 비가 왔다. 아침에 홍양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15일(정사) 흐림. 여러 가지 장계와 단오 진상품을 봉해 올렸다.

16일(무오) 종일 큰비가 왔다. 비가 흠족하니 금년 농사는 풍년이 들 것이다.

17일(기미) 맑음. 동북풍이 몹시 불었다. 식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세 조방장이 활 15순을 쏘았다. 배 수사가 왔다가 곧 해평장(海平場) 논 치는 곳으로 갔다. 미조항 첨사가 와서 활을 쏘고 갔다.

18일(경신) 맑음. 식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 배 수사와 가리포(이응표), 미조항(성윤문), 웅천(이운룡), 사도(김완)와 이의득, 발포(황정록(黃廷祿)) 등 삼도 장수가 모두 와서 활을 쏘았다. 권, 신 두 조방장도 함께 모였다.

19일(신유) 맑음. 박 조방장(박종남)은 수색 토벌하는 일로 배를 타고 나갔다.

20일(임술) 맑음. 늦게 우수사에게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이영남의 장계 회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남해를 효시하라고 했다.

21일(계해)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대청에 나갔다. 활 10순을 쏘았다.

22일(갑자) 맑음. 오후에 미조항 침사와 이운룡, 적량 만호 고여우, 영등포 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같이 왔기로 정사준(鄭思竣)⁵이 보낸 술과 고기를 같이 먹고, 그대로 남해가 군법을 어겼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23일(을축) 맑음. 남풍이 몹시 불어 행선할 수 없으므로 다락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24일(병인) 맑음. 이른 아침에 울과 뇌(藪)(조카)와 완(莞)(조카)을 어머니 생신에 상 차려 드릴 일로 내보냈다. 오정 때에 강천석이 달려와서 아뢰되, “도망한 왜놈 망기시로(望己時老)(손사랑(孫四郎))는 무성한 풀 속에 엎드린 것을 잡고, 왜인 한 놈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해서 압송해 오게 하고 삼도에 갈라 맡긴 항복한 왜들은 모두 불러 모으고 곧 머리를 베라고 명령했더니 망기시로가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이 죽으러 나왔다. 참 독한 놈이었다.

25일(정묘) 날이 맑고 바람이 없었다. 구화 역졸 득복(得福)이 경상 우후(이의득)의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왜의 배가 대, 중, 소 아울러 50척이 웅천에서 나와 진해로 향한다” 해서 오수(吳水) 등을 정탐하러 내보냈다. 홍양(배홍립)이 와서 보았다. 사랑 만호 이여념(李汝喆)이 돌아갔다. 회(아들)와 해(조카)가 돌아왔다. 어머니이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 또 다행이다.

26일(무진) 맑음. 새벽에 우수사와 신 조방장(신호)이 소속 20여 척 배를 거느리고 탐색하러 나갔다. 늦게 권 동지(권준), 홍양, 사도, 여도(김인영) 등과 활 20순을 쏘았다.

27일(기사) 맑고 바람도 없었다. 몹시 불편했다. 권 동지, 미조항 침사, 영등 만호가 와서 같이 활 10순을 쏘았다. 3경에 우수사가 수색 토벌하고 진으로 돌아와서

5 정사준(鄭思竣) : 관관 승복(承服)의 아들.

“아무 데도 적의 종적이 없더라”고 했다.

28일(경오) 맑음.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송덕일(宋德一)이 하동 원(성천유(成天裕))을 잡으러 왔다.

29일(신미) 새벽 2시에 비가 오더니 오전 6시에 맑아졌다. 해남 현감(최위지(崔緯地))과 공사례를 마친 뒤에 하동 현감이 두 번이나 제 기일에 오지 않았으므로 곤장 90대를 때리고, 해남 원은 곤장 10대를 때렸다. 미조항 첨사는 말미를 고했다. 세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노윤발(盧潤發)이 미역 99동을 따 가지고 왔다.

30일(임신) 맑음. 활 10순을 쏘았다.

5월

1일(계유) 바람이 몹시 불어쳤다.

2일(갑술) 맑음. 아침에 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었다. 늦게 웅천(이운룡)과 거제(안위), 영등포(조계중), 옥포(이담)가 와서 보았다. 밤 10시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고 종사관이 본영에 도착했다고 했다.

3일(을해) 맑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이 와서 보았다. 금감도(이정표)가 집에 왔다.

4일(병자) 맑음. 이날은 어머니 생신인데, 몸소 나가 잔을 드리지 못하고 홀로 먼 바다에 앉았으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늦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이 돌아갔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요동 왕작덕(王爵德)이 왕씨(王氏)⁶의 후손으로서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5일(정축)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6시에 잠깐 개었다. 활 3순을 쏘았다. 우수사(이

6 왕씨(王氏) : 고려 왕조의 성을 가리킴.

억기)와 경상 수사(배설)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 5시에 종사관 유공진(柳拱辰)이 들어왔다. 이충일(李忠一), 최대성(崔大晟), 신경황(申景潢)이 같이 왔다. 몸이 춥고 불편하여 많이 토하고 잤다.

6일(무인) 맑고 바람은 없었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례를 받고 같이 이야기했다. 늦게 활 10순을 쏘았다.

7일(기묘) 맑음. 아침에 종사관(유홍진)과 우후(이몽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8일(경진)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 식후에 행선하여 삼도가 같이 선인암(仙人岩)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구경하고 또 활도 쏘았다. 이날 방답 첨사(장린)가 들어왔다.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4일에 종 춘세(春世)가 불을 실수해서 10여 집이 연소되었으나 어머니 계신 집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였다. 이것만은 다행한 일이었다. 저물기 전에 배를 돌려 진으로 들어왔다. 종사관과 우후는 방(榜) 붙이는 일로 뒤떨어졌다.

9일(신사) 맑음. 아침 식후에 종사관이 돌아갔다. 우후도 같이 갔다. 활 20순을 쏘았다.

10일(임오) 맑음. 활 20순을 쏘았는데 많이 맞았다. 종사관들이 영문에 도착했다고 했다.

11일(계미) 늦게 비가 뿌렸다. 두치(豆峙)(광양시 다압면 섬진리) 군량과 남원, 순창, 옥과(玉果) 등 합하여 68석을 실어 왔다.

12일(갑신) 굵은비가 그치지 아니하다가 저녁에야 잠깐 멎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권 동지(권준)와 신 조방장(신호)이 왔다.

13일(을유) 비가 퍼붓듯이 왔다. 종일 그치지 아니했다. 혼자 대청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었다. 배영수(裴永壽)를 불러 거문고를 타게 했다. 또 세 조방장

을 청해 같이 이야기했다. 요사이 탐선이 옛새가 되도록 오지 아니한다. 어머님 안부를 알 수 없어 무척 걱정스럽다.

14일(병술) 굿은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종일토록, 밤새도록 내렸다. 아침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가 와서 고하되, “홍양이 받아 간 전선이 돌섬에 걸려서 얹어졌다”고 하므로 대장(代將) 최벽(崔壁)과 십선장(十船將), 도훈도(都訓導)를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 권 동지가 왔다.

15일(정해) 굿은비가 개지 아니했다.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새벽에 꿈이 산란했다. 어머님 안부를 못 들은 지 벌써 이레라 무척 초조했다. 또 해(조카)가 잘 갖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아침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자니 광양 김두검(金斗劍)이 북병할 적에 순천, 광양 두 원에게서 이중으로 식료(餽料)(월급)를 받은 것 때문에 별로써 수군으로 나왔는데 칼도 아니 차고 활도 아니 차고서 무척 오만하므로 곤장 70대를 때렸다. 늦게 우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몹시 취하여 돌아갔다.

16일(무자)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평안하시다 하고 안내는 불난리로 심신이 많이 상해서 천식이 더해졌다고 했다. 걱정이다. 비로소 해(조카) 등이 잘 간 것만은 알았다. 활 20순을 쏘았는데 권 동지가 잘 맞혔다.

17일(기축) 맑음. 아침에 나가 본영 각 배 사부(射夫)와 격군으로 급료 받은 사람들을 점고했다. 늦게 활 20순을 쏘았는데 박, 권 두 조방장이 잘 맞혔다. 이날 소금 가마솥 하나를 부어 만들었다.

18일(경인) 맑음. 아침에 충청 수사가 진에 왔다. 결성(結城)(손안국(孫安國)), 보령, 서천 만호(소희익(蘇希益))만을 거느리고 왔다. 충청 수사가 교서에 숙박한 뒤에 세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활 10순을 쏘았다. 거제가 와서 보고 그대로 잤다.

19일(신묘) 맑음. 동풍이 차게 불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권, 박, 신 세 조방장과 사도, 방답 두 첨사와 활 30순을 쏘았다. 선 수사(宣水使)(선거이(宣居怡))도 와서 같이 참여했다. 저녁에 소금 가마솥 하나를 부어 만들었다.

20일(임진) 저녁에 비바람이 불었다. 밤새도록 멎지 아니했다. 아침 식후에 공무를 보았다. 선 수사와 권 조방장과 장기를 두었다.

21일(계사) 흐림. 오늘은 필시 본영에서 누가 오긴 하겠지마는 미처 어머니님 안부를 몰라 답답했다. 중 옥이(玉伊)와 무재(武才)를 본영으로 보냈다. 포어(鮑魚)와 소어(蘇魚) 젓갈, 어란(魚卵) 등을 어머니님께 보냈다. 아침에 나가 공무를 보자니 항복한 왜들이 와서 고하되 저희 동료 왜로서 산소(山素)란 자가 흉측한 일이 많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왜를 시켜 목을 베게 했다. 활 20순을 쏘았다.

22일(갑오) 맑고 화창했다. 권 동지 등과 함께 활 20순을 쏘았다. 이수원(李壽元)이 서울 올라가는 일로 들어왔다. 비로소 어머니님이 평안하신 줄 알았다. 다행이다.

23일(을미) 맑음. 세 조방장과 활 15순을 쏘았다.

24일(병신) 맑음. 아침에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박 조방장(박종남)과 충청 수사와 선 수사를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소금 가마솥을 부어 만들었다.

25일(정유) 맑음. 늦게 비가 왔다. 경상 수사, 우수사, 충청 수사가 같이 모여 활 9순을 쏘고 충청 수사가 술을 내어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배 수사에게서 김응서(金應瑞)가 거듭 대간(臺諫)들의 논란을 받고 또 원수(元帥)도 거기 끼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26일(무술) 늦게 개었다. 혼자 대청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충청 수사와 세 조방장과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현덕린이 들어왔다.

27일(기해) 맑음. 활 10순을 쏘았다. 선 수사와 두 조방장이 취해서 돌아갔다. 정철

(丁哲)이 서울서 진에 왔는데, 장계 회답 내용에 김응서가 함부로 강화를 말한 것을 죄로 돌린다는 말을 많이 했다. 영의정(유성룡)과 좌의정(김응남)의 편지가 왔다.

28일(경자) 저녁에 흐리더니 비가 크게 쏟아졌다.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었다. 전선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 간신히 구호했다. 식후에 선 수사와 세 조방장과 이야기했다.

29일(신축) 비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퍼부었다. 사직(社稷)의 위엄과 영험을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치는 바가 있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로는 교서를 외면서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음을 어찌하랴.

6월

1일(임인) 늦게 개었다. 권, 박, 신 세 조방장과 웅천(이운룡), 거제(안위) 등과 함께 15순을 쏘았다. 선 수사(선거이)는 이질로 쏘지 못했다. 새로 번 드는 영리(營吏)가 들어왔다.

2일(계묘) 종일 실비가 내렸다.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한비(韓槩)가 돌아가므로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영리 강기경(姜起敬), 조춘종(趙春種), 김경희(金景禧)와 신흥언(申弘彦)이 모두 번을 서러 갔다. 오후에 가덕, 천성, 평산포, 적량 등이 와서 봤다. 천성 만호 윤홍년이 와서 청주 이계(李繼)의 편지와 서숙(庶叔)의 편지를 전하며, 김개(金介)는 지난 3월에 죽었다고 했다. 비통함을 참을 길 없었다. 저물녘에 권언경 영공이 와서 이야기했다.

3일(갑진)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처에 서류를 적어 보냈다. 늦게 가리포(이응표), 남도포(강응표), 권, 신 두 조방장과 방답(장린), 사도(김완), 여도(김인영), 녹도(송여종)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남

해(기효근)가 보고하되 “해평군(海平君) 윤두수(尹斗壽)가 남해에서 본영으로 건너 온다” 하므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곧 배를 정비하고 현덕린을 영으로 보냈다. 사랑 만호(이여념(李汝恬))가 양식이 떨어졌다고 아뢰고 곧 돌아갔다.

4일(을사) 맑음. 진주 서생(書生) 김선명(金善鳴)이란 사람이 계원유사(繼援有司)가 되겠다고 왔는데, 보인(保人) 안득(安得)이라는 자가 데리고 왔다. 그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살펴보니 그것을 보장하기 어려워 아직 기다려 보기로 하고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세 조방장과 사도, 방답, 여도, 녹도와 활 15순을 쏘았다. 탐선이 오지 않아 어머니의 안부를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5일(병오) 맑음. 이 조방장 등과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박자운(박종남)은 병으로 오지 못했다. 늦게 우수사, 웅천, 거제가 와서 종일 같이 이야기했다. 오정 때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활을 쏘지 못했다. 나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저녁밥을 먹지 않았고, 종일 고통스러웠다. 서울 종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6일(정미)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송희립(宋希立)이 들어왔다. 그편에 도양장(道陽場)의 농사 형편을 들으니, “홍양(배홍립)이 무척 애를 써서 추수가 잘될 것 같다”고 했다. 계원유사 임영도 힘을 많이 쓴다고 했다. 정항(鄭沆)이 왔으나 나는 몸이 불편하여 종일 앉았다.

7일(무신) 비.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누웠다 앉았다 하며 신음했다.

8일(기유) 비. 몸이 조금 나은 것 같았다. 늦게 세 조방장이 보러 왔었다. 곤양(昆陽)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분상(奔喪)했다고 전했다. 매우 섭섭했다.

9일(경술) 맑음. 몸이 아직 쾌하지는 아니했다. 민망스럽다. 신 조방장(신호)과 사도, 방답과 함께 편을 갈라 활을 쏘았는데 신의 편이 이겼다. 저녁에 원수 군관 이희삼(李希參)이 유서(論書)를 가지고 왔는데, 조형도가 무고하여 장계하되 “수군 1명에 하루 양식 5홉씩과 물 7홉씩을 준다”고 했다 하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놀랍

다. 천하에 어찌 이같이 무도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두울 녀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이 이질에 걸렸다 하니 걱정스럽다.

10일(신해) 맑음. 새벽에 탐선을 본영으로 내보냈다. 늦게 세 조방장과 충청, 경상 수사(배설)가 와서 보았다. 광주(光州) 군량 39석을 받았다.

11일(임자) 실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원수 군관 이희삼이 돌아갔다. 저녁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광주 군량 도둑 한 놈을 잡아 가두었다.

12일(계축) 실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울이 들어오는 편에 들으니 어머니 병환이 조금 덜해졌다고 하나 90세 노인이 이런 위태한 병에 걸렸으니 걱정스럽다.

13일(갑인) 흐림. 새벽에 경상 수사 배설을 잡아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 대신으로 권준이 임명되었으며, 남해 기효근은 그대로 유임되었다 하니 놀랄 일이다. 늦게 배 수사에게 가 보고 돌아왔다. 어두울 녀에 탐선이 들어왔다. 금오랑(金吾郎)이 벌써 영중에 도착했다. 그리고 별좌(別坐)⁷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이 차츰 나아 가신다 하니 다행, 다행이다.

14일(을묘) 새벽에 큰비가 왔다. 사도가 활쏘기를 청하므로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이고 늦게 날이 개어서 활 12순을 쏘았다. 저녁에 금오랑이 배 수사 잡아가는 일로 들어왔다. 권 수사(권준)를 임명하는 조정의 공문과 유서(諭書)와 밀부(密符)⁸도 있다.

15일(병진) 맑음.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식후에 포구로 나가 배설을 송별했다. 몸이 불편했다. 울(아들)이 돌아갔다. 오후에 신 조방장(신호)과 활 10순을 쏘았

7 별좌(別坐) :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 둔 정·종오품 벼슬. 교서관, 상의원, 군기시, 예빈시, 전설사, 빙고 따위에 두었다.

8 밀부(密符) :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 우수(留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었다.

다.

16일(정사) 맑음. 나가 앉아 공무를 보았다. 순천 칠선장(七船將) 장일(張湏)이 군량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므로 처벌했다. 오후에 두 조방장과 미조항 등과 활 7순을 쏘았다.

17일(무오) 맑음. 큰 바람이 종일 불었다. 경상 수사와 충청 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 등과 활을 쏘았다.

18일(기미)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진주 선비 유천룡과 하응문(河應文)이 양식을 대어 달라고 청하여 쌀 5섬을 받아갔다. 늦게 박 조방장(박종남)과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19일(경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다락 위에 홀로 앉았더니 천만 뜻밖에 면(아들)이 윤덕종(尹德種)의 아들 운로(雲輅)와 같이 왔는데, 어머니 편지를 보니 병환이 완쾌되었다고 했다. 만 번 다행이다. 신흥헌(申弘憲) 등이 들어와서 보리 76섬을 바쳤다.

20일(신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종일 다락에 앉았다가 충청 수사(선거이)가 말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 친히 가서 보니 중태에는 이르지 아니했으나 바람과 습기에 많이 상한 때문이라 걱정스러웠다.

21일(임술) 맑음. 몹시 더웠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신흥헌이 돌아가고 거제가 또 왔다. 경상 수사(권준)가 보고하되 “평산포(김축(金軸))가 병이 중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보내라고 적어 보냈다.

22일(계해) 맑음. 조모님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경상 수사가 와서 보았다.

23일(갑자) 맑음. 두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영수가 돌아갔다.

24일(을축) 맑음. 우도(右道) 각 고을과 포구의 전선에 부정 사실을 조사했다. 음녀 12명을 잡아내고 그 대장까지 처벌했다. 늦게 침을 맞아 활을 쏘지 못했다. 허주와 해(조카)가 들어오고 전마(戰馬)도 왔다. 기성백(奇誠伯)의 아들 증헌(證憲)이 그 서숙(庶叔), 경충(景忠)과 함께 왔다.

25일(병인) 맑음. 원수(元帥)의 공문이 들어왔는데, 세 위장을 세 패로 갈라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일본으로부터 와서 화친을 이미 결정했다고 했다. 저녁에 박 조방장(박종남)과 함께 충청 수사(선거이)에게로 가서 그 병세를 보니 이상한 일이 많았다.

26일(정묘) 맑음.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 수사(권준(權俊))가 와서 보았다. 오늘은 언경 영공(권준)의 생신이라 하므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술도 취하고 거문고도 듣고 저(笛)도 불다가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27일(무진) 맑음. 허주와 해(조카)와 기운로(奇雲輅)⁹ 등이 돌아갔다. 나는 신 조방장(신호)과 거제와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28일(기사) 맑음. 나라 제삿날¹⁰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29일(경오)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우수사가 왔다. 활 10여 순을 쏘았다.

30일(신미) 맑음. 문어공(文語恭)이 삼(生麻)을 사들일 일로 나갔다. 이상록(공의 군관)도 돌아갔다. 늦게 거제, 영등이 와서 보았다. 방답과 녹도와 신 조방장이 활 15순을 쏘았다.

9 기운로(奇雲輅) : 기운로(奇雲輅)가 아니라 기정헌(奇澄憲)이다.

10 나라 제삿날 : 명종의 제삿날.

7월

1일(임신) 잠깐 비가 왔다. 나라 제삿날¹¹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혼자 다락에 의지했다. 나라 정세가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 보니 사직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산란했다. 종일토록 누웠다가 일어났다 했다.

2일(계유) 이날은 선친의 생신이다. 슬픈 생각에 눈물지었다. 늦게 활 10순을 쏘았다. 또 철전(鐵箭) 5순을 쏘고 편전(片箭) 3순을 쏘았다.

3일(갑술) 맑음. 아침에 충청 수사에게로 가서 문병하니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늦게 경상 수사 권준이 와서 이야기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밤 10시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긴 하나 입맛이 안 달다고 하신다” 했다. 민망스럽다.

4일(을해) 나주 판관(원종의(元宗義))이 배를 거느리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李堉) 등이 산 일터에서 노(槽) 만들 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식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미조항과 웅천이 와서 활을 쏘았다. 군관들도 향각궁(鄉角弓)으로 내기 활을 쏘았는데, 노윤발(공의 군관)이 1등을 했다. 저녁에 임영과 조응복이 왔다. 양정언은 말미 받아 돌아갔다.

5일(병자) 맑음.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늦게 박 조방장(박종남)과 신 조방장(신호)이 왔다. 방답(장린)이 활을 쏘았다. 임영이 돌아갔다.

6일(정축) 맑음. 정향과 금갑도(가안책(賈安策))와 영등(조계중)이 와서 보았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8순을 쏘았다. 중 목년(本年)이 고음내(古音內) 여수시, 시전동 웅천)로부터 왔다.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했다.

11 나라 제삿날 : 인종의 제삿날.

7일(무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경상 수사(권준)와 두 조방장과 충청 수사(선지어)가 왔다. 방답,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경상 우병사(김응서)에게 온 유서에 “나라의 재앙이 참혹하고 사직의 원수가 남아 있어 신의 부끄러움과 사람의 원통함이 천지에 사무쳤건만 아직도 깨끗이 쓸어버리지 못하고 원수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있으니 무릇 혈기를 가진 자로서 어느 누가 팔을 부르짖고 마음을 씌이면서 그놈의 살을 산적 뜨고자 아니하랴. 그런데 그대는 원수와 마주 진 치고 있는 장수로서 조정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적과 대면하여 감히 무리한 말을 뇌까리고 또 자주 사사로이 편지를 통하여 현저히 놈들을 높이고 또 거기 애교를 보이는 일이 있을 뿐더러 서로 화친하자는 것을 말하여 저 명나라 조정에까지 들려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혼단을 열어 놓기에 조금도 꺼림이 없이 했으니 군법에 붙여도 모자랄 게 없건마는 오히려 너그러운 용서하고서 돈독히 타이트하고 책망하여 경고하기 분명히 했었다. 그랬으나 고집을 더 세우고 스스로 죄 구덩이로 빠져들어 가니 나 보기에는 못내 해괴하기도 하고 또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비변사(備邊司) 낭청(郎廳) 김용(金涌)을 보내어 구두로 내 뜻을 전하니 그대는 마음을 고쳐 정신을 가다듬어 후회할 일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 이것을 보니 황송함을 이길 길이 없다. 김응서란 어떤 사람이기에 스스로 회개하여 다시 힘쓴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는고, 만일 쓸개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자결이라도 할 일이다.

8일(기묘) 맑음. 식후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영등과 박 조방장이 와서 보았다. 우수사 규관 배영수가 그 대장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군량 20섬을 꾸어 가지고 갔다. 동래 원 정광좌(鄭光佐)가 와서 부임한 것을 고하기로 활 10순을 쏘고 헤어졌다. 종 목년이 돌아갔다.

9일(경진) 맑음. 오늘은 말복이라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니 회포가 많다. 미조항이 와서 보고 갔다. 웅천, 거제가 활을 쏘고 갔다. 밤 10시에 달빛이 다락에 가득 차 정희가 어지러워 다락 위를 거닐었다.

10일(신사) 맑음. 몸이 몹시 편안하지 아니했다. 늦게 우수사와 이야기했다. 양식이 떨어저도 아무런 계책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참으로 민망스럽다. 박 조방장도 왔다. 몇 잔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 밤이 깊어 다락 위에 누웠으니 초승달 빛은 다락에 가득 차고 정회를 이길 길이 없었다.

11일(임오) 맑음. 아침에 어머님께 편지를 쓰고, 또 여러 군데 편지를 써 보냈다. 무재(武才)와 박영(朴永)이 역사 나가는 일로 돌아갔다.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12일(계미) 맑음. 아침 식후에 경상 우수사(권준)가 와서 보았다. 같이 활 10순을 쏘았다. 철전 5순을 쏘았다. 날이 저물어 서로 회포를 풀고 물러갔다. 가리포(이응표)도 왔다가 같이 갔다.

13일(갑신) 맑음. 가리포와 우수사가 같이 와서 가리포가 술을 바쳤다. 활 5순을 쏘았다. 철전 2순을 쏘았다. 나는 몸이 몹시 편안하지 아니했다.

14일(을유) 늦게 갓다. 군사들에게 말미를 주었다. 녹도 송여종을 시켜 죽은 군졸들에게 제사 지내도록 쌀 2섬을 주었다. 이상록, 태구련(太九連)(태귀련(太貴連)), 공태원(孔太元) 등이 들어왔다. 어머님이 태평하시다니 이런 다행한 일이 없다.

15일(병술) 맑음. 늦게 대청으로 나갔다. 박, 신 두 조방장과 방답, 여도, 녹도, 보령, 결성(손안국) 두 현감과 이은준 등이 활을 쏘고 술을 먹었다.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씨름 내기를 시켰다. 정향이 왔다.

16일(정해) 맑음. 아침에 들으니 김대복의 병세가 몹시 위독하다고 한다. 걱정스럽다. 그래서 송희립, 유흥근을 시켜 구료하게 했으나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여 민망스럽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천 정석수와 영광 도훈도주 문상을 처벌했다. 저녁에 원수에게 가는 공문과 병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초하여 주었다. 미조항 첨사(성윤문)와 사도 첨사(김완)가 말미 청원장을 바치므로 성 첨지(미조항)에게는

열흘, 김 침지(사도)에게는 사흘을 말미 주어 보냈다. 녹도를 유임한다는 병조의 공문이 왔다.

17일(무자) 비. 거제(안위)가 보고하되 “거제의 적들이 벌써 다 철귀하였다” 한다. 그래서 곧 정항에게 명령하여 정해 보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내일 배로 출발하여 나가는 일을 전령했다.

18일(기축) 맑음. 아침에 대청으로 나갔다. 박, 신 두 조방장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오후에 출발하여 저녁에 지도(紙島)(통영시 용남면)에 대어 밤을 지냈다. 자정에 거제 현감이 와서 하는 말이 “장문포(長門浦)(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소굴이 벌써 비었고 다만 30여 명만 있다”고 한다. 또 사냥하는 왜들을 만나, 쏘아 죽여 목을 베고 또 1명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새벽녘 2시에 떠나 도로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19일(경인) 맑음. 우수사, 경상, 충청 수사와 두 조방장과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오후 4시에 진으로 돌아왔다. 당포 만호를 잡아다 현신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때렸다. 김대복의 병세를 가서 보았다.

20일(신묘) 흐림. 두 조방장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늦게 거제 안위와 전 진해 현감 정항이 왔다. 오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5순을 쏘았다. 철전 4순을 쏘았다. 좌병사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21일(임진) 비바람이 크게 불어쳤다. 들으니 오후가 들어온다고 한다. 식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 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갈라 보냈다. 어두울 녀에 회와 울과 우후가 같은 배로 섬 밖에 도착했다. 아들들이 들어왔다.

22일(계사)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이충일이 그 아버지의 별세함을 듣고 나갔다.

23일(갑오) 맑음. 늦게 말 달리는 일로 해서 원두구미(元頭龜尾)(통영시 한산면)로 갔다. 두 조방장과 충청 병사도 왔다. 저녁에 작은 배를 타고 돌아갔다.

24일(을미) 맑음. 나라 제삿날¹²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25일(병신) 맑음. 충청 수사 생일이라 음식을 갖추어 가지고 왔다. 우수사, 경상 수사와 신 조방장 등이 취하여 이야기했다. 저녁에 정 조방장(정응운)이 들어왔다.

26일(정유) 맑음. 아침에 정영동과 윤엽, 이수원 등이 홍양과 함께 들어왔다. 식후에 정 수사(丁水使)와 충청 수사도 왔다. 조용히 이야기했다.

27일(무술) 맑음. 어사의 공문이 들어왔다. 내일 진에 온다고 한다.

28일(기해) 맑음. 아침 식후에 배로 내려가 삼도가 합하여 포구 안에서 진을 쳤다. 오후 2시에 어사 신식이 진에 왔다. 곧 대청으로 내려가 마주 이야기하기 한 시간, 각 수사와 세 조방장을 청하여 같이 이야기했다.

29일(경자)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어사가 좌도에 소속된 다섯 포구를 조사 점고하고 저녁에 왔기에 조용히 이야기했다.

8월

1일(신축)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어사 신식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곧 배로 내려가 순천 등 다섯 고을 배들을 점고했다. 저물어서 나는 어사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했다.

2일(임인) 흐림. 우도 전선을 점고한 뒤에 그대로 남도포막에서 머물렀다. 나는 나가 앉아 충청 수사 선거이와 이야기했다.

12 나라 제삿날 : 도조(度祖)(조선 태조 이성계의 조부)의 제삿날.

3일(계묘) 맑음. 어사는 늦게 경상도 진으로 가서 점고했다. 저녁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몸이 편찮아 곧 돌아왔다.

4일(갑진) 비. 어사가 오기에 여러 장수들을 모아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5일(을사)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사와 작별 이야기를 하러 충청 수사에게 가서 어사와 전별한 뒤에 정 조방장(정응운)이 돌아간다고 했다.

6일(병오) 비가 크게 쏟아졌다. 우수사, 경상 수사, 두 조방장 등과 모여 종일토록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7일(정미)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아침에 울(아들)과 허주와 현덕린과 우후(이몽구) 등이 같은 배로 나갔다.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 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표신(標信) 권 선전관 이광후가 유서(諭書)를 가지고 왔는데, 원수가 삼도 수군을 거느리고 바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같이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다.

8일(무신) 비, 비. 선전관이 나갔다. 경상 수사 권준, 충청 수사 선거이와 두 조방장이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들 갔다.

9일(기유) 서풍이 크게 불었다.

10일(경술) 맑음. 몸이 편찮은 것 같았다. 홀로 다락 위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다. 늦게 대청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 5순을 쏘았다. 정제(鄭濟)와 결성(손안국)이 같이 배로 나갔다.

11일(신해)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종 한경(漢京)이 본영으로 갔다. 배영수와 김응겸이 활쏘기 승부를 겨루었다. 김이 이겼다.

12일(임자) 흐림.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늦게 두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김응겸

이 경상 수사(권준)에게로 갔다가 돌아올 때 우수사에게 가서 활쏘기 내기를 하였는데 배영수가 또 졌다고 했다.

13일(계축) 비. 종일 비가 왔다. 장계를 쓰고 공문을 적어 보냈다. 독수(禿水)가 왔는데 그편에 도양장(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둔전 일을 들으니, 이기남의 하는 짓에 괴상한 것이 많으므로 우후가 달려가 부정 사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4일(갑인) 비. 종일 비가 왔다. 진해 정향과 조계종이 와서 이야기했다.

15일(을묘)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우수사(이억기), 가리포(이응표), 임치(臨淄) [홍견(洪堅)] 등 여러 장수들이 같이 왔다. 이날 삼도 사사(射士)와 본도 잡색군을 먹이고 종일토록 여러 장수들과 같이 취했다. 이날 밤, 으스스 달빛이 다락을 비치는데, 잠을 들지 못하고 시를 읊어 긴 밤을 새웠다.

16일(병진) 굿은비가 개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부슬부슬 내린다. 정희가 어지러웠다. 두 조방장이 같이 이야기했다.

17일(정사) 실비가 오고 동풍이 불었다. 새벽에 김응검을 불러 일을 물어 보았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두 조방장과 이야기하고 활 10순을 쏘았다.

18일(무오) 굿은비가 개지 아니했다. 신, 박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19일(기미) 날씨가 쾌청했다. 두 조방장과 방답(장린)과 함께 활을 쏘았다. 밤 10시에 봉(조카), 회(조카), 울(아들)이 들어와서 체찰사(體察使)(이원익(李元翼))가 21일에 진성(진주)에 도착해서 군사에 대한 일을 묻고자 한다는 일로 체찰사 군관이 들어왔다고 했다.

20일(경신) 맑음. 종일 체찰사의 전령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했다. 권 수사(권준)와 우수사와 발포(황정록)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밤 10시에 전령이 들어

왔다. 자정에 배를 타고 곤이도(昆伊島)(통영시 산양면)에 이르렀다.

21일(신유) 흐림. 늦게 소비포(고성군 하일면) 앞바다에 닿으니 전라 순찰사(홍세공) 군관 이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강응호, 오계성이 함께 와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했다. 경수(景受)(이억기의 자)와 언경과 자운(子胤)(박종남의 자)과 언심(彦深)¹³에게 편지를 썼다. 저물녘에 사천 땅 침도(針島)(사천시 신수동) 앞에 대어 잤다. 밤기운이 몹시 차고 정회가 불편했다.

22일(임술) 맑음.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공문을 만들어 체찰사에게 보냈다. 아침 식후에 사천현에 이르렀다. 오후에 진주 남강가에 이르니 체찰사가 벌써 진주에 들어왔다고 한다.

23일(계해) 맑음. 체찰사에게로 가니 조용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절고를 털어야겠다는 뜻이 많이 있었다. 호남 순찰사는 혈어 말하는 빛이 많았다. 탄식스러웠다. 늦게 나는 김응서와 함께 축석루(진주시 본성동)에 이르러 장수들의 패전해 죽은 곳을 보고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이윽고 체찰사가 날더러 먼저 가라 하므로 배를 타고 소비포로 돌아와 잤다.

24일(갑자) 맑음. 새벽에 소비포 앞에 닿으니 고성 현령 조응도가 와서 현신했다. 그대로 소비포 앞바다에서 잤다. 체찰사와 부사(김복(金玢))도 종사관(노경임)과 함께 잤다.

25일(을축) 맑음. 일찍 식사한 뒤에 체찰사, 부사, 종사관 등이 모두 내가 탄 배에 같이 타고 오전 8시에 출발하여 같이 서서 여러 섬들과 여러 진 합병할 곳과 또 접전하던 곳들을 점검하며 종일 의논했다. 곡포(曲浦)(남해군 이동면 화계리)는 평산포(平山浦)(남면 평산리)와 합하고, 상주포(尙州浦)(상주면 상주리)는 미조항(彌助項)(미조면 미조리)과 합하고, 적량(赤梁)(창선면 진동리)은 삼천진(三千鎭)(사천시 동서금동)과 합하고, 소비포(고성군 하이면 덕명포)는 사랑(통영시 사랑면 금평

13 언심(彦深) : 언원(彦源)(신호의 자)의 잘못인 듯하다.

리)과 합하고, 가배량(加背梁)(거제시 도산면 노전동)은 당포(통영시 산양면 삼덕리)와 합하고, 지세포(知世浦)(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는 조라포(助羅浦)(일운면 구조라리)와 합하고, 제포(濟浦)(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는 웅천과 합하고, 옘포(栗浦)(거제시 장목면 대금리)는 옥포(거제시 옥포동)와 합하고, 안골포(安骨浦)(창원시 진해구 안골동)는 가덕진(加德鎭)(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성북동)과 합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했다. 저녁에 진에 도달하여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고 공사례를 마친 뒤에 헤어졌다.

26일(병인) 맑음. 저녁에 부사(김득)와 같이 만나 조용히 이야기했다.

27일(정묘) 맑음. 군사 5천 4백 80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저녁에 상봉으로 올라가 적진과 적선들 왕래하는 길을 지점했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저녁을 타고 도로 내려왔다.

28일(무진) 맑음. 이른 아침에 체찰사와 부사와 종사관과 함께 다락 위에 앉아서 여러 가지 폐단 되는 점을 의논했다. 식전에 배로 내려가 배를 띄워 나갔다.

29일(기사)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경상 수사(권준)가 체찰사에게서 왔다.

9월

1일(경오) 맑음.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탐선이 들어왔다. 우후(이몽구)가 도양으로부터 영에 이르러 공문서를 바치는데 사립(思立)을 해하는 뜻이 많았다. 어이없었다. 종사관(유공진(柳拱辰))이 병 탓에 돌아가서 치료하겠다고 청하므로 결재해 주었다.

2일(신미) 맑음. 새벽에 상선을 출발시켰다. 재목 끌어내릴 군사 1천 2백 83명에게 밥을 먹이고 끌어내렸다. 충청 수사, 우수사, 경상 수사와 두 조방장 등이 같이 와서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3일(임신) 맑음. 동풍이 크게 불었다. 여필(아우)과 울(아들)과 유현이 돌아갔다. 강응호도 도양장의 추수할 일로 같이 돌아갔다. 정항, 우수(禹壽), 이섬(李暹) 등이 탐정하고 들어왔는데, 영등(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에 있는 적진은 2일에 소굴을 비우고 누각과 모든 소굴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고 했다. 웅천 사람으로 적에게서 투항해 붙었던 공수복(孔守卜) 등 17명을 달래어 왔다.

4일(계유) 맑음. 경상 수사(권준)가 와 보기를 청하더니 종일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여필과 울 등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 무척 걱정스러웠다.

5일(갑술) 맑음. 아침에 권 수사(권준)가 쇠고기를 조금 보냈다. 충청 수사와 신 조방장(신호)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하고, 식후에 신 조방장과 선 수사(선거이)와 한 배를 타고 경상 수사에게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저물어서 돌아왔다. 이날 체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순천, 광양, 낙안, 홍양의 갑오년 전세(田稅)를 실어 오라고 해서 곧 답장했다.

6일(을해)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충청 수사가 술을 바치므로 우수사와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먹었다. 송덕일(宋德驥)이 들어왔다.

7일(병자) 맑음. 식후에 경상 우수사가 왔다. 충청도 병영 배와 서산, 보령 배들을 내보냈다.

8일(정축) 맑음. 나라 제삿날¹⁴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식후에 회(아들)와 송덕일이 같은 배로 나갔다. 충청 수사와 두 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했다.

9일(무인)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여러 장수들이 모였는데 병영 군사들에게 떡 한 섬을 나눠 주고 초저녁에 헤어졌다.

10일(기묘) 맑음. 오후에 나는 충청 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신호, 박종남)과 함께 우수사(이억기)에게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14 나라 제삿날 : 세조의 제삿날.

11일(경진) 흐림. 몸이 몹시 불편했다.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12일(신사) 흐림. 아침에 충청 수사와 두 조방장을 청해 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늦게 헤어져 돌아갔다. 저녁에 경상 수사와 우후(이몽구)와 정항 등이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13일(임오) 비. 홀로 다락에 기대앉았으니 정회가 편안치 아니했다.

14일(계미) 맑음.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함께 와서 작별하는 술잔을 같이 나누고 밤이 깊어 헤어졌다. 선 수사와 작별하며 준 시(詩) 한 구절이다.

북쪽에 갔을 때도 같이 일하고	北去同勤苦
남에 와 죽고 삶을 같이하더니	南來共死生
오늘 밤 이 달 아래 잔을 나누면	一杯今夜月
내일은 우리 서로 떠나겠구려	明日別離情

15일(갑신) 맑음. 선 수사가 와서 작별을 고했다. 또 작별하는 술잔을 들고 헤어졌다.

16일(을유) 맑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장계를 봉해 올렸다. 이날 저녁 월식하고 밤들어 밝아졌다.

17일(병술) 맑음. 식후에 서울로 편지를 써 보냈다. 김희번(金希番)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유자(柚子) 30개를 영의정 유성룡에게 보냈다.

18일(정해) 늦게 정 조방장(정응운)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19일(무자) 맑음. 정 조방장이 들어왔다가 곧 돌아갔다.

20일(기축) 새벽 2시에 독제(燾祭)를 지냈다. 사도 첨사 김완이 현관으로 행사했다. 아침에 우수사가 와서 보았다.

21일(경인) 맑음. 박, 신 두 조방장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박 조방장을 작별하려 했으나, 경상 수사를 작별하러 갔다가 날이 그만 저물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저녁에 이종호(李宗浩)¹⁵가 들어왔다. 다만 목화만 가져 와서 모두 나누었다.

22일(신묘) 동풍이 크게 불었다. 박자윤(박종남) 영공이 나갔다. 경상 우수사도 와서 전별했다.

23일(임진) 맑음. 나라 제삿날¹⁶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웅천 사람으로 사로잡혔던 박녹수(朴祿守), 김희수(金希壽)가 와서 보며, 겹하여 적의 정형을 말해 주므로 각각 무명 1필씩 주어 보냈다.

24일(계사) 맑음. 아침에 각처에 편지 10여 장을 썼다. 울, 면이 방익순(方益純), 온개(溫介) 등과 함께 같이 나갔다. 이날 저녁에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보았다.

25일(갑오) 맑음. 오후 2시에 녹도 하인이 불을 실수하여 대청과 다락방이 연소되어 모조리 타 버렸다. 군량, 화약, 군기 등 곳간에는 불이 미치지 않았으나 다락 아래 두었던 장편전(長片箭) 2백여 개가 다 타 버려서 애석했다.

26일(을미) 맑음. 홀로 배 위에서 종일토록 누웠다. 앉았다 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했다. 이언량(귀선장(龜船將))¹⁷이 재물을 깎아 가지고 왔다.

27일(병신) 흐림. 안골포 사람으로 왜적들에게 붙었던 자들 2백 30여 명이 나왔는

15 이종호(李宗浩) : 지혜와 용맹을 갖춘 이로서 충무공이 막하로 삼고 매양 중요한 일을 맡겼다. 특히 물자 구득에 관한 일을 많이 했다.

16 나라 제삿날 : 조선 태조의 비(妃),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제삿날.

17 이언량 : 임진왜란 때 충무공 휘하의 군관으로서 5월 7일 옥포 해전에서 돌격장으로 참전하여 대승을 거두고, 6월 2일 제2차 당포 해전에서는 거북선 돌격장으로 출전,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데, 배는 22척이라고 우수(禹壽)가 와서 보고했다. 식후에 불난 데로 올라가서 집 지을 만한 터를 지점(指點)했다.

28일(정유) 맑음. 식후에 집 짓는 데로 올라갔다. 우수사, 경상 수사가 와서 보았다. 회와 울도 기별을 듣고 들어왔다.

29일(무술) 맑음.

30일(기해) 맑음.

10월

1일(경자) 맑음. 신 조방장(신호)과 아침 식사를 같이하고 그대로 작별하는 술자리를 열었다. 늦게 신 조방장이 나갔다.

2일(신축) 맑음. 대청에 들보를 올렸다. 또 상선을 연기로 그을렸다. 우수사(이억기)와 경상 수사(권준)와 이정충이 와서 보았다.

3일(임인) 맑음. 해평군 윤근수의 공문을 구례 선비가 가져왔는데, “김덕령이 전주 김윤선 등과 함께 죄 없는 사람을 때려죽이고 수군 진영으로 도망해 들어갔다”고 하였기에 수색해 보니 9월 10일경에 보리 씨 바꾸러 진에 왔다가 곧 돌아갔다고 했다.

4일(계묘) 맑음.

5일(갑진) 이른 아침에 다락에 올라가 역사하는 것을 감독했다. 다락 위 바깥 서까래에 흙을 올려 발랐다. 행복한 왜들을 시켜 흙을 운반하게 했다.

6일(을사) 식후에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보았다. 저녁에 웅천(이운룡)이 오는 편에 들으니 명나라 사신(양방형(楊方亨))이 부산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날 사로 잡혔던 사람 24명이 나왔다.

7일(병오) 맑음. 화창하기가 봄날 같았다. 임치 첨사(臨淄僉使)(홍견)가 보러 왔다.

8일(정미) 맑음. 완(莞)(조카)이 들어왔다. 진원(珍原)과 해(조카)의 편지가 왔다.

9일(무신) 맑음. 각처에 답장을 써 보냈다. 대청 역사를 다 마쳤다. 우우후(이정충)가 보러 왔다.

10일(기유) 맑음. 늦게 대청에서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 등이 모두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11일(경술) 맑음. 일찍 다락방으로 올라가 종일토록 역사를 감독했다.

12일(신해) 맑음. 일찍 다락 위로 올라가 역사를 감독했다. 서쪽 사랑채를 세웠다. 저녁에 송홍득이 들어왔는데, 실없는 말들이 많았다.

13일(임자) 맑음. 일찍 새로 지은 다락에 올라가 대청에 흙 올려붙이는 일을 항복한 왜들을 시켜 필역하게 했다. 송홍득이 군관을 따라갔다.

14일(계축) 맑음. 우수사, 경상 수사(권준), 사도(김완), 여도(김인영), 녹도(송여중) 등이 보러 왔다.

15일(갑인) 맑음. 새벽에 망궐례를 향했다. 저녁에 말을 타고 우수사 경수(景受)(이억기)에게로 가서 전달했다. 경상 수사, 미조항(성윤문), 사도도 왔었다.

16일(을묘) 맑음. 새벽에 새로 지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우수사와 임치(홍견), 목포 등이 나갔다. 그대로 새 다락방에서 잤다.

17일(병진) 맑음. 아침에 가리포(이응호)와 금갑도(가안책)가 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했다. 진주 하응귀, 유기룡 등이 계원미(繼援米) 20석을 가져와 바쳤다. 부안 김성업(金成業)과 미조항 첨사 성윤문이 보러 왔다. 정향이 돌아간다고 했다.

18일(정사) 맑음. 권 수사(권준)와 우우후(이정충)가 보러 왔다.

19일(무오) 맑음. 회와 면이 나갔다. 송두남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김성업도 돌아갔다. 이운룡이 보러 왔다. 양식 잇대는 책임을 진 하응문과 유기룡이 나갔다.

20일(기미) 맑음. 늦게 가리포, 금갑, 남도, 사도, 여도가 보러 왔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저물어 영등(조계종)도 와서 저녁밥을 먹고 돌아갔다. 이날 밤 바람은 몹시 싸늘하고 차가운 달빛이 낮과 같아 잠을 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렸다.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밀었다.

21일(경신) 맑음. 이설(李潑)이 말미를 청하나 주지 아니했다. 늦게 우우후, 이정충, 금갑 만호 가안책, 이진 권관(梨津權管) 등이 보러 왔다. 바람이 몹시 싸늘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공태원(孔太元)을 불러 왜의 정형을 물었다.

22일(신유) 맑음. 가리포, 미조항 첨사, 우후(이몽구) 등이 와서 보았다. 저녁에 송희립과 박태수, 양정언이 들어왔다. 전문(箋文)을 모시고 갈 선비도 들어왔다.

23일(임술) 맑음. 아침에 전문을 보낸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24일(계해) 맑음.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하응귀도 와서 종일 이야기하고 저물어서 돌아갔다. 박태수, 김대복이 돌아간다고 했다.

25일(갑자) 맑음. 가리포, 우후, 금갑, 회령포(민정봉), 녹도 등이 와 보고 돌아갔다. 저녁에 정항이 돌아간다고 하므로 전별했다. 띠(茅(茅))를 베어 올 일로 이상록, 김응겸, 하천수, 송의련, 양수개 등이 군졸 80명을 데리고 나갔다.

26일(을축) 맑음. 들으니 임달영(任達永)이 왔다고 한다. 불러서 제주 가는 일을 물었다. 방답(장린)이 들어왔다. 송홍득, 송희립 등은 사냥을 갔다.

27일(병인) 맑음. 가리포, 우우후가 왔다.

28일(정묘) 맑음. 경상 우후(이의득)가 보러 왔다. 띠 베려 갔던 배가 들어왔다. 밤에 우레가 여름철 같으니 괴상한 일이다.

29일(무진) 가리포, 이진 등이 돌아갔다. 경상 수사, 웅천, 천성(윤홍년)이 함께 왔다.

11월

1일(기사)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늦게 나가 공무 보았다. 사도(김완)가 나갔다. 함평, 진도, 무장(茂長)의 전선을 내보냈다. 김희번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조보(朝報)와 수상(首相)(유성룡)의 편지를 가져왔다. 항복한 왜들에게 술을 먹였다. 오후에 방답과 활 7순을 쏘았다.

2일(경오) 맑음. 곤양 군수 이수일이 보러 왔다.

3일(신미) 맑음. 황득중이 들어와서, “왜선 2척이 청등(거제시 사등면 청곡리)을 거쳐 흉도(胸島)(동부면)에 이르러 해북도(海北島)(거제시 둔덕면 해간도)에 가까이 와서 불을 지르고 춘원포(春院浦)(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등지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리고 새벽에 지도(紙島)로 돌아갔다.

4일(임신) 새벽에 이종호, 강기영 등이 들어왔다. 변존서의 편지를 보니, 봉, 해 형제가 본영에 왔다고 했다.

5일(계유) 맑음. 남해(기효근), 금감도, 남도, 어란, 회령포와 정담수(鄭聃壽)가 보러 왔다. 방답(장린)과 여도(김인영)를 불러다가 이야기했다.

6일(갑술) 맑음. 송희립이 들어왔다. 띠 4백 동과 칠 백 동을 실어왔다.

7일(을해) 맑음. 하동 현감(최기준(崔琦準))이 교유서에 숙배했다. 경상 우수사(권

준)가 순찰사로부터 왔다. 미조항 첨사(성윤문)와 남해(기효근)도 왔다.

8일(병자) 맑음. 새벽에 완(조카)과 서울 종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늦게 김응경과
경상 순찰사 군관 등이 왔다.

9일(정축) 맑음. 여도 만호 김인영이 들어왔다.

10일(무인) 맑음. 새벽에 경상 순찰사 군관들이 돌아갔다.

11일(기묘) 맑음. 새벽에 임금의 탄신 축하례를 행했다. 본영 탐선이 들어왔다. 변
주부, 이수원, 이원룡 등이 왔다. 그편에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말을 또 들으니
반갑고 다행이다. 저녁에 이익득이 보러 왔다. 금갑도와 회령포도 나갔다.

12일(경진) 맑음. 발포 가장(假將)¹⁸으로 이설을 정해 보냈다.

13일(신사) 맑음. 도양장에서 추수한 벼와 콩이 8백 20석이었다.

14일(임오) 맑음.

15일(계미) 맑음. 아버지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홀로 앉아 그려 보며
정회를 이길 길이 없었다.

16일(갑신) 맑음. 항복한 왜 여문연기(汝文戀己), 야시로(也時老) 등이 와서 고하
되, “왜들이 도망하러 한다” 해서 우우후(이정충)를 시켜 잡아다가 그 주모자 준시
(俊時) 등 2명의 머리를 베었다. 경상 수사와 우후, 웅천, 방답, 남도, 어란, 녹도
는 내보냈다.

17일(을유) 맑음.

18일(병술) 맑음. 어응린이 와서 전하되, “행장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

18 가장(假將) : 조선 시대에, 싸움터에서 어느 장수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주장(主將)의 명령에 따라 임
시로 그 자리를 대신하던 장수.

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해서 경상 수사(권준)에게 전령하여 수륙으로 정탐하게 했다. 늦게 하응문이 와서 군량 잇대는 것에 대한 일을 아뢰었다. 이윽고 경상 수사와 웅천 등이 와서 의논하고 갔다.

19일(정해) 맑음. 이른 아침에 도망쳤던 왜가 제 발로 와서 현신했다. 밤 10시에 분, 봉, 해(모두 조카), 회(아들)가 들어왔다. 어머니의 평안하심을 알고 기뻐다. 하응문이 돌아갔다.

20일(무자) 맑음. 거제(안위), 영등(조계종)이 보러 왔다.

21일(기축) 맑음. 북풍이 종일 불었다. 새벽에 송희립을 내보내서 견내량 적선을 조사케 했다. 이날 저녁 청어 1만 3천 2백 40두를 곡식과 바꾸어 사려고 이종호가 받아갔다.

22일(경인) 맑음. 동지라 새벽에 임금께 하례하는 마음으로 숙배했다. 늦게 웅천(이운룡), 거제, 안골(우수), 옥포(이담), 경상 우후(이의득) 등이 왔다. 변존서와 봉(조카)이 같이 갔다.

23일(신묘)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이종호가 하직하고 나갔다. 이날 견내량 순찰시키는 일로 경상 수사를 정해 보냈으나 바람이 몹시 사나워서 떠나지 아니했다.

24일(임진) 맑음. 순라선이 나가다가 밤 10시에 진으로 돌아왔다. 변익성이 곡포 권관이 되어 왔다.

25일(계사) 맑음. 식후에 곡포 권관의 공식 인사를 받았다. 늦게 경상 우후가 와서 전하되 “항복한 왜 8명이 가덕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웅천(이운룡), 우후(이정충), 남도포(강응포), 방담(장린), 당포(하종해) 등이 보러 왔었다. 분(조카)과 함께 밤 10시까지 이야기했다.

26일(갑오) 아침에 흐리고 늦게 갠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광양군 훈도가 복병 갔다가 도망간 자들을 잡아와 처벌했다. 오정에 경상 수사(권준)가 왔다. 항복한 왜 8명과 그들을 인솔해 가지고 오는 김탁(金卓) 등 2명이 같이 오므로 술을 먹었다. 그리고 김탁 등에게는 각각 무명 1필씩을 주어 보냈다. 저녁에 유척(柳條)과 임영(林英) 등이 왔다.

27일(을미) 맑음. 김응겸이 2년생 나무(二年木) 찍어 오는 일로 목수 5명을 데리고 갔다.

28일(병신) 맑음. 나라 제삿날¹⁹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유척, 임영이 돌아갔다. 조카들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졌다.

29일(정유) 맑음. 나라 제삿날²⁰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30일(무술) 맑음. 남해에서 항복한 왜 아여문, 신시로(信時老) 등이 왔다. 경상 수사(권준)가 보러 왔다. 체찰사의 전세 군량 30석을 경상 수사가 받아 갔다.

12월

1일(기해) 맑음. 망궐례를 행했다.

2일(경사) 맑음. 거제(안위), 당포(하종해), 곡포(변익성) 등이 보러 왔다. 술을 먹었더니 취하여 돌아갔다.

3일(신축) 맑음.

4일(임인) 맑음. 순천 2선과 낙안 1선을 군사 점검하고 내보냈으나 바람이 순하지 않아 떠나지 못했다. 분, 해가 본영으로 갔다. 황득중(黃得中), 오수 등이 청어 7천여 두름을 싣고 오므로 김희방이 곡식 사러가는 배에 세어 주었다.

19 나라 제삿날 : 예종의 제삿날.

20 나라 제삿날 : 인종의 비,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제삿날.

5일(계묘) 맑았으나 바람은 순조롭게 아니했다.

6일(갑진) 맑음. 늦게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저녁에 올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편 안하시다고 한다. 만 번이나 다행한 일이다.

7일(을사) 맑았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아니했다. 응천, 거제, 평산포, 천성 등이 와 보고 갔다. 청주 이희남에게 답장을 써 부쳤다.

8일(병오) 맑음. 우우후(이정충)와 남도포(강응표)가 보러 왔다. 체찰사의 전령이 왔는데, “근일 소비포(고성군 하이면 덕명포)에서 만나자” 하였다.

9일(정미) 맑음. 몸이 불편하여 밤새도록 신음했다. 거제와 안골 우수 등이 와서 “적들이 물러갈 뜻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하응귀도 왔다.

10일(무신) 맑음. 충청도 순찰사(박홍로)와 수사(선거이)에게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1일(기유) 맑음. 해와 분이 무사히 본영에 도착했다는 편지를 보니 기뻐다. 그러나 그 고생스러운 것을 어찌 다 말하랴.

12일(경술) 맑음. 경상 수사(권준)가 보러 왔다. 우후도 왔다.

13일(신해) 맑음. 왜옷(倭衣) 50벌과 연폭……(중간에 원문이 빠져 있음) 초저녁에 종 돌세(石世)가 와서 말하기를, “왜선 3척과 작은 배 1척이 등산(登山)(창원시 진해구) 바깥 바다로부터 합포(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와서 대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사냥하는 왜들인가 보다. 곧 경상 수사, 방답, 우우후에게 명령하여 탐정해 보게 했다.

14일(임자) 맑음. 새벽에 경상 수사(권준)와 여러 장수들이 합포로 나갔다. 왜놈들을 타일렀다. 미조함 첨사(성윤문)와 남해(기효근), 하동(최기준)이 들어왔다.

15일(계축) 맑음. 체찰사 처소로 나갔던 진무(鎭撫)가 들어와서 18일에 삼천포에서 만나자고 한다 하므로 달려가기로 했다. 초저녁에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16일(갑인) 맑음. 새벽 4시에 출발하여 달빛을 타고 당포(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앞바다에 대어 아침 먹고 다시 사랑(통영시 사랑면 양지리) 뒤 바다에 대었다.

17일(을묘) 비가 뿌렸다. 삼천진 앞에 이르니 체찰사(이원익)는 사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18일(병진) 맑음. 아침 식사 후에 삼천진으로 나갔다. 정오에 체찰사가 보(堡)에 들어와서 조용히 의논했다. 초저녁에 체찰사가 또 이야기하자고 청하므로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19일(정사) 맑음. 아침 식후에 나가 앉아 군사들에게 한턱 먹이고, 끝난 뒤에 체찰사가 떠나므로 나도 배로 내려오니 바람이 몹시 사나워서 배가 떠날 수 없었다. 그 대로 머물러 밤을 지냈다.

20일(무오) 맑음. 큰 바람이 불었다.

[21일부터 그믐날까지는 빠져 있음]

병신년

병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 충무공 52세.

공(公)은 휴전 중의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동안이나마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것으로써 큰 행복을 삼았다. 이해는 공의 어머니가 81세 되시던 해였다. 10월에 진중에서나마 수연(晝宴)(생일잔치)을 차려 드린 것이 모자(母子)가 서로 만나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1월

1일(무진) 맑음. 새벽 2시께 어머니 앞에 들어가 뵈었다. 늦게 남양(南陽) 아저씨와 신 사과(愼司果)¹가 와서 이야기했다. 저녁에 어머니께 하직하고 영으로 돌아왔다. 심회가 몹시 산란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일(기사) 맑음. 일찍 나가 병기들을 검열했다. 이날은 나라 제삿날(國忌日)²이다. 부장(部將) 이계(李繼)가 비변사(備邊司)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3일(경오) 맑음. 새벽에 바다로 내려갔다. 아우 여필(汝弼)과 여러 조카들이 배 위에까지 따라왔다. 날이 밝아 배를 띄우며 서로 작별했다. 정오에 곡포(曲浦)(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바다에 이르니 동풍이 약간 불었다. 상주포(尙州浦)(이동면 상주리)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이 자므로 노를 재촉하여 자정에 사랑(蛇梁)(통영시 사랑면 양지리)에 닿아 거기서 잤다.

4일(신미) 맑음. 새벽 2시쯤에 첫 나발을 불고 날이 새어 배를 띄웠다. 이여념(李汝喆)이 와서 보므로 진중 소식을 물으니 모두 여전하다고 했다. 오후 3시쯤부터 가랑비가 보슬보슬 뿌리가 시작했다. 걸망포(乞望浦)(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이르니 경상 수사(권준(權俊))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우

1 사과(司果) :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에 둔 정육품의 군직(軍職). 현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문관, 무관 및 음관(蔭官)이 맡았다.

2 나라 제삿날 : 명종의 비,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의 제삿날.

후(虞候)(이몽구(李夢龜))는 먼저 배가 왔으나 취해서 인사불성이었다. 곧 자기의 배로 돌아갔다. 송한련(宋漢連) 등이 말하기를 청어 천여 두름을 잡아서 널었는데, 내가 간 동안 잡은 것이 모두 1천 8백여 두름이나 된다고 했다. 비가 몹시 퍼부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이 저물녘에 떠났는데 길이 질여 넘어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기효근(奇孝謹), 김축(金軸)이 말미 받아서 돌아갔다.

5일(임신) 종일 비, 비. 새벽에 우후(虞候)가 방답(防踏)(장린(張麟)), 사도(蛇渡)(김완(金浣)) 두 첨사와 함께 문안하러 왔기에 세수를 빨리 하고 밖으로 나가 그들을 불러 모아 그동안 지난 일을 물었다. 늦게 첨사 성운문(成允文)과 우우후(右虞候) 이정충(李廷忠), 웅천 현감(熊川縣監) 이운룡(李雲龍), 거제(巨濟) 현감 안위(安衛), 안골 만호(安骨萬戶) 우수(禹壽), 옥포(玉浦) 만호 이담(李曇)이 왔다가 캄캄해진 뒤에 돌아들 갔다. 이몽상(李夢象)도 권(權) 수사의 심부름으로 와서 문안하고 돌아갔다.

6일(계유) 비, 비. 오수(吳水)가 청어 1천 3백 10두름을, 박춘양(朴春陽)이 7백 87두름을 바쳤는데, 하천수(河千壽)가 받아다가 말리기로 했다. 황득중(黃得中)은 2백 2두름을 바쳤다. 종일 비가 내렸다. 사도(蛇渡)가 술을 가지고 와서 군량을 5백여 석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7일(갑술) 맑음. 이른 아침에 이영남(李英男)과 좋아지내는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권숙(權叔)이 덤벼들기 때문에 피해 왔는데,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말했다. 늦게 권 수사와 우후(虞候), 사도(蛇渡), 방답(防踏)이 오고 권숙(權叔)도 왔다. 오후 2시에 견내량(見乃梁)의 복병장(伏兵將)인 삼천포 권관(三千浦權管)이 급히 보고하되, “항복한 왜놈 5명이 애산(垓山)으로부터 나왔다” 하므로 안골포 만호(安骨浦萬戶) 우수(禹壽)와 공태원(孔太元)을 뽑아 보냈다. 날씨가 몹시 차고 하늬바람이 매웠다.

8일(을해) 맑음. 입춘(立春)인데도 날씨가 몹시 추워서 마치 한겨울과 같이 매웠

다. 아침에 우우후와 방답을 불러서 약식(藥食)을 같이 먹었다. 일찍이 항복한 왜인 5명이 들어왔다. 그 사연을 물으니, “저희 장수가 성질이 악하고 일도 너무 고되기 때문에 도망해 나와 항복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들이 가진 칼은 큰 것, 작은 것 다 거두어 다락 위에 간직했다. 실상은 부산(釜山)에 있는 왜적이 아니요, 가덕(加德) 심안둔(沈安屯)(도진전(島津殿)³의 음역)의 부하라고 했다.

9일(병자) 날이 음산하고 추워서 살을 에는 것 같았다. 오수(吳水)가 잡은 청어 3백 60두를 하천수(河千壽)가 실어갔다. 각 처의 공문을 처결해서 나눠 보냈다. 저물녘에 경상 수사가 와서 방에 대책을 토의했다. 서풍이 종일 불어서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

10일(정축)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었다. 이른 아침에 적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점쳤더니 “수레에 바퀴가 없는 것 같다(如車無輪)”는 괘가 나왔다. 다시 또 치니 “임금을 보고 모두들 기뻐하는 것 같다(如見君王皆喜)”는 괘가 나왔다. 좋은 괘였다. 식후 대청에 나갔더니 우우후와 어란(於蘭)(해남)이 보러 왔다. 사도(蛇渡)도 왔다. 세 위장(衛將)들을 시켜 체찰사(體察使)가 보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웅천(熊川), 곡포(曲浦), 삼천포(三千浦), 적량(赤梁)도 보러 왔다.

11일(무인) 맑음. 서풍이 밤새도록 크게 불었다. 겨울보다 훨씬 추웠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늦게 거제가 와서 수사의 옳지 못한 일을 자세히 말했다. 광양(光陽)(김성(金惺))이 왔다.

12일(기묘)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어 추위가 지독했다. 날이 거의 샅 무렵 꿈에 한곳에 이르러 영의정(領議政)(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이야기했다. 한동안 둘이 다 의관을 벗어 놓고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서로 나라 걱정을 털어놓다가 끝내는 억울한 사정까지 쏟아 놓았다. 이윽고 바람이 불고 비가 퍼붓는데도 흠어들지 않

3 도진전(島津殿) :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임진왜란 때 1만 5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고,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전라북도 남원성에서 80여 명의 조선 도공들을 납치했다.

고 그대로 조용히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만일 서쪽의 적이 급히 들어오고 남쪽의 적까지 들이닥치게 된다면 임금님이 어디로 가시라 하고 걱정만 되뇌니 더 할 말을 알지 못했다. 앞서 듣건대, 영의정이 천식증으로 몹시 편찮다고 하더니 나왔는지 모르겠다. 글자점을 던져 보았더니,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 같다(如風起浪)”는 괘가 나왔다. 또 오늘 중으로 길흉 간에 무슨 소식을 들을는지 하고 점을 쳐 보니,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다(如貧得寶)”는 괘가 나왔다. 이 괘는 참 좋다. 어제 저녁에 종 금(金)을 본영으로 보냈는데 바람이 심히 고약하니 염려된다. 늦게 나가서 각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낙안(樂安)이 들어왔다. 웅천 현감(熊川縣監)의 보고에 왜선 14척이 거제 금이포(金伊浦)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상 우수사더러 삼도의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가 보도록 했다.

13일(경진) 맑음. 아침에 경상 우수사가 와서 견내량(見乃梁)으로 나간다고 아뢰고 떠났다. 늦게 대청에 나가서 서류를 처결해서 보냈다. 체찰사(體察使)에게 올리는 서류를 내보냈다. 성균관(成均館)을 다시 차려 놓는다는 선비들의 통문을 가지고 왔던 성균관의 종이 하직을 고했다. 이날 바람이 자고 날씨가 따뜻했다. 이날 저녁 달빛은 대낮 같고 바람조차 없는데 홀로 앉았으니 심회가 산란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신흥수(申弘壽)를 불러 통소를 듣다가 밤 10시쯤에 잠들었다.

14일(신사)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더니 늦게는 바람이 자고 날씨도 따뜻한 것 같았다. 흥양(興陽)(최희량(最希亮))이 들어왔다. 정사립(鄭思立)과 김대복(金大福)도 들어왔다. 조기(趙琦), 김숙(金淑)도 같이 왔다. 그편에 연안(延安)에 있는 옥(玉)의 외조모가 작고한 기별을 들었다.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15일(임오) 맑고 따뜻했다. 날이 썰 무렵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아침에 낙안(樂安)(선의문(宣義間)), 흥양(興陽)을 불러 식사를 같이 했다. 늦게 대청에 나가서 서류를 처결한 다음 투항한 왜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먹였다. 낙안과 흥양의 전선(戰船)과 병기와 부속물 및 사부(射夫), 격군(格軍)들을 점검하니 낙안이 아주 영성했다고 한다. 이날 저녁 달빛이 한결 더 맑았다. 풍년이 들 징조라고 했다.

16일(계미) 맑고 서리가 눈처럼 왔다. 늦게 나갔다. 경상 수사와 우우후 등이 보러 오고 웅천도 와서 취해서 돌아갔다.

17일(갑신) 맑음. 아침에 방답 첨사(防踏僉使)[장린(張麟)]가 말미를 받아 변존서(卞存緒), 이분(李芬)(조카), 김숙(金倬) 등과 같은 배로 나갔다. 심희가 편안하지 아니했다. 낮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후(이몽구)를 불러 활을 쓰는데, 성운문(成允文)과 변익성(邊翼星)이 와서 함께 활을 쓰고 돌아갔다. 어두울 녘에 강대수(姜大壽) 등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종 금(金)이 16일에 본영에 도착했다”고 하고, “종 경(京)이는 돌아온다”고 하며, “아들 회(薈)는 오늘 은진(恩津)으로 떠난다”고 했다.

18일(을유) 아침부터 종일토록 군복을 마름했다. 늦게 곤양(昆陽)(이수일(李守一))과 사천(泗川)(기직남(奇直男))이 왔다가 취해 가지고 갔다. 동래 현령(東萊縣令)[정광좌(鄭光佐)]이 급히 보고하되, “왜놈들이 많이 반역하는 눈치가 뵈고 또 심 유격(沈遊擊)(심유경(沈惟敬))이 소서행장(小西行長)과 함께 정월 16일에 먼저 일본으로 갔다”고 했다.

19일(병술) 맑고 파스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蛇渡)가 여도(呂島)와 함께 왔고, 우후(虞候)와 곤양(昆陽)도 왔다. 경상 수사(慶尙水使)도 와 우우후(右虞候)를 불러 왔는데, 곤양(昆陽)이 술을 차려다 바치므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부산(釜山)에서 빠져 나온 4명이 전하기를, “심유경(沈惟敬)이 소서행장(小西行長), 현소(玄蘇), 사택정성(寺澤正成), 소서비(小西飛)와 함께 이달 16일 새벽 바다를 건너갔다” 하기에 양식 3말을 주어 보냈다. 이날 저녁 박자방(朴自邦)이 서(徐) 순찰사가 진중에 온다는 말로 여러 가지의 물건을 가지러 본영(本營)(여수)으로 갔다. 이날 메주를 쫘다.

20일(정해) 종일 비, 비. 기운이 피곤하여 낮잠 반 시간을 잤다. 오후 1시쯤에 메주

4 심유경(沈惟敬) : 명나라 사람으로, 강화(講和)를 표방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내왕했다.

만드는 것을 끝내서 온돌에 넣었다. 낙안(선의문(宣義間))이 와서 “둔전(屯田)에서 추수한 벼를 실어왔다”고 했다.

21일(무자) 맑음. 아침에 나가서 체찰사에게 보내는 순천(順天) 관계의 서류를 작성했다. 식후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성윤문(成允文))와 흥양(興陽)(최희량(崔希亮))이 보러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미조항은 말미를 청했다. 늦게 대청에 나가니 사도, 여도, 사천, 광양, 곡포가 보고 갔고 곤양도 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22일(기축) 맑음. 아주 추웠고 바람조차 몹시 거칠었다. 종일 나가지 않았다. 늦게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권 수사의 경솔한 짓을 전했다. 이날 밤 바람이 차고 매우므로 아이들이 들어오기에 고생스러울 것이 걱정됐다.

23일(경인) 맑음. 바람이 잦다. 작은 형님의 제삿날이 되어서 나가지 않았다. 심사가 몹시 어지러웠다. 아침에 옷 없는 군사 17명에게 옷을 주었다. 한 벌씩 더 주었다. 종일 바람이 험했다. 저녁에 가덕(加德)에서 나온 김인복(金仁福)이 와서 현신 하므로 적의 정세를 물어 보았다. 밤 10시에 면(麵)과 완(莞), 그리고 최대성(崔大成), 신여운(申汝潤), 박자방(朴自邦)이 본영으로부터 왔다. 어머니가 편안하시다는 편지를 받으니 기쁘기 한이 없다. 종 경(京)이 오고, 종 금이가 애수(愛壽) 및 금곡(金谷) 사는 종 한성(漢城), 공돌(孔石)) 등을 데리고 같이 왔다. 밤 자정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눈이 두 치나 내렸다. 근년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날 밤 몸이 몹시 불편했다.

24일(신묘) 맑으나 북풍이 크게 일고 눈보라가 치면서 모래까지 날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었고 배도 움직일 수 없었다. 새벽에 견내량 북병이 보고하되, “어제 왜놈 1명이 북병한 곳에 와서 항복하며 들어오기를 청한다” 하므로 보내라고 회답했다. 늦게 좌우 우후와 사도가 보러 왔다.

25일(임진) 맑음.

26일(계사) 맑았으나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나가서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27일(갑오) 맑고 온화했다. 아침 후 나가서 장흥(長興)(배흥립(裵興立))의 죄를 심의하고 홍양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늦게 경상 우도 순찰사(서성(徐省))가 들어왔기에 오후 4시쯤에 우수사 진으로 가서 만나 보고 자정애야 돌아왔다. 사도(蛇渡)의 진무(鎭撫)가 화약을 훔치다가 붙들렸다.

28일(을미) 맑음. 늦게 나갔다. 정오에 순찰사가 와서 활도 쏘고 이야기도 했다. 순찰사가 나와 활쏘기를 겨루다가 7푼을 지고 섭섭한 기색이 없지 않았다. 우스웠다. 군관 세 사람 모두 졌다. 밤이 된 후 취해서 돌아갔다.

29일(병신) 종일 비. 비. 아침밥을 먹고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오후에 활을 쏘아 순찰사가 또 9푼으로 졌다. 김대복(金大福) 혼자서 활을 쏘고 젖대를 듣다가 자정애야 헤어져 진으로 돌아왔다. 어두울 무렵에 화약을 훔친 사도(蛇渡) 사람이 도망갔다.

30일(정유) 비. 늦게 갔다. 나가서 군관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천성만호(天城萬戶)(윤홍년(尹弘年)), 여도(呂島)(김인영(金仁英)), 적량(赤梁)(고여우(高汝友)) 등이 와 보고 갔다. 이날 저녁때 청주(淸州) 이희남(李喜男)의 종 4명과 준복(俊福)이 들어왔다.

2월

1일(무술) 아침에 흐렸다가 늦게 맑아졌다. 여러 장수들과 활을 쏘았다. 권숙(權叔)이 왔다가 취해서 갔다.

2일(기해) 맑고 따스했다. 울(蔚)(아들)이 조기(趙琦)와 같은 배로 나갔다. 우후(虞候)도 갔다. 저녁에 사도(蛇渡)가 와서 “어사의 장계로 파견되었다”고 말하므로 곧 장계 초안을 작성했다.

3일(경자)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홀로 앉아서 아들이 떠나간 것을 생각하고 심회가 편치 않았다. 아침에 장계를 수정했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었다. 그편에 적량 만호(赤梁萬戶) 고여우(高汝友)가 장담년(張聃年)에게 소송을 당한 관계로 순찰사가 장계를 올려 파면하러 한다는 글을 보았다. 어두울 녀에 어란 만호(於蘭萬戶)가 견내량(見乃梁) 복병한 곳으로부터 와서 아뢰되, “부산 왜놈 3명이 성주에서 항복한 사람을 거느리고 복병한 곳에 와서 장사하겠다고 한다” 하므로 곧 장흥 부사(長興府使)(배흥립(裴興立))에게 전령하여 “내일 새벽으로 가서 타일러 쫓으라고 하였다. 이놈들이 어찌 물건을 사려고 온 것이라.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보려 함일 것이다.

4일(신축) 맑음. 아침에 사도(蛇渡) 사람 진무성(陳武晟)에게 장계를 주어 보냈는데, 그편에 영의정(유성룡(柳成龍))과 신식(申湜) 두 집에 가는 문안 편지도 함께 부쳤다. 늦게 흥양(興陽)(최희량(崔希亮))이 와 보고 갔다. 오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여도(呂島), 거제(巨濟), 당포(唐浦)(안이명(安以命)), 옥포(玉浦)(이담(李曇))도 왔다가 갔다. 저녁나절 장흥이 복병한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왜놈들이 도로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5일(임인)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갓다. 사도, 장흥이 일찍 왔기에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식후에 권숙이 와서 돌아간다 하므로 종이, 떡 2개, 그리고 패도(佩刀)를 주어 보냈다. 늦게 삼도(三道)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위로하는 음식을 먹이고 겸하여 활도 쏘고 풍악도 잡혀 모두 취해 가지고 흩어졌다. 웅천(熊川)(이운룡(李雲龍))이 손인갑(孫仁甲)과 종아지내던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가야금을 두어 곡조 들었다. 저녁나절에 김이실(金已實)이 순천에서 돌아왔는데 그편에 어머님이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하다. 우수사의 편지가 왔는데 군사에 대한 기일을 물리자는 것이다. 우습기도 하고 한심스러웠다.

6일(계묘) 흐림. 새벽에 목수 10명을 거제로 보내어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게 했다. 침방에 천장 흙이 떨어진 곳이 많아 수리하도록 했다. 사도 침사(蛇渡僉使) 김

완(金浣)이 조도어사(調度御使)의 장계로 인해서 파면되었다는 기별이 와서 본포(골사도)로 내보냈다. 순천 별감(別監) 유(俞)와 군관 장응진(張應軫) 등을 처벌하고 나서 곧 다락으로 들어갔다. 송한련(宋漢連)이 송어를 잡아 가지고 왔기에 여도, 낙안, 홍양을 불러서 같이 먹었다. 적량(赤梁) 고여우(高汝友)가 큰 매를 가지고 왔으나 오른쪽 발가락이 모두 얼어서 무질어졌으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초저녁께 잠시 땀을 냈다.

7일(갑진) 아침에 날이 흐리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심기가 불편했다. 늦게 나가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풀어 먹였다. 장흥, 우후, 낙안, 홍양을 불러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8일(을사) 맑음. 이른 아침에 녹도 만호(鹿島萬戶)(송여종(宋汝棕))가 보러 왔다. 아침에 벗나무 껍질을 벗겼다. 늦게 손인갑(孫仁甲)과 좋아지내던 여인이 들어왔다. 한동안 지난 후 오철(吳轍), 현응원(玄應元)을 불러들여 군사에 대한 일을 물어 보았다. 저녁때 군량에 대한 장부를 만들고 홍양 둔전에서 추수한 벼 3백 52석을 받아들였다. 서풍이 크게 불어서 배를 띄울 수 없었다. 유향(柳暻)을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떠나지 못했다.

9일(병오) 맑음. 서풍이 크게 불어서 배가 다니지 못했다. 늦게 권(權)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나절에는 바람이 그쳤다. 견내량과 부산에 있는 왜선 2척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서 웅천과 우후를 정찰하러 보냈다.

10일(정미) 날이 맑고 온화했다. 이날 일찍이 박춘양(朴春陽)이 대나무를 싣고 왔다. 늦게 나가서 태구생(太仇生)을 처벌했다. 저녁에는 창고를 지을 장소를 친히 가서 보았다. 아침에 웅천과 우우후가 견내량으로부터 돌아와서 왜인들이 겁내어 떠는 꼴을 이야기했다. 해질 무렵에 창녕(昌寧) 사람이 술을 가져와 마쳐 밤이 깊도록 마시다가 헤어졌다.

11일(무신) 맑음. 체찰사에게 가는 공문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 보성(寶城)에서 군

량 대는 일을 맡은 임찬(林贊)이 소금 50섬을 실어 갔다. 임달영(任達英)이 제주(濟州)(이경록(李景祿))에서 돌아왔는데 제주의 편지와 박종백(朴宗伯)과 김응수(金應綏)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늦게 장흥과 우우후가 왔기에 또 낙안과 홍양을 불러서 활을 쏘았다. 날이 막 어두워질 무렵에 영등(永登)(조계종(趙繼宗))이 그 소실을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와서 마시기를 권했다. 조꼬맹이[小者, 어떤 인물의 별명인 듯]도 함께 왔다가 떨어뜨리고 갔다. 땀을 흘렸다.

12일(기유) 맑음. 일찍이 창녕 사람이 웅천 별장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살대 50개를 경상 수사에게 보냈다. 늦게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때 활을 쏘았는데 장흥과 홍양도 같이 쏘다가 해진 뒤에 헤어졌다. 조꼬맹이가 밤들기 전에 돌아갔다.

13일(경술) 맑음. 식후에 나가서 기한을 여겨 늦게 온 강진(康津)(이극신(李克新))의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加里浦)(이응표(李應彪))는 보고를 내고 늦게 왔으므로 타일러 내보냈다. 영암 군수(靈岩郡守)(박홍장(朴弘章))을 파면할 장계를 기초했다. 저녁때 어란(於蘭)이 돌아가고 임달영(任達英)도 돌아갔다. 제주 목사에게 청어, 대구, 화살대, 건시(乾柿), 삼색 부채 등을 보냈다.

14일(신해) 맑음. 늦게 나가서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동복(同福)에서 원호 사무를 맡은 김덕린(金德麟)이 보러 왔다. 경상 수사가 썩떡과 초 한 쌍을 보내왔다. 낙안과 녹도 등을 불러서 떡을 먹였다. 새 공간에 지붕을 이었다. 얼마 뒤 강진(康津)(이극신(李克新))이 보러 왔기에 위로하고 술을 주었다. 저녁에 물을 부엌으로 끌어들여 물 길는 수고를 덜게 했다. 이날 밤 바다 위에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물결은 비단결 같은데, 혼자서 높은 다락 위에 기대었노라니 심사가 몹시 어지러워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홍양 유사(興陽有司) 송상문(宋象文)이 와서 쌀과 벼를 합해 7섬을 바쳤다.

15일(임자)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리려다 비가 보슬거려 마당이 젖었기 때문

에 거행하지 못했다. 어두울 무렵에 들으니 우도(右道)(전라우도)에 항복한 왜인이 경상도의 왜인과 짜고서 도망할 계획을 꾸민다 하므로 전령을 놓아 통지했다. 아침에 화살대를 골라내어 큰 살대 1백 11개와 그 다음 치 1백 54개를 옥지(玉只)에게 내어 주었다.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나갔더니 웅천, 거제, 당포, 옥포, 우우후(이정충(李廷忠)),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 등이 보러 왔다. 순천 둔전에서 추수한 벼를 내가 직접 보는 데서 받아들이게 했다. 동복(同福)의 군량을 대는 유사(有司) 김덕린(金德麟), 홍양의 송상문(宋象文) 등이 돌아갔다. 저녁때 사슴 1마리에 노루 2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왔다. 이날 밤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밝고 비단결 같아서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랫사람은 밤새도록 술이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

16일(계축) 맑음. 아침에 장계 초안을 수정하고 늦게 나갔다. 장흥 부사, 우우후, 가리포가 와서 함께 활을 쏘았다. 요전번 진 군관들 편에서 한턱을 내어서 모두 술이 몹시 취해 가지고 흠어져다. 이날 밤에 너무 취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밤을 밝혔다. 봄철의 피곤한 기운이 벌써 이렇구나.

17일(갑인) 흐림. 나라 제삿날⁵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식후에 면(麵)이 본영으로 가고 박춘양(朴春陽)과 오수(吳水)는 조기 잡는 곳으로 갔다. 어제 취한 때문에 심기가 몹시 편안치 못했다. 저녁때 홍양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미조항(彌助項) 성윤문(成允文)의 문안편지가 왔는데, “방금 감사(監司)의 공문서를 받고 곧 진성(진주)으로 가게 되어 인사 가지 못한다” 하고, “그 후임으로는 황언실(黃彦實)이 되었다”고 했다. 웅천의 답장도 왔다. 임금이 내린 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어둠 무렵에 서풍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들이 떠나간 것을 생각하니 걱정스럽다. 답답함을 어찌 다 말하랴. 봄기운이 사람을 괴롭혀 몹시 노곤했다.

18일(을묘) 맑음. 식후에 나갔다. 서풍이 크게 불었다. 체찰사의 비밀 공문 3통이

5 나라 제삿날 : 세종대왕의 제삿날.

왔는데, 하나는 제주목(濟州牧)에서 계속 후원해 오는 일에 관한 것이요, 하나는 영등 만호(永登萬戶) 조계종(趙繼宗)을 심문하는 데 관한 것이요, 또 하나는 진도(珍島) 전선(戰船)을 아직은 독촉하여 모으지 말라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저녁에 김국(金國)이 서울서 내려왔는데, 비밀 공문 2통과 책력 1권을 가지고 오고 기별지도 가지고 왔다. 황득중(黃得中)이 철물을 실어다 바쳤다. 절(節)이 술을 가지고 왔다. 땀이 온 몸에 흠뻑 배었다.

19일(병진)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아들 면(勉)이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몰라서 밤새도록 궁금했다. 이날 저녁에 들으니 군량을 싣고 오던 낙안(樂安) 배가 바람에 막혀 사량(蛇梁)에 대었는데, 바람이 자야 떠나오리라고 한다. 이날 새벽 경상도 진에 있는 항복한 왜인들을 이곳에 있는 왜인 난여문(亂汝文) 등을 시켜 붙잡아다가 목을 자르게 했다. 권 수사가 왔다. 장흥, 웅천, 낙양, 홍양, 우우후, 사천 등과 함께 부안(扶安)에서 온 술을 마셨다. 황득중이 가져온 총통 만들 쇠를 모두 저울로 달아서 보관케 했다.

20일(정사) 맑음. 이른 아침, 조계종이 현풍(玄風) 수군 손풍련(孫風連)에게 소송을 당한 결과 마주 대변하고 공술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가 갔다. 늦게 나가 서류를 처결해서 나누어 보냈다. 입대(入隊)에 관한 공문을 사사로이 만든 죄로 손만세(孫萬世)를 처벌했다. 오후에 활을 7순 쏘았는데 낙안, 녹도가 와서 같이 쏘았다. 비가 오려는 날씨였다. 새벽에 기운이 노곤했다.

21일(무오) 흐리고 새벽에 비가 보슬거리다 늦게 그쳤다. 나가지 않고 혼자 들어앉아 있었다.

22일(기미) 맑고 바람도 없었다. 아침밥을 일찍이 먹고 나가니 웅천과 홍양이 보러 왔다가 홍양은 심기가 좋지 않다고 먼저 돌아갔다. 우우후, 장흥, 낙안, 남도포(南桃浦), 가리포, 여도(김인영), 녹도(송여중) 등이 와서 활을 쏘기에 나도 쏘았다. 손현평(孫絃平)도 왔다. 몹시 취해 가지고 헤어졌다. 이날 밤에 땀을 흘렸다. 봄기

운이 사람을 노곤케 했다. 강소작지(姜所作只)가 그물을 가지러 본영으로 갔다. 충청 수사⁶가 화살감 대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23일(경신) 맑음. 일찍이 아침밥을 먹고 나가서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다시 작석하여 새로 지은 창고에 쌓은 것이 1백 67섬으로, 줄어든 것이 48섬이다. 늦게 거제, 고성, 하동, 강진, 회령포(會寧浦) 등이 와서 고성에서 가지고 온 술을 같이 마셨다. 웅천이 저녁에 와서 몹시 취했다. 밤 10시쯤 파하고 돌아갔다. 하천수(河千壽), 이진(李璉) 등이 왔다. 방답(防踏)이 들어왔다.

24일(신유) 맑음. 식후에 나가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고쳐 작석하는 것을 감독했다. 우수사(권준(權俊))가 들어왔다. 오후 4시에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둔전서 받아들인 벼를 다시 작석한 결과, 창고에 들어 쌓은 것이 1백 70여 섬으로, 줄어든 것이 30여 섬이다. 낙안(선의문(宣義門))이 갈렸다는 기별이 왔다. 방답, 홍양이 왔다. 본영으로 배를 내보내려다가 비바람으로 인해서 중지했다. 밤새도록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몸이 노곤했다.

25일(임술) 비가 주룩 내리다가 낮에 갠다.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우수사(이억기(李億祺))가 오고, 나주 판관(羅州判官)(원종 의(元宗義))도 왔다. 장흥 부사(배흥립(裴興立))가 와서 수군에 관한 사무를 진행하기 곤란한 것은 감사의 처사가 방해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진이 둔전으로 돌아갔다. 춘절(春節), 복춘(福春), 사화(土花)가 본영을 돌아갔다.

26일(계해) 아침에는 맑더니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늦게 대청에 나갔다. 여도와 홍양이 와서 백성을 침해하는 영리(營吏)들의 폐단을 이야기했다.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양정언(梁廷彦)과 영리(營吏)의 강기경(姜起敬), 이득중(李得宗), 박취(朴就) 등을 중죄로 다스리는 동시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영리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이응고 견내량(見乃梁) 복병에게 긴급 보고가 왔는데,

6 이때의 충청 수사는 전날 웅천의 이운룡(李雲龍)이고, 새로운 웅천 현감은 김충민(金忠敏)이다.

“왜선 1척이 견내량으로부터 와서 해평장(海坪場)에까지 이른 것을 머물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 2백 30여 섬을 다시 작성한 수가 1백 98섬이다. 줄어든 것이 32섬이라고 한다. 낙안에게 작별 술을 대접해 보냈다.

27일(갑자) 흐리다가 늦게 갼다. 이날 녹도 만호(송여종(宋汝宗))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홍양(최희량(崔希亮))이 말미를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 2백 20여 섬을 고쳐 작성한 결과, 줄어든 것이 여러 섬이었다.

28일(을축) 맑음. 이른 아침에 침을 맞았다. 늦게 나갔더니 장흥과 체찰사의 군관이 왔다. 장흥은 체찰사의 종사관(從事官)이 발행한 군령을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일 때문에 왔다고 한다. 또 전라도 수군 중 우도의 수군만은 좌도와 우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와 진도를 성원하라는 명령도 있다고 한다. 참 어이없다. 조정(朝廷)의 지도가 이럴 수 있는가. 체찰사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의미할 수 있는가. 국가의 일이 이렇고 보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저녁에 거제를 불러다가 일을 물어보고 돌려보냈다.

29일(병인) 맑음. 아침에 서류 초안을 수정했다. 식후에 나갔더니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장흥과 관찰사의 군관을 데리고 왔다. 경상우도 순찰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30일(정묘) 맑음. 아침에 정사립(鄭思立)으로 하여금 보고문을 쓰게 하여 체찰사에게 보냈다. 장흥이 체찰사에게 갔다. 해가 느직해서 우수사(이억기(李億祺))가 고하기를 “이제 바람도 온화해졌으니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제때에 경계해야 할 것이라, 자기 부하를 시급히 거느리고 본도(전라 우도)를 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가짐이 극히 해괴스러워서 그의 군관과 도훈도(都訓導)를 붙잡아다가 곤장 70대를 때렸다. 수사가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견내량에서 복병하고 있기가 마음에 싫으니까 하는 짓으로서 우스운 일이 많았다. 저녁에 송희립(宋希立), 노윤발(盧潤發), 이원룡(李元龍) 등이 들어왔다. 희립은 술까지 가지고 왔다. 심기가 몹시

좋지 못하여 밤새도록 허한을 흘렸다.

3월

1일(무진) 맑음.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아침에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늦게 해남 현감(海南縣監) 유형(柳珩)과 임치 첨사(臨淄僉使) 홍견(洪堅), 목포 만호 방수경(方守慶) 등을 기일을 어긴 죄로 처벌했다. 해남은 새로 부임한 까닭에 매를 때리지 않았다.

2일(기사) 맑음. 아침에 장계 초본을 수정했다. 보성(寶城)[안홍국(安弘國)]이 들어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기운을 차릴 수 없고 땀이 흐르니 이것이 병의 시초인 것이다.

3일(경오) 맑음. 새벽에 이원룡(李元龍)이 본영으로 돌아갔고, 늦게 반관해(潘觀海)가 왔다. 정사립(鄭思立) 등을 시켜 장계를 쓰게 했다. 이날은 명절이라 방답(防踏), 여도(呂島), 녹도(鹿島)와 남도 만호(南桃萬戶) 등을 불러 술과 떡을 먹였다. 일찍이 송희립을 우수사에게 보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더니 공손하게 대답하더라고 한다. 땀에 젖었다.

4일(신미) 맑음. 아침에 장계를 봉(封)했다. 늦게 보성 군수 안홍국을 제 기일에 대어 오지 못한 죄로 처벌했다. 낮에 배를 띄워 바로 소근두(所斤頭)를 거쳐서 경상 우수사에게로 가서 그를 불렀다. 경상 좌수사 이운룡(李雲龍)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좌리도(佐里島) 바다 가운데서 같이 잤다. 땀이 무시로 흘렸다.

5일(임신) 맑다가 구름이 끼었다. 새벽 4시쯤에 배를 띄워, 환하게 밝은 뒤 우수사가 복병하고 있는 견내량으로 가니 마침 아침때였다. 식후에 우수사를 만나서 다시 잘못된 것을 말하니 우수사(이억기(李億祺))는 모든 것을 사과했다. 나중에 술을 내어서 잔뜩 취해 돌아오다가 이정충(李廷忠)의 장막 아래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또 술을 마셨다. 큰비가 쏟아지는 통에 나만

먼저 배로 돌아왔다. 우수사는 취해 쓰러져 정신을 못 차리므로 작별도 못하고 왔다. 우수웠다. 배에 돌아오니 회(薺), 해(薺), 울(蔚)과 수원(壽元)이 모두들 와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진중으로 돌아온즉, 김훈(金渾)이 와 있었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정야야 잤다. 계집중 덕금(德今), 한대(漢代), 효대(孝代)와 은진(恩津)에 있는 계집중도 왔다.

6일(계유) 흐렸으나 비는 안 왔다. 새벽에 한대(漢代)를 불러서 사건의 내용을 물어 보았다. 아침에 기분이 좋지 못했다. 식후에 하동(신진), 고성(조응도)이 돌아갔다. 늦게 함평(손경지), 해남(유형)이 하직을 고하고 남도포(南桃浦)(강응표(姜應彪))도 하직을 고했는데, 기일을 5월 10일로 정했다. 우우후와 강진에게 8일을 지난 뒤에 나가도록 일렀다. 함평, 남해(박대남(朴大男)), 다경포(多慶浦)(윤승남(尹承男)) 만호 등이 칼을 연습했다. 땀이 계속 흘렀다. 사슴 3마리를 사냥해 왔다.

7일(갑술) 맑음. 새벽에 땀이 흘렀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가리포, 방답, 여도가 보고 갔다. 머리를 꽤 오래 빗었다. 녹도가 노루 2마리를 잡아 왔다.

8일(을해) 맑음. 아침에 안골포(安骨浦)(우수(禹壽)) 만호와 가리포(加里浦)(이응표(李應彪))가 각각 큰 사슴 1마리씩을 보내왔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 경상 수사, 좌수사, 가리포, 방답, 평산포, 여도, 우우후, 경상 우후, 강진 등이 와서 같이 종일 취했다가 헤어졌다. 저녁에 잠시 비가 내렸다.

9일(병자) 아침에 맑았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아침에 우우후와 강진이 돌아간다고 하기에 술을 먹었더니 잔뜩 취하여 우후는 돌아가지 못했다. 저녁에 좌수사가 왔기에 작별 술잔을 나누었더니 취하여 대청에서 잤다. 개(介)(어떤 사람의 이름인 듯)와 같이 잤다.

10일(정축) 비, 비. 아침에 좌수사를 청해 와서 이별 잔을 나누며 전송했더니 종일 크게 취하여 나가지 못했다. 무시로 땀이 났다.

11일(무인) 흐림. 해(薙), 회(薈), 완(莞) 및 수원(壽元)이 계집종 세 사람을 데리고 떠났다. 이날 저녁 방답 침사(장린(張麟))가 성내지 아니할 일에 성을 내어 지휘선의 급수군에게 곤장을 때린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방답의 군관과 이방(吏房)을 잡아들여 매를 때렸다. 군관은 20대, 이방은 50대. 늦게 갈려 가는 권천성(權天城)이 하직을 고했다. 새로 오는 천성은 체찰사 공문에 의해서 병사에게 체포되어 있는 중이다. 나주 판관(羅州判官)이 왔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12일(기묘) 맑음. 아침 식사 후 노곤하여 잠깐 잠을 잤다. 경상 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여도, 금갑도(金甲島)(이정표(李廷彪)), 나주 판관이 왔는데, 군관들이 술을 내놓았다. 저녁에 소국진(蘇國秦)이 체찰사에게서 돌아왔는데, 그 회답에는 우도 수군을 본도로 보내라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우스웠다. 또한 들으니 원흥(元興)(원균(元均))은 곤장 40대를 맞고 장흥은 20대를 맞았다고 한다.

13일(경진) 종일토록 비, 비. 저녁녘에 도착한 견내량 복병이 급히 알려 오기를, “왜선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므로 여도 만호와 금갑도 만호를 뽑아 보냈다.

14일(신사) 굵은비가 개지 않았다. 새벽에 삼도의 보고가 왔는데, “견내량 근처에 거제 땅 세포(細浦)(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왜선 5척과 고성 땅에 5척이 와서 상륙했다”고 하므로 삼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5척을 더 뽑아 보내도록 명령했다. 늦게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아침나절 군량에 관한 회계를 맞추어 보았다. 방답과 녹도가 보고 갔다. 체찰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서류로 꾸몄다. 춘곤이 심해서 밤새도록 땀을 흘렸다.

15일(임오) 맑음. 새벽에 망궤례를 드렸다. 가리포, 방답, 녹도가 와서 참례하고, 우수사와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취해 갔는데, 그때 아랫방에서 덕(德)과 무엇을 수군거렸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 바다 달이 어슴푸레 밝았다. 피곤기가 심해서 밤새도록 허한(虛汗)이 흘렸다. 자정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낮에 곤해서 머리를 빗었다. 땀이 무시로 흘렸다.

16일(계미) 비가 퍼붓듯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오전 7시쯤에 동남풍이 몹시 불어 지붕이 견힌 데가 많았고 창문 종이가 떨어져 비가 방 안으로 뿌려 드니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오정 때에야 바람이 그쳤다. 저녁나절 군관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였다. 자정에야 비가 잠깐 그쳤다. 어제같이 땀을 흘렸다.

17일(갑신) 종일 가랑비가 오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늦게 나주 판관이 왔기에 술을 취하도록 먹여 보냈다. 어두울 녘에 박자방(朴自邦)이 들어왔다. 이날 밤에 허한이 등을 적시고 옷도 두 겹이 다 젖고 이부자리도 젖었다. 심기가 좋지 않았다.

18일(을유) 맑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고 일기가 몹시 차가웠다. 늦게 나가서 소지(所志) 들어온 것들을 처결했다. 방답, 금갑, 회령포(會寧浦)(민정봉(閔廷鵬)), 옥포(玉浦)(이담(李曇)) 등이 보러 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이날 밤에 바다 달은 어슴푸레 비치고 밤기운이 몹시 추운데 자려야 잠이 오지 않고 앉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못했다. 몸이 좋지 않았다.

19일(병술)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고 일기가 매우 차가웠다. 아침에 새로 만든 가야금에 줄을 매었다. 늦게 보성이 못자리판을 검사할 일로 말미를 받았다. 김혼(金渾)도 같은 배로 나갔다. 종 경(京)도 같이 갔다. 정량(丁良)이 불일이 있어 나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가리포, 나주 판관이 보러 왔기에 술을 취하도록 먹여 보냈다. 어두운 후부터 풍세가 몹시 사나웠다.

20일(정해) 바람이 험하고 비가 죽죽 내려 온종일 나가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바람막이를 2개 만들어 달았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옷과 이불이 땀에 젖었다.

21일(무자) 종일 큰비가 쏟아졌다. 초저녁에 토사곽란(吐瀉癘亂)을 만나 한 시간이 나 고통스럽다가 자정에 조금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몸을 뒤척거리며 공연한 고생을 하는 듯 생각하니 한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날 너무나 심심해서 군관 송

희립(宋希立), 김대복(金大福), 오철(吳轍) 등을 불러다가 종정도(從政圖)로 놀았다. 바람막이 3개를 만들어 달았는데 이연량(李彦良)과 김응겸(金應謙)이 만드는 것을 감독했다. 자정에야 비가 그치고, 오전 2시쯤에 이지러진 달이 비치었다. 방 밖에 나가서 거니는데 몸이 몹시 피곤했다.

22일(기축) 맑음. 아침에 종 금(今)이를 시켜서 머리를 빗졌다. 늦게 우수사(이억기)와 정상 수사(권준)가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들으니 작은 고래가 죽어서 섬으로 떠 왔다 하므로 박자방(朴自邦)을 보냈다. 이날 저녁에 무시로 땀이 났다.

23일(경인) 새벽에 정사립(鄭思立)이 와서 물고기로 기름을 많이 짜서 가져왔다고 했다. 오전 4시쯤 몸이 편치 않아 금(今)이를 불러 머리를 급게 했다. 늦게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하고 활 10순을 쏘았다. 조방장(助防將) 김완(金浣)이 들어왔다. 충청도 수군의 배 8척도 들어왔다. 우후도 왔다. 종 금(今)이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님이 안녕하시다고 했다. 밤 9시 지나 영등(永登)(조계종(趙繼宗))이 그의 딸을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왔다고 하나 나는 보지 않았다. 11시 지나 돌아갔다. 이날 처음으로 미역을 떼다. 자정에야 잤는데, 땀에 옷이 흠뻑 젖어서 갈아입고 잤다.

24일(신묘) 맑음. 새벽에 미역을 따러 나갔다. 현 활집은 베로 만든 옷이 8개, 무명으로 만든 것이 2개였는데, 그중의 활집 하나를 고쳐 만들려고 감을 내 주었다. 아침 식사 후 나가서 마량(馬梁) 침사 김응항(金應璜), 파지도(波知島)(송세응(宋世應)), 결성(結城) 현감 손안국(孫安國) 등을 처벌했다. 늦게 우후가 가져 온 술을 방답, 평산포, 여포, 녹도, 목포와 함께 마셨다. 나주 판관 어운급(魚雲汲)은 4월 15일까지 기한을 정하고 말미를 주어서 내보냈다. 어두울 녀에 심히 피곤하고 무시로 땀이 흐르니, 비가 올 징조였다.

25일(임진)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종일 퍼부어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다락에 기대어 저녁나절을 보냈는데 심회가 언짢았다. 머리를 꽤 오랫동안 빗었다. 낮

에는 땀이 옷에만 배더니 밤에는 옷 두 겹이 젖고 다시 방바닥에까지 흘렀다.

26일(계사) 날이 맑고 서풍이 불었다. 늦게 나갔더니 조방장과 방답, 녹도가 와서 활을 쏘고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체찰사의 명령이 왔는데, 전일 우도(전라 우도)의 수군을 돌려보내라고 한 것은 회계(回啓)를 잘못 본 까닭이라는 것이었다. 우스웠다.

27일(갑오) 날이 맑고 남풍이 불었다. 늦게 나가서 활을 쏘았다. 우후와 방답도 오고, 충청 우후, 마량 첨사, 임치(臨淄) 첨사, 결성(結城) 현감, 파지도 권관(波知島權管) 등이 모두 왔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저녁때 신 사과(愼司果)와 여필(汝弼)이란 배로 들어와서 어머니가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하기 이를 길 없었다.

28일(을미) 굿은비가 종일 개지 않았다. 나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나누어 보냈다. 충청도 여러 배의 사람들을 시켜 다시금 방비를 갖추게 하였다.

29일(병신) 굿은비가 개지 않았다. 늦게 부찰사(副察使)(한효순(韓孝純))가 성주(星州)로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통지가 왔다.

4월

1일(정유) 큰비가 내렸다. 신 사과(愼司果)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종일토록 비가 왔다.

2일(무술) 늦게 날이 개었다. 저물녘에 경상 수사가 부찰사를 마중하러 나갔는데, 신 사과도 같은 배로 갔다. 이날 밤에 몸이 몹시 좋지 못했다.

3일(기해) 맑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었다. 어제 저녁 견내량에 있는 북병의 긴급 보고에, “왜놈 4명이 부산(釜山)으로부터 장사하러 나갔다가 바람에 불려 표류되었다” 하므로 새벽에 녹도 만호 송여중(宋汝宗)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어보게 했던

바, 그 내용을 탐사해 본즉, 정탐하러 왔던 것이 명확하므로 목을 베어 죽였다. 우수사에게 가보려다 몸이 불편하여 못 갔다.

4일(경자) 흐림. 아침에 오철(吳轍)(충무공의 군관)이 나갔고, 종 금(今)이도 같이 갔다. 아침에 체찰사의 공문을 연폭으로 해서 벽에 붙였다. 여러 장수들의 표신(標信)을 고쳤다. 충청도 부대에 목책(木柵)을 쳤다. 늦게 우수사(이억기)에게 가 보고 취해서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8시가 지나서야 저녁을 먹었다. 밤 10시께 잠깐 비가 내리다 그쳤다.

5일(신축) 맑음. 부찰사가 들어왔다.

6일(임인)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부찰사가 활 연습을 했다. 저녁에 나와 우수사가 들어가 앉아 군인들에게 같이 음식을 풀어 먹였다.

7일(계묘) 맑음. 부찰사가 나가 앉아 상을 나누어 주었다. 새벽에 부산 사람이 들어왔는데 명나라 수석 사신(이종성(李宗城))이 달아났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부찰사가 입봉(立峯)에 올라갔다. 점심 후 두 수사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8일(갑진) 종일 비, 비. 늦게 들어가 부찰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셨다. 몹시 취하여 관등(觀燈)하고 헤어졌다.

9일(을사) 맑음. 이른 아침에 부찰사가 떠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포구로 나가 같이 배 위에서 이야기하며 작별했다.

10일(병오) 맑음. 아침에 어사(御使)가 들어온다는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 이하 포구에 나가 기다렸다. 조봉(趙鵬)이 보러 왔다. 그의 모습을 본즉, 오래 학질을 앓아서 몹시 말랐다. 매우 딱했다. 늦게 어사가 들어와 같이 앉아 이야기하고 불을 밝힌 다음에 헤어졌다.

11일(정미) 맑음. 어사와 아침을 들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늦게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 10순을 쏘았다.

12일(무신) 맑음. 아침 후, 어사가 밥을 지어서 군사들을 먹인 뒤에 활 10순을 쏘고 종일 이야기했다.

13일(기유) 맑음. 아침밥을 어사와 같이 먹었다. 늦게 포구로 나가니 남풍이 세게 불어 배가 갈 수 없었다. 선인암(仙人岩)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어두워져서 야 작별하고 저물어 거망포(巨網浦)에 이르렀다. 잘 잤는지 모르겠다.

14일(경술) 종일 비, 비. 아침 식사 후에 나갔다. 홍주 판관(洪州判官)(박운(朴崙))과 당진 만호(唐津萬戶)(조효열(趙孝悅))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南)은 곤장 40대를 때리고 당진 만호도 같이 죄를 받았다.

15일(신해) 맑음. 아침에 단옷날 진상할 물품을 봉해서 곽언수(郭彦守)에게 주어 보냈다. 영의정(유성룡), 정 영부사(鄭領府事)(‘판부사(判府事)’의 잘못이니, 정탁(鄭琢)을 말한다), 김 판서 명원(命元), 윤자신(尹自新), 조사적(趙士惕), 신식(申湜), 남이공(南以恭)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16일(임자) 맑음. 아침 식후에 나가서 난여문(亂汝文)(南右衛門) 등을 불러다가 불 지른 왜놈 3명이 누구누구인가를 물어본 뒤 붙들어가다 죽여 없앴다. 우수사, 경상 수사와 같이 앉아서 여필이 가져온 술을 마셨다. 가리포, 방답도 같이 마셨는데 밤이 들어서 헤어졌다. 이날 밤 바다에는 달빛이 차게 비치고 티끌 한 점 일지 않았다. 다시 땀을 흘렸다.

17일(계축) 맑음. 아침 식후에 여필과 면이 종을 데리고 돌아갔다. 늦게 각 고을 공문서를 처결해 보냈다. 이날 저녁 울이 안위에게 가 보고 왔다.

18일(갑인) 맑음. 식전에 각 고을 공문과 소지들을 처결해 보냈다. 체찰사에게 가는 서류를 내보냈다. 늦게 충청 우후(원유남(元裕南)), 경상 우수(이의득(李義得)), 방답(장린(張麟)), 김 조방장(김완(金浣))과 활 20순을 쏘았다. 마도(馬島) 군관이

복병하고 있는 곳에 투항해 온 왜인 1명을 붙잡아 왔다.

19일(을묘) 맑음. 습열(濕熱)로 인해서 침을 20여 군데나 맞았더니 속에 번열(煩熱)이 나는 것 같아 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어두울 녀에 영등(永登)이 와 보고 돌아갔다. 종 목년(木年)과 금화(金花), 풍진(風振) 등이 현신했다. 이날 아침 남여문(南汝文)(투항한 왜인)을 통하여 수길(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기쁘기 한량없으나 믿을 말이 못된다. 이 소문이 진작부터 퍼졌었는데 아직 확실한 기별은 아니 왔다.

20일(병진) 맑음. 경상 수사가 와서 내일 서로 만나자고 청했다. 활 10순을 쏘았다.

21일(정사) 맑음. 아침 식후에 경상 수사의 진으로 가는 길에 우수사(이억기) 진에 들러 우수사와 함께 갔다. 종일 활을 쏘고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신 조방장(신호(申浩))이 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영인(永人)(누구인지는 미상(未詳))이 왔다.

22일(무오) 맑음. 아침 식후에 나갔다. 부산의 허내은만(許內隱萬)이 고목(告目)을 보냈는데, “명나라 수석 사신(이종성)은 달아나고 부사(副使)(양방형(楊方亨))만 전과 같이 왜인의 진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4월 8일에 달아난 사유를 위에 아뢰었다”고 한다. 김 조방장이 와서 노천기(盧天紀)가 술을 먹고 주책없이 굴다가 본영진무(鎭撫) 황인수(黃仁壽), 성복(成卜) 등에게서 욕을 당했다고 아뢰므로 곤장 30대를 때렸다. 활 10순을 쏘았다.

23일(기미) 흐리다가 늦게 갠다. 아침에 김 첨지 경록(景祿)이 들어왔기에 일찍 아침을 먹고 나가 앉아 같이 술을 마셨다. 늦게 군중에게 힘센 사람을 뽑아서 씨름을 시켰더니, 성복이란 자가 판을 치므로 상으로 쌀 말이나 주었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 마량 첨사(馬梁僉使)(김응황(金應璜)), 당진 만호(조효열(趙孝悅)), 홍주 판관(洪州判官)(박운(朴崙)), 결성 현감(손안국(孫安國)),

파지도 권관(송세응(宋世應)), 옥포 만호(이담(李曇)) 등도 같이 쓰았다. 자정에 영인(永人)이 돌아갔다.

24일(경신) 맑음. 식후에 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여러 장수들과 같이 이야기했다.

25일(신유) 맑음. 남풍이 크게 불었다. 일찍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우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너무 뜨거워서 곧 도로 나왔다.

26일(임술) 맑음. 아침에 들으니 체찰사 군관이 경상도로 갔다고 한다. 식후에 목욕을 했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체찰사 군관 오(吳)도 왔다. 김양간(金良看)이 소를 실어올 일로 본영으로 갔다.

27일(계해) 맑음.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체찰사의 회답 공문이 왔다.

28일(갑자) 맑음. 아침, 저녁 두 차례 목욕을 했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보러 왔었다. 경상 수사는 뜰을 뜨느라고 오지 못했다.

29일(을축) 맑음.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남여문(南汝文)으로 하여금 투항한 왜인 사고여음(沙古汝音)의 목을 베게 했다.

30일(병인) 맑음.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충청 우후도와 보고 돌아갔다. 늦게 부산의 허내은만(許內隱萬)의 고목(告目)이 왔는데, 행장(行長)이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갈 의사인 것 같다고 했다. 김경록(金景祿)이 돌아갔다.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5월

1일(정묘)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경상 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목욕을 한 차례 했다.

2일(무진) 맑음. 일찍이 목욕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총통 2자루를 만들었다. 김 조방장(完)과 조계종(趙繼宗)이 보러 왔었다. 우수사가 김인복(金仁福)의 목을 베어 효시했다. 이날은 사무를 보지 않았다.

3일(기사) 맑음. 가뭄이 너무 심했다. 걱정스러운 말을 어찌 다하랴.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경상 우후가 와서 활 15순을 쏘았다. 저물녘에 들어왔다. 총통 2자루를 녹여 만들었다.

4일(경오) 맑음. 이날은 어머니의 생신인데 현수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여 심회가 평온하지 못했다. 나가지 않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사무 보는 집에서 불이 나서 집이 모두 탔다. 이날 저녁 문촌공(文村公)이 부요(富饒)로부터 왔다. 조종(趙琮)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정(趙汀)이 4월 1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슬프고 애석하다. 우후가 앞산에서 여제(厲祭)를 지내기로 했다.

5일(신미) 맑음. 이날 새벽에 여제를 지냈다. 일찍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 공무를 보았다. 회령(會寧) 만호가 교서(敎書)에 숙배한 뒤에 여러 장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대로 들어가 앉아 위로하는 술잔을 네 순배 돌렸다. 몇 순배 돌아간 뒤 경상 수사가 씨름을 붙인 결과 낙안(樂安) 임계형(林季亨)이 일등이었다.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의 수고를 풀어 주자는 생각에서였다.

6일(임신)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큰비가 내렸다. 농민의 소망을 채워 주니 기쁘고 다행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비 오기 전에 활 5, 6순을 쏘았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날이 막 어두울 무렵에 총통과 숯을 넣어 둔 창고에 불이 나서 모두 타 버렸다. 이것을 감관(監官)놈들이 새로 받아들인 숯을 쌓으면서 묵은 불을 살피지 못하여 이런 재변을 보게 된 것이다. 참으로 한탄스럽다. 울(蔚)이 김대복과 같은 배로 나갔는데 비가 크게 쏟아졌으니 잘 갔는지 모르겠다. 밤새도록 앉아서 걱정했다.

7일(계유) 비, 비. 늦게 개었다. 이날 울(蔚)이 떠난 후 잘 갔는지 몰라서 걱정스러웠다. 밤에도 걱정하고 앉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에 열고 물어보니 이영남(李英男)이 도착한 것이었다. 불러들여 조용히 옛날 지내던 일을 이야기했다.

8일(갑술) 맑음. 아침에 이영남과 이야기하고 늦게 나갔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두 번이나 구토를 했다. 이날 영산(靈山) 이중(李中)의 무덤을 파낸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에 완(浣)이 들어왔다. 김효성(金孝誠)도 왔다. 비인 현감(庇仁縣監)이 들어왔다.

9일(을해)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나가지 않았다. 이영남과 평안도 일을 이야기했다. 날이 어두울 녘부터 비가 뿌리기 시작한 것이 새벽까지 계속했다. 부안(扶安) 전선(戰船)에서 불이 났으나 과히 타지 않아 다행이었다.

10일(병자) 맑음. 나라 제삿날⁷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11일(정축) 맑음. 새벽에 앉아서 이정(李正)과 이야기했다. 식후에 나가서 비인현감(庇仁縣監) 신경증(申景澄)을 제 기한에 대어 오지 못한 죄로 곤장 20대를 때리고, 또 순천 격군(順天格軍), 감관 조명(趙銘)의 죄도 다스렸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들어가 신음했다. 거제(巨濟)(안위(安衛)), 영등(永登)(조계종(趙繼宗)), 이영남(李英男) 등과 잤다.

12일(무인) 맑음. 이영남이 돌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김해 부사(金海府使)(백사림(白士林))의 긴급 보고가 왔는데, 부산 적의 점령 지구에 있는 김필동(金弼同)이 보낸 고목에도 “수길(秀吉)은 비록 없을지라도, 정사(正使), 부사가 그래도 있으니 곧 화친하고 철병하려고 한다” 하였다.

13일(기묘) 맑음. 부산 허내은만(許乃隱萬)의 고목에 “청정(清正)(가토 기요마사)이

7 나라 제삿날 : 태종의 제삿날이다.

란 놈이 벌써 10일에 제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갔고, 각 집에 있는 왜들도 장차 철거할 것이요, 부산 왜들은 명나라 사신을 모시고 건너가려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날 활 9순을 쏘았다.

14일(경진) 맑음. 아침에 김해 부사 백사림(白士霖)의 보고도 역시 허내은만(許乃隱萬)의 고목과 같았다. 그래서 순천 부사에게 전통을 내고, 차례로 이 통보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활 10순을 쏘았다. 결성(結城) 현감 손안국이 나갔다.

15일(신사) 맑음.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지냈는데 우수사는 오지 않았다. 식후에 나갔다. 들으니 한산도(閑山島) 뒷산 산봉에서 다섯 섬과 대마도(對馬島)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혼자 말을 타고 올라가 보니 과연 다섯 섬과 대마도가 보였다. 늦게 조그마한 냇가로 돌아 내려와 조방장과 거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물어서야 진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잤다. 바다에 달은 밝고 바람 한 점 없었다.

16일(임오) 맑음. 아침에 송한련(宋漢蓮) 형제가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왔다. 충청 우후, 홍주 판관, 비인 현감, 파지도 권관(波知島權管) 등이 왔고 우수사도 와 보고 돌아갔다. 이날 밤에 비 올 징조가 많더니 자정에 비로소 비가 죽죽 내렸다. 이날 밤, 정화수(井華水)를 마시고 싶었다.

17일(계미) 종일 비, 비. 농사에 아주 흡족하여 풍년이 들겠다. 영등 만호 조계종이 보러 왔다. 다락에 기대어 혼자 시를 읊조렸다.

18일(갑신) 비가 잠깐 개기는 했으나 바다의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체찰사에게서 서류가 왔다. 늦게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나가서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안녕하시지만 진지를 전같이 잡숫지 못하신다니 답답하고 슬프다. 춘절(春節)이 누비옷을 가지고 왔다.

19일(을유) 맑음. 방답(防踏)(장린(張麟))이 그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 가기 때문

에 우후(虞候)를 가장(假將)으로 정해 보냈다. 활 10순을 쏘았다. 땀이 온몸에 배었다.

20일(병술) 맑고 바람도 없었다. 대청 앞에 기둥을 세웠다. 늦게 나갔더니 응천 현감 김충민(金忠敏)이 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기에 벼 2곡(斛)⁸을 체지(帖紙)로 써서 주었다. 사도 첨사가 들어왔다.

21일(정해) 맑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우후들과 활을 쏘았다.

22일(무자) 맑음.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 좌우후 이몽구(李夢龜), 홍주(洪州) 박윤(朴崙) 등과 활을 쏘았다. 홍우(洪祐)가 장계를 가지고 감사(監司)에게로 갔다.

23일(기축)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충청 우후 등과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미조항 첨사 장의현(張義賢)이 교서(敎書)에 숙배한 뒤 장흥(長興)으로 갔다. 춘절(春節)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밤 10시에 땀이 무시로 흘렀다. 이날 저녁 새로 지은 다락 지붕을 다 잊지 못했다.

24일(경인) 아침에 날이 흐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라 제삿날⁹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저녁에 나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부산 허내은만(許內隱萬)의 고목이 왔는데 “좌도(경상 좌도) 각 진의 왜군이 벌써 모조리 철거하고 다만 부산만 남았다”고 했다. 명나라 수석 사신이 갈려서 새로 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기별이 22일 부사(副使)에게 왔다고 한다. 허내은만에게 쌀 10말과 소금 1곡(斛)을 보내 주고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라고 일렀다. 어두울 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쏟아졌다. 박옥(朴玉), 옥지(玉只), 무재(武才) 등이 살대 1백 50개를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

25일(신묘) 비. 종일 비가 내렸다. 홀로 다락 위에 앉았으니 온갖 정회가 그지없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 보고 개탄하는 생각이 많았다. 무재 등이 만든 화살로

8 곡(斛) :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의 하나. 20말들이와 15말들이가 있다.

9 나라 제삿날 : 문종의 제삿날.

흰 굽(白蹄)에 톱질을 넣은 것 1천 개, 흰 굽이 그대로 있는 것 8백 70개.

26일(임진) 음산한 안개는 걷히지 않고 남풍이 세게 불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충청 우후와 우후들과 함께 활을 쏘는데,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활 10순을 쏘았다. 이날 저녁 날씨가 찌는 것 같아 계속 땀을 흘렸다.

27일(계사) 가랑비가 종일토록 내렸다. 충청 우후와 우우후가 와서 종정도(從政圖)로 놀았다. 이날 저녁도 찌는 듯 무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28일(갑오) 굿은비가 개지 않았다. 들으니 전라 감사(홍세공(洪世恭))가 파면되었다고 한다. 청정(淸正)이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모두 못 믿을 말이다.

29일(을미) 굿은비가 저녁까지 내렸다. 병모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고성(固城), 거제(巨濟)가 왔다 갔다.

30일(병신) 흐림. 아침에 곽언수(郭彦壽)가 들어왔다. 영의정(유성룡)과 도원수(김명원(金命元)), 정 판부사(鄭判府事), 윤 지사(尹知事) 자신(自新), 조사척(趙士惕), 신식(申湜), 남이공(南以恭)의 편지가 왔다. 늦게 우수사에게 가서 보고 종일 즐기다가 돌아왔다.

6월

1일(정유) 굿은비가 종일 내렸다. 늦게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가 영우후(營處候)(이몽구(李夢龜))와 박윤(朴崙)(홍주 판관), 신경증(申景澄)(비인 현감) 등을 불러 와서 술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윤연(尹連)이 자기 포구로 간다고 하기에 도양장(道陽場)의 종자 콩이 부족하거든 김덕록(金德祿)에게서 가져가도록 하라고 체지(帖紙)를 써 주어 보냈다. 남해(南海)가 도입장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2일(무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아침에 우후가 방답으로 가고 비인(庇仁) 원 신경증도 나갔다. 이날 가족으로 앞치마를 만들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편지를 써서 본영에 보냈다.

3일(기해) 흐림. 아침에 제포(濟浦) 만호 성천유(成天裕)가 교서에 숙배했다. 김양간(金良幹)이 농사지를 소를 싣고 나갔다. 새벽꿈에 난 지 대여섯 달 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를 친히 안았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금갑도(金甲島)가 보러 왔다.

4일(경자) 맑음.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가리포(加里浦)(이응표(李應彪)), 임치(臨淄)(홍견(洪堅)), 목포(木浦)(방수경(方守慶)), 남도포(南桃浦)(강응표(姜應彪)),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 홍주 판관(박운(朴崙)) 등이 와서 활 7순을 쏘았다. 우수사(이억기)가 왔으므로 다시 그려 붙이고 12순을 쏘았다. 취해서 헤어졌다.

5일(신축) 흐렸다. 아침에 박옥(朴玉), 무재(武才), 옥지(玉只) 등이 연습용 화살 백 50개를 만들어 바쳤다.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우도 감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는 집안에 혼사(婚事)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6일(임인) 맑음. 사도(四道)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 활을 쏘았다. 술과 음식을 먹이고 다시 또 쏘아 승부를 겨루게 하고 헤어졌다.

7일(계묘) 아침엔 흐리고 늦게 갠다. 늦게 나가서 충청 우후 등과 활 10여 순을 쏘았다. 이날 왜의 조총(倭鳥銃) 값을 주었다.

8일(갑진) 맑음. 일찍 나갔다. 활 15순을 쏘았다. 남도포(南桃浦) 만호의 소실인 본포 사람이 허(許)가의 집으로 뛰어들어 가서 강짜 싸움을 했다고 한다.

9일(을사)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충청 우후, 당진 만호(唐津萬戶)(조효열(趙孝悅)), 여도, 녹도와 활을 쏘는데, 경상 수사가 와서 같이 20순을 쏘았다. 경상 수사가 잘 맞혔다. 이날 아침에 종 금이(金伊)가 본영으로 갔고 옥지(玉只)도 갔다. 저녁에 몹시 더워서 땀을 계속 흘렸다.

10일(병오) 비가 종일 쏟아졌다. 낮에 부산에서 고목이 왔는데, “평의지(平義智)가 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했다.

11일(정미) 비, 비. 늦게 갼다. 활 10순을 쏘았다.

12일(무신) 맑음. 더위가 찌는 듯했다. 충청 우후 등을 불러 활 15순을 쏘았다. 남해(南海) 원(박대남(朴大男))의 편지가 왔다.

13일(기유) 맑았으나 몹시 더웠다. 경상 수사가 술병을 들고 와서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 수사가 잘 맞혔지만 김대복(金大福)이 첫째를 했다.

14일(경술)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회(薺)와 수원(壽元)이 함께 왔는데, 어머니가 안녕하시다고 했다.

15일(신해) 맑음.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는데 우수사, 가리포, 나주 판관은 병을 핑계하고 참례하지 않았다. 늦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충청 우후와 조방장 김완(金浣) 등 여러 장수를 불러서 활 15순을 쏘았다. 이날 일찍 부산 허내은만(許內隱萬)이 와서 왜적의 정세를 전하기에 양곡을 주어 돌려보냈다.

16일(임자) 맑음.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김봉만(金鵬萬), 배승련(裴承鍊) 등이 돛자리를 사 가지고 집에 왔다.

17일(계축) 맑음. 늦게 우수사가 와서 활 15순을 쏘고 헤어졌다. 수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충청 우후는 그의 아버지 제삿날이므로 거망포(巨綱浦)로 간다고 했다.

18일(갑인) 맑음. 늦게 나갔다. 활 15순을 쏘았다.

19일(을묘) 맑음. 체찰사에게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늦게 나가서 활 15순을 쏘았다. 이설(李潑)에게서 황정록(黃廷祿)의 형편없는 짓을 들었다. 발포(鉢浦) 보리밭

에서 26섬이 났다고 한다.

20일(병진) 맑음. 어제 아침에 곡포 권관(曲浦權管) 장후완(蔣後琬)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평산포 만호(平山浦萬戶)(김축(金軸))에게 진작 진에 돌아오지 않은 일을 문책하니 기일을 한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50여 일을 물리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으므로 곤장 30대를 때렸다. 오늘 낮에 남해 원(박대남(朴大男))이 들어와 교서에 숙배한 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도 와서 같이 15순을 쏘았다. 다시 박남해(朴南海)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중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후 헤어졌다. 임달영(任達英)이 또 왔는데, 소를 무역한 명세표와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1일(정사) 내일이 제삿날이므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남해를 불러다가 식사를 같이했다. 남해가 경상 수사에게 갔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이야기했다.

22일(무오) 맑음. 할머니님의 제삿날이 되어 공무를 보지 않고 종일 남해와 이야기했다.

23일(기미) 날이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비, 비. 남해와 이야기했다. 늦게 남해와 경상 수사에게 갔다. 경상 수사가 조방장(助防將)(김완(金浣)), 충청 우후(忠淸虞候)(원유남), 여도(呂島)(김인영(金仁英)), 사도(蛇渡)(황세득(黃世得)) 등을 불러 남해에게 술과 고기를 먹였다. 곤양(昆陽) 군수 이극일(李克一)도 보러 왔다. 저녁때 남해 원이 경상 수사에게 돌아왔는데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하동(河東)도 도로 본 고을로 돌려보냈다.

24일(경신) 초복. 맑음. 일찍이 나가 충청 우후와 활 15순을 쏘았는데,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쏘았다. 남해는 자기 고을로 돌아갔다. 항복한 왜인 야여문(也汝文) 등이 저의 동류인 신시로(信是老)를 죽이자고 청하기에 죽이라고 명령했다. 남원(南原)의 김홍(金弘)이 군량을 축낸 데 대해서 증거 자료를 얻고자 이리로 왔다.

25일(신유) 맑음. 일찍 나가서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조방장, 충청 우후, 임치 첨사, 목포 만호, 마량 첨사, 녹도 만호, 당포 만호, 회령포 만호, 파지도 등이 와서 철전(鐵箭)으로 5순, 편전(片箭)으로 3순, 보통 화살로 5순을 쏘았다. 남원의 김홍이 하직을 고하였다. 이날 저녁때 몹시 더워서 땀을 흘렸다.

26일(임술) 큰 바람이 불고 잠시 비까지 죽죽 쏟아졌다. 늦게 나가서 철전과 편전을 각각 5순씩 쏘았다. 왜인 난여문(亂汝文)(南右衛門) 등이 와서 고하는 목수의 아내를 붙잡아 들어 곤장을 때렸다. 이날 낮에 망아지 2필의 편자가 떨어졌다.

27일(계해) 맑음. 나가서 김 조방장, 충청 우후, 가리포, 당진포, 안골포 등과 철전 5순, 편전 3순, 보통 화살 7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송구(宋逋)를 가두었다.

28일(갑자) 맑음. 명종(明宗)의 제삿날이 되어 사무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고성현령(固城縣令)이 보낸 긴급 보고에는 순찰사의 일행이 어제 벌써 사천(泗川)에 도착했고, 오늘은 소비포(所非浦)로 올 것이라 했다. 수원(壽元)이 돌아갔다.

29일(을축)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해가 들었다. 주선(周旋)이 받아갔다. 늦게 나가서 공무를 본 후, 조방장, 충청 우후, 나주 판관과 함께 철전, 편전, 보통 활, 도합 18순을 쏘았다. 무더위가 찌는 듯하였다. 초저녁에 땀이 줄줄 흘렀다. 남해 원의 편지가 오고, 야여문(也汝文)이 돌아갔다.

7월

1일(병인) 맑음. 인종(仁宗)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 우도 순찰사〔서성(徐省)〕가 진중에 이르렀으나 이날은 서로 만나지 못하겠다고 그의 군관 나굉(羅宏)이 그 주장(主將)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었다.

2일(정묘) 맑음. 아침 후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같이 이야기했다. 한동안 지난 후 새로 지은 정자 위에 올라가서 편을 짜서 활을 쏜 결과, 경상우도 순찰사 편이 백 62점이나 졌다. 종일 아주 즐겁게 지내다가 불을 켜 들고 돌아왔다.

3일(무진) 맑음. 아침 후 순찰사와 도사(都事)가 내계로 와서 활을 쏘았다. 순찰사 편에서 또 96점을 지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아침나절 체찰사에게서 서류가 왔다.

4일(기사) 맑음. 아침 후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만나 한참 이야기하다가 배로 내려가 같이 타고 포구로 나가니 여러 배들은 열을 지어 있었다.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선암(仙岩)(한산면) 앞바다에 이르러 배를 갈아타고 떠났다. 멀리 바라보면 서로 읊(擷)하고 그길로 우수사와 경상 수사와 함께 같은 배로 돌아왔다.

5일(경오) 맑음. 늦게 나가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도 와서 같이 쏘았다.

6일(신미) 맑음. 일찍이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했다. 저물 무렵에 거제, 웅천, 삼천포가 보러 왔다. 이곤변(李鯤變)의 편지가 왔는데, 그 사연 중에는 입석(立石)의 잘못을 많이 말했다. 우스운 일이다.

7일(임신) 맑음. 경상 수사와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와서 세 가지 화살로 활 연습을 하였다. 종일 비는 오지 않았다. 저녁때 활 만드는 직공 지이(智伊)와 춘복(春卜)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8일(계유) 맑음. 충청 우후와 활 10순을 쏘았다. 체찰사의 비밀 표험(秘密標驗)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9일(갑술) 맑음. 아침나절 체찰사에게 가는 각항 공문을 서류로 작성해서 이전(李田)이 받아 가지고 갔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통신사가 탈 배의 설비가 아주 완전치 못하다고 누누이 말했다. 우리 것을 빌려 썼으면 하는 뜻이 그 말속에 나타났다. 물을 끌어들일 대나무와 중국 가는 사신들이 요구하는 부채를 만들 대나무를 얻어 오기 위해서 박자방(朴自邦)을 남해로 보냈다. 오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10일(을해) 맑음. 새벽꿈에 어떤 사람이 화살을 멀리 쏘았고, 또 어떤 사람이 갯을 밧로 차서 부수었다. 스스로 점을 쳐 보니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은 적들이 멀리 도

망하는 것이요, 또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발길에 걷어차이는 것으로서 적의 괴수를 모조리 잡아 없앨 징조라 하겠다. 늦게 받은 체찰사의 전령에, “황 첨지(黃僉知)(황신(黃愼))가 이제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정사(正使)가 되고 권항(權滉)이 부사(副使)가 되어 근일 중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니 그들이 탈 배 3척을 정비하여 부산으로 돌려 대라”고 했다. 경상 우후가 와서 백문석(白紋席) 백 50넛을 빌려 갔다. 충청 우후, 사랑(蛇梁) 만호(김성옥(金聲玉)), 지세포(知世浦) 만호, 옥포 만호(이담(李曇)), 홍주 판관(박운(朴崙)), 전 적도 만호 고여우(高汝友) 등이 보러 왔다. 경상 수사가 보낸 긴급 보고에, “춘원도(春元島)(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왜선 1척이 와 대었다” 하므로 장수를 뽑아 보내며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11일(병자) 맑음. 체찰사에게서 통문 온 배 준비에 관한 일로 아침에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바다를 건너가는 격군들과 따라가는 이들의 길양식에 대해 의논했다. 길양식으로 23섬을 쫓은 것이 21섬이 되므로 2섬 1말이 준 셈이었다. 나가서 공무 보고 세 가지 화살로 활 쏘는 것을 보았다.

12일(정축) 맑음. 새벽에 비가 잠시 뿌리다가 곧 그치고 무지개가 서서 한참 그대로 있었다. 늦게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샛자리 15넛을 빌려갔다. 부산에 실어 보낼 군량으로 상등미 20섬, 중등미 40섬을 차사원(差使員), 변익성(邊翼星)과 수사 군관 정존극(鄭存極)이 받아 갔다. 조방장이 오고 충청 우후도 와서 활을 쏘았다. 같은 과거에 급제한 남치온(南致溫)이 왔다.

13일(무인) 맑음.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탈 배 3척을 정비하여 오전 10시에 띄워 보냈다. 늦게 활 13순을 쏘았다. 해진 뒤에 항복한 왜인들이 광대놀이를 차렸다. 장수된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둘 것이 못 되지만 항복한 왜인들이 놀음 한번 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금하지 못했다.

14일(기묘) 아침에 비가 뿌렸다. 오늘이 망(望)이다. 저녁에 고성 현령(固城縣令)

조응도(趙凝道)가 와서 이야기했다.

15일(경진) 새벽에 비가 뿌려 망꺽레를 드리지 못했다. 늦게 말짱히 겐다. 경상 우수사, 전라 우수사가 모여 활을 쏘고 헤어졌다.

16일(신사) 새벽엔 비. 늦게 겐다. 북쪽으로 뿔마루 3간을 만들었다. 이날 충청도 홍주(洪州)의 격군으로서 신평(新平) 사는 사삿집 중 엿복(於叱卜)이 도망하다가 붙잡혔으므로 목을 잘라 내다 걸었다. 사천, 하동 두 원이 왔다. 늦게 세 가지 화살로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바다의 달이 하도 밝아서 혼자 다락에 기대었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17일(임오) 새벽에 비가 뿌리다 곧 그쳤다.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큰 도둑들이 일어나 홍산(洪山) 원 윤영현(尹英賢)이 붙잡히고 서천(舒川) 군수 박진국(朴振國)도 끌려갔다고 한다. 바깥 도둑을 못 없앤 이때, 안 도둑이 이러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남치온(南致溫)과 고성, 사천이 돌아갔다.

18일(계미) 맑음. 각처의 공문을 적어 보냈다. 충청 우후와 홍주 판관이 충청도의 도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알렸다. 저녁때 들으니 항복한 왜적 연은기(戀隱己), 사이여문(沙耳汝文) 등이 흉악한 음모를 꾸며서 남여문(南汝文)을 죽이려 했다고 한다.

19일(갑신)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남녀문이 연은기, 사이여문 등의 목을 잘랐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돌아갔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 충청 우후, 다경포 만호 윤승남(尹承男)도 왔었다.

20일(을유) 맑음.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본영의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하다. 그편에 들으니 충청도 도둑(이몽학(李夢鶴), 선조 29년에 반란을 일으킨 종실의 후예)이 포수 이시발(李時發)의 충에 맞아서 즉사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21일(병술) 맑음.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와 나주, 홍주 판관 등이 옥포, 웅천, 당진포 등과 함께 왔다. 옥포에는 배 만드는데 쓸 양식이 없다고 하므로 체찰사 관계의 군량 중에서 2곡(斛)을 내주고, 웅천과 당진포에는 배 만들 쇠 15근을 함께 주었다. 이날 아들 회(薈)가 방자(房子) 수(壽)를 곤장 때렸다 하기에 아들을 뜰 아래로 붙들어가다가 잘 타일렀다. 밤이 된 후에 땀이 줄줄 흘렀다. 통신사가 청하는 표범 가죽을 가지러 본영에 배를 보냈다.

22일(정해)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종일 나가지 않고 홀로 다락 위에 앉아 있었다. 종 효대(孝代), 팽수(彭壽)가 홍양(興陽)의 군량선을 타고 나갔다. 저녁때 순천(順天)서 보낸 통문을 보니, “충청도 도독이 홍산(鴻山)에서 일어난 것을 곧 죽였다는데 홍주(洪州) 등 세 고을이 포위당했다가 간신히 면했다”고 했다. 참 한심한 일이다. 자정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낙안(樂安)의 교대할 배가 들어왔다.

23일(무자) 큰비가 내리다가 오전 10시에 개었으나 이따금 보슬거렸다. 늦게 홍주 판관 박운(朴崙)이 하직을 고하고 나갔다.

24일(기축) 맑음. 현덕왕후의 제삿날이다. 이날 우물을 고쳐 파는 데를 가 보았다. 경상 수사도 왔다. 거제, 금강포도, 다경포도 왔다. 샘 줄기가 깊이 들어가고 근원도 길다. 점심 후 돌아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어두울 녀에 객언수가 표범 가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날 밤 속이 답답하여 자지 못하고 밤중까지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들었다.

25일(경인) 맑음. 아침에 사냥한 꺾질들의 수효를 세어 녹피 10장은 창고에 넣고 표범 가죽과 화문석(花紋席)은 통신사(通信使)에게로 보냈다.

26일(신묘) 맑음. 이전(李荃)이 체찰사에게서 표험(標驗) 3벌을 받아 가지고 왔기에 하나는 경상 수사에게 보내고, 하나는 전라 우수사에게 보냈다. 금부(禁府)의 나장(羅將)이 윤승남(尹承男)을 붙잡아 가려고 내려왔다.

27일(임진) 맑음. 늦게 활터로 달려가서 녹도(鹿島)에게 길 닦을 것을 지시했다. 다 경포 만호 윤승남이 잡혀 갔다. 종 경(京)이 병을 앓았다.

28일(계사) 맑음. 종 무학(武鶴), 무화(武花), 박수매(朴壽每), 우로(于老), 음금(音金) 등이 26일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늦게 충청 우후와 함께 활 3가지를 쏘았는데 철전(鐵箭)이 36분, 편전(片箭)이 60분, 보통 화살이 26분, 합이 백 23분이었다. 종 경(京)이 몹시 앓는다고 하니 염려된다. 고향 아산(牙山)으로 추석 제물(祭物)을 보내는 편에 홍(洪), 윤(尹), 이(李) 등 네 군데 편지를 부쳤다. 밤 10시에 꿈속에서 까지 맘을 흘렸다.

29일(갑오) 맑음. 경상 수사와 우후가 와서 보고, 충청 우후가 함께 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내가 쏜 활의 고자¹⁰가 들떠서 곧 수리하라고 하였다. 체찰사로부터 초시(初試)를 보게 한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저녁때 들으니 점쟁이 집의 집 보던 아이가 그 집의 잔 세간을 훔쳐 가지고 도망했다고 한다.

30일(을미) 맑음. 새벽에 갈몰(葛沒)이 들어왔다. 밤 꿈에 영의정과 조용히 이야기 했다. 아침에 이진(李珍)이 본영으로 돌아가고 춘화(春花)도 돌아갔다. 김대인(金大人)이 선제(禪祭)를 지내기 위해서 말미를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늦게 조방장이 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저녁때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안녕하신 것을 알았다. 위에서 유서(諭書) 2통이 내려왔다. 싸움에 쓸 말과 면(勉)의 말도 들어오고 지이(智伊)와 무재(武才)도 함께 왔다.

8월

1일(병신) 맑음. 새벽에 망궤례를 드렸다. 충청 우후(원유남), 금갑, 목포, 사도, 녹도 등이 참례했다. 늦게 파지도 권관 송세응(宋世應)이 돌아갔다. 오후에 활터에 나가서 말을 달리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부산 갔던 곽언수(郭彦水)가 돌아와서 통신사의 답을 전했다. 어둠 무렵에 비 올 징조가 많으므로 비 오기 전에 예비할

10 고자 : 활의 양 끝 머리. 어느 한 곳에 시위를 매게 된 부분이다.

일들을 지시했다.

2일(정유) 아침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지이(智伊) 등으로 하여금 새로 만든 활들을 폼다다 늦춰다가 시험해 보게 하였다. 늦게 광풍이 일어나고 빗발이 삼대 같아서 대청마루에 걸어 놓은 바람막이가 방 마루 바람막이에 부딪쳐 일시에 두 바람막이가 깨져 조각났다. 아까웠다.

3일(무술) 맑았으나 가끔 비가 내렸다. 지이(智伊)로 하여금 새로 만든 활들을 바꿔 보게 하였다. 조방장과 충청 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아들들은 육냥궁(六兩弓)¹¹을 쏘았다. 이날 저녁 송희립과 아들들을 시켜 이름이 기록된 황득중(黃得中), 김응겸(金應謙)의 허통(許通)하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게 했다. 오후 8시부터 비가 시작해서 새벽 2시에야 그쳤다.

4일(기해)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회(薺)는 면(麵), 완(莞)(조카)과 함께 아내의 생일 헌수 잔(獻壽盃)을 드리기 위해 떠나갔다. 정선(鄭愼)도 나가고 정사립(鄭思立)도 말미를 얻어 가지고 갔다. 늦도록 다락에 앉아서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느라고 바람에 상하는 줄도 몰랐다. 늦게 대청에 나가서 활 두어 순을 쏘다가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활을 중지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몸이 움츠러져서 곧 두텁게 덮고 땀을 내었다. 저물녘에 경상 수사가 와서 문병하고 갔다. 밤에는 낮보다 배나 얇아 신음하면서 밤을 새웠다.

5일(경자) 맑음.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가리포(이응표)가 보러 왔다.

6일(신축)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김 조방장(김완)과 충청 우후, 경상 우후(이의득) 등이 와서 문병하고 갔다. 당포 만호는 와서 그 어머니의 병환이 대단한 것을 아뢰었다. 경상 수사와 우수사가 보러 왔다. 배(裒) 조방장(배흥립(裒興立))이 들어왔다. 해가 진 뒤에 흠어져 갔다. 밤비가 크게 퍼부었다.

11 육냥궁(六兩弓) : 철전(鐵箭)에 육냥(六兩), 아냥(亞兩), 장전(長箭),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육냥은 무게가 6냥쯤이요, 아냥은 4냥쯤, 장전은 1냥쯤으로부터 1냥반, 1냥 6돈쯤까지 있다.

7일(임인) 비가 죽죽 내리다가 늦게 개었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서울 보낼 편지를 썼다. 이날 밤에 땀이 옷 두 겹을 적셨다.

8일(계묘) 날이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박담동(朴淡同)이 서울 올라가는 편에서 승지(徐承旨)(서성(徐省))에게 혼수(婚需)를 보냈다. 늦게 강희로(姜熙老)가 왔는데 남해의 병은 좀 낫다고 했다. 밤이 깊도록 같이 이야기했다. 의능(宜能)이 생마(生麻) 백 20근을 가져다가 바쳤다.

9일(갑진) 흐렸으나 비는 안 내렸다. 아침에 수인(守仁)에게서 생마(生麻) 2백 30근을 받아들였다. 하동(河東)에 종이를 가공하여 달라고 도련지(搗鍊紙)¹² 20권, 주지(注紙)¹³ 32권, 장지(狀紙)¹⁴ 31권을 김응겸(金應謙)과 곽언수(郭彦水)에게 주어 보냈다. 마랑 첨사(馬梁僉使) 김응황(金應璜)이 포폄(褒貶)¹⁵에서 하(下)를 맞고 나갔다. 늦게 나가서 서류를 처결해 나누어 주었다. 활 10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10시에 이르러 땀이 흘렀다.

10일(을사) 맑음. 아침에 충청 우후가 문명하러 왔다가 조방장과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아침에 송한련(宋漢連)에게 그물을 만들겠다고 생마(生麻) 40근을 주어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한동안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 우후를 불러 상화떡(床花餅)을 만들어 같이 먹었다. 저녁에 체찰사에게 보낼 공문을 서류로 만들었다. 어두울 녀에 달빛은 비단 같고 회포는 만 갈래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10시에 방에 들어왔다.

11일(병오)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체찰사에게 가는 각항 공문을 서류를 만들어 발송했다. 배(裴) 조방장(배흥립(裴興立))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늦게 활터

12 도련지(搗鍊紙) : 다듬이질을 하여 반드럽게 한 종이.

13 주지(注紙) : 주서(注書)나 승지(承旨)가 임금 앞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적는 데에 쓰던 종이.

14 장지(狀紙) :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보고할 때 쓰던 두꺼운 종이.

15 포폄(褒貶) : 각도의 감사가 관하 관리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 그 평가에서 중(中) 내지 하(下)를 맞으면 사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로 같이 가서 말 달리는 것을 보고 저물어 영(營)으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거제 현령이 급히 보고하기를, “왜선 1척이 등산(登山)으로부터 송미포(松美浦)로 들어왔다”고 하더니 밤 10시에 다시 보고하되, “아자포(阿自浦)로 옮겨 대었다” 하므로 배를 정하여 내보낼 즈음 또다시 보고가 오기를, “견내량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북병장에게 잡으라고 명령했다.

12일(정미)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동으로 가는 배가 도무지 내왕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어머니님 안부를 듣지 못하여 답답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었다. 땀이 옷 두 겹을 다 적셨다.

13일(무신) 날이 개었다가 흐리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충청 우후와 활을 쏘았다. 밤에 땀이 흘러 등을 적셨다. 아침에 우(禹)가 곤장을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사 지낼 물건을 약간 보내 주었다.

14일(기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동풍이 연일 불어서 벼 곡식이 결판난다고 한다. 배 조장방, 충청 우후와 같이 이야기했다. 땀이 나지 않았다.

15일(경술) 새벽에 비가 죽죽 내려 망궐례를 못 올렸다. 늦게 우수사, 경상 수사 및 두 조방장, 충청 우후, 가리포, 평산포 등 열아홉 장수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했다. 비는 종일 그치지 않았다. 밤 8시쯤 남풍이 불면서 비가 더 크게 쏟아졌다. 새벽 2시까지 세 번 땀을 흘렸다.

16일(신해) 잠깐 갠으나 남풍이 크게 불었다. 강희로(姜熙老)가 남해(南海)로 갔다. 몸이 몹시 연썩아서 종일 누워서 지냈다. 저녁나절 체찰사가 진주(晋州)에 왔다는 기별을 받았다. 새로 갠 하늘의 달빛이 하도 밝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밤 10시에 가는 비가 내리다가 이윽고 그쳤다. 땀을 흘렸다.

17일(임자) 갠다 흐렸다 하며 비가 오락가락했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고, 충청 우후와 거제 현령도 보러 왔다. 이날 동풍이 그치지 않았다. 체찰사에게 사람을 보냈

다.

18일(계축) 비가 개다 오다 했다. 자정에 죄인에게 특사를 내리는 글을 가지고 온 차사원(差使員) 구례 현감(求禮縣監)(이원춘)이 들어왔다. 땀이 무시로 흘렸다.

19일(갑인) 흐리다 맑다 하였다. 새벽에 우수사 이하 여러 장수들과 함께 특사 내리는 조칙문에 절하고 그대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구례가 하직을 고하고 돌아갔다. 송의련(宋義連)이 본영으로부터 들어왔다. 울(蔚)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님이 내내 평안하시다니 다행, 또 다행이다. 늦게 거제와 금강도가 와서 이야기했다.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땀을 흘렸다. 어두울 녀에 목수(木手) 옥지(玉只)가 재목에 치어서 증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0일(을묘) 동풍이 크게 불었다. 새벽에 전선(戰船) 만들 재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도 군사 3백 명, 경상도 백 명, 충청도 3백 명, 좌도 3백 90명을 송희립이 거느리고 갔다. 늦은 아침에 봉, 해, 회, 면, 완이 최대성(崔大晟), 윤덕종(尹德種), 정선(鄭愼) 등과 함께 들어왔다.

21일(병진) 맑음. 식후에 활터에 나가 아들들에게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말을 달리면서 활 쏘는 것도 연습시켰다. 배 조방장, 김 조방장이 충청 우후와 함께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22일(정사) 맑음. 외조모님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었다.

23일(무오) 맑음. 활터에 가 보았다.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갔다.

24일(기미) 맑음.

25일(경신) 맑음.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26일(신유) 맑음. 새벽에 배로 출발하여 사천(四川)에 이르러 유숙했다. 충청 우후와 함께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27일(임술) 맑음. 일찍이 떠나 사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그대로 진성(진주)으로 향하여 체찰사(이원익(李元翼))를 뵈고 종일 의논하였다. 저물녘에 목사(牧使)(나정언(羅廷彦))의 처소로 돌아와 잤다. 김응서(金應瑞)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날 저녁 이용제(李用濟)가 역적 도당에 관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28일(계해) 맑음. 아침에 체찰사에게 나아가서 종일 품고(稟告)하고, 초저녁이 된 뒤에야 목사의 처소로 돌아와서 목사와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청생(靑生)도 왔다.

29일(갑자) 맑음. 일찍 출발하여 사천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그대로 선소(船所)(사천시 용현면 선진리)로 왔다. 고성(固城)(조응도(趙凝道))도 왔다. 삼천포와 이곤변(李鯤變)이 뒤미처 와서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구라량(仇羅梁)(사천시 대방동)에서 잤다.

윤8월

1일(을축) 맑음. 일식(日蝕)을 했다. 이른 아침에 비망 나루로 와서 이곤변(李鯤變) 등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작별했다. 저물어 진중에 이르니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수사와 이야기했다.

2일(병인) 맑음. 아침에 여러 장수들이 보러 왔다. 늦게 경상 수사와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경상 수사와 함께 사정으로 나갔다.

3일(정묘) 맑음.

4일(무진) 비, 비. 이날 밤 10시에 땀을 흘렸다.

5일(기사) 맑음. 사정으로 나가서 아이들(아들들을 말함)의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하천수(河千壽)가 체찰사에게로 갔다.

6일(경오) 맑음. 아침 식사 후 경상 수사와 우수사가 함께 사정에 가서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고 저물어 돌아왔다. 방답 첨사가 진중에 도착했다. 이날 밤 잠시 땀을 흘렸다.

7일(신미) 맑음. 아침에 아산(牙山) 중 백시(白是)가 들어왔다. 가을보리는 소출이 43섬이요, 봄보리는 소출이 35섬이요, 쌀은 전부 12섬 4말이요, 또 7섬 10말이 나고 또 4섬이 났다고 한다. 이날 늦게 나가 소지들을 처결했다.

8일(임신) 맑음. 식후에 사정에 나가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았다. 광양(이함림(李咸臨)), 고성(固城)(조응도(趙凝道))이 시관(試官)으로 들어왔다. 하천수가 진주에서 돌아왔다. 수하에서 부리는 병졸 임정로(林廷老)는 말미를 받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날 밤에 땀을 내었다.

9일(계유) 맑음. 아침에 광양 원이 교서(敎書)에 숙배했다. 봉(奉), 회(薈)와 김대복(金大福)도 교서에 숙배하였다. 그리고 같이들 이야기했다. 이날 저녁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10일(갑술) 맑음. 새벽에 초시(初試)를 보기 시작했다. 면(麴)이 쓴 것은 모두 55보(步), 봉(奉)이 쓴 것은 모두 35보, 해(薹)가 쓴 것은 모두 30보, 회(薈)가 쓴 것은 모두 35보, 완(莞)이 쓴 것은 모두 25보라고 했다. 진무성(陳武晟)이 쓴 것은 모두 55보로 합격되었다. 어둠 녘에 우수사, 경상 수사, 배 조방장이 같이 왔다가 밤 10시께 헤어졌다.

11일(을해) 맑음. 체찰사를 모시는 일로 진중을 출발하여 당포(唐浦)(통영시 산양면 삼덕리)에 이르렀다. 저녁 8시에 체찰사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14일에 떠난다고 하였다.

12일(병자) 맑음. 종일 노를 빨리 저어 밤 10시쯤에 어머니 앞에는 이르렀다.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는데, 기운이 흐려져 아침저녁을 보전하시기 어렵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밤이 새도록 위로하여 그 마음을 풀어 드렸다.

13일(정축) 맑음. 모시고 옆에 앉아 아침 진짓상을 드리니 대단히 즐거워하시는 빛이었다. 늦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본영(여수)으로 돌아왔다. 오후 6시쯤에 작은 배를 타고 밤새 노를 재촉하였다.

14일(무인) 맑음. 새벽에 두치(豆恥)(광양시 다압면 섬진리)에 다다르니 체찰사와 부사(한효순(韓孝純))가 어제 벌써 와서 갔다고 한다. 뒤미처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소촌 찰방(召村察訪)을 만나고 일찍 광양 고을에 이르렀다. 지나온 지역이 온통 속대밭이 되어 참혹한 꼴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우선 전선(戰船) 정비하는 것을 먼저해 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 주어야겠다.

15일(기묘) 맑음. 일찍 떠나 순천에 닿으니 체찰사 일행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 하므로 나는 정사준(鄭思竣)의 집에서 잤다. 순찰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들으니 아들들이 초시(初試)에 뽑혔다고 한다.

16일(경진) 맑음. 이날은 거기서 머물렀다.

17일(신사) 맑음. 늦게 낙안(순천시 낙안면)으로 향하여 고을에 이르니 이호문(李好問), 이지남(李智男) 등이 보러 와서 폐단이 전혀 수군에 있다고 말했다.

18일(임오) 맑음. 종사관 김용(金湧)이 상경하였다. 일찍 떠나 양강역(陽江驛)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산성(山城)(고흥군 남양면 대곡리)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며 각 포구와 여러 섬들을 지점(指點)하고, 그길로 흥양(興陽)(고흥군)으로 향하였다. 저물어 고을에 이르러 향소청(鄕所聽)에서 잤다. 어두운 저녁에 이지화(李知和)가 거문고를 가지고 오고 영(英)도 보러 와서 밤새 이야기했다.

19일(계미) 맑음. 떠나서 녹도(鹿島)(고흥군 도양읍 봉암리)로 가는 길에 도양(道陽)(도덕면 도덕리)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체찰사의 얼굴에 기쁜 빛이 떠돌았다. 녹도에서 잤다.

20일(갑신) 맑음. 일찍 떠나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사와 함께 앉아 종일 군사 이야기를 했다. 늦게 백사정(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길로 장흥(長興)에 이르러 나는 동헌(東軒)에서 잤다. 김응남(金應南)이 보러 왔다.

21일(을유) 맑음. 그대로 묵었다. 정달영(丁景達)이 보러 왔다.

22일(병술) 맑음. 늦게 병영(兵營)(강진군 병영면)에 이르러 원(元)(원균)을 만나 밤이 들기까지 이야기했다.

23일(정해) 맑음.

24일(무사) 나는 부사와 함께 가리포(加里浦)(완도군 완도읍)로 갔더니 우우후 이정충(李廷忠)이 먼저 와 있었다. 같이 남쪽 망대(望臺)로 오르니, 좌우로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한도(一道)의 요충지이다. 그렇지만 형세가 외롭고 위태롭기 때문에 부득이 이진(梨津)(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으로 옮겨 합친 것이다. 병영으로 돌아왔다. 원 공(元균)의 흉한 행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25일(기축) 일찍 떠나 이진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곧 해남으로 가는 중간에 김경록(金景祿)이 술을 차고 보러 왔다. 어느 새 날이 저물어 햇불을 잡게 하고 갔다. 밤 10시계야 고을에 당도했다.

26일(경인) 맑음. 일찍이 떠나 우수영(右水營)에 이르렀다. 나는 태평정(太平亭)에서 자면서 우후(이정충(李廷忠))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27일(신묘) 맑음. 체찰사가 진도(珍島)로부터 영(營)(우수영)으로 들어왔다.

28일(임진) 비가 조금 내렸다. 우수영에서 묵었다.

29일(계사)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에 남녀역(男女驛)(해남군 황산면 남리리)에 이르렀고 점심 후 해남현(海南縣)에 당도했다. 소국진(蘇國進)을 본영으로 보냈다.

9월

1일(갑오) 잠시 비가 내렸다. 새벽에 망꺠례를 드렸다. 일찍 떠나 석제원(石梯院)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에서 점심을 먹고 밤 10시에 영암(靈岩)에 이르러 향사당(鄕社堂)에서 잤다. 정랑(正郎) 조팽년(趙彭年)이 보러 왔고 최숙남(崔淑男)도 보러 왔다.

2일(을미) 맑음. 영암에서 묵었다.

3일(병신) 맑음. 아침에 떠나 나주(羅州) 신원(新院)에서 점심을 먹고 판관(判官) [원종의(元宗義)]을 불러서 고을 안 사정을 물어 보았다. 저물녘에 나주 별관(別館)에 이르렀다. 종 억만(億萬)이 신원으로 보러 왔다.

4일(정유) 맑음. 나주에서 묵었다. 아들 무렵에 목사(牧使)(이복남(李福男))가 술병을 들고 와서 권하였다. 일추(一秋)도 술잔을 들고 권하였다. 이날 아침 체찰사와 함께 공자(孔子) 사당에 가서 절하였다.

5일(무술) 맑음. 나주에서 묵었다.

6일(기해) 맑음. 먼저 무안(務安)으로 가겠다고 체찰사에게 고하고 길을 떠났다. 고막원(古幕院)(나주시 문평면 고막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나주 감목감(監牧監) 나덕준(羅德駿)이 뒤쫓아 와서 만났다. 이야기하는 중에 강개(慷慨)한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저물어 무안에 닿아 거기서 잤다.

7일(경자) 맑음. 나 감관(羅監官)(덕준)과 현감(남언상(南彦詳))과 함께 민간에 폐단 되는 점을 1시간이나 이야기한 뒤 정대청(鄭大淸)이 들어왔다 하므로 청하여 같이 앉아 이야기했다. 늦게 떠나 다경포(多慶浦)(무안군 망운면 성내리)에 이르러 영광(靈光) 군수와 함께 밤 10시까지 이야기했다.

8일(신축) 맑음. 아침 식사에 쇠고기 반찬을 놓았으나 나라 제삿날이므로 먹지 않고 도로 내놓았다. 조반 후 길을 떠나 감목관(監牧官)에게 가니 감목관과 영광(靈光)이 같이 있었다. 국화 떨기 속에 들어가서 술 두어 잔을 마셨다. 저물녘에 동산원(東山院)(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와서 말에 여물을 먹이고 말을 재촉하여 임치진(臨淄鎭)(해계면 임수리)에 다다르니 8살 먹은 이공헌(李公獻)의 딸이 그 사촌의 계집종 수경(水卿)과 함께 보러 왔다. 공헌(公獻)을 생각하니 애처로운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수경은 내버린 아이를 이담(李琰)의 집에서 얻어다 기른 것이다.

9일(임인) 일찍이 일어나서 첨사 홍견(洪堅)을 불러다가 적을 방비할 대책을 묻고 아침 식사 후 뒷성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았다. 동산원(東山院)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은 뒤 함평현(咸平縣)에 이르렀다. 도중에서 한여경(韓汝璟)을 만났으니 말 위에서 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함평으로 들어오라고 일렀다. 현감(縣監)(손경지(孫景祉))은 경차관(敬差官)을 맞이하러 갔다고 한다. 김억창(金億昌)도 함께 함평(咸平)으로 왔다.

10일(계묘) 맑음. 피곤하고 말도 고될 것 같아 함평에서 머물러 잤다. 아침 식사 전에 무안 정대청(鄭大淸)이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고을 선비들도 많이 들어와서 폐단 되는 점을 이야기했다. 저녁때 도사(都事)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 10시에 헤어졌다.

11일(갑진)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영광으로 가는 도중 길에서 신경덕(辛慶德)을 만나 잠시 이야기했다. 영광에 이르러서는 군수(김상준(金尙雋))가 교서(敎書)에 숙배한 뒤 들어와 같이 이야기했다. 세산월(歲山月)도 보러 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누워서 곤하게 잤다.

12일(을사)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늦게 나서서 10리쯤 되는 냇가에 오니 이광보(李光補)와 한여경(韓汝璟)이 술병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같이 이야기하였다.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안세희(安世熙)도 이르렀다. 저문 후 무장(茂長)에 닿아 잤다.

13일(병오) 맑음. 이중익(李仲翼)과 이광축(李光軸)이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이중익이 군색한 말을 많이 하므로 옷을 벗어 주었다. 종일 이야기했다.

14일(정미) 맑음. 하루 또 묵었다.

15일(무신) 맑음. 체찰사가 고을에 이르므로 들어가 인사하고 대책을 의논하였다.

16일(기유) 맑음. 체찰사 일행이 고창(高敞)에서 점심을 먹고 장성(長城)에 와서 잤다.

17일(경술) 맑음. 체찰사와 부사는 입암산성(笠岩山城)(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으로 가고 나 혼자 진원현(珍原縣)(장성군 진원면)에 이르러 원(심윤(沈崙))과 함께 이야기했다. 종사관(從事官)도 왔다. 저물어 관청에 이르니 두 조카딸이 나와 앉아 있어 오래 못 본 감회를 풀었다. 도로 작은 정자로 나와 원(심윤) 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18일(신해) 비가 조금 왔다. 식후에 광주(光州)에 이르러 원(최철견(崔鐵堅))과 이야기하였다. 비가 굉장히 퍼붓다가 밤이 이슬한 후 달빛이 대낮 같더니 새벽 2시부터 도로 비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19일(임자)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아침에 행적(行迪)이 보러 왔다. 진원(珍原) 있는 종사관의 편지와 윤간(尹侃), 봉(奉), 해(薺)의 문안 편지도 왔다. 이날 아침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먼저 술이 시작되어 밥을 먹지 않

은 채 취해 버렸다. 광주 목사의 별실에 들어가 종일 술에 취했다. 낮에 능성(綾城) [화순군 능주면] 이계령(李繼令)이 들어와서 곳간을 봉하였다. 광주 목사는 체찰사가 파직시켰다고 한다. 최(崔) 씨의 딸 귀지(貴之)가 와서 잤다.

20일(계축) 비가 크게 쏟아졌다. 아침에 각항 사무를 담당하던 아전들의 죄를 논란하였다. 늦게 목사를 보고 나서 막 길을 떠나려는 판에 명나라 사람 2명이 이야기하자고 청하므로 술을 먹었다. 길을 떠났으나 종일 비가 내려 멀리 가지 못하고 화순(和順)에 이르러 잤다.

21일(갑인) 비 오다 개다 하였다. 일찍이 능성(綾城) [화순군 능주면]에 이르러 바로 최경루(崔景樓)에 올라가서 연주산(連珠山)을 바라보았다. 이 고을 원이 술을 권하므로 잠깐 취하고 헤어졌다.

22일(을묘) 맑음. 각항 사무를 담당하던 아전들의 죄를 논란하였다. 늦게 이양원(李楊院) [화순군 청풍면 이양리]에 이르니 해운 판관(海運判官)이 먼저 와서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청하므로 같이 이야기했다. 저물녘에 보성군(寶城郡)에 이르렀는데 몸이 몹시 고단하여 바로 잤다.

23일(병진) 맑음. 머물렀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24일(정사) 맑음. 일찍이 떠나서 선 병사(宣兵使) [선거이(宣居怡)]의 집에 이르니 선(宣)의 병이 극히 위중하였다. 염려스러웠다. 저물녘에 낙안(樂安)에 이르러 잤다.

25일(무오) 맑음. 담당 아전과 선종립(宣仲立)의 죄를 논란하였다. 순천에 이르러 원(禹致績)과 취해서 이야기하였다.

26일(기미) 맑음. 일이 있어 하루 더 머물렀다. 저녁에 이 고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고기와 술을 장만해 가지고 올리겠다고 청하였다. 군이 사양했으나 부사(府使)의 간청으로 받아 잠깐 마시고 헤어졌다.

27일(경신) 맑음. 일찍 떠나서 어머니를 뵈러 갔다.

28일(신유) 맑음. 남양(南陽) 아저씨의 생일이므로 본영으로 왔다.

29일(임술) 맑음. 식후 동헌(東軒)에 나가서 공문들을 서류로 작성하였다. 종일 앉아서 사무를 보았다.

30일(계해) 맑음. 옷 담아 둔 농작을 꺼내 놓고 뒤져 보다가 둘은 고음천(古音川)으로 보내고 하나만 본영에 남겨 두었다. 저녁때 선유관(宣諭官)인 군관 신탁(申拆)이 와서 군대들을 위해서 위로연을 베풀 날짜를 말하였다.

10월

1일(갑자) 비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망궤례를 드렸다. 식후에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신 사과(愼司果)가 임시 살고 있는 곳에 들러 몹시 취해 돌아왔다.

2일(을축) 맑았으나 큰 바람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청어 배가 들어왔다.

3일(병인) 맑음. 새벽에 어머니를 모시고 일행을 데리고 배에 올라 본영으로 돌아와서 종일토록 즐거이 모시니 다행 또 다행이다.

4일(정묘) 맑음. 식후에 객사(客舍) 동헌(東軒)에 나가 종일 공무를 보았다. 저녁나절 남해(南海)가 그 소실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5일(무진) 흐림. 남양 아저씨 집안 제삿날이라 갔다가 왔다. 남해와 이야기했다. 비 올 징조가 많았다. 순천에선 석보창(石保倉)에서 잤다.

6일(기사)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이날은 잔치를 차리지 못하고 이튿날도 물렸다. 늦게 홍양과 순천(우치적(禹致績))이 들어왔다.

7일(경오) 맑고 따스했다. 일찍이 어머니를 위한 수연(壽宴)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

기니 다행 또 다행이다. 남해는 그 선대(先代)의 제삿날이어서 먼저 돌아갔다.

8일(신미) 맑음.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니 다행 또 다행이다. 순천과 작별 술잔을 나누고 보냈다.

9일(임신) 맑음. 서류를 처결하여 보냈다. 종일토록 어머님을 모셨다. 내일 진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머님이 꼭 서운해 하시는 기색이었다.

10일(계유) 맑음. 자정에 뒷방으로 갔다가 새벽 2시에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정오에 어머님을 하직하고 오후 2시께 배를 탔다. 바람 따라 돛을 달고서 밤새도록 노를 재촉해 왔다.

11일(갑술) 맑음.

[10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 빠져 있음]

정유년

정유년(丁酉年) I

1597년, 선조 30년, 충무공 53세.

공은 나라를 위해 뼈와 살을 다 바쳤건만, 공에게 돌아간 것은 감옥살이 뿐이었다. 그러나 공은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했다. 마지막 생명을 나라 위해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감사하며 말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까지 하였고, 또다시 공은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던 것이다.

4월

1일(신유)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남문 밖 윤간(尹侃)의 종의 집에 이르러 봉(奉), 분(芬), 울(蔚), 사행(士行), 원경(遠卿) 등과 한 방에 같이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하였다. 지사(知事) 윤자신(尹自新)이 와서 위로하고, 비변랑(備邊郞) 이순지(李純智)가 보러 왔었다. 울적한 마음을 한층 이기기 어려웠다. 지사가 돌아갔다가 저녁 식사 후 술을 가지고 다시 왔다. 기현(耜獻)도 왔다. 정으로 권하며 위로하기로 사양할 수 없어 억지로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 영공(令公) 이순신(李純愼)이 술병을 차고 와서 같이 취하며 간담하였다. 영의정(ユ성룡)이 종을 보냈고, 판부사(判府使) 정탁(鄭琢), 판서 심희수(沈喜壽), 찬성(贊成) 김명원(金命元), 참판(參判) 이정형(李廷馨), 대사헌(大司憲) 노직(盧稷), 동지(同知) 최원(崔遠), 동지 객영(郭嶸) 등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취하여 땀이 몸에 배었다.

2일(임술) 비. 종일 비가 왔다. 여러 조카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방업(方業)이 음식을 풍성히 차려 가지고 왔다. 필공(筆工)을 불러 붓을 매게 하였다. 어두울 무렵에 성으로 돌아가 정승과 이야기하다가 닭이 울어서야 헤어져 나왔다.

3일(계해) 맑음.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났다. 금오랑(金吾郞)(금부도사(禁府都事)의 별칭) 이사빈(李士貧), 서리(書吏) 이수영(李壽永), 나장(羅將) 한언향(韓彦香)은 먼저 수원부에 도착하였다. 나는 인덕원(仁德院)(안양시 관양동)에서 말을 먹이면서 조용히 누워 쉬다가 저물어서 수원에 들어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홍이상

(洪履祥) 수하에서 심부름하는, 이름도 모르는 군사의 집에서 잤다. 신복룡(愼伏龍)이 우연히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다. 부사 유영건(柳永健)이 나와 보았다.

4일(갑자) 맑음. 일찍 길을 떠나 독성(禿城)(오산시 양산동) 아래 이르니 판관 조발(趙撥)이 술을 갖추어 막을 치고 기다렸다. 취하도록 마시고 길을 떠나 바로 진위구로(振威舊路)(평택시 진위면 봉남리)를 거쳐 냇가에서 말을 쉬게 하고 오산(五山) 황천상(黃天祥)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황(黃)은 내 짐이 무겁다고 말을 내어 실어 보내니 고맙기 그지없었다. 수탄(水灘)을 거쳐 평택 고을 이내은손(李內隱孫)의 집에 이르니, 주인의 대접이 매우 은근하였다. 자는 방이 아주 좁고 불까지 때서 땀을 흘렸다.

5일(을축) 맑음. 해가 뜨자 길을 떠나 바로 선영(先塋)(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이르렀다. 수목이 두 번이나 산화를 겪고 타 죽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산소에 나아가 울며 절하고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하였다. 저녁때가 지나서 외가로 내려가 사당에 절하고 그길로 조카 뇌(藹)의 집에 이르러 선대 사당에 울면서 절하였다. 들으니, 남양(南陽)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저물어 집에 이르러 장인 장모님의 신위 앞에 절하고 바로 작은 형님과 여필(汝弼)의 부인되는 제수의 사당에도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심회가 좋지 않았다.

6일(병인) 맑음. 멀고 가까운 친척과 아는 이들이 모두 모여 와서 오래 못 본 정들을 풀고 갔다.

7일(정묘) 맑음. 금부도사가 아산 고을로부터 오므로 나는 가서 극진히 접대하였다. 홍찰방(洪察訪), 이별좌(李別坐), 윤효원(尹孝元)이 보러 왔다. 금부도사는 흥백(興伯)의 집에서 잤다.

8일(무진) 맑음. 아침에 자리를 베풀고 남양 아저씨를 곡하고 복을 입었다. 늦게 흥백(興伯)의 집에 이르러 이야기하였다. 강계장(姜稷長)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르

로 그 집에 가서 조상(弔喪)하고, 오는 길에 홍석견(洪石堅)의 집에 들렀다. 늦게 흥백(興伯)의 집에 가서 금부도사를 대접하였다.

9일(기사) 맑음. 동네 안에서 각기 술병을 들고 와서 멀리 가는 길을 위로하므로 정리상 거절하지 못하고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홍군우(洪君遇)는 노래 부르고, 이 별좌(李別坐)도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금부도사는 술을 잘 마시는데, 실수하지는 않았다.

10일(경오) 맑음. 아침 식후에 흥백(興伯)의 집에 이르러 금부도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늦게 홍 찰방(洪察訪), 이 별좌(李別坐) 형제, 윤효원(尹孝元) 형제가 보러 왔었다. 이언길(李彦吉), 허제(許霽)가 술병을 차고 왔다.

11일(신미) 맑음.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덕(德)이를 불러 대강 이야기하고, 또 아들 울(蔚)에게 이야기하였다. 마음이 매우 언짢아서 취한 듯 미친 듯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일까.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종을 보내서 어머니의 안후를 알아오게 하였다. 금부도사가 온양(溫陽)으로 돌아갔다.

12일(임신) 맑음. 종 태문(太文)이 안흥량(安興梁)(태안군 근흥면 안흥리)으로부터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데 어머니의 근력은 아주 쇠약하시나, 9일 위아래 여러 사람이 무사히 안흥(安興)에 닿았다고 한다. 법성포(法聖浦)(영광군 법성면)에 이르러 자고 있을 때 닢이 끌려 떠내려가서 배에 머무른 지 엿새 만에 서로 나뉘었다가 무사히 만났다고 한다. 아들 울을 먼저 바닷가로 보냈다.

13일(계유) 맑음. 일찍 아침을 먹고 어머니를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홍 찰방(洪察訪) 집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동안 울이 종 애수(愛壽)를 들여보내어, “아직 배 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또 들으니, 황천상(黃天祥)이 술병을 들고 흥백(興伯)의 집에 왔다 하므로 홍(洪)과 작별하고, 흥백의 집에 이르렀더니, 조금 있다가 종 순화(順花)가 배에서 와서 어머니의 부고를 전한다. 뛰쳐나가 뛰며 슬퍼

하니 하늘의 해조차 감감했다. 곧 해암(蟹岩)(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으로 달려가니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 다 어찌 적으랴. 뒷날 대강 적었다.

14일(갑술) 맑음. 홍 찰방(洪察訪), 이 별좌(李別坐) 등이 들어와 곡하고 관을 찼는데, 관은 본영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것으로 조금도 흠난 데가 없다고 한다.

15일(을해) 맑음. 늦게 입관했다. 친숙한 벗 오종수(吳從壽)가 모든 것을 정성껏 해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기 어렵다. 관에 대해서는 다른 유감이 없으니 이것만은 다행이다. 천안 원이 들어와서 행상을 준비하고, 전경복(全慶福)이 연일 진심으로 상복 만드는 일들을 돌봐 주니 슬프고 감사한 말을 어찌 다하랴.

16일(병자) 궂은비. 배를 끌어 중방포(中方浦)에 옮겨 대어, 영구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아픔이야 어떻게 다 말하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맥이 다 빠진 데다가 남쪽 길이 또한 급박하니, 부르짖으며 울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천안(天安)이 돌아갔다.

17일(정축) 맑음. 금부도사의 서리 이수영(李壽永)이 공주로부터 와서 어서 가자고 재촉하였다.

18일(무인) 비,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머리를 내놓지 못하고, 그저 빈소 앞에서 곡만 하다가 종 금수(金守)의 집으로 물러 나왔다. 늦게 계원들이 나 있는 곳으로 모여 와서 젓일을 의논하고 헤어졌다.

19일(기묘) 맑음.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니 영 앞에 하직을 고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라. 어서 죽는 것 같지 못하구나. 뇌(蕾)의 집에 이르러 선조의 사당에 하직을 아뢰고 그길로 금곡(金谷)(아산시 광덕면 대덕리) 강선전(姜宣傳)의 집 앞에 이르러 강정(姜鼎),

강영수(姜永壽)를 만나 말에서 내려 곡하고, 다시 그길로 보산원(寶山院)[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에 이르니, 천안 군수가 먼저 와 말에서 내려 냇가에서 쉬고 있으며 임천(林川) 군수 한술(韓述)이 중시(重試) 보러 서울 가는 길에 앞길을 지나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서 조문하고 갔다. 회(薺), 면(麵), 울(蔚), 해(菱), 분(芬), 완(莞)과 주부(主簿) 변존서 등이 함께 천안까지 따라왔다. 원인남(元仁男)도 보러 왔기에 작별한 뒤 말에 올랐다. 일신역(日新驛)[공주시 신관동]에 이르러 잤다. 저녁에 비가 뿌렸다.

20일(경진) 맑음. 공주(公州) 정천동(定天洞)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 이산(尼山)[논산시 노성면 읍내리]에 닿으니 이 고을 원이 극진히 접대하는 것이었다. 군청 동헌에서 잤다. 김덕장(金德章)이 우연히 와서 서로 만났고, 도사(都事)도 보러 왔었다.

21일(신사) 맑음. 일찍 떠나 은원(恩院)[논산시 은율면 연서리]에 이르니 김익(金翼)이 우연히 왔다고 한다. 임달영(任達英)이 곡식을 사러 배로 은진포(恩津浦)에 왔다고 하는데, 하는 꼴이 몹시 괴상했다. 저녁에 여산(礪山)[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관노의 집에서 잤다. 한밤중에 홀로 앉았으니 슬픈 생각을 견딜 길이 없었다.

22일(임오) 맑음. 낮에는 삼례(參禮)[완주군 삼례읍] 역리(驛吏)의 집에 이르고, 저녁에 전주 남문 밖 이의신(李義臣)의 집에서 잤다. 판관(判官) 박근(朴勤)이 보러 왔었고, 부윤(府尹)도 후히 접대했다. 판관이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와 생강 등을 보내 주었다.

23일(계미) 맑음. 일찍 떠나 오원역(烏原驛)[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에서 말도 쉬게 하고 아침도 먹었다. 조금 있다가 도사(都事)가 왔다. 저물어 임실현(任實縣)에 이르렀다. 원이 예사로이 대접했다. 원은 홍순각(洪純慤)이다.

24일(갑신) 맑음. 일찍 떠나 남원에 이르렀다. 읍에서 15리쯤에서 정철(丁哲) 등을 만났는데, 그들과 남원부 5리 안에까지 이르니 작별하고 10리 바깥 이희경(李禧

慶)의 종의 집에 이르렀다. 슬픈 회포를 어찌 말하라.

25일(을유) 비가 올 것 같았다. 아침 식후에 길을 떠나 운봉(雲峰)[남원시 운봉읍] 박룡(朴龍)의 집에 들어가니 비가 크게 퍼부어 머리를 내놓을 수 없었다. 거기서 들으니, 원수(元帥)(권율)는 벌써 순천으로 갔다고 하므로 곧 사람을 금부도사에게 보내 머무르게 했다. 이 고을의 원(南侃)은 병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26일(병술) 흐리고 개지 아니하였다. 일찍 식사하고 길을 떠나 구례현(求禮縣)에 이르니, 금부도사가 먼저 와 있었다. 손인필(孫仁弼)의 집에 사처를 잡았는데, 이 고을 현감(이원춘(李元春))이 급히 나와 보고 극진히 대접하고, 금부도사도 보러 왔었다. 금부도사에게 술을 권하라고 원에게 청하였더니, 원이 아주 대접을 잘 하였다고 한다. 밤에 앉았으니 비통함을 어찌 다 말하라.

27일(정해) 맑음. 일찍 떠나 송치(松峙)(순천시 서면 학구리) 밑에 이르니 구례 원이 점심을 짓게 했으나 돌려보냈다. 순천 송원(松院)(순천시 서면 운평리)에 이르자 이득중(李得宗), 정선(鄭愼) 등이 와서 문안하였다. 저녁에 정원명(鄭元溟)의 집에 이르니, 원수(元帥)가 내가 온 것을 알고, 군관 권승경(權承慶)을 보내어 조상하며, 또 안부도 묻는데, 위문하는 말이 자못 간곡했다. 저녁에 이 고을 원이 보러 왔었다. 정사준(鄭思駿)도 보러 와서 원 공(元公)(원균)의 망령되고 패악한 것을 많이 말하였다.

28일(무자) 맑음. 아침에 원수(元帥)가 또 군관 승경(承慶)을 보내어 문안하며 전하되, “상중에 몸이 피곤할 터이니 회복되는 대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이제 들으니 친근한 군관이 통제영에 있다고 하므로 편지와 공문을 보내고 나오게 하는 바이니 데리고 가서 간호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편지와 공문을 만들어 왔다. 부사(순천 부사)의 소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29일(기축) 맑음. 신 사과(愼司果)와 응원(應元)이 보러 왔었다. 병사(兵使)(이복남)도 원수에게서 지시를 들으려고 고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신 사과(愼司果)와 이

야기하였다.

30일(경인) 아침엔 흐리더니 저물어선 비가 왔다. 아침 후 신 사과와 이야기하였다. 그는 병사에게 붙들려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병사 이복남이 식전에 보러 와서 원 공의 일을 많이 말하였다. 감사(전라 감사 박홍로(朴弘老))도 원수에게 왔다가 군관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5월

1일(신묘) 비, 비. 신 사과(愼司果)가 머물며 이야기하였다. 순찰사와 병사는 원수가 머무른 정사준(鄭思竣)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논다고 했다.

2일(임진) 늦게 갬. 원수(권율)는 보성으로 가고 병사(이복남)는 본영으로 가고, 순찰사(박홍로)는 담양 가는 길에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부사(우치적)도 보러 왔었다. 진흥국(陳興國)이 좌수영으로부터 와서 눈물을 흘리며 원군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형복(李亨復)과 신흥수(申弘壽)도 왔었다. 남원 중 끝돌이가 아산(牙山)에서 와서 어머니 영연(靈筵)이 편안하시다고 하고, 또 유헌(有憲)이 식구들을 데리고 무사히 금곡(金谷)(아산시 광덕면 대덕리)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홀로 빈 동헌에 앉아 슬픈 정회를 견딜 길 없었다.

3일(계사) 맑음. 신 사과(愼司果), 응원(應元), 진흥국(陳興國) 등이 돌아갔다. 이기남(李寄男)이 보러 왔었다. 아침에 울(蔚)(둘째 아들)의 이름을 '藐'로 고쳤다. '藐'은 음이 '悅(열)'이다. 싹이 처음 튼다는 데나, 초목이 기운차게 자란다는 데 쓰는 글자라 뜻이 매우 좋다. 늦게 강소작지(姜所作只)가 와서 곡했다. 오후 4시쯤에 비가 뿌렸다. 저녁에 원이 보러 왔었다.

4일(갑오) 비. 이날은 어머니 생신이라 슬프고 애통함을 참을 길 없었다. 닭이 울자 일어나 앉아 눈물만 흘렸다. 오후에 비가 몹시 퍼부었다. 정사준(鄭思竣)이 와서 종일 돌아가지 않았다. 이수원(李壽元)도 왔었다.

5일(을미) 맑음. 새벽꿈이 매우 어지러웠다. 아침에 부사가 보러 왔었다. 늦게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이 한산(閑山)에서 와서 원 공(원균)의 못된 짓을 많이 전하고, 또 진중의 장졸들이 모두 다 배반하므로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리라고 하였다. 이날은 단오절인데, 천 리 밖에 멀리 종군하여 어머니님 영연(靈筵)을 멀리 떠나 장례도 못 모시니 무슨 죄로 이런 값을 당하는고. 나와 같은 사정은 고금을 통하여 짝이 없을 것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다만 때를 못 만난 것을 한탄할 따름이다.

6일(병신) 맑음. 꿈에 돌아가신 두 분 형님을 만났는데, 서로 붙들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사를 지내기 전에 천 리 밖으로 떠나와 군사에 종사하고 있으니, 대체 모든 일을 누가 주장해 한단 말이나, 통곡한들 어찌하리” 하였다. 이것은 두 형님의 혼령이 천 리 밖까지 따라 오셔서 근심하고 애달아함을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니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또 남원의 추수 감독 일을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연일 꿈자리가 어지러운 것도 아마 형님들의 혼령이 그옥이 걱정하여 주는 탓이라 슬픔이 한결 더하다. 아침저녁으로 그립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엉기어 피가 되건마는 아득한 저 하늘은 어찌서 내 사정을 살피 주지 못하는고. 왜 어서 죽지 않은지, 늦게 능성(綾城) 현감 이계명(李繼命)이 역시 상제 몸으로 기용된 사람인데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흥양(興陽)이 있는 중 우노음금(禹老音金), 박수매(朴守每), 조택(趙澤)과 순화(順花)의 처가 와서 인사했다. 이기윤(李寄胤)과 몽생(夢生)이 왔다. 송정립(宋廷立), 송득운(宋得運)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정원명(鄭元冥)이 한산(閑山)에서 돌아와서 흥한 자(원균)의 못된 짓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또 들으니, 부찰사(副察使)(한효순)가 좌수영으로부터 나와 병을 조리한다고 한다. 우수사(이억기)가 편지를 보내어 조상했다.

7일(정유) 맑음. 정혜사(定惠寺) 중 덕수(德修)가 깊은 한 결례를 바치므로 거절하고 받지 않았으나 두 번 세 번 간절히 말하므로 값을 주어 보내고, 깊은 원명(元冥)에게 주었다. 늦게 송대기(宋大器), 유몽길(柳夢吉)이 보러 왔었다. 서산 군수

안괄(安适)이 한산(閑山)에서 와서 음흉한 자(원균)의 일을 많이 말했다. 저녁에 이기남(李奇男)이 왔다. 이원룡(李元龍)이 수영에서 돌아왔다. 안괄이 구례에 갔을 때 조사겸(趙士謙)의 수절녀를 사통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놀랄 일이다.

8일(무술) 맑음. 아침에 승장 수인(守仁)이 밥 지을 중 두우(杜宇)를 데리고 왔다. 종 한경(漢京)은 일이 있어서 보성으로 보냈다. 홍양 종 세충(世忠)이 녹도(鹿島)에서 망아지를 끌고 왔다. 활장 이지(李智)가 돌아갔다. 이날 새벽꿈에 사나운 범을 때려잡아서 껍질을 벗겨 휘돌렸는데, 이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다. 조종(趙宗)이 이름을 연(璵)으로 고치고 보러 왔었다. 조덕수(趙德秀)도 왔었다. 낮에 망아지에 안장을 얹어 정상명(鄭常溟)이 타고 갔다. 음흉한 원(元)(원균)이 편지를 보내어 조상하니 이것은 원수(元帥)의 명령이었다. 이경신(李敬信)이 한산(閑山)에서 와서 음흉한 원(元)가의 말을 많이 하였는데, 원가가 데리고 온 서리(書吏)를 곡식이라는 구실로 육지로 보내 놓고 그 처를 사통하려고 하니 그 계집이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악을 쓴 일이 있었다고 한다. 원(元)이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하려 덤비니 이 역시 운수다. 뇌물로 실어 보내는 짐이 서울 길에 잇닿았으며, 그렇게 해서 날이 갈수록 심히 나를 헐뜯으니, 그저 때를 못 만난 것만 한탄할 따름이다.

9일(기해) 흐림. 아침에 이형립(李亨立)이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수원(李元壽)이 광양에서 돌아왔다. 순천 사는 과거에 급제한 강승훈(姜承勳)이 응모해 왔다. 부사(순천 부사)가 좌수영에 돌아왔다. 종 경(京)이 보성서 말을 끌고 왔다.

10일(경자) 굵은비가 내렸다. 이날은 태종(太宗)의 제삿날이다. 옛날부터 비가 온다(自古雨)고 하는데, 늦게 큰비가 왔다. 박줄생(朴注生)이 보러 왔었다. 주인이 보리밥을 지어서 내왔다. 장님 임춘경(任春景)이 운수를 봐 가지고 왔다. 부찰사도 조문하는 서장을 보내왔다. 녹도 만호 송여종(宋汝琮)이 삼과 종이 2가지를 부의

1 옛날부터 비가 온다 :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아주 가물 때 죽었는데, 죽으면서 어떻게든지 비를 오게 한다 하더니, 죽은 후 과연 비가 왔으며 그 후 그날만 되면 비가 온다고 전한다.

로 보냈다. 전라도 순찰사가 백미와 중품 쌀 각 1곡(20말)씩을 군관을 시켜 보내면서 콩과 소금도 구해 보낸다고 말했다.

11일(신축) 맑음. 김효성(金孝誠)이 낙안에서 왔다가 곧 돌아갔다. 광양의 전 현감 김성(金惺)이 체찰사(體察使)의 군관이 되어서 화살대 구하러 순천에 왔다가 보러 와서 근래의 소문을 많이 전하는데, 그 소문이란 모두 흉인(兇人)(원균)의 일이었다. 부찰사가 온다는 통지가 왔다. 장위(張渭)가 편지를 보냈다. 정원명(鄭元溟)이 보리밥을 지어서 내었다. 장님 임춘경(任春景)이 와서 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부찰사가 고을에 이르렀는데, 정사립(鄭思立)과 양정언(梁廷彦)이 와서 부찰사가 보러 오겠다 한다고 전하나 나는 몸이 불편하다고 거절하였다.

12일(임인) 맑음. 새벽에 이원룡(李元龍)을 보내어 부찰사에게 문안했더니 부찰사도 또 김덕린(金德麟)을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이기남(李奇男), 기운(奇崙)이 와서 보고 도양장(道陽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아침에 아들 열(莚)을 부찰사에게 보냈다. 신흥수(申弘壽)가 보러 와서 원 공(원균)의 점을 쳤는데, 첫 괘가 수뢰(水雷) 둔(屯)인데 천풍(天風) 구(姤)로 변했으니 본체를 이기는 것이라 크게 흉하다고 했다. 남해 원(박대남)이 조문 편지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보냈다. 쌀 2(섬)², 참기름 2(되), 꿀 5(되), 조 1(섬), 미역 2(동) 등. 저녁에 향사당(鄉社堂)에 가서 부찰사와 함께 밤 깊도록 이야기하고 자정에야 숙소로 돌아왔다. 정사립과 양정언이 와서 답이 온 뒤 돌아갔다.

13일(계묘) 맑음. 어젯밤 부찰사의 말이 상사(上使)가 보낸 편지에 영공(令公)의 일을 많이 탄식했더라고 한다. 늦게 정사준이 떡을 만들어 왔다. 부사(우치적)가 노자를 보내 주어 참으로 미안스러웠다.

14일(갑진) 맑음. 아침에 부사가 보고 가고, 부찰사는 부유(富有)(순천시 주암면 창촌리)로 떠났다. 정사준, 사립, 양정언 등이 와서 모시고 가겠노라고 하므로 일찍

2 숫자만 있고 단위가 없으므로 추정해서 표기한다.

아침을 먹고 떠나 송치(松峙)(순천시 서면 학구리) 밑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고, 혼자 바위 위에 앉아 한 시간이 넘도록 곤하게 잤다. 운봉(雲峰)의 박룡(朴龍)이 왔다. 저물어 찬수강(槩水江)(순천시 황전면 섬진강)에 닿아 말에서 내려 걸어서 건너가 구례 고을 손인필(孫仁弼)의 집에 이르니 현감이 보러 왔었다.

15일(을사)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주인집이 아주 낮고 험하여 파리가 벌떼같이 피니 사람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동헌의 모정(茅亭)으로 옮겼더니 남풍이 불어 들어왔다. 원과 함께 종일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그대로 잤다.

16일(병오) 맑음. 원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남원 탐후인(探候人)이 돌아와 전하되, “체찰사(이원익)가 내일 곡성을 들러 이 고을(구례)로 들어와서 몇 날 묵은 뒤에 진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 원이 점심을 내는데 너무나 융숭했다. 대단히 미안스러웠다. 저녁에 정상명(鄭襄溟)이 왔었다.

17일(정미) 맑음. 이 고을 원과 이야기하였다. 남원 탐후인이 와서 전하되, “원수(元帥)가 운봉(雲峰) 길로 가지 않고 양 총병(楊總兵)(양원(楊元))을 영접하는 일로 전주로 달려갔다”고 한다. 내 걸음이 낭패라 민망하다.

18일(무신) 맑음. 동풍이 몹시 불었다. 저녁에 김종려(金宗麗) 영공(令公)이 남원서 바로 보러 왔다. 충청 수영의 영리(營吏) 이엽(李燁)이 한산서 왔기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치기는 하였으나, 아침 술에 취해 날뛰니 가증스러웠다.

19일(기유) 맑음. 체찰사가 들어온다고 하므로 성 안에 머무르고 있기가 미안하여 동문 밖 장세호(張世豪)의 집으로 나갔다. 명협정(莫莢亭)³에 앉았는데 원(이원춘(李元春))이 보러 왔었다. 저녁에 체찰사가 고을로 들어왔다. 오후 4시쯤에 소나기가 크게 쏟아지다가 오후 6시쯤에 개었다.

20일(경술) 맑음. 늦게 김 침지(경로(敬老))가 보러 와서 무주(茂朱) 장박지리(長朴

3 명협정(莫莢亭) : 초고에는 조협정이라 되어 있는데, 조(藻)는 명(莫)의 오자임.

只里)의 농토가 아주 좋다고 말하였다. 옥천에 사는 권치중(權致中)은 김 첨지의 서처남인데, 장박지리란 곳이 바로 옥천 양산창(梁山倉) 근처라고 하였다. 체찰사는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공생(貢生)을 보내고, 또 군관 이지각(李知覺)을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또 사람을 보내어, “진작 상제된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이제야 듣고 놀라며 애도한다” 하고 군관을 보내어 조상하며, 저녁에 만나볼 수 있겠는가를 물으므로 나는 “저녁에 당연히 가서 뵈겠다”고 대답하고 어두울 녀에 가서 뵈니, 체찰사는 소복(素服)을 입고 기다렸다. 조용히 일을 이야기하는 중에 체찰사는 개탄하기를 마지않았다. 밤 되도록 이야기하는 중에 “일찍이 임금의 분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미안스런 말이 많았는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며, 또 말하되 “음흉한 사람(원균)의 무고하는 행동이 심했건만 임금이 굽어 살피지 못하니 나랏일을 어찌할꼬” 하는 것이었다. 떠나올 때에 남 종사(南從事)가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으나 나는 밤이 깊어서 나가서 인사하지 못하노라고 대답해 보냈다.

21일(신해) 맑음. 박천(博川) 유해(柳海)가 서울서 내려와서, 한산으로 가서 공을 세우겠노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은진현(恩津縣)(논산시 은율면 연서리)에 이르니 은진 원이 뱃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하였다. 유(柳)가 또 말하기를 “중한 죄수 이덕룡(李德龍)이란 자를 고소한 사람이 잡아 간혀 세 차례 형장을 맞고 다 죽어 간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과천(果川) 좌수(座首) 안홍제(安弘濟) 등이 이상공(李尙公)에게 말과 20살짜리 계집종을 바치고 놓여 나갔다고 하였다. 안(安)은 본시 죽을죄도 아닌데, 여러 번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가 물건을 바치고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팎이 모두 바치는 물건의 다소로 죄의 경중을 결정한다니 이러다가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야말로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의 뉘도 찾아온다는 것인가.

22일(임자) 맑음. 남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손인필(孫仁弼) 부자(父子)가 보러 왔었다. 유박천(柳博川)이 승평(昇平)으로 가서 그길로 한산으로 간다 하므로 전

라, 경상 두 수사와 가리포 등에게 문안 편지를 써 보냈다. 늦게 체찰사의 종사관 김광엽(金光燁)이 진주에서 이 고을로 들어오고 배백기(裴伯起)(배홍립) 영공도 온다고 사사 편지가 왔다. 정회를 펼 수 있을 것이라 다행이다. 혼자 앉았노라니 비 통함을 견디기 어렵다. 어두울 녘에 배 동지(배홍립)와 원이 보러 왔었다.

23일(계축) 아침에 정사룡(鄭士龍), 이사순(李士順)이 와서 보고 원 공(원균)의 말을 많이 전했다. 늦게 배 동지는 한산으로 돌아갔다. 체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부르므로 가서 뵈고 조용히 의논했는데, 시국의 그릇된 것을 무척 분히 여기며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내일 초계(草溪)(도원수 권율이 진을 친 곳)로 가겠노라고 하니, 체찰사가 이대백(李大伯)이 모은 쌀 2섬을 붙여 주기에 성 밖 주인 장세휘(張世輝) 집으로 보냈다.

24일(갑인) 맑음. 종일 동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광양 고응명(高應明)의 아들 언선(彦善)이 보러 왔다가 한산도 사정을 많이 전했다. 체찰사가 군관 이지각(李知覺)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경상 우도 연해안 지도를 그리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으니 본대로 그려 보내 주면 다행이겠다”고 하므로 거절할 수 없어 대강 그려 보냈다. 저녁에 비가 굉장히 쏟아졌다.

25일(을묘) 비. 아침에 떠나려 하다가 비 때문에 정지하고, 혼자 촌집에 기대어 앉았으니 회포가 그지없다. 슬프고 그리운 생각을 어찌하랴.

26일(병진) 종일 큰비가 내렸다. 비를 맞으면서 길을 떠나는데, 막 떠나려 하자 사량(蛇梁) 만호 변익성(邊翼星)이 무슨 문초받을 일로 체찰사에게로 이종호(李宗浩)에게 잡혀 오므로 잠깐 서로 만나 보고 그길로 석주관(石柱關)에 이르니 비가 퍼붓듯이 온다. 말을 쉬게 하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간신히 악양(岳陽) 이정란(李廷鸞)의 집에 이르렀으나 문을 닫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 집에는 뒤에 기와 집채도 있었다. 종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물색해 보았으나 합당한 곳이 없으므로 조금 뒤에 돌아왔다. 이정란의 집은 김덕령(金德齡)의 아우 덕린(德麟)이 빌어 든 집이다. 나

는 열(僥)을 시켜 억지로 청해서 들어가 잤다. 행장이 다 젖었다.

27일(정사) 흐리다 개다 했다. 아침에 젖은 옷을 바람에 걸어 말렸다. 늦게 떠나 두치(豆恥) 최춘룡(崔春龍)의 집에 이르니, 사랑 만호 이종호가 와 있었다. 변익성(邊翼星)은 곤장 20대를 맞고 꼼짝도 못한다고 했다. 유기룡(柳起龍)이 보러 왔었다.

28일(무오)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늦게 떠나 하동현에 이르니 그 고을의 원(申稔)이 서로 만나 보기를 반가이 여기며, 성 안 별사로 맞아들여 간곡한 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원(원균)의 미친 짓을 많이 말했다. 날이 저물도록 이야기하였다. 변익성도 왔다.

29일(기미) 흐림. 몸이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며 조리했다. 현감이 정다운 말을 많이 하였다. 황 생원이라고 하는 70세나 되는 노인이 하동에 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서울 사람으로 지금 떠돌아다닌다는데, 나는 만나지 아니하였다.

6월

1일(경신) 비, 비. 일찍 떠나 청수역(淸水驛)(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시냇가 정자에 이르러 말을 쉬고, 저물어 단성(丹城) 땅과 진주 땅의 경계에 박호원(朴好元)의 농사짓는 종의 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반가이 접대하기는 하나, 잘 방이 좋지 못해서 간신히 밤을 지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기름종이 1(축), 장지 2(축), 백미 1(섬), 참깨 5(말), 들깨 3(말), 꿀 5(되), 소금 5(말), 미지(未持)⁴ 5을 하동 원이 보내 주었다.

2일(신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일찍 떠나 단계(丹溪)(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시냇가에서 아침을 먹고, 늦게 삼가현(三嘉縣)에 이르니, 현감(신효업(申孝業))은 벌써 산성으로 가고 없어 주인 없는 공관에서 잤다. 고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밤

4 미지 : 밀 먹인 종이. 배 구멍을 때워 막는 데 쓴다.

은 지어 먹으라고 하는 것을, 종들에게 먹지 말라고 타일렀다. 삼가현 5리 밖 화나무 정자 아래 앉았노라니, 근처에 사는 노순일(盧淳鎰) 형제가 보러 왔었다.

3일(임술) 비, 비. 아침에 떠나려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판에 도원수의 군관 유홍(柳弘)이 홍양으로부터 와서 길을 이야기하며 떠날 수 없다고 하므로 그대로 묵었다. 아침에 종들이 고을 사람들의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기에 종을 매 때리고 밥쌀을 도로 갇아 주었다.

4일(계해) 흐리다 맑음. 일찍 떠나려는데, 현감(신표업)이 문안장과 함께 노자까지 보내왔다. 낮에 합천 땅에 이르러 고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괴목정이 있는 곳에서 아침밥을 먹고 너무 덥기 때문에 한동안 말을 쉬고, 5리쯤 되는 앞에 이르니 갈림길이 있는데, 한 길은 바로 고을로 들어가는 길ियो, 한 길은 초계(草溪)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고 가다가 10리 남짓해서 원수(元帥)의 진이 바라보였다. 문보(文步)가 우거하는 집에 들어가 잤다. 고갯길을 타고 오는데, 기괴한 바위가 천 길이나 되고, 굽이도는 강물이 깊기도 하며 길은 험하고 위태로워 만일 이 험한 곳을 놀러 지킨다면, 만 명이라도 지나가기 어렵겠다. 여기가 모여곡(毛汝谷)이다.

5일(갑자)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초계 원이 달려왔기에 불러들여 이야기하였다. 식후에 중군(中軍) 이덕필(李德弼)도 달려와서 함께 지난 이야기를 했다. 조금 있다가 심준(沈俊)도 보러 왔으므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거처할 방을 도배했다. 저녁에 이승서(李承緒)가 보러 와서 수직하던 병졸과 복병들이 도망한 일을 말했다. 이날 아침 구례 사람과 하동 현감(신진)이 보내 준 종과 말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6일(을축) 맑음. 자는 방을 새로 도배하고 군관 휴식소 두 칸을 만들었다. 늦게 모여곡(毛汝谷) 주인집의 이웃에 사는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이 보러 왔었다. 종경(京)을 이대백(李大伯)에게 보냈더니 담당 아전이 나가고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한

다. 이대백도 나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 한다. 어두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과부는 다른 집으로 옮겨 갔다.

7일(병인) 맑고 몹시 더웠다. 원수(元帥)의 군관 박응사(朴應泗)와 유홍(柳泓) 등이 보러 왔고,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黃汝一)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므로 곧 답례해 보냈다. 안방에 들어가 잤다.

8일(정묘) 맑음. 아침에 정상명(鄭翬冥)을 보내어 황 종사관에게 안부를 물었다. 늦게 이덕필(李德弼)과 심준(沈俊)이 보러 왔고, 원이 그 아우와 함께 보러 왔고 원수를 마중 가는 사람들도 10여 명이나 보러 왔었다. 점심 후에 원수가 진에 이르므로 나도 가 보았다. 종사관이 원수 앞에 있었고, 원수가 함께 한참 이야기하였다. 원수가 박성(朴性)의 사직하는 글의 등본을 보이는데, 박성은 원수의 처사가 허술한 데가 있다고 많이 진술하여, 원수가 못마땅해 하면서도 체찰사에게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 북병에 관한 사항 등의 서류를 보고 저물녘에 돌아와, 몸이 불편하므로 저녁밥을 먹지 아니했다.

9일(무진) 흐리며 개지 않았다. 늦게 정상명을 원수에게로 보내어 문안하고, 다음으로 종사관(황여일)에게도 문안했다. 처음으로 노마료(奴馬料)⁵를 받았다. 숫돌을 캐 왔는데 품질이 연일석(延日石)⁶보다 낫다고 한다.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 문보 등이 보러 왔었다. 이날은 여필(汝弼)의 생일인데, 혼자 진중에 앉아 있으니 회포가 어떠하랴.

10일(기사) 맑음. 아침에 가라말, 위라말, 간자말, 유마(驢馬)⁷ 등의 편자가 떨어진 것을 갈아 박았다. 원수의 종사관이 삼척(三陟) 사람 홍연해(洪璉海)를 보내서 문안하고, 늦게 보러 오겠다고 전했다. 연해는 홍견(洪堅)의 삼촌 조카다. 어려서 죽

5 노마료(奴馬料) : 종과 말을 먹일 비용, 즉 군대 복무에 대한 보수.

6 연일석(延日石) : 경상북도 영일(迎日)에서 나는 몸이 곱고 아름다운 숫돌.

7 가라말은 털빛이 검은 말, 위라말은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 간자말은 이마와 뺨이 흰 말, 유마는 갈기는 검고 배가 흰 말인데, 앞의 두 말은 싸움말(戰馬)이요, 뒤의 두 말은 짐말(卜馬)이다.

마를 타고 같이 놀던 서철(徐徹)이 합천(陝川) 땅 동면(東面), 울진(栗津)에 사는 데,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보러 왔었다. 아이 때 이름은 서가을박지(徐加乙朴只)인데, 음식을 대접해서 보냈다. 저녁에 원수 종사관 황여일(黃汝一)이 보러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임진년에 왜적을 무찌른 일에 대하여 칭탄(稱歎)하지 않는 일이 없고, 또 산성에 험고한 요새를 쌓지 않은 한탄과 당면한 토벌 방비의 대책이 허술한 것 등을 말하는데, 밤이 깊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 것을 잊고 이야기하였다. 또 그는 내일 원수가 산성을 친히 살펴보러 간다고 말하였다.

11일(경오) 맑음. 중복 날이라 쇠라도 녹일 것 같고, 땅은 찌는 듯했다. 늦게 명나라 차관(差官) 경략(經略) 군문에 있는 이문경(李文卿)이 보러 왔으므로 부채를 선물로 주어 보냈다. 어제 저녁 종사관이 이야기할 때 변흥백(卞興伯)의 종 춘(春)이 집 편지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영연(靈筵)이 평안하신 줄은 알았으나, 쓰라린 회포야 어찌 다 말하랴. 그런데 흥백(興伯)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청도(淸道)로 돌아갔다 하니 참으로 섭섭하다. 이날 아침 편지를 써서 흥백에게 보냈다. 아들 열이 곱란을 앓아 밤새도록 신음하므로 말할 수 없이 답답했다. 닭이 울어서야 조금 덜해 잠이 들었다. 이날 아침, 한산도 여러 곳에 가는 편지 14장을 썼다. 경(庚)의 모친이 편지를 보냈는데, 지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도둑이 또 일어났다고 했다. 작은 워라말이 먹지를 앓으니 더위를 먹은 것이다.

12일(신미) 맑음. 이른 아침에 종 경(京)과 종 인(仁)을 한산(閑山) 진으로 보냈다. 전라 우수사(이억기), 충청 수사(최호(崔湖)), 경상 수사(배설(裴榑)), 가리포(이응표(李應彪)), 녹도(송여중), 여도(김인영), 사도(황세득(黃世得)), 배 동지(배홍립), 김 조방장(김완(金浣)), 거제(안위(安衛)), 영등(조계종(趙繼宗)), 남해(박대남), 하동(신진), 순천(우치적) 등에게 편지했다. 늦게 승장(僧將) 처영(處英)이 보러 와서 부채와 짚신을 바치므로 다른 물건으로 갚아 보냈다. 그는 적의 정세도 이야기하고, 원 공(원균)의 일도 이야기했다. 오후에 들으니 중군장(中軍將)(이덕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로 갔다고 한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원수(元帥)에게

가 본즉, 우병사(김응서)의 긴급 보고에 “부산의 적은 창원 등지로 떠나려 하고, 서생포의 적은 경주로 진을 옮긴다”고 하였으므로 북병군을 보내서 길을 막고 군대의 위세를 올린다고 했다. 병사의 우후(虞候) 김자현(金自獻)이 일이 있어서 원수를 뵈러 왔었다. 나도 보았다. 달빛을 이고 돌아왔다.

13일(임신) 맑더니 늦게 보슬비가 뿌리다가 그쳤다. 늦게 병사의 우후 김자현이 보러 와서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이날 낮에 왕골을 찌서 말렸다. 어두워 청주(淸州) 이희남(李喜男)의 종이 들어와서 “주인이 우병사 부대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지금 원수(元帥)의 진 근처에까지 왔는데, 날이 저물어서 묵고 있다”고 말하였다.

14일(계유) 흐리되 비는 안 왔다. 이른 아침에 이희남이 들어와서 제 누이의 편지를 전해 주는데, 아산의 영연(靈筵)과 위아래가 모두 무사하다고 하나, 아픈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아침 식후에 이희남이 편지를 가지고 우병사(김응서)에게로 갔다.

15일(갑술) 맑고 흐리기 반반. 이날은 보름인데, 몸이 군중에 있어 영위를 베풀고 곡을 못하니 그리운 정희가 어떠하랴. 초계 원이 떡을 갖추어 보냈다. 원수 종사관 황여일이 군관을 보내어 말을 전하되, “원수가 오늘 산성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나도 뒤따라 큰 냇가에 이르렀다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봐, 냇가에 앉아서 정상명(鄭瑒溟)을 보내어 병이라 아뢰고 그대로 돌아왔다.

16일(을해) 맑음. 종일 혼자 앉았었는데,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열(瑬)과 이원룡(李元龍)을 불러들여 책을 매어서 번씨 족보를 쓰게 했다. 저녁에 희남(喜男)이 한글 편지를 보냈는데, “병사(兵使)가 보내 주지 않는다”고 했다. 변광조(卞光祖)가 보러 왔었다. 열과 정상병이 큰 내에 가서 싸움말(戰馬)을 씻겨 가지고 왔다.

17일(병자) 흐리되 비는 안 왔다. 서늘한 기운이 들기 시작해서 밤이 쓸쓸하다. 새

벽에 일어나 앉으니 아프고 그리움을 어찌 다 말하랴. 아침 식후에 원수에게로 갔더니 원(元) 공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많이 말하고, 또 비변사(備邊司)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이는데, “원균의 장계에 수군과 육군이 함께 나가서 안골(安骨)(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의 적을 무찌른 연후에 수군이 부산 등지로 진군하겠으니 안골의 적을 먼저 칠 수 없겠습니까” 하였고, 원수(元帥)의 장계에는 “통제사 원균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안골의 적을 먼저 쳐야 한다고만 말하고, 수군 여러 장수들이 많이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뿐더러, 원균은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므로 절대로 여러 장수들과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 일을 엮질러 버릴 것은 뻔합니다”라고 하였다. 원수에게 아뢰어 이희남(李喜男)과 변존서(卞存緒), 윤선각(尹先覺) 등에게 모두 공문으로 독촉해 오도록 하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황 종사관이 묵고 있는 집에 들러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내 숙소로 와서 희남(喜男)의 종을 의령산성(宜寧山城)으로 보냈다. 청도(淸道)가 파발로 공문을 보내어 초계 원에게 보여 주었으니, 실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18일(정축) 흐리되 비는 안 왔다. 아침에 황 종사관이 종을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윤감(尹鑑)이 떡을 해 가지고 왔다. 명나라 사람 엽위(葉威)가 초계로부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명나라 사람 주언룡(朱彦龍)이 일찍이 일본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적병 10만 명이 벌써 사자마(沙自麻)나 대마도로 왔을 것이요, 행장(行長)은 의령을 거쳐 곧장 전라도를 칠 것이요, 또 청정(靑正)은 경주, 대구 등지로 진을 옮기고 그대로 안동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저물어 원수가 사천(泗川) 갈 일을 통지해 왔기에 곧 정 사복(司僕)(정상명(鄭陟冥))을 보내어 물었더니, 원수가 수군 일 때문에 사천으로 간다 했다.

19일(무인) 새벽닭이 세 회를 울 때 문을 나서 원수 진중에 이르러 할 즈음 날이 흰히 밝았다. 진에 이르니 원수와 황 종사관이 함께 나와 앉았다. 내가 들어가 보니, 원수가 내게 원균의 일을 말하되, “통제의 일은 말할 수가 없소. 조정에 청하여 안골, 가덕(加德)을 모조리 무찌른 뒤에 수군이 나가 토벌해야 한다 하니, 그게 무슨

심사겠소. 밀고 나가지 않으려는 뜻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천(泗川)으로 가서 세 수사(水使)를 독촉하여 진격하도록 할 예정이오. 통제사는 내가 지휘할 것도 없소” 하였다. 또 위에서 내려온 분부를 보니, 안골(安骨)의 적은 경술히 들어가 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원수가 나간 후 황 종사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초계(草溪) 원이 왔다. 작별하고 나오려 할 때 황 종사관이 초계에게 진찬순(陳贊順)을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당부하니 원수부의 병방(兵房) 군관과 원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이날 대지가 온통 찌는듯 더웠다. 저녁에 작은 위라말이 풀을 조금 먹었다. 낮에 변덕기(卞德基)(군사), 덕장(德章)(우영리(右營吏)), 변경완(卞慶琬)(늙어서 그만둔 아전), 변경남(卞敬男)(나이 18세) 등이 보러 왔고, 진사(進士) 이일장(李日章)(진사 이신길(李信吉)의 아들)도 보러 왔다. 밤에 소나기가 크게 퍼부어 처마의 낙수가 물을 쏟는 것 같았다.

20일(기묘) 종일 비가 내렸는데, 밤에도 큰비가 왔다. 늦은 아침에 서철(徐徹)(공의 어릴적 친구)이 보러 왔었다.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 문보 등이 보러 왔고, 변유(卞瑜)도 왔다. 오후에 종과 말의 급료를 받아 왔다. 병든 말이 차차 나아갔다.

21일(경진)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새벽꿈에 덕(德), 울온(栗溫), 대(臺) 등이 보였는데, 나를 보고 펴 좋아들 하였다. 아침에 영덕 현령 권진경(權晋慶)이 원수께 보러 왔다가 원수가 사천으로 가고 없으므로 나를 보러 와서 좌도(경상좌도)의 사정을 많이 전했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곧 답장을 써서 주었다. 황 종사관이 문안하러 사람을 보냈다. 저녁에 변 주부(注簿)(변존서), 윤선각(尹先覺)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22일(신사)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초계 원이 연포(軟泡)국⁸을 끓여 가지고 와서 권하긴 하나 오만한 빛이 많았다. 그의 처사가 체모 없음을 말하여 무엇하

8 연포국 : 무, 두부, 다시마, 고기 등을 맑은 장국에 끓인 것이다.

랴. 늦게 이희남(李喜男)이 들어와서 우병사의 편지를 전하였다. 낮에 정순신(鄭舜信), 정사겸(鄭思謙),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 문보 등이 보러 오고, 이선손(李先孫)도 보러 왔었다.

23일(임오)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큰 화살을 다시 다듬었다. 늦게 우병사가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크고 작은 환도를 보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사람이 물에 떨어뜨려 칼집과 장식을 결판내 났으니 아깝다. 아침에 나굉(羅宏)의 아들 재흥(再興)이 그 아비의 편지를 가지고 보러 왔었다. 또 군색한 노자까지 보내어 매우 미안했다. 오후에 이방(李芳)이 보러 왔는데, 방은 아산 이몽서(李夢瑞)의 둘째 아들이다.

24일(계미) 이날은 입추다. 새벽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여 온 골짜기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수사(水使) 권언경(權彦卿)의 종 세공(世功)과 함께 감손(甘孫)이 와서 무발에 대한 일을 아뢰었다. 또 생원 안극가(安克可)가 보러 와서 세상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무발을 깔고 심는 일의 감관(監官)으로 이원룡(李元龍), 이희남, 정상명, 문임수(文林守) 등을 정해 보냈다. 오후에 합천 군수(오운(吳濤))가 조언형(曹彦亨)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찌는듯 더웠다.

25일(갑신) 맑음. 다시 명령하여 무씨를 뿌리게 했다. 아침 식전에 황 종사관(여일)이 보러 와서 수전(水戰)에 대한 일을 많이 말하였다. 또 원수가 오늘내일 진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군사 문제를 토론하다가 늦게야 돌아갔다. 저녁에 종경이 한산서 돌아왔는데, 보성 군수 안홍국(安弘國)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적 한 놈도 잡지 못하고 먼저 두 장수를 잃어버리니 통탄함을 어찌 말하랴. 거제(巨濟)가 사람을 시켜 미역을 실어 보냈다.

26일(을유) 맑음. 새벽에 순천의 종 윤복(允福)이 현신하기에 곧 곤장 50대를 때렸다. 거제서 온 사람이 돌아갔다. 늦게 중군장(中軍將) 이덕필(李德弼)과 변홍달(卞弘達), 심준(沈俊) 등이 보러 왔었다. 황 종사관이 개벼루(犬碩) 강가의 정자에 나

왔다가 돌아갔다. 어응린(魚應麟), 박몽삼(朴夢參) 등이 보러 왔었다. 아산 있는 중평세(平世)가 들어와서 어머니 영연(靈筵)이 평안하시고 각 집 상하가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석 달이나 가물어 농사는 틀려 가망도 없다는 것이다. 장삿날은 7월 27일로 했다가 다시 8월 4일로 택일했다고 한다. 그리운 생각, 슬픈 정회를 어찌 다 말하랴. 저녁에 우병사(金應瑞)가 체찰사에게 보고하되, “아산 이방(李昉)과 청주 이희남(李禧男)이 복병하기 싫어서 원수 진 옆에 피해 있다” 하여 체찰사가 원수에게 공문을 보내왔으므로 원수는 크게 노하여 또 공문을 만들어 보냈는데, 병사(兵使) 김응서(金應瑞)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이날 작은 위라말이 죽어 내다 버렸다.

27일(병술) 맑음. 아침에 어응린(魚應麟), 박몽삼(朴夢參) 등이 돌아갔다. 이희남과 이방(李昉) 등이 체찰사의 행차가 이르는 곳으로 갔다. 늦게 황여일(黃汝一)이 보러 와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하였다. 오후 3시에 소나기가 크게 쏟아져 잠깐 사이에 물이 불었다.

28일(정해) 맑음. 늦게 황해도 백천(白川) 사는 별장(別將) 조신옥(趙信玉), 홍대방(洪大邦) 등이 보러 왔다. 또 초계(草溪) 아전이 보낸 고목에는 원수(元帥)가 내일 남원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날 새벽에 꿈자리가 매우 뒤숭숭하였다. 종 경(京)이 물건을 사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29일(무자) 맑음. 변 주부(卞主簿)(변존서(卞存緒))가 마흘방(馬訖坊)으로 갔다. 종 경이 돌아오고 이희남(李禧男), 이방(李昉) 등도 돌아왔다. 이 중군(李中軍)(이덕필(李德弼))과 심준(沈俊)이 와서 전하는 말이 심 유격(沈遊擊)(심유경(沈愉敬))이 체포되어 갔는데 양 총병(楊總兵)이 삼가(三嘉)에 이르러 결박해 보냈다고 한다. 문임수(文林守)가 의령(宜寧)으로부터 와서 전하기를, 체찰사가 벌써 초계역(草溪驛)에 당도했다고 한다. 새로 과거에 급제한 양간(梁諫)이 황천상(黃天祥)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변 주부가 마흘방에서 돌아왔다.

30일(기축) 맑음. 새벽에 정상명으로 하여금 체찰사께 문안드리게 하였다. 이날 몹시 더워서 대지가 찢는 듯하였다. 저녁때 흥양(興陽), 신여량(申汝樑), 신제운(申霽雲) 등이 와서 해안 지방 일대에는 비가 알맞게 왔다고 전했다.

7월

1일(경인) 새벽에 비가 오고 늦게는 개었다. 명나라 사람 세 명이 왔는데, 부산(釜山) 가는 길이라 했다. 송대립(宋大立)이 송득운(宋得運)과 함께 왔다. 안각(安玉)도 보러 왔다. 저녁에 서철(徐徹) 및 방덕수(方德壽)와 그의 아들이 와서 잤다. 이날 밤 가을 기운이 몹시 서늘하여 슬프고 그리움을 어찌하랴. 송득운이 원수(元帥) 진을 왕래하다 보니 종사관(從事官)(황여일(黃汝一))이 큰 냇가에서 젖대를 들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오늘은 인종(仁宗)의 나라 제삿날인 것이다.

2일(신사)⁹ 맑음. 아침에 변덕수(卞德壽)가 돌아왔다. 늦게 신제운(申霽雲)과 평해(平海) 사는 정인서(鄭仁恕)가 종사관 심부름으로 문안하러 왔다. 오늘이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인데, 멀리 천 리 밖에 와서 군복을 입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3일(임오) 맑음. 새벽에 앉아 있으니 싸늘한 기운이 뼈에 스민다. 비통한 마음이 한결 더해졌다. 제사에 쓸 유밀과와 밀가루를 장만했다. 늦게 정읍(井邑) 군사 이량(李良), 최언환(崔彦還) 및 진손(巾孫) 등 3명을 심부름 시키라고 보내왔다. 늦게 장준완(蔣俊琬)이 남해로부터 보러 와서 전하기를 남해 원의 병이 중하다는 것이었다. 민망했다. 이윽고 합천(陝川) 군수 오운(吳雲)이 보러 와서 산성(山城)에 관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점심 후 원수(元帥) 진중에 가서 황 종사관(黃從事官)(황여일(黃汝一))과 이야기하였다. 종사관은 전적(典籍)과 박안익(朴安義)와 활을 쏘았다. 이때 좌병사(左兵使)가 그 군관을 시켜 항복한 왜인 2명을 압송해 보냈는데, 청정(淸正)의 부하라고 했다. 해가 저물어 돌아왔다. 또 들으니 고령(高靈) 원

9 7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간지(干支)가 모두 틀리게 적혔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대로 고치지 않고 둔다.

이 성주(星州)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4일(계미) 맑음. 아침에 황 종사관이 정인서(鄭仁恕)를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이방(李芳) 및 유황(柳滉)이 왔다. 자원입대하는 군인 홍양의 양점(梁潛), 찬(欒)과 기(紀) 등이 왔다. 변여량(卞汝良), 변회보(卞懷寶), 황언기(黃彦己) 등이 모두 벼슬하고서 보러 왔다. 변사증(卞師曾)도 변대성(卞大成) 등과 보러 왔다. 점심 후 비가 뿌렸다. 아침밥 때 안극가(安克可)가 보러 왔다. 어두워져서 큰비가 오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아니했다.

5일(갑신) 비. 이른 아침에 초계(草溪) 원이, 체찰사(體察使) 종사관 남이공(南以恭)이 경내를 지나간다고 하면서 산성으로 문 앞을 지나갔다. 늦게 변덕수(卞德壽)가 왔다. 변존서(卞存緒)는 마흘방(馬訖昉)으로 갔다.

6일(을유) 맑음. 꿈에 윤삼빙(尹三聘)을 만났는데, 나주(羅州)로 귀양 간다고 했다. 늦게 이방(李芳)이 보러 왔다. 빈 방에 홀로 앉았으니 그리움과 비통함을 어찌 말로 다하랴. 저녁에 바깥채에 나가 앉았다가 변존서가 마흘방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 안각(安珩) 형제도 흥백(興伯)을 따라왔다. 이날 제사에 쓸 중배끼(中朴桂)¹⁰ 5말을 꿀에다 만들어 봉해서 다시 시령 위에 얹었다.

7일(병술) 맑음. 오늘은 칠석. 슬프고 그리움을 어찌하랴. 꿈에 원 공(元公)과 한자리에서 만났는데, 내가 원 공 위에 앉아 음식상을 받자 원 공이 즐거운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다. 박영남(朴永男)이 한산도(閑山島)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그 주장(主將)의 잘못으로 대신 죄책받기 위해 원수(元帥)에게 붙들려 왔다는 것이었다. 초계(草溪)가 햇물건들을 갖추어 보내왔다. 아침에 안각 형제가 보러 왔고 저물녘에는 홍양 박응사(朴應泗)가 보러 오고 심준(沈俊) 등도 보러 왔다. 의령(宜寧) 원 김전(金銓)이 고령(高靈)으로부터 와서 병사의 처사가 뒤죽박죽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10 중배끼 : 초고의 ‘中朴桂’는 즈배기의 이두 표기로서 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장방형으로 베어 기름에 튀워 지진 유밀과의 한 종류를 말한다.

8일(정해) 맑음. 아침에 이방(李芳)이 왔기에 밥을 대접해 보냈다. 그에게서 들으니 원수(元帥)가 구례(求禮)에서 벌써 곤양(昆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늦게 집주인 이어해(李漁海)가 최태보(崔台補)와 함께 보러 오고, 변덕수(卞德壽) 또한 왔다. 저녁에 송대립(宋大立), 유홍(柳洪), 박영남이 왔다가 송, 유 두 사람은 돌아갔다.

9일(무자) 맑음. 내일은 열(莬)을 아산(牙山)으로 보내려고 제사에 쓸 과물을 감봉(監封)했다. 늦게 윤감(尹鑑), 문보 등이 술을 가지고 와서 열과 변 주부(卞主簿) [변존서(卞存緒)]에게 작별 술을 권하고 돌아갔다. 이날 밤 달빛이 대낮 같아 어머님 그리는 슬픔과 울음으로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10일(기축) 맑음. 새벽에 열과 존서를 보낼 일로 앉아 날 새기를 기다렸다. 일찍 아침을 먹고 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보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구례(求禮)에서 온 말을 타고 가니 더욱 염려된다. 열 등이 막 떠나자 황 종사관(황여일(黃汝一))이 와서 한참이나 이야기했다. 늦게 서철(徐徹)이 보러 왔다. 정상명이 종이로써 말혁(馬革) 만들기를 끝냈다. 저녁에 홀로 빈 방에 있노라니 정희가 꿈어올라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뒤척거리기만 했다.

11일(경인) 맑음. 열(莬)이 어떻게 갔는지 걱정스러웠다. 더위가 아주 심하여 걱정을 금치 못했다. 늦게 변홍달(卞弘達), 신제운(申霽雲), 임중형(林仲亨) 등이 보러 왔다. 홀로 빈 방에 앉아 있으니 그리운 마음이 어떠하랴. 비통하다, 비통하다. 종태문(太文)이 종 종이(終伊)와 함께 순천(順天)으로 갔다.

12일(신묘) 맑음. 아침에 합천(陝川)이 햅쌀과 수박을 보냈다. 점심을 지을 즈음 방응원(方應元), 현응진(玄應辰), 홍우공(洪禹功), 임영립(林英立) 등이 박명현(朴名賢)에게로부터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종 평세(平世)가 열(莬)을 따라 갔다가 돌아왔다. 잘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슬프고 한탄스러움이야 어찌 말하랴. 이희남(李喜男)이 사철쭉(삿자리 만드는 풀) 백 묶음을 베어 왔다.

13일(임진) 맑음. 아침에 남해(南海)가 편지를 보내고 음식물을 많이 보내면서 또 말하되, 싸움말(戰馬)을 끌어가겠다고 하기에 답장을 썼다. 늦게 이태수(李台壽), 조신옥(趙信玉), 홍대방(洪大邦)이 보러 와서, 적 토벌할 일을 이야기하였다. 송대립(宋大立), 장득홍(張得洪)도 왔다. 장득홍은 자비(自備)로 복무한다기에 양식 두 말을 내주었다. 이날 칩을 캐어 왔다. 이방(李芳)도 보러 왔다. 남해 아전이 심부름꾼 2명을 데리고 왔다.

14일(계사) 맑음. 이름 아침에 정상명에게 종 평세(平世), 귀인(貴仁)과 짐말 두 필을 주어 남해(南海)로 보냈다. 정은 전마를 끌어올 일로 보낸 것이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체찰사와 함께 한 곳에 이르니 송장들이 널렸는데, 혹은 밟고 혹은 목을 베기도 하였다. 아침밥 때 문인수(文麟壽)가 와가채¹¹와 동아선¹²을 가져왔다. 방응원(方應元), 윤선각(尹先覺), 현응진(玄應辰), 홍우공(洪禹功) 등과 이야기하였다. 홍은 그 아버지의 병으로 종군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팔이 아프다고 핑계하니, 놀라운 일이다. 오후 10시께 황 종사관이 정인서를 보내어 문안하고 또 김해 사람으로 왜적에게 붙었던 김억(金億)의 고목(告目)을 보여 주었다. 거기에 의하면, “7일에 왜선 5백여 척이 부산(釜山)으로 나오고 9일에 왜선 1천 척이 함세하여 우리 수군과 절영도(絶影島) 앞바다에서 싸웠는데 우리 전선 5척이 두모포(豆毛浦)에 표류해 대었고, 또 7척은 간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곧 황 종사관과 군대 점호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황 종사관과 일을 의논하고 그대로 앉아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이윽고 내가 타고 간 말을 홍대방(洪大邦)더러 달려 보라 했더니 잘 달리는 것이었다. 날씨가 비 올 기세였으므로 곧 돌아왔는데, 집에 닿자 비가 마구 쏟아졌다. 오후 8시께 개었는데, 달빛이 훨씬 더 밝았다.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15일(갑오) 비가 오다 개다 했다. 늦게 조신옥(趙信玉), 홍대방 등과 여기 있는 윤선각(尹先覺)까지 9명을 불러 떡을 차려 먹었다. 아주 늦어서 중군(中軍) 이덕필

11 와가채(蛙歌菜) : 모시조개로 만든 음식이다.

12 동아선 : 동아를 잘게 썰어 기름에 볶고 잣가루를 묻혀 겨자를 찍어 먹는 술안주이다.

(李德弼)이 왔다가 저물어 돌아갔다. 그편에서 들으니, 수군 20여 척이 적에게 패했다는 것이다. 통분, 통분하다. 막을 방책 없음이 한스럽다. 어두워서 비가 크게 내렸다.

16일(을미) 비가 오다 개다 하면서 종일 흐리고 맑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손응남(孫應男)을 중군(이덕필)에게 보내어 수군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돌아와 중군의 말을 전하는데, 좌병사(경상)의 긴급 보고로 보아 불리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갖추 갖추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한탄스런 일이다. 늦게 변의정(卞義禎)이란 사람이 수박 두 덩이를 가지고 왔다. 그 꼴이 같잖아 어리석고 용렬하다. 두메에 박혀 사는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리라. 이 역시 소박한 태도이다. 이날 낮에 이희남(李禧男)을 시켜 칼을 갈게 했는데, 아주 잘 들어 적장의 맨 대가리를 벨 만했다.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들 열(堯)이 길 가기에 고생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저녁때 영암 송진면(靈岩松進面) 사는 사삿집 중 세남(世男)이 서생포(西生浦)(울산시 서생리)로부터 알몸으로 왔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7월 4일 전 병사의 우후가 타고 있던 배의 격군이 되어 5일에 칠천량(漆川梁)(거제시 하청면)에 이르러 자고 6일 옥포(玉浦)(거제군 이운면 옥포리)로 들어갔다가 7일 새벽에 말고지(末串)를 거쳐 다대포(多大浦)(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이르러 왜선 8척이 정박하고 있음을 보고 여러 배들이 바로 돌격했더니, 왜인은 남김없이 물으로 올라가고 빈 배만 걸려 있어 우리 수군들은 그것을 끌어내어 불 지르고, 그길로 부산 절영도(絶影島) 바깥 바다로 향하다가 마침 적선 천여 척이 대마도로부터 건너오는데, 서로 싸우려 했더니 왜선은 흩어져 회피하므로 끝내 잡아 초멸할 수도 없었고, 세남이 탄 배와 다른 배 6척은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서생포 앞바다에까지 표류하여 물으로 오르려고 하자 거의 다 살육을 당하고 세남만은 혼자서 수풀 속으로 들어가 기어서 목숨을 살려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듣고 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우리나라의 힘이 미더운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수군이 이러하니 다시 더 바라볼 것이 없다. 거듭거듭 생각할수록 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또 선장 이엽(李曄)이 적에게 포박되었다 하니

더욱 통분하다. 손응남(孫應男)이 집에 돌아갔다.

17일(병신) 가끔 비가 내렸다. 아침에 이희남(李喜男)을 황 종사관에게 보내어 세남의 말을 전하였다. 늦게 초계(草溪) 원이 벽견산성(碧堅山城)으로부터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송대립(宋大立), 유황(柳滉), 유홍(柳弘), 장득홍(張得弘) 등이 보러 왔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갔다. 변대헌(卞大獻), 정운룡(鄭雲龍), 득룡(得龍), 구종(仇從) 등은 모두 초계(草溪) 아전들이는데, 어머니 족성(族姓)의 같은 파(派) 사람으로서 보러 왔다. 큰비가 종일 내렸다. 이름 적지 아니한 사령장을 신여길(申汝吉)이 바다 가운데서 잃어버렸으므로 경상 순변사가 신문하여 그 기록을 가져왔다.

18일(정유) 맑음. 새벽에 이덕필(李德弼)이 변홍달(卞弘達)과 함께 와서 전하는 말이 “16일 새벽 수군이 밤 기습으로 통제사 원균이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 수사(崔湖) 및 여러 장수들과 함께 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는 것이었다. 듣자니 통곡이 터져 나옴을 이길 길이 없다. 이육고 원수(元帥)가 와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오후 10시경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어떻게 뜻을 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직접 해안 지방으로 가서 듣고 본 뒤에 방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더니 원수는 그 위에 더 좋아할 수 없었다. 나는 송대립(宋大立), 유황(柳滉), 윤선각(尹先覺), 방응원(方應元), 현응진(玄應辰), 임영립(林英立), 이원룡(李元龍), 이희남(李喜男), 홍우공(洪禹功)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삼가현(三嘉縣)에 이르니 새로 부임한 원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치겸(韓致謙)도 와서 오래 이야기하였다.

19일(무술) 종일 비가 내렸다. 오는 길에 동산산성(東山山城)(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백마산)에 올라 그 형세를 보니 매우 험고하여 적이 엿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대로 단성현(丹城縣)(산청군 단성면)에서 눌러 유숙했다.

20일(기해)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에 권문임(權文任)의 조카 권이청(權以淸)이 보러 오고 원도 보러 왔다. 낮에 진주(晋州) 정개산성(定介山城)(정개산(鼎蓋山)) 아

래 있는 강정(江亭)에 이르렀다. 진주 목사가 보러 왔다. 굴동(屈洞)(진양군 수곡면 창촌리) 이희만(李希萬)의 집에서 잤다.

21일(경자) 맑음. 일찍 떠나 곤양군(昆陽郡)에 이르니 군수 이천추(李天樞)도 고을에 있고 백성들도 많이 제 고장에 있어 혹은 올벼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밀보리밭을 갈기도 했다. 점심 후 노량(露梁)(하동군 금남면 노량진)에 이르니 거제(巨濟)원 안위(安衛)와 영등포(永登浦) 조계종(趙繼宗) 등 10여 명이 와서 통곡하고 피해 나온 군사와 백성들도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는데, 경상 수사(裴설(裴榑))¹³는 도망가고 보이지 아니했다.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보러 왔기에 패하던 정황을 물었다. 모든 사람이 울며 말하기를 “대장 원균(元均)이 적을 보자 먼저 물으로 달아나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그같이 물으로 달아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대장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입으로 옮길 수가 없고 그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고 들었다. 거제의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원과 새벽 2시께까지 이야기했다.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해 눈병을 얻었다.

22일(신축) 맑음. 아침에 배설(裴榑)(경상 우수사)이 보러 와서 원균이 패망한 일을 많이 말하였다. 식후에 남해 원 박대남(朴大男)이 있는 곳에 이르니 병세가 거의 구할 수 없이 되었다. 싸움말 바꿀 일을 다시 이야기했다. 종 평세(平世)와 군사 한 명을 데려 오겠다고 한다. 오후에 곤양(昆陽)(사천시 곤양면 성내리)에 이르러 몸을 편치 않아 그대로 잤다.

23일(임인)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노량(露梁)에서부터 만들던 서류를 송대립에게 주어 먼저 원수부(元帥府)로 보내고 뒤따라 떠나 곤양 십오리원(十五里院)(사천시 곤명면 봉계리)에 이르니 배백기(裴伯起) 부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13 배설(裴榑) : 정유년 8월 30일에 충무공에게 병을 치료하겠노라고 청하여 승낙받고 우수영(해남군 문내면)으로 와서는 그길로 9월 2일에 도망치고 말았다. 그의 한산섬 패전 죄 때문에 잡으려 했으나 전혀 숨어 있어 잡히지 않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기해년 3월 6일에 권 도원수(權都元帥)가 선산땅에서 잡아 서울로 올려 보내어 사형에 처했다.

말에서 내려 잠깐 쉬고 진주 운곡(雲谷)¹⁴ 전일 숙박하던 곳에서 잤다. 어두워지면 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했다. 백기(伯起)도 와서 잤다.

24일(계묘) 비, 비. 그치지 않았다. 한치겸(韓致謙), 이안인(李安仁)이 부사(副使)에게로 돌아갔다. 정(鄭)의 종 예손(禮孫)이 손(孫)의 종과 함께 돌아갔다. 식후에 이홍훈(李弘勛)의 집으로 옮겼다. 방응원(方應元)이 정성(鼎城)(하동군 옥종면)에서 와 전하기를 황 종사관(黃從事官)이 산성에 와서 연해안 사정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더라는 것이다. 군량 2섬, 말 먹이 콩 2섬과 말편자 7벌을 가져왔다. 이날 저녁 배 조방장(배경남(裨慶南))이 보러 왔기에 술을 주어 위로했다.

25일(갑진) 늦게 개었다. 황 종사관이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다. 조방장 김언공(金彦恭)이 보러 왔다가 원수부(元帥府)로 갔다. 배수립(裨樹立)이 보러 오고 이곳 주인 이홍훈(李弘勛)도 보러 왔다. 박남해(朴南海)(박대남(朴大男))가 그 종 용산(龍山)을 보내서 내일 보러 들어온다고 고했다. 저녁때 배백기(裨伯起)의 병을 가 보니 고통이 극도로 심했다. 걱정, 걱정이다. 송득운(宋得運)을 황 종사관에게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26일(을사)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일찍 밥을 먹고 정성(鼎城) 밑에 있는 송정(松亭) 아래로 가서 황 종사관 및 목사(牧使)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27일(병오) 종일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 정성 건너편 손경례(孫景禮)의 집으로 옮겨 머물렀다. 늦게 동지(同知) 이천(李薦)과 판관(判官) 정제(鄭霽)가 체찰사로부터 와서 전령을 전달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 동지(李同知)는 배 조방장에게 가서 잤다.

28일(정미) 비, 비. 이희량(李希良)이 보러 왔다. 초저녁에 이 동지와 진주 목사와 소촌 찰방(召村察訪) 이시경(李著慶)이 와서 밤에 이야기하다가 자정이 지나 돌아

14 초고본에 ‘屈洞’이라 썼다가 ‘雲谷’이라 고쳐 썼다.

갔다. 모두 응전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었다.

29일(무신)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이군거(李君擧)(동지 이천) 영공(永公)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체찰사에게로 보냈다. 늦게 냇가로 나가 군사를 점고하고 말을 달렸는데, 원수(元帥)가 보낸 군대는 모두 말도 없고 활에 화살도 없으니 소용 없었다. 탄식할 일이다. 저녁때 들어오다가 배 동지(裴同知)와 박남해(朴南海)에게 들렸다. 밤새 큰비가 왔다. 찰방(察訪) 이시경에게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8월

1일(기유) 큰비가 내려 물이 불었다. 늦게 이 찰방(李察訪)(이시경(李蕃慶))이 보러 오고 조신옥(趙信玉), 홍대방(洪大邦) 등도 보러 왔다.

2일(경술) 잠시 날이 들었다. 홀로 수루(戍樓)의 마루에 앉았으니 그리운 회포가 그 어떠하랴.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이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 징조가 있었다.

3일(신해)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전관(宣傳官) 양호(梁護)가 뜻밖에 들어와서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가져왔는데, 본부의 내용인즉, 겸 삼도통제사(兼三道統制使)의 명령이었다. 숙배(肅拜)한 뒤에 반자온 서장을 써서 봉해 올리고 곧 길을 떠나, 바로 두치(豆恥) 가는 길을 들어섰다. 오후 8시께 행보역(行步驛)(하동군 횡천면 여의리)에 이르러 말을 쉬 다음, 자정이 넘어 길을 떠나 두치(豆恥)(광양시 다압면 섬진리)에 이르니 먼동이 트려 했다. 박남해(박대남(朴大男))가 길을 잃고 강정(江亭)으로 잘못 들어갔으므로 말에서 내려 불러왔다. 쌍계동(雙溪洞)(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이른즉, 뽕족뽕족한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갓 온 비에 물이 넘쳐 어렵사리 건넜다. 석주(石柱)(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이르자 이원춘(李元春)과 유해(柳海)가 복병하여 지키다가 나와서 보고 적 토벌할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였다. 저물어서 구례(求禮)에 이르렀는데, 경내가 쓸쓸하였다. 성 북문 밖 전날 주인 했던 집에서 잤는데 주인은 이미 산골로 피란했다는 것이었다. 손인필(孫仁弼)이 곧

보러 왔는데 곡식까지 지고 왔으며, 손응남(孫應男)은 그전에 벌써 이른 감(柑)을 가져왔었다.

4일(임자)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 압록강원(鴨綠江院)(곡성군 죽곡면 상록리)에 이르러 점심을 짓고 말의 병도 고쳤다. 고산 현감(高山縣監)(최진강(崔鎭剛))은 군인 인도할 일로 와서 수군 일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했다. 오후에 곡성(谷城)에 이르니 관청이고 민가고 온통 비었다. 이 고을에서 잤다. 박남해는 곧바로 남원(南原)으로 갔다.

5일(계축)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옥과(玉果)(곡성군 옥과면) 지경에 이르니 피란 가는 사람들로 길이 찼다. 놀라운 일이다. 말에서 내려 타일렀다. 현(縣)으로 들어가면서 이기남(李奇男) 부자(父子)를 만나 함께 현에 이르니 정사준(鄭思竣), 사립(思立)이 마중 나오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고을 원(홍요좌(洪堯佐))이 처음에는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아니하더니 조금 있다가 보러 왔다. 붙잡아다 처벌하려 한 때문에 보러 온 것이다.

6일(갑인) 맑음. 이날은 옥과에 머물렀다. 오후 8시께 송대립 등이 적정을 탐지해 가지고 왔다.

7일(을묘) 맑음.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곧바로 순천(順天)으로 가는데, 길에서 선전관(宣傳官) 원집(元湑)을 만나 임금의 분부를 받았다. 병사(兵使)의 군대가 모조리 부서져 돌아가는 것이 길에 줄 대었으므로 말 3필과 활, 화살을 약간 뺏어 왔다. 곡성(谷城), 강정(江亭)(곡성군 석곡면 유정리)에서 잤다.

8일(병진) 새벽에 길을 떠나 아침밥을 부유창(富有倉)(순천시 주암면 창촌리)에서 먹었는데, 병사(兵使)는 이미 명령하여 불을 질러 놓았다. 광양(光陽) 원 구덕령(具德齡), 나주 판관(羅州判官) 원종의(元宗義), 옥구(沃溝) 원(김희온(金希溫)) 등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내가 왔다는 것을 듣고 급히 달려 배경남(裵慶男)과 함께 구치(鳩峙)에 이르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영을 내린즉, 한꺼번에 나와 절을 하였다. 나

는 피해 다니는 것을 들어 책망을 하니 모두 그 죄를 병사 이복남(李福男)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곧 길을 재촉하여 순천(順天)에 이르니 성 안팎이 인적 하나 없이 쓸쓸하였다. 중 혜희(惠熙)가 와서 보기에 의병장의 사령장을 만들어 주고, 또 총통(銃筒) 따위는 옮겨 묻어 두라 일렀다. 장편전(長片箭)은 군관들이 나누어 갖도록 분부하고 그 부(府)에서 눌러 잤다.

9일(정사) 맑음. 일찍 길을 나서 낙안(樂安)(순천시 낙안면)에 이르니 5리 밖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러 나왔다. 흩어져 달아난 까닭을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병사(이복남(李福男))가 적이 쳐들어온다고 떠들면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까닭에 백성들도 흩어져 도망가는 것이라 했다. 관청에 들어가니 고요하여 사람의 소리가 없었다.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김제(金堤) 군수 고봉상(高鳳翔) 등이 와서 절하였다. 늦게 보성(寶城), 조양(兆陽)(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이르러 김안도(金安道) 집에서 잤다.

10일(무오) 맑음. 몸이 편찮아 안도의 집에서 묵었다.

11일(기미) 맑음. 아침에 양산원(梁山沅)의 집으로 옮겨 묵었다. 송희립(宋希立), 최대성(崔大晟)이 보러 왔다.

12일(경신) 맑음. 장계 초안을 잡았다. 그대로 묵었다. 거제(巨濟), 발포(鉢浦)가 보러 왔다.

13일(신유) 맑음. 거제 현령(안위(安衛)) 및 발포 만호(소계남(蘇季男))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수사(水使)(배설(裴榘))와 그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묵고 있는 곳을 알았다. 우후 이몽구(李夢龜)가 와서도 보러 오지 않았다. 하동(河東) 원에게서 들으니, 정개성(鼎蓋城)과 벽견성(碧堅城)도 병사가 스스로 외진(外陣)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14일(임술) 맑음. 아침에 이몽구에게 곤장 80대를 때렸다. 밥을 먹은 뒤 장계 7통

을 봉해서 윤선각(尹先覺)을 시켜 올려 보냈다. 오후에 어사(임몽정(任夢正)) 만날 일로 보성군(寶城郡)으로 가서 잤다. 밤에 큰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15일(계해) 비, 비. 늦게 활짝 개었다. 식후 열선루(列仙樓)에 나가 앉았노라니 선전관 박천봉(朴天鳳)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왔는데, 8월 7일에 만들어진 서류였다. 영의정(유성룡(柳成龍))은 경기(京畿) 지방을 순행 중이라 한다. 곧 편지 받은 데 대한 장계를 작성했다. 보성 군기(軍器)를 점고하여 네 마리 말에 나누어 실었다. 저녁녘 흰 달이 다락 위를 비치니 심회가 편안치를 못하였다.

16일(갑자) 맑음. 아침에 보성 원과 군관들을 굴암(屈岩)으로 보내어 피해 달아난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돌아가는 편에 나주 목사(羅州牧使)(배웅경) 및 어사 임몽정에게 편지 답장을 부쳤다. 사령들을 박사명(朴士命) 집으로 보내었더니 사명의 집은 벌써 비어 있더라고 했다. 오후에 활장이(弓匠) 지이(智伊) 및 태귀생(太貴生), 선의(先衣), 대남(大男) 등이 들어왔다. 김희방(金希邦), 김봉만(金鵬萬) 등이 왔다.

17일(을축) 맑음. 일찍 밥을 먹은 뒤 곧바로 장흥(長興) 땅 백사정(白沙汀)으로 갔다. 점심 후 군영구미(軍營仇未)(강진군 대구면)로 가니 경내가 벌써 사람 하나 없었다. 수사 배설(裴榭)은 탈 배도 보내지 않았다. 장흥(長興)의 군량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군량을 모조리 도둑질하여 나눠 가져가던 참인데 마침 그때 이르러 잡아다 호되게 곤장을 때렸다. 놀러 거기서 잤다.

18일(병인) 맑음. 회령포(會寧浦)(장흥군 회진면 회진리)에 갔는데, 수사 배설이 뱃멀미를 핑계 대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그 포구 관청에서 잤다.

19일(정묘) 맑음. 여러 장수들이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는데, 배설은 받들어 숙배하지 아니했다. 그 건방진 태도가 말할 수 없었기에 그 영리(營吏)를 곤장 때렸다. 회령포 만호 민정봉(閔廷鵬)이 그 전선(戰船)에서 받은 물건을 사사로이 피란인 위덕의(魏德毅) 등에게 준 죄로 곤장 20대를 쳤다.

20일(무진) 맑음. 앞 포구가 협착하여 이진(梨津)(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으로 진을 옮겼다.

21일(기사) 맑음. 날이 채 새기 전에 객란이 일어 몹시 앓았다. 차게 해서 그런가 싶어 소주를 마셨더니, 이윽고 인사불성이 되어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밤을 앓아 새웠다.

22일(경오) 맑음. 객란이 더욱 심해져 기동할 수가 없었다.

23일(신미) 맑음. 통증이 몹시 심해 배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기로 배를 버리고 물에 나와 머물렀다.

24일(임신) 맑음. 일찍 도괘(刀掛)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어란(於蘭)(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바다에 이르니 가는 곳마다 벌써 텅텅 비었다. 바다에서 잤다.

25일(계유) 맑음. 그대로 거기 머물렀다. 아침을 먹을 때, 당포(唐浦)의 보자기가 놓아먹이던 소를 흠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되, “왜적이 왔다, 왜적이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 퍼뜨린 두 명을 잡아 곧 목 베어 효시(梟示)하게 되니 군중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26일(갑술) 맑음. 그대로 어란에 머물렀다. 임준영(任俊英)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적이 이진(梨津)까지 온 것을 고하였다. 우수사가 왔다.

27일(을해) 맑음. 그대로 어란 바다 가운데서 머물렀다.

28일(병자) 맑음. 적선 8척이 뜻밖에 들어오니 여러 배들이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려 하고 경상 수사(裴榘)도 달아나려고 했다. 나는 꼼짝 않고 있다가 적선이 다가오자 각지기(角指旗)를 흔들어 뒤쫓으니 적선은 물러갔다. 갈두(葛頭)(해남군 송지면 갈두리)까지 쫓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장도(獐島)로 옮겨 머물렀다.

29일(정축) 맑음. 아침에 벽파진(碧波津)(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으로 건너갔다.

30일(무인) 맑음.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9월

1일(기묘) 맑음.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2일(경진) 맑음. 정자에 내려가 앉았는데 보자기 점세(占世)가 제주(濟州)로부터 보러 왔다. 이날 새벽 배설(裴榑)이 도망갔다.

3일(신사) 비가 뿌렸다. 뜰 아래 머리를 웅크리고 있으니 그 심회가 어머하랴.

4일(임오) 북풍이 크게 불었는데 각 배를 겨우 보전했다. 천행이다.

5일(계미) 북풍이 크게 불었다. 각 배가 부지할 수 없다.

6일(갑신) 바람은 자는 듯했으나 물결은 가라앉지 않았다.

7일(을유) 바람이 비로소 그쳤다. 탐망(探望) 군관 임중형(林仲亨)이 와서 고하기를, “적선 55척 가운데 13척이 이미 어란(於蘭)(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뜻이 수군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각 배에 엄하게 신칙하였다. 오후 4시께 적선 13척이 바로 진 치고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우리 배도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 마주 대들면서 공격하니 적선은 배를 돌려 도망쳤다. 먼 바다까지 쫓아가는데, 바람과 물결에 모두 거슬려 배를 부릴 수 없으므로 벽파진으로 되돌아왔다. 밤 습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후 10시께 적선이 포를 쏘면서 밤 습격을 해오자 여러 배가 겁을 집어먹은 것 같으므로 다시 엄하게 영을 내리고 내가 탄 배가 곧바로 적선을 향해 달려들면서 포를 쏘니 적도는 능히 당해 내지 못하고 자정께 달아났다. 이들은 전에 한산도(閑山島)에서 승리를 얻은 자들이었다.

8일(병술) 맑음. 적선이 오지 않았다.

9일(정해) 맑음. 이날이 9일(명절)이다. 군사를 먹이려는 참인데, 마침 부찰사(副察使) 군량 중 제주 소 5마리가 왔다. 녹도(송여종(宋汝綜))와 안골포(安骨浦)(우수(禹壽))를 시켜 그것을 잡아 군인들에게 먹이고 있을 때 적선 2척이 감보도(甘甫島)(진도군 고군면)로 곧장 들어와 우리 배의 많고 적음을 살폈다. 영등포 만호 조계종(趙繼宗)이 뒤쫓았으나 잡지는 못했다.

10일(무자) 맑음. 적도는 멀리 도망갔다.

11일(기축) 맑음.

12일(경인) 비.

13일(신묘)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14일(임진)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임준영(任俊英)이 육로를 정탐하고 달려와 말하기를, “적선 55척이 벌써 어란 앞바다에 들어왔다”고 했다. 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쳐 온 중걸(仲乞)(김중걸(金仲傑))의 말도 전했는데 “중걸은 이달 6일 달마산(達摩山)(해남군 송지면)으로 피란 갔다가 왜인에게 사로잡혀 목인바 되어 왜의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는 김해(金海) 사람이 왜장에게 청을 해서 결박을 풀어 주더니 밤에 그 김해 사람이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하기를, 왜놈들이 하는 말이 조선 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뒤쫓아 혹은 사살하고 혹은 배에 불 질렀으니 보복을 앓을 수 없다. 여러 배를 모아 수군을 모조리 죽인 뒤 곧바로 경강(京江)으로 올라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을 비록 모두 믿기는 어려우나 역시 그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수영(右水營)(해남군 문내면)으로 전령선(傳令船)을 보내어 피란민들을 물으로 올라가게 하도록 일렀다.

15일(계사) 맑음. 밀물이 들었다. 여러 배를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로 들어가 거기서 잤다. 밤 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16일(갑오) 맑음. 이른 아침 망군(望軍)이 와 보고하기를, “적선 무려 2백여 척이

명량(鳴梁)(해남군 문내면)을 거쳐 곧바로 진 치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를 불러 약속을 밝힌 다음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백 33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대장선이 홀로 전선 속으로 들어가 포환(砲丸)과 화살을 풍우같이 쏘아내건만 여러 배들은 바라보면서 진군하지 않아, 사태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질려 있기로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되, “적이 비록 천 척이라도 감히 곧바로 우리 배에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심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돌아다니니, 이미 1마장 가량 물러났고 우수사 김억추(金億秋)가 탄 배는 멀리 떨어져 가물가물했다. 배를 돌려 바로 중군(中軍) 김응함(金應諫)의 배로 가서 먼저 목 잘라 효시(梟示)하고 싶었지마는,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가 점점 더 멀리 물러나고 적선이 달려들게 되어 사세가 낭패될 것이라 중군에게 군령 내리는 기와 초요기(招搖旗)를 세우니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오고, 거제 현령 안위(安衛)의 배도 왔다. 나는 뱃전에 서서 친히 안위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하고 다시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으려느냐, 물러가면 살 듯 싶으냐” 했더니, 안위가 황급히 곧바로 들어 싸우려 할 때, 적장의 배와 다른 2척의 적선이 안위에 배에 개미같이 달라붙고 안위의 격군 7, 8명이 물에 뛰어들어 해엄을 치니 거의 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안위의 배가 있는 데로 갔다. 안위 배 위의 군사들은 죽기를 한하여 마구 쏘아대고 내 배의 군관들도 빗발같이 쏘아대어 적선 2척을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하니 천행, 천행이다. 우리를 에워쌌던 적선 30척도 깨뜨림을 당하니 모든 적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다시 범접해 오지 못했다. 그곳에 머무르려 했으나 물이 빠져 배를 정박시키기 어려웠으므로 건너편 …포(이 ‘浦’자 위에 글자가 빠져 있음)로 진을 옮겼다가 달빛을 타고 당사도(唐筍島)(신안군 암태면)로 옮겨 밤을 지냈다.

17일(을미) 맑음. 여오을도(汝吾乙島)(신안군 지도면 어의도)에 이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와 머무르고 있었다. 임치 첨사(臨淄僉使)(홍견(洪堅))는 배에 격군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18일(병신) 맑음. 그대로 그곳에 눌러 머물렀다. 임치 첨사가 왔다.

19일(정유) 일찍 떠나 칠산도(七山島)(영양군 낙월면)을 건너는데, 바람은 순하고 하늘은 맑아 배를 부리기가 아주 좋았다. 법성포(法聖浦)(영광군 법성면) 선창에 이르니 적이 벌써 침범해 들어와서 인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해질 무렵 홍룡곶(洪龍串)(영광군 홍농읍)으로 돌아가 바다 가운데서 잤다.

20일(무술) 맑고 바람도 순조로웠다. 배를 몰아 고참도(古參島)(부안군 위도면 위도)에 이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배를 대고 있었다. 이광보(李光輔)도 와서 보고 이지화(李至和) 부자가 또 왔다.

21일(기해) 맑음. 새벽에 나가서 고군산도(古群山島)(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 이르니 호남 순찰사(박홍로)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서 배를 타고 옥구(沃溝)로 갔다는 것이다.

22일(경자) 맑음.

23일(신축) 맑음.

24일(임인) 맑음.

25일(계묘) 맑음.

26일(갑진) 맑음. 이날 밤 허한(虛汗)이 온몸을 적셨다.

27일(을사) 맑음. 송한(宋漢)이 크게 이긴 것을 보고하는 장계를 가지고서 배를 타고 올라갔다. 정제(鄭濟)도 충청 수사에게 군령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 몸이 몹시 편치 않아 밤새 고통스러웠다.

28일(병오) 맑음. 송한과 정제가 바람에 막혀 되돌아왔다.

29일(정미) 맑음. 송한 등이 바람이 순조로워 떠나갔다.

10월

1일(무신) 맑음.

2일(기유) 맑음. 아들 회(薈)가 가족(家屬)들의 생사를 알아보러 올라갔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심회가 만 갈래였다.

3일(경술) 맑음. 새벽에 배를 띄워 변산(邊山)을 거쳐 곧바로 법성포로 내려가는데 바람이 부드러워 따뜻하기가 봄날 같았다. 저물러서 법성포 선창 앞에 이르렀다.

4일(신해) 맑음.

5일(임자) 맑음.

6일(계축) 흐리고 비가 오다가 눈이 흩뿌리기도 했다.

7일(갑인) 흐리며 구름이 걷히지 않은 채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8일(을묘) 맑으며 바람도 순해지는 것 같았다. 새벽에…〔이 다음부터 글자가 빠져 있음〕

정유년

정유년(丁酉年)Ⅱ

1597년, 선조 30년, 충무공 53세.

정유년 일기는 두 책인데, 제1책은 4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끝나 있고, 제2책은 다시 8월 5일부터(4일 기사는 끝 부분만 있는데 그나마 글자가 안 보이는 곳이 많음) 12월 30일까지로 끝나 있다. 그러므로 8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두 책이 중복되어 있는데, 기사는 약간 가감이 되어 있다. 충무공이 왜 두 번 썼는지 알 수 없으나, 간지(干支)가 틀린 것이 고쳐져 있고 제2책의 기사가 약간 자세하게 적혀 있음을 참고할 것이다. 여기서는 두 책을 다 번역해 둔다.

8월

5일(계해) 맑음. [첫머리의 글자가 빠져 있음] 거느리고 온 군사를 인계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 원(압록원(鴨祿遠))에 이르러 병사(兵使)가 경솔히 퇴각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점심 후에 곡성현(谷城縣)에 이르니, 고을이 온통(이 대목에도 글자가 빠져 있음) 말 먹일 것도 구하기 어려웠다. 눌러 잤다.

6일(갑자) 맑음. 아침 식후에 길을 떠나 옥과(玉果) 지경에 이르니 순천과 낙안의 피란민들로 길이 가득 찼으며, 남자, 여자가 서로 부축하고 가는 것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울면서, “사포가 다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고 하였다. 길옆에 큰 화나무가 있기에 내려앉아서 말을 쉬게 했다. 순천 이기남(李奇男)이 와서 어디서 죽을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옥과현(玉果縣)에 이르니, 원은 병을 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사준(鄭思竣), 사립(思立)이 먼저 와서 관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조응복(曹應福), 양동립(梁東立)도 나를 따라 이리로 왔다. 나는 병을 청탁하고 나오지 않는 원을 붙잡아 내다가 곤장을 치려고 하였더니, 원 홍요좌(洪堯佐)가 미리 내 뜻을 알고 급히 나왔다.

7일(을축) 맑음. 일찍 떠나 바로 순천으로 향하는 도중, 고을을 10리쯤 남겨 두고 길에서 선전관 원집(元集)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났다. 길옆에 앉아

서 보니, 병사가 거느렸던 군사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갔다. 이날 닭 울 녀에 송대립(宋大立)이 순천 등지로 가서 적의 정세를 정찰하여 가지고 왔다. 석곡강정(石谷江亭)(곡성군 능파리)에서 잤다.

8일(병인) 맑음. 새벽에 떠나 바로 부유(富有)로 오다가 중도에서 이형립(李亨立)을 병사에게로 보냈다. 부유에 이르니, 병사 이복남(李福男)이 벌써 부하들을 시켜 불을 질렀기 때문에 다만 재만 남아 있어 보는 바에 참담하였다. 점심 후에 구치(鳩峙)에 이르니, 조방장(助防將) 배경남(裴慶男), 나주 판관 원종의(元宗義), 광양 현감 구덕령(具德齡)이 복병한 곳에 있었다. 저물녘에 순천부에 이르니, 관청과 창고는 그대로 여전했으나, 병기 따위를 병사가 처치하지 않은 채 달아나 버렸으니 놀랄 일이었다. 상동(上東) 땅에 들어가니 사방이 적막한데, 오직 혜희(惠熙)라는 중이 와서 인사할 뿐이므로 그에게 승병(僧兵)의 직첩을 주었다. 병기 중 긴 편전(片箭)은 군관들더러 저 나르라 하고, 총통과 같이 운반하기 어려운 것들은 깊이 묻고 표를 세워두라고 하였다. 놀러 상방(上方)에서 잤다.

9일(정묘) 일찍 떠나 낙안(樂安)(순천시 낙안면)에 이르니 관청과 창고와 병기가 모두 타 버렸다. 관리와 백성들도 눈물 흘리지 않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이윽고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 김제 군수(金堤郡守) 고봉상(高鳳翔)이 산골로부터 내려와서 병사의 처사가 뒤죽박죽인 것을 말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패망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점심 후 길을 떠나 10리쯤 오니 늙은이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다투어 술병을 가져다 바치는데 받지 않으면 울면서 강권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보성 조양창(寶城兆陽倉)(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이르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창고 곡식은 봉한 채 그대로였다. 군관 네 사람을 시켜 수직하게 하고 나는 김안도(金安道)의 집에서 잤다. 그 집 주인은 벌써 피란 나가고 없었다.

10일(무진)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거기서 머물렀다. 배 동지(裨同知)도 같이 묵었다.

11일(기사) 맑음. 아침에 박실(朴谷) 양산항(梁山沆)의 집으로 옮겼다. 이 집 주인도 벌써 바다로 피란해 갔고 곡식은 가득 쌓여 있었다. 늦게 송희립(宋希立)과 최대성(崔大晟)이 보러 왔다.

12일(경오) 맑음. 아침에 장계 초고를 수정하였다. 늦게 거제(巨濟), 발포(鉢浦)가 들어와 명령을 들었다. 그편에 배설(裴榑)의 황갑해 하는 꼴을 들으니 패썹하고 한 탄함을 마지못하겠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이나 하여 제가 감당치 못할 지 위에까지 올라 국가의 일을 크게 그르치건마는 조정에서 살피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보성(寶城) 원이 왔다.

13일(신미) 맑음.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 발포 만호(鉢浦萬戶) 소계남(蘇季男)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우후(虞侯) 이몽구(李夢龜)가 전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본영(전라 좌수영)의 군기와 군량을 한날도 옮겨 신지 않은 일로 곤장 80대를 때려 보냈다. 하동 현감 신진(申鎭)이 와서 전하기를, 3일 내가 떠난 뒤에 진주의 정개산성(鼎蓋山城)과 벽견산성(碧堅山城)도 모두 흩어져 버리고 제 손으로 불 질러 버렸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14일(임신) 맑음. 아침에 각항 장계 7통을 봉해 윤선각(尹先覺)을 시켜 모시고 가게 했다. 저녁에 어사(御史) 임몽정(任夢正)과 만나기 위해서 보성군(寶城郡)에 이르렀다. 이날 밤에 큰비가 왔다. 열선루(列仙樓)에서 잤다.

15일(계유) 비, 비. 늦게 개었다. 선전관(宣傳官) 박천봉(朴天鳳)이 임금의 유서를 가지고 왔는데 8월 7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곧 받자왔다는 장계를 만들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잠들지 못했다.

16일(갑술) 맑음. 박천봉이 돌아갔다. 활 만드는 이지(李智), 태귀생(太貴生)이 보러 왔다. 선의(先衣)와 대남(大男)도 왔다. 김희방(金希方), 김봉만(金鵬萬)이 뒤쫓아 왔다.

17일(을해) 맑음.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 백사정(白沙汀)에 이르러 말을 쉬고 군영구미(軍營仇未)(강진군 대구면)에 이르니 경내가 벌써 무인지경이 되어 버렸다. 수사(水使) 배설(裴榑)이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長興) 사람이 많은 군량을 훔쳐내서 판 데로 가져갔기 때문에 붙들어가다 곤장을 때렸다. 날이 벌써 저물어서 그대로 머물러 잤다. 배설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괴씸했다.

18일(병자) 맑음. 늦은 아침에 바로 회령포(會寧浦)(장흥군 회진면 회진리)에 간죽, 배설이 뱃멀미를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고, 다른 장수들은 보았다.

19일(정축) 맑음.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교유서에 숙배케 했다. 배설은 교유서에 예를 받들지 않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방(吏房)과 영리(營吏)를 붙들어가다 곤장을 때렸다. 회령포 만호 민정봉(閔廷鵬)은 위덕의(魏德毅) 등에게서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전선(戰船)을 사사로이 내준 까닭에 곤장 20대를 때렸다.

20일(무인) 맑음. 포구가 좁아서 이진(梨津)(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아래 창사(倉舍)로 진을 옮겼는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앓았다.

21일(기묘) 맑음. 새벽 2시쯤에 객란이 일어났다. 차게 한 까닭인가 싶어 소주를 마셔 치료하려 했다가 그만 인사불성이 되었다. 거의 구하지 못할 뻔하였다. 토하기를 10여 차례나 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22일(경진) 맑음. 객란으로 인사불성. 뒤도 보지 못했다.

23일(신사) 맑음. 병세가 몹시 중해져서 배에서 거처하기가 불편하고, 또 실상 전쟁 때도 아니라 배에서 내려 포구 밖에서 잤다.

24일(임오) 맑음. 아침에 괘도포(掛刀浦)에 이르러 밥을 먹고 낮에 어란(於蘭)(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바다로 왔다. 곳곳이 텅텅 비었다. 바다 가운데서 잤다.

25일(계미) 맑음.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아침을 먹을 때, 당포(唐浦)의 어부가 피

란민의 소 두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으려고 해서 적이 왔다고 거짓말을 외쳤다. 나는 이미 그런 줄 알고 배를 굳게 매고 까딱하지 않으며 그자들을 잡아 오게 했더니 과연 예상한 그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군대는 안정시켰으나 배설(裨陒)은 벌써 도망쳐 버렸다. 거짓말을 한 두 사람은 목을 잘라 효시했다.

26일(갑진) 맑음. 그대로 어란(於蘭) 바다에서 머물렀다. 늦게 임준영(任俊英)이 말을 달려와서 적선이 벌써 이진(梨津)에 이르렀고 보고했다. 전라 우수사가 왔다. 배의 격군이며 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니 놀랄 일이다.

27일(을유) 맑음. 그대로 머물렀다. 배설(裨陒)이 보러 왔는데 황겁해 하는 빛이 많았다. 내가 불쑥 말하기를, “수사는 어디로 피해 갔던 것 아니냐”고 하였다.

28일(병술) 맑음. 새벽 6시쯤에 적선 8척이 갑자기 덤벼들어 여러 배들이 겁을 먹고 물러가려고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깃발을 휘두르며 추격을 명령하니 여러 배들은 피하지 못하고 적선을 일시에 쫓아 갈두(葛頭)까지 이르자 적선이 멀리 도망하므로 더 쫓지 않았다. 뒤따르던 배가 50여 척이라고 했다. 저녁에는 장도(獐島)에 진을 쳤다.

29일(정해) 맑음. 아침에 벽파진으로 건너가 진을 쳤다.

30일(무자) 그대로 벽파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찰병들을 각지로 나누어 보냈다. 늦게 배설은, 적이 장차 많이 올 것을 염려해서 도망하려고도 했으나 관하의 여러 장수들이 찾기도 하고 또 나도 그 속내를 잘 알지마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장수로서 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 배설이 제 종을 시켜 소지(所志)를 냈는데, 병세가 위중하여 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서 조리하라고 체결해 주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육지로 올라갔다.

9월

1일(기축) 맑음. 내가 벽파정(碧波亭) 위에 내려가 앉았는데, 점세(占世)가 제주(濟州)에서 소 5마리를 싣고 와 바쳤다.

2일(경인) 맑음. 배설(裵榭)이 도망쳤다.

3일(신묘) 아침에 날이 맑더니 저녁에 비가 뿌렸다. 밤에는 북풍이 불었다.

4일(임진) 날이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겨우 보전했다.

5일(계사) 맑음. 북풍이 크게 불었다.

6일(갑오) 맑음. 바람기가 조금 가라앉았으나 추위가 스며드니 격군들 때문에 걱정스러웠다.

7일(을미) 맑음. 탐방 군관 임중형(林仲亨)이 와서 보고하되, “적선 55척 중에 13척이 벌써 어란포(於蘭浦)(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바다에 와 닿았는데, 아마 그 뜻이 우리 수군에 있는 것이겠다” 하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군령을 내려 재삼 신칙(申飭)했다. 오후 4시께 적선 12척이 과연 대들었다. 우리 배들이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적선을 추격하니, 적선을 뺏머리를 돌려 도망했다. 멀리 바다 밖까지 쫓아가다가 바람과 조수가 모두 역류요, 또 북병선이 있을 우려도 있어 더 쫓아가지 않았다. 벽파정으로 돌아와서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되, “오늘 밤에는 반드시 적의 야습(夜襲)이 있을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미리 알아서 준비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군법대로 시행하리라” 하고 재삼 타일러 경계하게 하고 헤어졌다. 밤 8시에 적이 과연 야습을 해 와 탄환을 많이 쏘고 덤뻐다. 내가 탄 배가 바로 앞장을 서서 지자포(地子砲)를 쏘니 강산이 흔들렸다. 적들도 범할 수 없음을 알고 네 번 왔다 물러갔다 하면서 화포만 쏘다가 자정이 지나서는 아주 물러갔다.

8일(병신) 맑음.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수사 김억추(金億秋)는 겨우 만호(萬戶)에나 맞을까 대장 재목은 못 되는 인물인데,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이 서로 정다운 사이라고 해서 억지로 임명해 보냈다. 이려고야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다만 때를 못 만난 것을 한탄할 뿐이다.

9일(정유) 맑음. 이날은 9일(중양절(重陽節))이라 1년 중 명절이므로 나는 상제 몸이지마는 여러 장병들이야 먹이지 않을 수 없어 제주서 나온 소 5마리를 녹도(鹿島)(송여종(宋汝宗)), 안골포(安骨浦)(우수(禹壽)) 두 만호에게 주어 장사들을 먹이도록 지시하였다. 늦게 적선 2척이 어란(於蘭)으로부터 바로 감보도(甘甫島)로 와서 우리 수군의 많고 적은 것을 정탐하려고 하므로 영등(永登) 만호 조계종(趙繼宗)이 바짝 추격해서 쫓아가자 적들은 당황해서 배에 싣었던 물건을 모두 바다 가운데 던져 버리고 달아났다.

10일(무술) 맑음. 적선이 멀리 도망갔다.

11일(기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았다. 홀로 배 위에 앉아 어머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지었다. 천치간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회(薺)는 내 심정을 알고 몹시 언짢아하였다.

12일(경자) 온종일 비가 뿌렸다. 배 뜰 아래 앉아서 심회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13일(신축)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어서 배가 안전할 수 없었다. 꿈이 이상도 했다. 임진년 승전할 때의 꿈과 대강 같았다. 이 무슨 징조일까.

14일(임인) 맑음. 북풍이 크게 불었다. 벽파정 맞은편에서 연기가 오르기에 배를 보내서 신고 오니 바로 임준영(任俊英)이었다. 그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기를, “적선 2백여 척 가운데 55척이 먼저 어란(於蘭)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돌아온 김중걸(金仲傑)이 전하는데, 중걸이 이달 6일 달야의산(達夜依山)에서 왜적에게 붙잡혀서 묶여 가지고 왜선에 실렸던

바 다행히 임진년에 포로 된 김해(金海) 사람을 만나 왜장에게 빌어서 결박을 풀고 같은 배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한밤중, 왜놈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김해 사람이 귀에다 대고 몰래 이야기하기를 ‘왜놈들이 모여 의논하는 말들이, 조선 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추격해서 혹은 쏘아 죽이고 또 배를 불태웠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다. 각척의 배를 불러 모아 합세해서 조선 수군을 섬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곧장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나 그럴 수도 없지 않아 곧 전령선(傳令船)을 보내서 피란민들을 타일러 육지로 올라가게 하였다.

15일(계묘) 맑음.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을 우수영(右水營)(해남군 문내면) 앞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벽파정 뒤에 명량(鳴梁)이 있는데, 수효 적은 수군으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약속하되,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일망정 용서치 않겠다”고 엄격히 약속하였다. 이날 밤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하였다.

16일(갑신) 맑음. 이른 아침에 특별 정찰 부대가 보고하기를, “적선이 수효를 알 수 없도록 많이 명량(鳴梁)으로 해서 곧장 우리가 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들어온다”고 하였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1백 30여 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하는 것이라 스스로 낙심하고 모두 회피할 꾀만 내는데,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벌써 2마장 밖에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며 지자(地字), 현자(玄字) 등 각종 총통을 마구 쏘니 탄환은 폭풍우같이 쏟아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온 배에 있는 사

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얼굴빛이 질렸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치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 하고 여러 장수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가 있는데, 배를 돌려 군령을 내리자 해도 적들이 더 대들 것이라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형편이 되었다. 호각을 불어 중군(中軍)에게 군령을 세우는 기(旗)를 세우라 하고, 또 초요기(招搖旗)를 세웠더니, 중군장(中軍將)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김응함(金應諫)의 배가 차츰 내 배 가까이 왔으며,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의 배가 그보다 먼저 왔다. 안위를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나, 네가 군법에 죽고 싶느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니, 안위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또 김응함을 불러, “너는 중군(中軍)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원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하였다. 그래서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서 나가자 적장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2척에 지령하여 일시에 안위의 배에 개미 붙듯 하여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힘을 다해서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 창으로, 또 혹은 수마석(水磨石) 덩어리로 무수히 치고 막다가 배 위의 사람이 기진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서 빗발치듯 마구 쏘아댔다. 적선 3척이 거의 다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녹도 만호 송여종(宋汝宗)과 평산포 대장 정응두(丁鷹斗)의 배가 뒤쫓아 와서 협력해 쏘아 죽여, 적은 한 놈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투항한 왜인 준사(俊沙)는 안골(安骨)에 있던 적진으로부터 항복해 온 자인데, 내 배 위에 있다가 바다에 빠져 있는 적을 굽어보더니 그림 무늬 놓은 붉은 비단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안골포 적장 마다시(馬多時)라고 말했다. 내가 무상(無上)(물 기는 군사) 김돌손(金弼孫)을 시켜 갈고리로 낚아 올린즉 준사(俊沙)가 좋아 날뛰면서 “그래, 마다시다” 하고 말하므로 곧 명령하여 토막토막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였다. 우리 배들은 적이 다시 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 들어가 지자(地字), 현자(玄字) 대포를 쏘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 적선 31척을 깨뜨리자 적선은 퇴각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싸움하던 바다

에서 그대로 정박하고 싶었으나 물결도 몹시 험하고 바람도 역풍이라 형세 또한 위태롭고 외로워 당사도(唐筭島)(전남 신안군 암태면)로 옮겨가서 밤을 지냈다. 이번 일은 참으로 천행이었다.

17일(을사) 맑음. 어외도(於外島)(신안군 지도읍 어의도)에 이르니 피란선 무려 3백여 척이 먼저 와 있었다. 나주 진사(羅州進士) 임선(林愼), 임환(林懽), 임엽(林業) 등이 보러 왔다. 우리 수군이 크게 승첩한 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치하하며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18일(병오) 맑음. 그대로 어외도(於外島)에서 머물렀다. 내 배에 탔던 순천 감목관(順天監牧官) 김탁(金卓)과 영노(營奴) 계생(戒生)이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고, 박영남(朴永男), 봉학(奉鶴) 및 강진(康津) 현감 이극신(李克新)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19일(정미) 맑음. 일찍 떠나 행선(行船)했다.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도 순하여 무사히 칠산(七山) 바다(영광군 낙월면)를 건넜다. 저녁에 법성포(法聖浦)(영광군 법성면)에 이르니 흉악한 적들이 육지로 해서 들어와 인가 곳곳에 불을 질렀다. 해질 무렵에 홍농(弘農)(영광군 홍농읍) 앞바다에 이르러 배를 대고 잤다.

20일(무신) 맑음. 새벽에 떠나 바로 위도(嵎島)(부안군 위도면)에 이르니 피란선이 많이 닿아 있었다. 황득중(黃得中)과 종 금이(金伊)를 보내서 종 윤금(允金)을 찾아 보라 했더니 과연 위도 밖에 있었으므로 묵어다가 배에 실었다. 이광축(李光軸), 광보(光輔)가 보러 왔고, 이지화(李至和) 부자도 왔다. 해가 저물었기에 머물러 잤다.

21일(기유) 맑음. 일찍 떠나서 고군산도(古群山島)(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 이르렀다. 호남 순찰(湖南巡察)이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급히 옥구(沃溝)로 갔다고 한다. 늦게 광풍이 크게 불었다.

22일(경술)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머물렀다. 나주 목사 배응경(裵應敬), 무장(茂長) 원 이람(李覽)이 보러 왔다.

23일(신해) 맑음. 승첩에 관한 장계 초본을 수정했다. 정희열(丁希悅)이 보러 왔다.

24일(임자) 맑음. 몸이 좋지 못해서 신음하였다. 김홍원(金弘遠)이 보러 왔다.

25일(계축) 맑음. 이날 밤, 몸이 몹시 좋지 못하고 허한이 온몸에 배었다.

26일(갑인) 맑음. 몸이 좋지 않아 종일 나가지 않았다.

27일(을묘) 맑음. 송한(宋漢), 김국(金國), 배세춘(裵世春) 등이 승첩한 장계를 가지고 뱃길로 올라갔다. 정제(鄭濟)는 충청 수사 처소로 부찰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가지고 같이 갔다.

28일(병진) 맑음. 송한, 정제가 바람에 막혀 돌아왔다.

29일(정사) 맑음. 장계와 정 판관(鄭判官)이 도로 올라갔다.

10월

1일(무오) 맑음. 아들 회(薈)를 보내서 저의 모친도 보고 집안 여러 사람의 생사도 알아 오게 하였다. 심회가 극히 산란하여 편지를 쓸 수 없었다. 병조(兵曹)의 역자(驛子)가 공문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산(牙山) 집이 적에게 분탕질 당해 잣더미가 되어 남은 것이 없다고 한다.

2일(기미) 맑음. 아들 회가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잘 갈지 모르겠다. 심회를 어찌다 말하랴.

3일(경신) 맑음. 새벽에 배를 띄워서 법성포(法聖浦)로 돌아왔다.

4일(신유) 맑음. 그대로 머물렀다. 임선, 임업 등이 사로잡혀 갔다가 적에게 빌어
임치(臨淄)로 돌아와서 편지를 보냈다.

5일(임술) 맑음. 그대로 머물게 되어 마을 집으로 내려가서 잤다.

6일(계해) 흐리고 또 간혹 눈비가 흩뿌렸다.

7일(갑자) 바람이 고르지 않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들으니 호남 안팎에 모두
적의 자취가 없다고 한다.

8일(을축) 맑고 바람이 순했다. 배를 띄워서 어외도(於外島)에 이르러 잤다.

9일(병인) 맑음. 일찍 떠나 우수영(右水營)(남해군 문내면)에 이르니 성 안팎에 인
가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인적이 없어 보기에 참담했다. 저녁에 들으니 흥측한 적
들이 해남에 진을 쳤다고 한다. 날이 막 어두워질 무렵에 김종려(金宗麗), 정조(鄭
詔), 백진남(白振男) 등이 보러 왔다.

10일(정묘) 새벽 2시쯤에 비가 뿌리고 북풍이 크게 불어서 배를 띄울 수 없어 그
대로 머물렀다. 밤 10시쯤 중군장(中軍將) 김응함(金應諫)이 와서 해남(海南) 있는
적들이 퇴각한 현상이 많다고 전했다. 이희급(李希偑)의 부친이 적에게 사로잡혔
다가 빌어서 놓여 왔다고 한다. 몸이 불편해서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밤을 새웠다.
우우후(右虞侯) 이정충(李廷忠)이 배에 왔으나, 보지 않은 것은 도망하여 외도(外
島)에 있었기 때문이다.

11일(무진) 맑음. 새벽 2시쯤에 바람이 자는 것 같았으므로 비로소 닻을 들고 바다 가
운데 이르러 정탐인 이순(李順), 박담동(朴淡同), 박수환(朴守還), 태귀생(太貴生)
등을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에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하니 필시 적의 무리가 달
아나면서 불을 지른 것이리라. 낮에 안편도(安便島)(발음도(發音島))에 이르렀는데
바람도 좋고 날씨도 화창했다. 배를 내려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배
를 감추어 둘 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동쪽은 앞에 섬이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없

으나 북쪽으로는 나주(羅州)와 영암(靈岩)의 월출산(月出山)까지 터졌고 서쪽으로는 비금도(飛禽島)까지 통하여 눈앞이 시원했다. 이윽고 중군장(金肅)과 우치적(禹致績)이 올라오고 조효남(趙孝南), 안위(安衛), 우수(禹壽)가 잇따라 왔다. 날이 저물어 산에서 내려와 언덕에 앉았는데, 조계종(趙繼宗)이 와서 왜적의 정세를 말하고, 또 왜들이 수군을 몹시 겁낸다고 말했다. 이희급(李希偑)의 부친이 보러 와서 포로 되었던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마음 아픔을 견딜 수 없었다. 저녁엔 따뜻한 날씨가 마치 봄과 같아 아지랑이가 하늘에 아른거리고, 비가 내릴 징조가 많았다. 초저녁에 달빛이 비단결 같아 홀로 뜰에 앉았으니 회포가 만 갈래였다. 밤 10시께 허한이 몸을 적셨다. 자정에 비가 내렸다. 이날 우수사가 군량선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릎을 몹시 때렸다고 한다. 놀랄 일이었다.

12일(기사) 비가 죽죽 내리다가 오후 2시쯤에 말짱히 개었다. 아침에 우수사가 제하인 무릎 친 죄를 사과하였다. 가리포(加里浦)(이응표(李應彪)), 장흥(長興)(전봉(田鳳)) 등의 여러 장수가 와서 절하고 종일토록 이야기했다. 정찰선이 나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 걱정스러우나, 아마 생각건대 흉측한 적도들이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가느라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리라. 놀러 발음도에 머물렀다.

13일(경오) 맑음. 아침에 배 조방장(裒助防將)(배흥립(裒興立))과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가 보러 왔다. 이윽고 정찰선이 임준영(任俊英)을 싣고 왔다. 그편에 적의 정세를 들으니 해남(海南)으로 들어와 웅거했던 적들이 10일에 우리 수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11일에 모두 도망했는데, 해남 향리(海南鄉吏) 송언봉(宋彦逢)과 신용(愼容) 등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왜놈을 피어내어 지방 사족들을 많이 죽였다 하니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그래서 곧 순천 부사(順天府使) 우치적(禹致績), 금갑(金甲) 만호 이정표(李廷彪), 제포(濟浦) 만호 주익수(朱義壽), 당포(唐浦) 만호 안이명(安以命), 조라(助羅) 만호 정공청(鄭公淸) 및 군관 임계형(林季亨), 정상명(鄭祥冥), 봉좌(逢佐), 태귀생(太貴生), 박수환(朴壽還) 등을 해남으로 보냈다.

늦게 언덕에 내려앉아 배 조방장과 장흥(長興) 부사 전봉(田鳳) 등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날 우수영 우후 이정충(李廷忠)이 뒤떨어진 죄를 다스렸다. 우수사 군관 배영수(裵永壽)가 와서 보고하기를 수사의 부친이 바깥 바다로부터 살아 돌아왔다 했다. 이날 새벽꿈에 우의정(右議政)을 만나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낮에 들으니 선전관(宣傳官) 네 사람이 법성포(法聖浦)에 내려와 대었다고 한다. 저녁때 중군(中軍) 김응함(金應謙)에게서 들으니, 섬 안에 누구인지 모르나 산골에 숨어서 소와 말을 잡아 죽인다고 하므로 황득중(黃得中), 오수(吳守) 등을 보내어 수색하게 하였다. 이날 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 한 점 없는데 혼자 뱃전에 앉아 심회를 달래지 못하였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앓았다 누웠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었다.

14일(신미) 맑음. 새벽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헛디디어 내(我) 가운데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러지지는 않았는데, 끝에 아들 면(莧)이 엎드려 나를 안는 것 같은 형상을 보고 잤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늦게 배 조방장과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보러 왔다. 배(裵)의 종이 경상도로부터 와서 적의 형세를 전하였다. 황득중 등이 와서 보고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종 강막지(姜莫只)라는 자가 소를 많이 치기 때문에 12마리를 끌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天安)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뺨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겹봉을 대강 뜯고 열(莧)(둘째 아들)의 글씨를 보니 거죽에 “통곡” 두 자가 씌어 있어 면(莧)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시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은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마는,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

으므로 아직은 참고 연명이야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올부짓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밤 9시께 비가 내렸다.

15일(임신) 종일 바람과 비.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종일 뒹굴었다. 여러 장수들이 위문하러 오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대하랴. 임홍(林紆), 임중형(林仲亨), 박신(朴信)은 적세를 살피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흥양(興陽), 순천(順天) 앞바다로 나갔다.

16일(계유) 맑음. 우수사와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김응함)를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 원 유형(柳珩)도 보냈다. 나는 내일이 끝의 아들의 부음을 들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 마음 놓고 울어 보지도 못했으므로 염한(鹽于) 강막지(姜莫只)의 집으로 갔다. 밤 10시에 순천 부사(우치적), 우후(이정충(李廷忠)), 금갑(金甲)(이정표(李廷彪)), 제포(濟浦)(주의수(朱義壽)) 등이 해남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왜적 13명과 적 진에 투항해 들어갔던 송언봉(宋彦逢) 등의 머리를 베어 왔다.

17일(갑술)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흰 띠를 띠고 향을 피우고 곡했다. 비통함을 어찌 참으랴. 우수사가 보러 왔다.

18일(을해) 맑고 바람도 자는 것 같았다. 우수사는 배를 부릴 수가 없었다. 강막지(姜莫只)가 보러 왔다. 임계형(任季亨), 임준영(任俊英)이 보러 왔다. 자정에 꿈을 꾸었다.

19일(병자) 맑음. 새벽에 고향 집의 종 진(辰)이 내려왔기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여 통곡하는 꿈을 꾸었다. 늦게 조방장과 경상 우후가 보러 왔다. 백 진사(白進士)(백진남(白振男))가 보러 왔다. 임계형이 보러 왔다. 김신웅(金信雄)의 아내, 이인세(李仁世), 정억부(鄭億夫)를 붙잡아 왔다. 거제, 안골포, 녹도, 웅천(김충민(金忠敏)), 제포, 조라포(助羅浦), 당포(唐浦)와 우우후가 보러 왔다. 적을 잡은 공문을 가져와 바쳤다. 윤건(尹健) 형제가 적에게 붙었던 자 2명을 붙잡아 왔다. 어둠 무렵에 코피를 되 남짓이나 흘렸다.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짓고 하였다. 이제는 영

령이라 불효가 여기까지 이를 줄은 어떻게 알았으랴. 비통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누를 길이 없다.

20일(정축) 맑고 바람도 잦다. 이른 아침에 미조항 첨사, 해남, 강진 현감이 해남의 군량 운반할 일로 돌아간다 아뢰고, 또 안골 만호 우수(禹壽)도 돌아간다고 아뢰었다. 늦게 김종려(金宗麗), 정수(鄭遂), 백진남(白振男)이 보러 와서 윤지눌(尹志訥)의 고약한 짓을 말하였다. 김종려를 소음도(所音島) 등 13섬의 염장(鹽場)의 감자도감검(監煮都監檢)으로 정해 보냈다. 영속(營屬) 사화(士化)의 모친이 배 속에서 죽었다 하기에 곧 매장하도록 군관에게 일렀다. 남도포(南桃浦)(강응표(姜應彪)), 여도(김인영(金仁英)) 두 만호가 와 보고 돌아갔다.

21일(무인) 새벽 2시께 비가 오다 눈이 오다 했다. 바람이 몹시 차가워 뱃사람들이 얼고 떨 것을 염려하여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다. 오전 8시부터는 바람과 눈이 크게 불어쳤다. 정상명(鄭陟冥)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안 현감(務安縣監) 남언상(南彦祥)이 들어왔다고 한다. 언상은 본시 수군에 소속된 관원인데, 제 몸만 보존하려는 계책으로 수군에 오지 않고 몸을 산골에 숨긴 지 달포가 넘더니 이제 적이 물러간 뒤에야 무거운 별을 받을까 겁내어 비로소 나타나니 그 하는 짓이 극히 해괴하다. 늦게 가리포(加里浦) 및 배 조방장(裨助防將), 우후(虞候) 등이 와서 절하였다. 종일 바람과 눈이 내렸다. 장흥(長興)이 와서 잤다.

22일(기묘) 아침에 눈이 오고 늦게 개었다. 장흥과 아침을 같이 먹었다. 오후에 군기 직장(軍器直長) 선기룡(宣起龍) 등 세 사람이 유지(有旨)와 의정부(議政府)의 방문(榜文)을 가지고 왔다. 해남 현감(海南縣監)(유형(柳珩))이 적에게 붙었던 윤해(尹海) 김언경(金彦京)을 결박 지어 올려 보냈기로 나장(羅將)들 있는 곳에 단단히 가두라고 하였다. 무안 현감 남언상은 가리포 전선(戰船)에 가두었다. 우수사가 황원(黃原)으로부터 와서 김득남(金得男)을 처형하였다고 했다. 진사(進士) 백진남(白振南)이 와 보고 돌아갔다.

23일(경진) 맑음. 늦게 김종려(金宗麗), 정수(鄭遂)가 보러 왔다. 배 조방장(배경남(裴慶南) 및 우후(이의득(李義得)), 우수 우후(右水虞候)(이정충(李廷忠))도 왔다. 적량(赤梁), 영등 만호(조계종(趙繼宗))도 뒤미처 왔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이날 낮에 윤해(尹海), 김언경(金彦京)을 처형했다. 대장장이 허막동(許莫同)을 나주(羅州)로 보내려고 밤 9시경에 종을 시켜 부른즉, 배가 아프다고 하였다. 전마(戰馬)의 편자가 떨어진 것을 고쳐 박았다.

24일(신사) 맑음. 해남(海南)에 있던 왜의 군량 3백 22섬을 실어 왔다. 초저녁에 선전관 하응서(河應瑞)가 유지(有旨)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후 이몽구(李夢龜)를 처형하라는 것이었다. 그편에 들으니 명(明)나라 수군이 강화(江華)에 도착했다고 한다. 밤 10시께 맘을 내어 등을 적시고 자정에야 그쳤다. 새벽 3시쯤에 또 선전관과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도착하였다고 한다. 날이 환히 밝은 후에 들어왔는데, 선전관은 권길(權吉)이요, 금오랑(金吾郎)(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은 훈련 주부(訓鍊主簿) 홍지수(洪之壽)였다. 무안 원과 목포(방수경(方守慶))와 다경포(多慶浦)(윤승남(尹承男)) 만호 등을 잡으러 온 것이다.

25일(임오) 맑음. 몸이 몹시 불편했다. 윤연(尹連)이 부안(扶安)으로부터 왔다. 종순화(順化)가 배를 타고 아산(牙山)으로부터 온 편에 집안 편지를 받아 보았다. 심희가 편치 못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혼자 앉아 있었다. 초저녁에 선전관 박희무(朴希茂)가 유지(有旨)를 가지고 왔는데, 명나라 수군의 배가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생각해서 곧 장계(狀啓)하라는 것이었다. 양희우(梁希雨)가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돌아왔다.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가 편지와 함께 홍시 한 접을 보내왔다.

26일(계미) 새벽에 비가 뿌렸다. 조방장들이 와서 보았다. 김종려(金宗麗), 백진남(白振南), 정수(鄭遂) 등도 보러 왔다. 이날 밤 식은땀이 몸을 적셨다. 온돌이 너무 더웠던 까닭이었다.

27일(갑신) 맑음. 영광(靈光) 군수(전협(田狹))의 아들 전득우(田得雨)가 군관이 되어 현신하였으나 곧 그 부친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홍시 백 개를 가지고 왔다. 밤에 비가 뿌렸다.

28일(을유) 맑음. 아침에 여러 가지 장계를 봉해서 피은세(皮銀世)에게 주어 보냈다. 늦게 강막지(姜莫知)의 집으로부터 지휘선으로 옮겨 탔다. 저녁에 염장(鹽場)의 도서원(都書員) 결산(巨岬山)이 큰 사슴을 잡아 바치기에 군관들에게 나누어 나누어 먹게 하였다. 이날 밤 바람 한 점 없었다.

29일(병술) 맑음. 새벽 2시 첫 나발을 불어 배를 띄워 목포(木浦)로 향했다.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고 동풍이 약간 불었다. 목포에 이르러서 보화도(寶花島)(고하도(高下島))에 옮겨 댕측, 서북풍을 막음직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하였다. 그래서 육지로 내려 섬 안을 돌아보니 지형이 아주 좋으므로 진을 머무르고 집 지을 계획을 세웠다.

30일(정해) 맑으나 동풍이 불고 비 올 기세가 많았다. 아침에 집 지을 곳에 내려가 앉았으니 여러 장수들이 보러 왔다. 해남(海南) 원(유형(柳珩))도 와서 적에게 붙었던 자들의 짓을 전했다. 일찍이 황득중(黃得中)을 시켜 목수를 데리고 섬 북쪽 산 밑에 가서 집 지을 재목을 찍어 오게 하였다. 늦게 적에게 붙었던 해남의 정은부(鄭銀夫)와 김신웅(金信雄)의 계집 등, 왜놈에게 지시하여 우리 사람을 죽인 2명과 선비의 집 처녀를 강간한 김애남(金愛南)을 모두 목 베어 효시하였다. 저녁에 양밀(梁謐)이 도양장(道陽場)의 벌레 먹은 곡식을 제멋대로 나눠 준 일로 곤장 60대를 때렸다.

11월

1일(무자) 비, 비. 아침에 사슴 털가죽 2장이 물에 떠내려 왔으므로 명나라 장수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상한 일이다. 오후 2시께 비는 개었으나 북풍이 크게 불어 뱃사람들은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나도 웅크리고 배 밑창 방에 앉아 있노라니 심

회가 편안치 않아 하루해를 지냄이 1년 같았다. 비통함을 어찌 다 말하랴. 저녁에 북풍이 크게 불어 밤새도록 배가 흔들려 사람이 안정할 수 없었다. 땀이 나 온몸을 적셨다.

2일(기축) 흐리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일찍 들으니 우수사의 전선이 바람에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걸려 깨졌다고 한다. 참 통분한 일이었다. 병선 군관(兵船軍官) 당언량(唐彦良)을 곤장 80대 쳤다. 선창에 내려가 앉아 다리 놓는 것을 감독했다. 그길로 새 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어두워서 배로 내려왔다.

3일(경인) 맑음. 일찍 새 집 짓는 데로 올라가니 선전관(宣傳官) 이길원(李吉元)이 배설(裴榑)을 처단할 일로 들어왔다. 배(裴)는 벌써 성주(星州) 본집으로 갔는데 그리로 안 가고 바로 이리로 왔으니 그 사정 보아 주는 죄가 크다. 녹도의 배로 보냈다.

4일(신묘) 맑음. 일찍 새 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길원이 머물렀다. 진도(珍島) 군수 선의문(宣義問)(《전서》에는 선의경(宣義卿))이 왔다.

5일(임진) 맑고 따뜻하기 봄날 같았다. 일찍 새 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해가 저물어서 배로 내려왔다. 영암(靈岩) 군수 이종성(李宗誠)이 와서 밥 서른 말을 지어 일꾼들을 먹이고, 또 말하되 군량미 2백 섬과 벼 7백 섬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날 보성과 홍양을 시켜 군량 곳간 짓는 것을 보살피게 했다.

6일(계사) 맑음. 일찍 새 집 짓는 데로 올라가서 종일 거닐며 해 지는 줄을 몰랐다. 새 집 지붕을 이고 군량 곳간도 세웠다. 전라 우수사 우후는 나무 짚어 올 일로 황원장(黃原場)으로 갔다.

7일(갑오)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해남(海南) 의병(義兵)이 왜인의 머리 하나와 환도(環刀) 한 자루를 가져와 바쳤다. 이종호(李宗浩)와 당언국(唐彦國)을 잡아 왔기로 거제(巨濟) 배에 가두었다. 늦게 전 홍산(鴻山) 윤영현(尹英賢)과 생원(生員) 최

집(崔湑)이 보러 오며 군량 벼 40섬과 쌀 8섬을 바쳤다. 며칠 동안의 양식으로 도
움 될 만했다. 본영 박주생(朴注生)이 왜의 머리 2개를 베어 왔다. 전 현령 김응인
(金應仁)이 보러 왔다. 이대진(李大振)의 아들 순생(順生)이 윤영현(尹英賢)을 따라
왔다. 저녁에 새 집의 마루를 다 놓았다. 여러 수사들이 보러 왔다. 이날 밤 자정께
면(麵)이 죽는 꿈을 꾸고 슬피 울었다. 진도 군수가 돌아갔다.

8일(을미) 맑음. 새벽 2시께 꿈에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다. 이날은 날이 따뜻하
고 바람도 없었다. 새 방 벽에 흙을 발랐다. 이지화(李至和) 부자가 보러 왔다. 마
루를 만들었다.

9일(병신) 맑고 따뜻하기가 봄날 같았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강진(康津) 원(송상
보(宋尙甫))이 고을로 돌아갔다.

10일(정유) 눈비가 섞여 내리고 서북풍이 크게 불어 간신히 배를 건넜다. 이정충
(李廷忠)이 와서 장흥(長興)에 있던 적들이 달아났다고 했다.

11일(무술) 맑고 바람도 풀이 죽었다. 식후 새 집에 올라가니 새 평산 만호(平山萬
戶)가 도임장(到任狀)을 바쳤다. 그는 하동 현감(河東縣監)(신진(申稔))의 형 신훤
(申萱)이다. 전하는 말이 승정(崇政)¹으로 가자하는 것이 이미 발행되었다고 한다.
장흥(長興)과 배 조방장(배흥립(裵興立))이 보러 왔다. 저녁에 우후 이정충이 왔다
가 오후 8시께 돌아갔다.

12일(기해) 맑음. 이날 늦게 영암(靈岩), 나주(羅州) 사람들에게 타작을 못하게 했
다고 해서 결박 지어 왔으므로 그중 주모자를 가려 처형하고 남은 4명을 각 배에
가두었다.

13일(경자) 맑음.

14일(신축) 맑음. 해남 원 유형(柳珩)이 와서 윤단중(尹端中)의 무리한 일을 많이

1 승정(崇政) : 종일품의 벼슬. 그러나 실상은 올려지지 않았다.

전했다. 또 말하기를 “해남의 아전이 법성포(法聖浦)로 피란 갔다가 돌아올 때 바람을 만나 구조하기는커녕 도리어 배 안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군(中軍) 배에 가두었다. 김인수(金仁守)는 경상도 수영(水營) 배에 가두었다. 내일은 큰 제삿날²이라 나가지 않겠다.

15일(임인) 맑고 따뜻하기 봄날 같았다. 식후에 새 집에 올라갔다. 늦게 임환과 윤영현(尹英賢)이 보러 왔다. 이날 밤 송한(宋漢)이 서울로부터 들어왔다.

16일(계묘) 맑음. 아침에 조방장, 장흥 부사(전봉(田鳳)) 및 진중에 있는 여러 장수가 모두 보러 왔다. 군공마련기(軍功磨鍊記)(개인별 전공조사 기록)를 보니 거제현령 안위(安衛)가 통정(通政)이 되고 그 나머지도 차례차례 벼슬을 받았으며 내게는 은자(銀子) 20냥을 상금으로 보냈다. 명나라 장수 양 경리(梁經理)가 붉은 비단 한 필을 보내면서, “배에다 패홍(掛紅)³하는 예식을 올리고 싶으나 길이 멀어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영의정(유성룡)의 답장도 왔다.

17일(갑진) 비, 비. 양 경리의 차관(差官)이 초유문(招諭文)⁴과 면사첩(免死帖)⁵을 가지고 왔다.

18일(을사) 맑고 따뜻하기 봄날과 같았다. 윤영현(尹英賢)이 보러 왔고 정한기(鄭漢起)도 왔다. 땀이 났다.

19일(병오) 흐림. 배 조방장과 장흥이 보러 왔다.

20일(정미) 비, 비. 바람, 바람. 임준영(任俊英)이 와서 완도(莞島)를 정탐한즉 적선이 없더라고 전했다.

2 큰 제삿날 : 충무공 선친의 제삿날이다.

3 패홍(掛紅) : 승진했을 때에 배에다 붉은 비단을 걸어 그 공을 치하하는 예식이다. 육군 권 도원수에 대한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있다.

4 초유문 : 적이나 또는 적에게 붙었던 자들을 너그러운 조건으로 포용하는데 관한 포고문이다.

5 면사첩 : 사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이다.

21일(무신) 맑음. 송응기(宋應璣) 등이 산역군(山役軍)을 데리고 해남(海南) 소나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날 밤 순생(順生)이 와서 잤다.

22일(기유) 흐리다 개었다 했다. 저녁에 김애(金愛)가 아산(牙山)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는 임금 분부를 가져온 사람으로 이달 10일 아산 집에 들러 편지를 가져온 것이다. 밤에 비와 눈이 내리고 바람도 크게 불었다. 장흥(長興) 있던 적이 20일 달아났다는 보고가 왔다.

23일(경술) 바람이 크게 불고 눈이 많이 내렸다. 이날 승첩(勝捷)한 장계를 썼다. 저녁에 얼음이 얼었다고 했다. 아산 집에 편지를 쓰자니 죽은 아들을 생각하여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다.

24일(신해) 비, 눈. 서북풍이 계속 불었다.

25일(계축) 눈.

26일(계축) 비, 눈. 추위가 배나 혹독해졌다.

27일(갑인) 맑음. 이날 장흥의 승첩 장계를 수정하였다.

28일(을묘) 맑음. 장계를 봉했다. 무안(務安) 사는 진사(進士) 김덕수(金德秀)가 군량 벼 15섬을 가져와 바쳤다.

29일(병진) 맑음. 마 유격(麻遊擊)(이름은 귀(貴))의 차관(差官) 왕재(王才)가 물길로 명나라 군대가 내려온다고 했다. 전희광(田希光)(《전서》에는 전희원(田希元)), 정황수(鄭凰壽)(《전서》에는 정봉수(鄭鳳壽))가 오고 무안 현감도 왔다.

12월

1일(정사)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경상 수사 이입부(李立夫)(이순신(李純信))가 진에 왔으나 나는 배가 아파서 늦게야 수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며 종일 대책을 의

논했다.

2일(무오) 맑음. 날씨가 매우 따뜻하며 봄날 같았다. 영암(靈岩) 향병장 유장춘(柳長春)이 적을 토벌한 사연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50대를 때렸다. 윤홍산(尹鴻山), 김종려(金宗麗), 백진남(白振南), 정수(鄭遂) 등이 보러 왔다. 오후 10시쯤에 땀이 배었다. 북풍이 크게 불었다.

3일(기미) 맑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았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4일(경신) 맑으나 몹시 추웠다. 늦게 김윤명을 곤장 40대 쳤다. 장흥 교생(校生) 기업(基業)이 군량을 훔쳐 실은 죄로 곤장을 쳤다. 거제 및 금갑도(金甲島), 천성(天城)이 타작(打作)에서 돌아왔다. 무안 및 전희광(田希光) 등도 돌아왔다.

5일(신유) 맑음. 아침에 공로 세운 여러 장수들에게 상품과 직첩(職帖)을 나누어 주었다. 김돌손(金玆孫)이 봉학(奉鶴)을 거느리고 함평(咸平) 지경으로 갔다. 보자기 수색을 책임진 정응남(鄭應男)이 새로 만드는 배를 검열할 일로 점세(占世)를 데리고 함께 진도(珍島)로 떠났다. 해남(海南)의 독동(禿同)을 처형하였다. 전 익산군수(益山郡守) 고종후(高從厚)가 왔으며 김억창(金億昌)이 오고 광주(光州) 박자(朴子)도 왔으며 무안 나덕명(羅德明)도 왔다. 도원수(都元帥)의 군관이 유지(有旨)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선전관 편에 들으니, 통제사 이순신이 아직도 상제의 예법대로만 지키고 방편을 좇지 않아 여러 장수들이 민망히 여긴다고 하니 사정(私情)이야 간절하지만 국사가 한창 바쁘고, 옛 사람의 말에도 전쟁에 나가 용맹이 없으면 효(孝)가 아니라 하였고, 전쟁에 나가 용감하다는 것은 소찬(素饌)이나 먹어서 기력이 곤비(困憊)한 자로서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라, 예기(禮記)에도 원칙을 지키는 경(經)이 있고 방편을 취하는 권(權)이 있어 꼭 원칙대로만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 경(卿)은 내 뜻을 생각하여 소찬 먹는 것을 치우고 방편을 좇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울러 고기반찬을 하사하셨으므로 더 한결 감개무량했다. 해남의 강간 악탈한 죄인들을 함평(咸平)이 자세히 심문했다.

6일(임술) 나덕준(羅德峻), 정대청(鄭大清)의 아우 응청(應淸)이 보러 왔다.

7일(계해) 맑음.

8일(갑자) 맑음.

9일(을축) 맑음. 중 목년(木年)이 들어왔다.

10일(병인) 맑음. 해(薹), 열(莨)과 진원(珍原)이 윤간(尹侃), 이언량(李彦良)과 함께 들어왔다. 배 만드는 곳에 나가 앉았었다.

11일(정묘) 맑음. 경상 수사(이순신(李純信)) 및 조방장(배흥립(裴興立))이 보러 왔으며 우수사(이시언(李時言))도 왔다.

12일(무진) 맑음.

13일(기사) 간혹 눈이 내렸다.

14일(경오) 맑음.

15일(신미) 맑음.

16일(임신) 맑다가 늦게 눈이 내렸다.

17일(계유) 눈과 바람이 섞여 내려 차가웠다. 조카 해(薹)와 작별했다.

18일(갑술) 눈이 내렸다. 새벽에 해는 어제 술이 채 깨기도 전에 배를 띄워 떠났다. 심회가 편하지 못했다.

19일(을해) 종일 눈이 내렸다.

20일(병자) 진원(珍原)의 어머니와 윤간(尹侃)이 올라갔다. 우후가 교서에 숙배(肅

拜)했다.

21일(정축) 눈이 내렸다. 아침에 홍산(鴻山)[윤영현(尹英賢)]이 목포(木浦)로부터 보러 왔고, 늦게 배 조방장 및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가 크게 취해 돌아갔다.

22일(무인) 비와 눈이 섞여 내렸다. 함평 현감[손경지(孫景祉)]이 들어왔다.

23일(기묘) 눈이 세 치나 쌓였다. 순찰사[황신(黃愼)]가 진에 온다는 기별이 먼저 왔다.

24일(경진) 눈이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이종호(李宗浩)를 순찰사에게 보내어 문 안했다. 이날 밤에 나덕명(羅德明)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머무르고 있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니 한심하다. 오후 10시께 집에 편지를 썼다.

25일(신사) 눈이 내렸다. 아침에 열이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 병 때문이었다. 늦게 경상 수사와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오후 6시께 순찰사가 진중에 와서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연해(沿海) 열아홉 고을은 수군에 전속시키기로 했다.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26일(임오) 눈이 내렸다. 방백(方伯)과 방에 앉아 군사 방책을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늦게 경상 수사와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27일(계미) 눈. 아침 식후에 순찰사가 돌아갔다.

28일(갑신) 맑음. 경상 수사,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비로소 들으니 경상 수사가 가지고 온 물이…[이 아래로 ‘扶物來’까지만 보이고 다음은 알 수 없음]

29일(을유) 맑음. 김인수(金仁秀)를 놓아 보냈다. 윤(이름은 알아볼 수 없음)은 곤장 30대를 쳐 놓아 보냈다. 영암 좌수(靈岩座首)는 문초를 받고 놓아 주었다. 저녁에 두우지(杜宇紙), 백지, 상지(常紙) 아울러 50…[이 아래도 글자가 지워져 알아

볼 수 없음] 왔다. 오후 8시께 다섯 사람이 선두에 왔다고 하기에 시골 종을 보냈는데[이 아래도 지워져 있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거제(巨濟)의 망령됨을 가히 알겠다.[이 아래도 글자가 지워져 알 수 없다]

30일(병술) 입춘이다. 눈보라 치고 몹시 추웠다.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 보는데 평산 만호와 영등(정응두(丁應斗))은 오지 않았다. 부찰사(副察使)(홍이상(洪履祥))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이 밤은 해가 다 되는 그믐밤이라 비통한 마음이 더욱 더했다.

무술년

무술년(戊戌年)

1598년, 선조 31년, 충무공 54세.

임진란 이후 7년의 전쟁은 무수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최후의 해가 되었다. 아니 충무공 자신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최후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충무공은 자기 한 몸을 던져 조국을 위기에서 영원히 살린 것이다.

1월

1일(정해) 맑음. 늦게 잠깐 눈이 왔다. 경상 수사, 조방장 및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서 모였다.

2일(무자) 맑음. 나라 제삿날¹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이날 새 배에 낙괴(落塊)했다. 해남 현감(유형(柳珩))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송대립, 송득운, 김봉만이 각 고을로 나아갔다. 진도 군수(선의문)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3일(기축) 맑음. 이언량, 송응기 등이...(이하 글자가 떨어져서 빠져 있음)

4일(경인) 맑음. 무안 현감(남언상(南彦祥))에게 곤장을 때렸다.

[5일부터 9월 14일까지 빠져 있음]

9월

15일(정유) 맑음. 진 도독(陳都督)(진린(陳璘))과 함께 일제히 행군하여 나로도(羅老島)(고흥군 봉래면)에 이르러 잤다.

16일(무술) 맑음. 나로도에 머무르면서 도독과 술을 마셨다.

17일(기해) 맑음. 나로도에 머물며 진(陳)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나라 제삿날 : 명종 인수왕후 신씨의 제삿날이다.

18일(경자) 맑음. 오후 2시에 행군하여 방답(여수시 돌산읍)에 이르러 잤다.

19일(신축) 맑음. 아침에 좌수영(여수)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참담했다. 자정에 달을 타고 하개도(何介島)에 옮겨 대었다가 날 새기 전에 행군했다.

20일(임인) 맑음. 오전 8시에 모도(猫島)에 이르니 명나라 장수 육군 유 제독(柳提督)(유정(柳挺))이 벌써 진군하였다. 수륙으로 협공하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두려워하는 모양이 많기로 수군이 드나들며 대포를 쏘았다.

21일(계묘) 맑음. 아침에 진군하여 흑 활을 쏘고 흑 화포를 놓고 종일 싸웠으나 물이 매우 얇아서 진격할 수가 없었다. 남해의 적이 경패선을 타고 들어와서 정탐하려 하므로 허사인(許思仁) 등이 추격했더니 적은 육지에 내려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배와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아다가 도독에게 바쳤다.

22일(갑진) 맑음. 아침에 진군하여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유격(遊擊)이 왼편 어깨에 탄환을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명나라 군인 11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지세포 만호와 옥포 만호도 탄환에 맞았다.

23일(을사) 맑음. 도독이 화를 내고 서천 만호 및 홍주 대장과 한산 대장을 각각 곤장 7대를 때렸다. 금갑도, 제포, 회령포에게도 함께 15대씩 때렸다.

24일(병오) 맑음. 진대강(陳大綱)이 돌아왔다. 원수의 군관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충청 병사(이시언)의 군관 김정현(金鼎鉉)이 왔다. 남해 사람 김덕유(金德有) 등 5인이 나와서 그 고을 적의 정세를 전했다.

25일(정미) 맑음. 진대강이 돌아와서 유 제독의 편지를 전했다. 이날은 육군은 비록 공격을 하려고 하나 기구가 완전히 못하였다. 김정현이 보러 왔다.

26일(무신) 맑음. 육군의 기구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저녁에 정응룡(鄭應

龍)이 와서 북도(北道)의 일을 말했다.

27일(기유) 아침에 잠시 비가 뿌리고 서풍이 세게 불었다. 아침에 형 군문(邢軍門) [형개(邢玠)]이 글을 보내어 수군이 신속히 진군한 것을 칭찬했다. 식후에 진 도독을 보고 조용히 의논했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저녁에 신호의(愼好義)가 보러 왔다가 갔다.

28일(경술)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어 크고 작은 배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

29일(신해) 맑음.

30일(임자) 맑음. 이날 저녁에 왕 유격(왕원주(王元周)), 복 유격(복승(福昇)), 이 파총(李把總)(이천상(李天常))이 배 백여 척을 거느리고 진에 왔다. 이날 밤 불빛이 휘황하여 적도들의 간담이 떨어졌을 것이다.

10월

1일(계축) 맑음. 도독이 새벽에 유 제독에게로 가서 잠깐 서로 이야기했다.

2일(갑인) 맑음. 오전 6시에 진군했는데, 우리 수군이 먼저 나가 오정까지 서로 싸워 적을 많이 죽였다. 사도 첨사(황세득)가 탄환에 맞아 전사하고 이청일(李靑一)도 역시 전사하고 제포 만호 주의수와 사랑 만호 김성옥, 해남 현감 유형, 진도 군수 선의문, 강진 현감 송상보는 탄환에 맞았으나 죽지는 아니했다.

3일(을묘) 맑음. 도독이 유 제독의 비밀 서신에 의하여 초저녁에 나가 싸워 자정에 이르도록 쳐부수어 사선(沙船)(명나라 배) 19척과 호선(唬船)(명나라 배) 20여 척이 불타 도독이 뛰고 절고 하는 것은 형언할 길이 없었다. 안골 만호 우수가 탄환에 맞았다.

4일(병진) 맑음. 이른 아침에 배를 출동하여 적을 공격하며 종일 서로 싸웠는데 적

들은 허둥지둥 달아났다.

5일(정사) 맑음. 서풍이 세게 불어 배들이 겨우 정박하고 하루를 보냈다.

6일(무오) 맑았으나 서북풍이 세게 불었다. 도원수가 군관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
되, 유 제독이 달아나려고 한다 하였다. 통분하다, 통분하다. 나랏일이 장차 어떻
게 될 것인가.

7일(기미) 맑음. 아침에 송한련이 군량 4섬, 조 1섬, 기름 5되, 꿀 3되를 바치고 김
태정(金太丁)은 쌀 2섬 1말을 바쳤다.

8일(경신) 맑음.

9일(신유) 육군이 이미 철수하였으므로 도독과 함께 배를 거느리고 행선하여 바닷
가 정자에 이르렀다.

10일(임술) 좌수영(여수)에 이르렀다.

11일(계해) 맑음.

12일(갑자) 나로도(고흥군 봉래면)에 이르렀다.

[13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빠져 있음]

11월

8일 도독부를 방문하여 위로연을 베풀어 종일 술을 마시고 어두워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도독이 보자고 청하므로 곧 나갔더니, 도독이 말하기를 순천 왜교(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의 적들이 10일 사이에 도망해 철퇴하는 기별이 육지로부터 통문이
왔으니 급히 진군하여 돌아가는 길을 끊어 막자고 했다.

9일 도독과 더불어 일제히 행군하여 백서량(白嶼梁)(여수시 남면)에 이르러 진을

쳤다.

10일 좌수영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일 묘도(猫島)에 이르러 진을 쳤다.

12일

13일 왜선 10여 척이 장도(獐島)(해남군 송지면)에 나타나므로 곧 도독과 약속하고, 수군을 거느리고 추격하니 왜선은 움츠러들어 종일 나오지 아니했다. 도독과 함께 장도로 돌아와 진을 쳤다.

14일 왜선 2척이 강화할 차로 바다 가운데까지 나오니 도독이 왜말 통역관을 시켜 조용히 왜선을 마중하여 붉은 기와 환도 등 물건을 받았다. 오후 8시에 왜장이 작은 배를 타고 도독부로 들어와서 돼지 2마리와 술 2통을 도독에게 바치고 갔다.

15일 이른 아침에 도독을 가 보고 잠깐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왜선 2척이 강화할 차로 두 번, 세 번 도독의 진중으로 드나들었다.

16일 도독이 진문동(陣文洞)을 시켜 왜영으로 들여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왜선 3척이 말 1필과 창, 칼 등을 도독에게 가져다 바쳤다.

17일 어제 복병장 발포 만호 소계남과 당진포 만호 조효열 등이, 왜의 중간배 1척이 군량을 가득히 싣고 남해로부터 바다를 건너는 것을 한산도 앞바다에까지 추격하였더니 왜적은 기습을 타고 육지로 올라 달아났고, 잡은 왜선과 군량은 명나라 군사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와서 보고했다.

[11월 8일부터 17일까지는 간지(干支)가 빠져 있음]

이순신 연표

1545년	1세	3월 8일 (양력 4월 28일) 한양 건천동서 출생
1565년	21세	결혼
1566년	22세	무예수련 시작
1567년	23세	만아들 회 출생
1571년	27세	둘째 아들 울 출생 (후에 열로 개명)
1572년	28세	훈련원 별과시험 낙방
1576년	32세	2월 식년무과 합격 12월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이 됨
1577년	33세	셋째 아들 면 출생
1579년	35세	2월 훈련원의 봉사가 됨 10월 충청병사의 군관이 됨
1580년	36세	7월 전라좌수영 발포의 수군만호가 됨
1582년	38세	1월 발포 수군만호 파직 5월 훈련원봉사로 복직됨
1583년	39세	7월 함경도 남병사의 군관이 됨 10월 함경도 건원보의 권관이 됨 11월 부친 별세
1586년	42세	1월 사복시의 주부에 임명 1월 함경도 조산보 만호가 됨
1587년	43세	8월 녹둔도 둔전관 겸임 9월 여진족의 기습을 격퇴했으나 파직되어 백의종군함 - 2월 녹도, 가리포, 홍양 등지에 왜구가 침입함
1588년	44세	1월 시진부라 공격작전에 공을 세워 백의종군에서 풀려남 - 10월 정여립사건 발생함
1589년	45세	2월 전라감사 이광의 군관 겸 조방장이 됨 12월 전라도 정읍의 현감이 됨, 태안현감 겸무 - 명나라는 여진의 누르하치에게 만주의 전 지역을 빼앗김
1590년	46세	7월 고사리진 참사로 임명되었으나 대간들의 반대로 취소됨 8월 만포진 참사로 임명되었으나 대간들의 반대로 취소됨 - 3월 통신사를 왜에 파견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 5월 유성룡 우의정에 오름
1591년	47세	2월 전라도 진도 군수로 임명되었다가 전라좌수사가 됨
1592년 임진년 선조25	48세	4월 12일 거북선 완성 4월 13일 (양력 5월 23일) 임진왜란 발발 4월 27일 경상도 출전 명령을 받음 5월 7일 옥포승첩 6월 2일 당포승첩 7월 8일 (양력 8월 14일) 한산대첩 9월 1일 (양력 10월 4일) 부산승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4일 이일 상주에서 대패 - 4월 28일 신립 충주에서 대패 - 5월 3일 왜적 한양 점령 - 6월 초 광개우가 정암전에서 적을 대파 - 6월 13일 왜적이 평양 점령, 선조 의주로 피신 - 10월 6일 김시민 진주승첩
1593년 계사년 선조26	49세	2월 10일~3월 6일 옹포 지역 왜적 격파 (옹포승첩) 7월 15일 한산도 이진 8월 15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임명 (임명장은 10월 9일에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6일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 탈환 - 1월 27일 명나라 이여송 벽제관에서 패전 - 2월 ~ 3월 14일 권을 행주대첩 - 5월 남진한 왜의 육군연합 부대가 진주성 함락 - 5월 중순 명의 강화사 나고야에 도착
1594년 갑오년 선조27	50세	3월 4 ~ 5일 당항포 해전에서 적선 31척 격파 (당항포승첩) 3월 12일 명나라 선유도사인 담종인의 금토판문(禁討牌文)에 항의 답서 보냄 9월 29일 ~ 10월 8일 거제 장문포 수륙연합 작전 실시
1595년 을미년 선조28	51세	2월 원균을 경상우수사에서 충청병사로 전출
1596년 병신년 선조29	52세	전쟁 소강기 철지한 군진 관리하에 견내량 고수 전략으로 일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강화교섭 결렬
1597년 정유년 선조30	53세	2월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 4월 1일 투옥된 지 28일 만에 출옥해 백의종군 4월 13일 모친 별세 7월 16일 (양력 8월 26일) 원균의 삼도수군 대패, 원균 사망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 8월 20일 전라도 이진(梨津)으로 진을 옮김 8월 24일 전라도 어란포로 이진 8월 29일 진도 벽파진으로 이진 9월 16일 (양력 10월 26일) 울돌목 해전 (명량승첩) 10월 29일 목포 보하도로 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정유재란 발발 - 8월 예군 남원성 유린
1598년 무술년 선조31	54세	2월 17일 완도 고금도로 이진 7월 16일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수군 5,000명을 이끌고 고금도로 옴 9월 20일 ~ 10월 9일 수륙합동으로 왜교성의 고니시 부대 공격 11월 19일 (양력 12월 16일) 노량승첩 거두고 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유성룡 파직 - 8월 18일 도요토미 사망

인명 해설*

가안책 賈安策 | 무신으로 임진왜란 2차 출진 때 이순신 휘하에서 한후장을 맡아 당포 해전에서 왜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1595년(선조28)에 금감도 만호가 되었다.

권율 權慄 1537~1599 | 명장으로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582년(선조15)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전라도사, 예조정랑, 호조정랑을 거쳐 1591년(선조24)에 의주 목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로서 일본군과 싸우다 패했으나 그 뒤 남원에서 의용군을 소집해 왜군의 정예 부대를 대파하고 전라도 순찰사로 승진했다. 이어 수원의 독왕산성과 고양의 행주산성에서 큰 승첩을 거두어 도원수가 되었다. 임진왜란 7년간 군대를 총지휘하며 이순신과 함께 큰 전공을 세웠다. 1604년(선조37) 선무일등공신에 책록되고, 영가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권준 權俊 1541~1611 | 문신 겸 무신으로 안동 사람이다. 일찍이 문과에 합격해 순천 부사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휘하에서 중위장이 되어 당포, 한산 등 여러 해전에서 공을 세웠다. 원균, 배설의 뒤를 이어 경상수사를 지냈으며, 후에 선무삼등공신에 책록되고 안창군으로 봉해졌다.

김귀영 金貴榮 1519~1593 | 문신으로 자는 현경(顯卿), 호는 동원(東園), 본관은 상주(尙州)다. 1547년(명종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부제학, 대제학을 거쳐 1581년(선조14) 우의정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영중추부사로서 임해군을 배종하여 함경도에 피란했다가 왕자와 함께 적군에게 잡혔다. 적장 가토에게 넘겨져 그의 강요로 조정에 강화를 주장했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희천으로 유배되어 가던 중 죽었다.

*편집자 주 : 《난중일기》에 언급된 인물들과 더불어, 충무공 생존 시기의 주요 인물을 선정하여 수록했다.

김득광 金得光 | 무신으로 1592년(선조25) 보성군수로 이순신 휘하에서 전쟁에 참여했고 1601년(선조34) 훈원원첨정, 1606년(선조39) 군기사부정으로 봉직하면서 경성 수어 대책을 건의했다.

김성일 金誠一 1538~1593 | 문신이자 학자로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이황의 문인으로 1568년(선조1)에 증광문과에 급제했고 장영, 부제학을 역임했다. 1590년(선조23) 통신부사가 되어 황윤길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김성일은 그때 왜의 무례함을 보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엄히 꾸짖었기 때문에 일본 접반사들은 김성일을 무척 두려워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가 김성일의 정세 보고가 성실치 못한 죄를 국문하러 했으나 좌의정 유성룡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경상우도 초유사가 되고 의병 초모에 진력했다. 이내 순찰사가 되어 국사에 진력하다가 1593년(선조26) 진주에서 병으로 죽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저서로 《학봉집(鶴峰集)》 등이 있다.

김수 金睟 1547~1615 | 문신으로 자는 자양(子昂), 호는 몽촌(夢村), 본관은 안동이다. 1573년(선조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검열을 지냈다. 직제학, 승지,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1591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동래가 함락되자 거창으로 도망갔다. 뒤에 중추부부사, 우참찬을 거쳐 호조판서를 지냈으며 중추부영사에 이르렀고, 훗날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병사했다. 시호는 소의(昭懿)이다.

김완 金浣 1546~1607 | 무신으로 자는 언수(彦粹), 호는 사성당(思誠堂)이다. 영천에서 태어났다. 1577년(선조10) 무과에 합격했고 임진왜란 때에는 사도첨사로서 옥포·당포싸움에서 우척후장, 한산·부산싸움에서는 척후장으로 활약했다. 1597년(선조30)에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의 조방장으로 싸우다 패전해 왜적에게 붙들리어 일본까지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적의 소굴을 벗어나 도망해 돌아오자, 순찰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한 것이나, 협박을 당해도 굽히지 않는 굳센 뜻은 다 가

상한 일이라” 하고 조정에 장계해 다시 진중에 있게 되었다. 1601년(선조34) 함안 군수에 제수되고, 1606년 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1607년(선조40) 병사했다.

김응남 金應南 1546~1598 | 문신으로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 본관은 원주(原州)다. 1568년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예문관, 홍문관 정자에 등용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평안도로 피란할 때 그를 호종하여 후에 우의정, 좌의정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접무사로 영남에 내려갔다가 풍기에서 병을 얻어 사직했다. 1604년 호성이등공신에 책록되어 원성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이순신은 김응남을 현신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나대용 羅大用 1556~1612 | 무신으로 자는 시망(時望), 호는 체암(遞菴), 본관은 금성(錦城)이다. 1583년(선조16)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봉사를 지냈다. 1591년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막하에 군관으로 들어가 거북선 건조에 참여하고, 1592년(선조25) 옥포 해전에서 유군장을 맡아 적을 무찔렀고 사천 해전에서 적탄에 왼쪽 다리를 맞았음에도 분전해 크게 이겼다. 1598년(선조31)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자 힘껏 싸워 적의 포위를 풀었다. 뒤에 경기수사를 지냈다.

배응록 裴應祿 |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휘하의 군관이었는데, 첫 출전에서 참퇴장을 맡아 도망가는 왜적 장수의 목을 베는 등 왜적과 싸울 때마다 크게 이겼다.

배흥립 裴興立 1546~1608 | 무신으로 자는 백기(伯起), 시호는 효숙(孝肅),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1572년(선조5) 무과에 급제했으며, 임진왜란 때 조방장으로 참전해 세운 공으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다. 홍양현감으로 있을 때 전함을 미리 건조하여 전란에 큰 도움이 되었고, 칠천량 해전에서 도망한 원군의 뒤를 맡아 적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한산도대첩, 해주대첩 때는 선등(先登)의 공을 세웠으므로 이순신은 특히 그를 공신으로 천거하였다.

변존서 卞存緒 | 무신으로 훈련원봉사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휘하에서 순천대장, 좌부기전통장으로 활약해 여러 번 공을 세웠다.

서익 徐益 1542~1587 | 문신으로 자는 군수(君受), 호는 만죽헌(萬竹軒), 본관은 부여(扶餘)다. 1569년(선조2)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1583년에 군수(郡守)가 되었으며, 이어 종부사참정으로 순문관이 되어 북방에 파견되었다. 1585년(선조18)의 주 목사 때 탄핵을 받은 이이를 변호하다가 파면되었다.

선거이 宣居怡 1550~1598 | 무신으로 자는 사신(思愼), 호는 친친재(親親齋), 본관은 보성(寶城)이다. 1569년 선전관이 되었고, 이듬해 무과에 급제했다. 이순신이 1578년(선조11) 함경도 경흥군 조산보만호로서 녹둔도 둔전관을 겸했을 적에 병사 이일의 군관으로 있었다. 이때 이일이 이순신을 죽이려 하자 그를 붙들고 눈물을 지으며 위로했다. 함경도 북쪽 변방에서부터 이순신과 같이 활약하다가 1583년 39세에 남쪽으로 내려와 거제현령이 되었으며, 다시 성주 목사와 전라수사를 거쳐 임진왜란 첫 무렵에는 전라병사로서 권율과 함께 행주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1595년 9월 14일 이순신과 서로 헤어질 당시 충청수사로 있을 때인데, 이순신이 그와 헤어짐을 아쉬워한 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한산도에서 이순신을 도와 둔전하는 일과 경리 일에 협력했고, 다음 해인 1596년(선조29)에는 황해병사로 있다가 중풍으로 고향에서 세상을 떠났다.

송대립 宋大立 1550~1597 | 무신으로 자는 신백(信白),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홍양(興陽)에서 태어났다. 1594년(선조27)에 무과에 합격해 훈련부정이 되었는데, 공적이 있어 곧 훈련정으로 승진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립, 희립, 정립 세 형제가 같이 의병을 모아 일어섰다. 이순신이 감옥에서 나온 뒤 도원수에게 추천해 창의별장이 되었고 정유재란에서 전공을 세웠다. 홍양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무찔렀으나 복병(伏兵)을 만나 전사했다. 뒤에 병조참의를 추증하고 선무원종에 참록되었다.

송성 宋晟 | 무신으로 자는 명수이다. 여산 사람으로 군수 송안형의 아들이다. 1592년에 무과에 급제해 이순신의 군관으로서 전략을 세우는 데 참여했으며, 당포 해전과 부산포 해전에서 적선을 많이 부수었다. 뒤에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송희립 宋希立 1553~? | 무신으로 본관은 여산, 자는 신중(信仲)이다. 증참판 송관의 아들로 1592년에 지도 만호로서 형 대립, 아우 정립과 함께 세 형제가 이순신의 부하가 되었다. 홀어머니가 있었지만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먼저 돌봐야 한다”며 자식들을 전쟁터에 나서게 했다. 이순신이 처음 출전을 위한 회의를 열었을 때 정운과 함께 출전을 강력히 주장한 의인이다. 7년 전쟁을 이순신과 시종 같이 했으며,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 도독 진린이 적에게 포위되자 달려가 구하다가 탄환에 맞아 넘어졌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외치자 다시 일어나 상처를 붙들고 계속 싸웠다. 《호남동순록》에는 이순신이 마지막 적탄에 맞았을 때 “송희립이 복채를 받아 쳤다”고 적혀 있다. 뒤에 전라좌수사가 되었으며, 사후에 승주 충무사에 배향되었다.

신각 申恪 ?~1592 | 무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영흥 부사를 거쳐 1587년(선조20) 경상도 방어사로 나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양을 수비하기 위해 중위대장이 되었다. 이어 도원수 김명원의 부원수로서 한강싸움에서 패한 후 유도대장 이양원을 따라 양주로 도망갔다. 그곳에서 함경남도 병사 이훈(李渾)의 원군을 만나 전열을 수습한뒤, 양주 해유령에서 적병을 대파했다. 이때 한강 패전 후 임진강에 도피해 있던 도원수 김명원이 신각을 명령 불복종 죄로 몰아 무고하게 참형했다. 이날 오후 양주에서 신각의 승첩보가 도착하자 참형을 중지시키기 위해 다시 선전관을 뒤따라 보냈으나, 이미 참형된 뒤였다.

신립 申瑬 1546~1592 | 무신으로 자는 입지(立之), 본관은 평산이다. 1567년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을 거쳐 진주 판관을 역임했다. 1583년 온성 부사가 되어 이

탕개를 격퇴하고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에 임명되어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북상해오는 적군을 막다가 대패해 부하 장수 김여물과 함께 강물에 투신해 자결했다. 신립은 평소부터 성질이 잔인하고 사납다는 평판을 들었고, 미래의 국가 위기에 대처할 경륜과 지혜가 없이 허명만 높았다고 유성룡은 평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신호 申浩 1539~1597 | 무신으로 자는 언원(彦源), 시호는 무장(武壯)이다. 1567년(명종22) 29세에 무과에 합격한 후 함경도 조산만호, 도총부도사를 지냈다. 1590년부터 다음 해까지 낙안군수를 지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휘하에서 공을 세워 통정대부로 승진되었고, 1595년에는 조방장이 되었다. 1597년 남원이 포위되자 끝까지 남원을 보전하기 위해 병사 이복남 등과 힘을 합쳐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뒤에 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고, 형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심유경 沈惟敬 ?~1597 | 중국 명나라의 신하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자청해서 조선, 일본, 명 3국 사이에 강화회담을 맡아 진행했다. 이때 적장 고니시와 짜고 농간을 부림으로써 1597년 결국 일본군이 재차 침범하는 정유재란을 초래했다. 후에 비리가 폭로되어 엄형에 처할 뻔했으나, 병부상서 석성(石星)에 의해 겨우 구제되었다. 또다시 일본과 평화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것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으로 망명을 기도했다. 하지만 경상남도 의령 부근에서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붙잡혀 처형되었다.

안위 安衛 1563~? | 무신으로 자는 대훈(大勳), 순흥 사람이다. 힘과 용기가 있었고 무예를 겸비하였다. 임진년 무과에 올라 대동찰방이 되고 정유년에 이항복의 추천으로 거제현령이 되어 명량 해전에서 충무공을 따라 싸워 공을 세웠다. 충무공의 장계에 의하여 전라병사로 승진하고 선무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어영담 魚泳潭 1532~1594 | 무신으로 자는 경유(景游), 본관은 함중(咸從)이다. 1564년(명종19) 무과에 합격한 뒤로 영남과 호남의 여러 진을 두루 다녀 물길의 험하고 순탄한 것과 멀고 가까움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1592년 광양 현감으로 이순신의 휘하에 있으면서 5월 4일 처음으로 출전할 때 길을 향도했고 전투 때마다 큰 공을 세웠다. 군량을 준비함에도 깊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종자 곡식과 백성 구급용 곡식을 따로 간직해 두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어사 임발영이 잘못 알고 조정에 그의 파면을 청해 백성과 이순신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파직되었다. 후에 이순신이 다시 청해 조방장으로 삼았으나 뜻밖에도 유행병에 걸려 한산도 진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우치적 禹致績 ?~1628 | 무신으로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시골 장정 수백 명을 모아 왜적이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와 영등포 만호가 되어 왜적과 여러 번 싸워 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산수간에서 여생을 마쳤다.

원균 元均 1540~1597 | 무신으로 자는 평중(平仲), 본관은 원주(原州)다. 무과에 급제한 뒤 조산만호가 되어 오랑캐를 토벌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령부사로 승진했으며, 이어 종성부사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경상우수사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박홍(朴弘)이 이끄는 경상좌수영군이 일본 군과의 교전도 없이 궤멸되고, 그가 관할하는 경상우수영의 장병들도 대부분 흩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원균은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해 함께 옥포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공으로 조정에서 이순신에게는 자헌대부(資憲大夫)를, 그에게는 1품계 아래인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내리면서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으며, 1593년 8월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에 이순신이 임명되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594년 충청병사, 얼마 후에는 전라좌병사로 전임되었다. 이후 조정에서 그를 수사로 재임명하자는 논의가 있던 중 이순신이 한양으로 압송되자 1597년 1월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그해 7월 적선의 진로를

저지하려고 전 병력을 이끌고 출격했다가 왜적의 유인전술에 빠져 칠천도에서 전멸했다. 이순신, 권율 등과 함께 선무일등공신으로 책록되고 원릉군(原陵君)으로 추봉되었다.

유성룡 柳成龍 1542~1607 | 문신으로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 · 운암(雲巖),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임진왜란 중 민정(民政) · 군정(軍政)의 최고 관직을 지내면서 전시 조정을 이끌었으며,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 왕조를 재정비, 강화하기 위한 응급책으로서 각종시무책(時務策)을 제기했다.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1591년 권율과 이순신을 의주목사와 전라좌수사에 추천했다. 또한 계승방략의 분군법(分軍法)을 예전처럼 진관제도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판서로서 군무(軍務)를 총괄하는 도체찰사의 직책을 맡았다. 1594년 〈청훈련군병계(淸訓練軍兵啓)〉, 〈청광취인재계(淸廣取人才啓)〉, 〈전수기의십조(戰守機宜十條)〉 등을 올려 전시 대책과 시무책을 건의했다. 그 뒤에도 4도 도체찰사가 되어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의 군병을 교련하는 등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군비보완에 힘썼다. 1597년 이순신이 탄핵을 받아 백의종군할 때 이순신을 천거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여러 차례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에는 조선과 일본이 연합해 명을 공격하려 한다는 명나라 경략(經略) 정응태(丁應泰)의 무고에 대해 명나라에 가서 해명하지 않는다 하여 복인들의 탄핵을 받고 관작을 삭탈당했다. 1600년(선조33) 관작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저술활동을 하면서 은거했다. 1604년 호성이등공신이 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서애집》과 《징비록》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유정 劉綎 ?~1619 | 명나라 신종 때 무신으로 강서성(江西省) 출생, 자는 성오(省吾)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듬해 원병 5,000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싸웠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 1619년(신종47) 조 · 명 연합군이 요동 살이호에서 후금 군사

와 싸울 때 전사했다.

유형 柳珩 1566~1615 | 무신으로 자는 사온(士溫), 호는 석담(石潭),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사 김천일의 휘하에서 활약했고, 의주 행재소에 가서 선전관이 되었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해 남해현감이 되었으며, 정유재란 때 이순신 지휘 아래 전공을 세웠고 명나라 제독 진린을 곤경에서 구했다.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는 탄환을 여섯 군데나 맞았음에도 활을 놓지 않고 적선에 돌진해 싸우는 등 전공을 세워 부산진첨절제사에 특진되었다. 유형은 특히 이순신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정이 지극하여, 충민사 대첩비 건립 공사가 지연되자 죽을 때 유언으로 “충무공의 비가 서지 않거든 내 무덤 앞에도 세우지 마라”고까지 했다. 뒤에 경상우수사, 제5대 삼도수군통제사, 충청병사, 함경북도병사, 경상도·평안도·황해도병사가 되었다.

윤두수 尹斗壽 1533~1601 | 문신으로 자는 자앙(子仰), 호는 오음(梧陰). 이순신보다 12세 위고, 근수(根壽)의 형이다. 전라·평안관찰사를 거쳐 대사헌에 이르러 당파싸움으로 회령에 귀양 갔다. 임진왜란을 당해 선조가 다시 불러들여 개성에서는 우의정, 평양에 가서는 좌의정이 되었다. 갑오년에 세자 광해군을 따라 남으로 내려와 삼도체찰사를 겸했다. 전쟁이 끝날 때에는 영의정까지 오르면서 전쟁 중 대신으로서 큰 영향을 끼쳤다. 이순신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 해로운 존재였다. 그것은 그가 서인의 위치에서 동인인 유성룡과 항상 대립했기 때문이다.

윤선각 尹先覺 1543~1611 | 문신으로 자는 수부(粹夫), 호는 은성(恩省)·달천(達川),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1568년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1592년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왜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왜병이 침공하자 이를 막아 싸웠으나 패전해 파직당했다. 1594년 충청도순변사로 다시 기용되어 병조참판을 거쳐 1609년(광해군1)에 공조판서를 지냈다.

이경록 李慶祿 1543~1599 |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576년(선조9) 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이 되었고, 그 뒤 호조좌랑, 하동 현감, 고성 현감 등을 거쳐 경흥 부사가 되었다. 이순신과는 무과 동기생이다. 이순신이 녹둔도의 둔전관이던 시절 상사인 경흥 부사로 있었는데, 여진족의 침략을 받아 이순신과 함께 백의종군하게 된다. 1596년 2월 13일 일기에 이순신은 '제주 목사에게 청어, 대구 화살대, 건시, 삼색 부채 등을 보냈다'고 적고 있는데, 그때의 제주 목사가 바로 이경록이었으니,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광 李洸 1541~1607 | 문신으로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雨溪),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567년(명종22)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4년(선조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임진왜란 때 전라도 관찰사로 발탁되어 충청 관찰사 윤선각, 경상 관찰사 김수와 함께 왜적에 맞서 싸웠으나 용인싸움에서 참패했다. 그 문책으로 파직되어 백의종군했고, 그후에도 패전해 벽동으로 유배되었다가 1594년에 석방되어 고향에 가서 살았다.

이기남 | 무신으로 자는 대윤, 도승지 이사관의 아들이다. 광산 사람인데 순천에서 살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을 따라가 견내량 해전에서 왜적선 한 척을 깨뜨리고 적의 머리 일곱을 베었으며, 포로들을 도로 찾아온 공로로 훈련첨정에 임명되었다. 도양장에 감농관으로 가서 일을 보았다. 뒤에 선무원종에 참록되었다.

이몽구 李夢龜 1554~? | 무신으로 호는 석계이며, 본관은 공주(公州)이다. 능주에서 이시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순신이 부임할 당시부터 좌수영 본영의 우후(수사를 보좌하는 정4품의 외관직 무관, 요즘의 참모장에 가깝다. 수사 유고 시에는 군사 전반을 우후가 다루었다)로 있으면서 이순신을 도와 5년간 전쟁을 치렀다. 처음 출동 때는 유진장이었으며, 2차 출동때인 5월 29일에는 좌별도장으로서 왜적선 12척을 무찔렀고, 6월 2일에는 당항포에 이르러 금단선 1자루를 찾아 빼앗

았는데, 그것은 도요토미가 왜장수 카메이 코레노리에게 준 부신물(符信物)이었다. 정유재란으로 원군이 패망할 때 군기를 옮겨 신지 않은 잘못을 물어 이순신이 곤장 80대를 때리자 이함의 참소로 도피했다. 1605년(선조38) 선무원종삼등공신, 정3품 절충장군에 책록되었다.

이봉수 | 무신으로 자는 덕로, 호는 석계. 경주 사람으로 호조참판 이동명의 아들이다. 이순신의 휘하에서 중요한 나루터에 철쇄를 비치하고, 높은 봉우리에 망대를 설치했으며, 염초를 만들어 군용으로 공급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 당포, 석포, 사량포 등지의 싸움에서 연달아 왜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나중에 판관에 임명되었으며, 뒤에 선무원종에 참록되었다. 1635년(인조13)에 형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분 李芬 1566~1619 | 문신으로 자는 형보(馨甫), 호는 묵헌(默軒)이며, 이순신의 맏형 희신의 셋째 아들이다. 전쟁이 나자 성천으로 피난하여 그곳 부사였던 정구(鄭述)에게 글을 배웠고, 정유년에 충무공에게 와서 군중 문서를 맡아보며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는 외교 방면의 일을 보았다. 위인이 총명하고 교제에 능하여 조·명 장병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문과(文科)를 치러 벼슬은 형조정랑에 이르렀고,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던 일도 있었다. 이순신의 행록을 글로 남겼다.

이설 李潑 1554~1598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증호조참판 이언간의 아들이다. 양성 사람으로 1579년(선조12) 무과에 합격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 나대용과 함께 거북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좌별장으로 부산 해전에서 큰 공로를 세웠고,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전사했다. 뒤에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고, 통제사에 추증되었다.

이수광 李睟光 1563~1628 | 실학사상으로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峯), 본관은 전주다. 1585년 별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한 이후 조선왕조에서 가장 다사다난

했던 선조와 광해군, 인조의 3대에 걸쳐 44년 동안 대사성, 대사헌, 도승지, 이조판서, 공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일종의 백과전서로 유명한 《지봉유설(芝峯類說)》을 썼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지봉유설》 제1천문부에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은 우연히 그 사람이 벼락에 맞았을 뿐이지 벼락이 뜻이 있어 그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다”라는 실학적 견해를 표명해 쓴 점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에는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였으나 황간에서 패한 뒤 의주로 가 왕을 호종하였고,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을 깊이 흠모하였다.

이순신 李純信 1554~1611 | 무신으로 자는 입부(立夫), 시호는 무의(武毅)이며, 전주 사람이다. 종실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1578년(선조11)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 온성 판관, 의주 판관등을 거쳐 해산진 첨절제사가 되어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냈다. 뒤에 방답첨사로 기용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휘하에서 중위장·전부장으로 옥포, 합포, 적진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 등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이순신의 막하에서 중위장으로 노량 해전에 참가해 이순신이 전사하자 대신 전군을 지휘했다. 선무삼등공신에 녹훈된 뒤 완천군(完川君)에 봉해졌다. 인조 때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이억기 李億祺 1561~1597 | 무신으로 자는 경수(景受), 본관은 전주, 시호는 의민(毅愍)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에 올랐다. 경흥 부사로서 함경도에 가서 1581년 오랑캐 울지내, 니웅개를 막았고, 1586년(선조19) 울마치를 베고 선정을 베풀었다. 뒤에 순천 부사를 거쳐 전라우수사가 되었으며, 1592년에 이순신과 연합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순신이 통제사가 된 후에는 그의 휘하에서 가장 신임받는 장군으로 활약했다. 그 후 이순신이 무고로 하옥되자 이항복, 김명원 등과 함께 그의 무죄를 주장해 구명에 앞장섰다.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했다. 뒤에 선무이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병조판서로 추증되고, 완흥군에 봉해졌다.

이언량 李彦良 ?~1598 | 무신으로 자는 충민(忠敏), 본관은 개령(開寧)이다. 증병조판서 개령군 이익수의 아들이다. 1588년(선조21)에 무과에 합격해 훈련원첨정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휘하에서 나대용과 더불어 이순신을 도와 거북선을 만들었고, 거북선 돌격장으로 맹활약했다. 옥포, 당포, 견내량, 부산포, 당항포싸움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앞장서서 적선을 헤아릴 수 없이 쳐부수었다. 그 공으로 훈련원수부, 초계 군수, 부호군으로 승진했다. 1598년 노량 해전에서 명나라 도독 진린의 배가 적선에 포위되자 돌입해 구해 내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 뒤에 선무원종일등공신에 기록되었다.

이영남 李英男 ?~1598 | 무신으로 1588년에 무과에 급제했다. 1590년 울포 만호가 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원균이 도망하려는 것을 보고 옥포 만호 이운룡과 함께 이를 꾸짖어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일을 했다. 그 뒤로 모든 장수가 협력해 적을 무찌르는 속에 그는 항상 선봉장으로 활약했다. 정유재란 때 가리포 첨사로 조방장을 겸임했고, 명량 해전에서 공을 세우고 1598년 노량 해전에서 전사했다. 뒤에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이완 李莞 1579~1627 | 무신으로 자는 열보(悅甫)이며, 이순신의 만형 희신의 넷째 아들이다. 시호는 강민(剛愍)이다. 1599년(선조32) 무과에 급제해 의주 부윤을 지냈으며, 1598년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자 종형인 회와 함께 유명을 받들어 발상하지 않고 진중을 지휘하고 싸움을 독려해 대첩을 거두었다. 1623년(인조1) 46세에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을 토벌한 공로로 가선대부에 승진되었다. 정묘호란 때 싸움에 패해 무기고에 불을 지른 후 불 속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이운룡 李雲龍 1562~1610 | 무신으로 자는 경현(景現), 호는 동계(東溪), 본관은 재령(載寧)이다. 1585년 무과에 급제했다. 임진왜란 때 옥포 만호로서 원균의 휘하에 있었는데, 원균이 전선을 버리고 도망가려 하자 항의하며 전라좌수사 이순신

에게 구원을 청하자고 주장했다. 옥포 해전 이래 남다른 공로를 세워 원균의 부하로는 드물게 이영남과 함께 이순신의 신임을 받고 동지가 되었다. 1593년에는 용천 현감이 되었고, 당항포싸움에서는 우척후장으로 활약했다. 1594년에는 용천 현감, 1596년에는 이순신의 천거로 경상좌수사가 되었고, 1597년에는 육군으로 전출되어 영천의 창암 등지에서 접전했다. 1598년에는 도요토미가 죽은 것을 알고 도망가는 적을 막으려고 후퇴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입었는데 체찰사 이덕형의 변호로 무사했다. 이순신도 이운룡을 깊이 신임했으며, 더욱이 이덕형은 그를 휘하에 두고 일을 시켜본 연후에 ‘남도의 주인공’이라고 칭찬했다. 그 뒤에 다시 수사로 복직되었는데, 어머니의 급한 병을 듣고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가 되어 당시의 통제사 유형에게 문책을 당한 일이 있었다. 식성군에 겸해 도총부 부총관, 포도대장, 화기제조도감, 비변사 당상관이 되었다. 또 함경병사가 되어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내기도 했고, 1605년(선조38)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이순신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모함을 입어 충청수사로 좌천되었다가, 1610년(광해군2)에 집으로 돌아와 종기로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선무삼등공신에 책록되고 뒤에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이원익 李元翼 1547~1634 | 문신으로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69년 23세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조판서로서 순찰사의 일을 겸해 보았다. 1593년에 이여송이 평양을 칠 때 같이 참여했고, 전후 계속해 전쟁의 수고가 크다 해 승정(崇政)을 주었다. 1595년에는 우의정이 되었고 영남에 본부를 둔 사도체찰사를 겸했다. 이순신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가 그 인격을 존중했으며, 이순신이 옥에 갇힐 때는 장계를 올려 그의 무고함을 역설했다. 이순신은 출옥해 원수부로 갈 때인 1597년 5월 20일 일기에 ‘체찰사 이원익이 내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군관을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또 군관을 보내어 조문하고 저녁에 만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내가 어두울 무렵 찾아가 뵈오니 체찰사도 소복을 입고 접대한다’라고 썼다. 전쟁이 끝난 뒤 좌의정, 광해군 때는 영의정이 되었고, 광해군에 의해 귀양 갔다가

인조반정 이후 다시 영의정으로 복귀했다.

이응화 李應華 | 무신으로 전에는 첨사였다가 임진왜란 당시 방답진에 귀양 살고 있었는데, 이순신이 참퇴장으로 발탁함으로써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일 李鎰 1538~1601 | 무신으로 자는 중경(重卿), 본관은 용인(龍仁)이다. 1558년 (명종13) 무과에 급제해 전라도 수군절도사와 함경도 경원 부사를 지냈으며, 1586년 회령부사로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592년 순변사로 상주, 충주전투에서 패전했다. 임진강·대동강 방어전에 참전했고 1593년 평양 수복전에도 참전했으나 큰 공을 세우지 못했다. 그 후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한양 수복 후 훈련도감 좌지사, 충청·전라·경상 삼도도순변사를 지냈다. 1600년 함경남도 병사가 되었으나 죄를 짓고 소환도중 정평에서 병사했다. 이일과 이순신은 끝까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난중일기》 1595년 1월 21일자에 ‘순변사 이일의 처사가 극히 형편없고 나를 해치려고 무척 애쓴다고 하니 우습고도 우습다’고 적고 있다.

정걸 丁傑 1514~1597 | 무신으로 증참판 정승조의 아들이다. 자는 영중(英中), 호는 송정(松亭), 본관은 영광(靈光)이다. 판옥선과 화전, 철익전, 태충통 등 여러 가지 군기를 만든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다. 1544년(중종39) 무과에 합격했으며, 1557년(명종12)에 형 준과 함께 이준경의 휘하에 들어가 달랑싸움에서 왜선을 쳐부수었다. 1587년에 부안 현감으로 있었는데, 때마침 함경도 은성에서 오랑캐가 난을 일으키자 조정에서 은성 부사로 임명하고 방어하게 해 큰 공로를 세웠다. 1592년 이순신의 휘하에 조방장으로 있을 때 부산에 있는 적의 소굴을 없애버리자고 건의해 같이 나가 공로를 세웠고 이로 인해 충청수사가 되었다. 그 당시 권율이 해주에서 싸우다가 화살이 다 되어 큰 곤경에 빠지자 화살을 한 배 가득 싣고 가서 그것으로 승첩을 얻게 되었다. 여러 가지 무기를 고안해 내어 적을 미혹케 했기 때문에 왜적들이 늘 그의 이름을 무서워했다. 뒷날 선무원종공신에 참록되었다.

정경달 丁景達 1542~1602 | 문신으로 자는 이회(而晦), 호는 반곡(盤谷), 본관은 영광이다. 1570년(선조3)에 문과에 합격했다. 1592년에는 선산 부사로서 군병을 모으고 군량을 거두어 경상 감사 김성일과 병사 조대곤 등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선산 금오산 아래서 왜적과 싸워 큰 승첩을 거두었다. 이때 도체찰사 유성룡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그를 표창하게 했다. 김성일의 제청으로 의병도 대장이 되고, 강덕룡·정기룡·이해 등 여러 의병과 함께 죽령 아래 진을 치고 왜적과 싸워 여러 번 이겼다. 그러나 모략을 입어 잠깐 장흥 고을에서 지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3년째 되던 1594년 이순신의 특청으로 통제사 종사관 겸 삼남독발사가 되어 도원수 등에게 연락하는 일, 관하 여러 고을로 순행해 군병 독려, 군량 조달하는 일, 둔전과 목장을 보살피는 일 등에 진력했다. 1597년 이순신이 옥에 갇히자 도체찰사 이원익과 유성룡, 이항복, 선조에게까지 이순신의 인격이 고상하고 백성이 모두 그를 의지하는 실상을 들어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선무원종공신으로 참록되었다.

정언신 鄭彦信 1527~1591 | 문신으로 자는 입부(立夫), 호는 나암(懶庵), 본관은 동래(東萊)다. 1566년(명종2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1579년에는 우부승지에 서 함경도 절제사가 되었다. 1583년 이탕개가 쳐들어오자 함경도 순찰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이순신, 신립, 김시민, 이억기 등 쟁쟁한 무관들을 막하로 거느려 적을 격퇴했다. 1584년에 우의정이 되었으나 정여립의 일파로 모함을 받아 남해로, 다시 갑산으로 유배되어 갔다가 죽었다.

정운 鄭運 1543~1592 | 무신으로 자는 창진(昌辰), 본관은 하동(河東)이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훈련참군 정응정의 아들이다. 1570년 무과에 합격해 훈련원봉사, 웅천 현감, 해주 판관 등을 지냈으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미움을 받아 수차 파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녹도 만호로서 직속상관인 이순신에게 달려가 나가 싸울 것을 극력으로 주장했다. 옥포, 당포, 한산 해전 등에서 늘 선봉에 서서 큰 공로를 세웠으며 부산 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순국했다. 그가 죽자 적들이 “정 장군이

죽었으니 이제 쉽다”고까지 한 것을 보면 적들이 그를 무척 무서워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병마절도사에 추증되고 다시 병조참판에 가증되었다.

정탁 鄭琢 1526~1605 | 문신으로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이항의 문인이다. 1558년(명종13)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이조참판, 우찬성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 좌찬성으로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고, 1594년에 우의정, 1600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호성이등공신에 책록되고 서원부원군에 봉해졌다. 박학다식해 경사 외에 천문, 지리, 상수, 병법까지 정통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광재우, 김덕령 등 명장들의 뒷받침이 되어 그들 모두 큰 공을 세우게 했다. 특히 이순신이 무함을 당해 하옥되었을 때는 극력으로 신구해 죽음을 면하게 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조헌 趙憲 1544~1592 | 문신, 학자, 의병장이다.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이고, 본관은 백천(白川)이다. 1567년(명종22) 식년문과에 급제했고, 1575년(선조8) 호조·예조좌랑, 경기도 통진 현감, 전라도 도사를 거쳐 1582년(선조15) 보은 현감을 지냈다. 호를 후율이라 할 만큼 율곡을 경모했다. 1589년 동인의 전횡을 규탄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길주로 유배되었고,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1591년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 겐소 등을 목 벨 것을 상소했다.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700명의 병을 이끌고 끝까지 분전했으나, 청주성 수복 후 금산성 공격전에서 중과부적으로 함께 싸운 의병들과 함께 전사했다.

진무성 陳武晟 1566~? | 자는 사규(士規), 호는 송계(松溪),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여주 사람으로 증참판 진인해의 아들이다. 27세에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가 군관으로 있으면서 당포 해전 때부터 공로를 세우기 시작해 용맹을 드날렸다. 특히 1593년 진주성이 함락되기 직전 진주가 포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적의 동태를 탐지하여 적을 패퇴시키는 데 크게 공을 세웠다. 이순신이 옥에 갇힌 동안에는 원균 휘

하에서 지내다가 한산진이 무너질 때에 홀로 화공으로써 적선에 맞섰으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 34세에 무과에 합격했으며, 유원 첨사에 임명되었다가 경흥 부사, 통제영우후, 구성 부사를 지냈다. 1647년에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참록되었으며, 호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최대성 1553~1598 | 무신으로, 자는 대양(大洋)이며, 1592년에 이순신의 군관으로서 첫 출동 때 한후장으로 활약해 적선을 사로잡았다. 1597년에는 송대립 등과 함께 예교전투에서 이겼으며, 보성 안치 아래에서 왜적과 싸울 때 100여 명을 무찌르고 기진맥진한 끝에 적탄에 맞아 두 아들 언립, 후립과 같이 전사했다. 뒷날 영조 때에 이르러 정려를 세우고 참의에 추증되었다.

황석공 黃石公 | 중국 진나라 말의 은사(隱士), 병법가(兵法家)이다. 장량에게 병서를 전해준 노인으로, 장량은 이 병서를 읽고 한나라 고조의 천하 통일을 도왔다.

황윤길 黃允吉 1536~? | 문신으로 자는 길재(吉哉), 호는 우송당(友松堂),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1561년(명종1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1585년 황주 목사를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1590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도요토미를 접견하고 이듬해에 귀국해, 장차 일본이 내침할 것이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은이 소개 | **이순신 李舜臣** (1545~1598)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 서울 건천동(현재 서울시 인현동) 출생. 처음 무과에 응시한 28세에는 낙방했고 32세 때 무과에 급제했다. 승진과 좌천, 파면과 복직을 거듭하다가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다. 다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 1593년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으나 1597년 왕명을 어겼다 하여 투옥되었다가 정유재란 때 풀려나 백의종군했다. 그해에 조선이 칠천량에서 대패, 수군이 궤멸되자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고, 두 달 뒤 명량에서 13척의 배로 3백여 척의 일본 수군에 대승을 거뒀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 179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2년 후 정조의 지시로 문집인 《이충무공전서》가 간행되었다.

옮긴이 소개 | **이은상 李殷相** (1903~1982)

시조 시인이자 사학자. 호는 노산(鷲山). 경남 마산 출생. 1923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현대 시조의 개척자로서 <가고파> <봄처녀>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광복 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 호남신문사 사장, 이충무공기념사업회 이사장,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영남대 교수 등을 지냈다. 전서본과 친필 초본을 합쳐 역주(譯註)한 《난중일기》는 이후 나온 대부분 국역본들의 바탕이 되었다. 1960년대에 《이충무공전서》 국역 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노산 시조집> 《이충무공 일대기》 《조선 사화집》 《노변필담》 외 다수가 있다.

난중일기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5년 11월 1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교열 |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